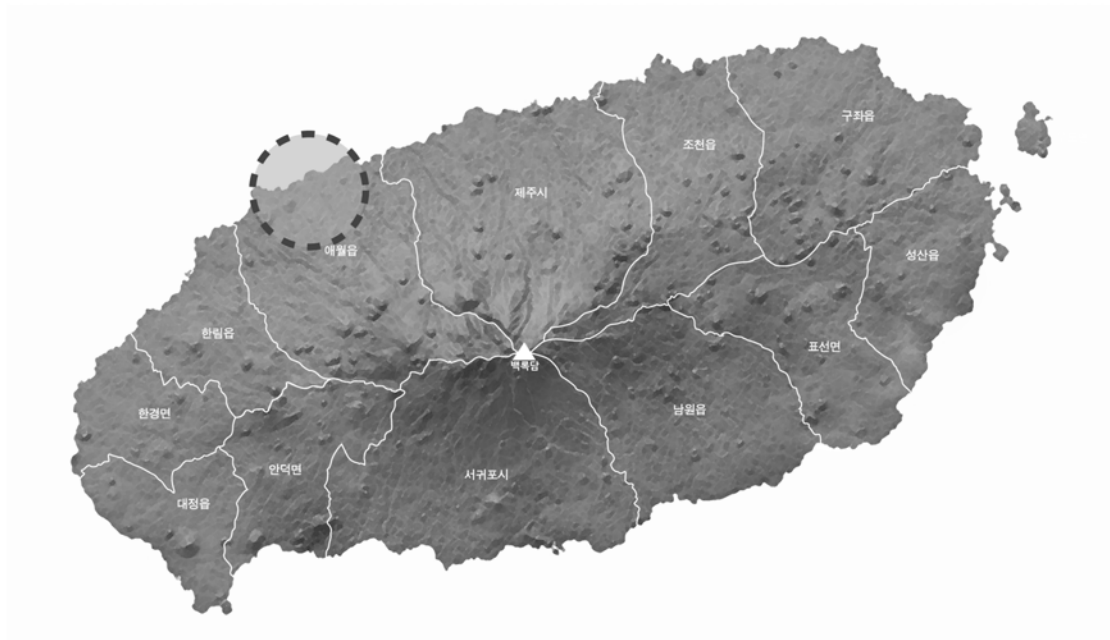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65-01

2016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36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성용
조사지점: 애월읍 구엄리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2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2016년 12월 30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36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10

제2장 애월읍 구엄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1
2.2. 조사 기간	11
2.3. 조사 항목과 내용	11
2.4. 전사	13
2.5. 장비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4	2. 제보자 일생	24
3. 밭일	45	4. 들일	150
5. 바다일	186	6. 의생활	211

제2절 어휘

1. 인체	227	2. 육아	233
3. 친족	240	4. 의복	244
5. 음식	249	6. 가옥	258
7. 생업	263	8. 수와 단위	276
9. 민속	279	10. 신앙	282
11. 자연	282	12. 동물	290
13. 식물	300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돈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돈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3차년도-2016>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성용(귀일중학교 교감)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최연미(돈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읍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존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애월읍 구엄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홍춘호(여, 1938년생)

김여환(남, 1939년생)

홍창자(여, 1941년생)

2.2. 조사 기간: 2016. 3. 21.~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마을	구술 1. 조사마을	김여환 홍창자	47:48	○
2. 제보자 일생	구술 2.제보자일생,	김여환 홍창자	1:14:14	○
3. 밭일	구술 3.밭일(보리농사, 조농사, 콩농사)	김여환 홍창자	2:13:12	○
	구술 3.밭일(밭벼농사, 고구마농사, 기타농사)	김여환 홍창자	2:16:01	○
4. 들일	구술 4.들일(소 기르기~사냥)	김여환 홍창자	1:54:03	○
5. 바다일	구술 5.바다일, 6. 의생활(옷감~무명)	김여환 홍창자	1:55:03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무명~삼)	김여환	20:28	○

	구술 6. 의생활(도구~모자) 구술 7. 식생활(밥)	홍창자	1:39:25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국~범벅과 수제비)	김여환	42:15	×
	구술 7. 식생활(김치~장 담그기)	홍창자	44:39	×
	구술 7. 식생활(떡류~소와 고물)	홍창자	40:34	×
8. 주생활	구술 7. 식생활(별식 ~ 기타)	김여환	43:17	×
9. 신앙	구술 8.주생활(구조~연장) 9. 신앙	홍창자	1:19:46	
10. 세시풍속	구술 10.세시풍속(정월~12월)	김여환 홍창자	1:26:27	×
	구술 11. 놀이(연~자치기)	김여환 홍창자	24:42	×
11. 놀이	구술 11. 놀이(말타기~굴렁쇠)	김여환 홍창자	46:32	×
	구술 11. 놀이(깡통차기~한다리인다리), 12. 통과의례(출생~혼례)		1:00:01	
	12. 통과의례(상례)		43:23	
12. 통과 의례	구술 12. 통과 의례(제례,) 13.민간요법(기계충~헌데)	김여환	44:56	×
13. 민간요법	13. 민간요법(종기~기타)	홍창자	55:44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얼굴과 머리)	김여환 홍창자	44:20	○
2. 육아	어휘1. 인체(얼굴과 머리) 2. 육아(발달~재롱과 놀이)	김여환 홍창자	44:13	○
3. 친족	어휘2. 육아(생리와 질병) 3. 친족	김여환 홍창자	50:36	○
4. 의복	어휘 4. 의복	김여환 홍창자	45:21	○
5. 음식	어휘 5. 음식(주식~부엌과 그릇(추니))	김여환 홍창자	56:08	○
6. 가옥	어휘 5. 음식(부엌과 그릇(담배)~달이다) 6. 가옥(형태와 배치~내부 구조(땃돌))	김여환 홍창자	45:18	○
7. 생업	어휘 6.가옥(내부 구조(흙)~연장 7. 생업(농업(낫))	김여환 홍창자	41:26	○
	어휘 7. 생업(농업(베다)~풀매)	김여환 홍창자	43:43	○
	어휘 7. 생업(농업(썰기)~기타(갓다))	김여환 홍창자	47:14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9민속	김여환 홍창자	39:06	○
9. 민속				
10. 신앙	어휘 10신앙. 11.자연(들~시후),	김여환 홍창자	51:49	○
11.자연	어휘 11.자연(들~시후), 12. 동물(가축~벌레와 곤충(장수 풍뎅이))	김여환 홍창자	45:44	○
12. 동물	어휘 12. 동물(벌레와 곤충(무달벌 레)~바다 동물	김여환 홍창자	39:21	○
13. 식물	어휘 13. 식물1 (풀 ~ 나무)	김여환 홍창자	41:19	○
	어휘 13. 식물2 (열매 ~ 바다식물)	김여환 홍창자	14:38	○

<__>는 다른 항목의 조사가 하나의 파일 저장된 경우이다.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김성용, #1: 김여환, #2: 홍창자)

1. 조사 마을

101001 @ 오늘은 저 구엄리 와시난 양, 구엄리 마을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해 봅서.

101001 #1 여기 설촌은 흔 우리가 알기로는 양, 스백오십년쯤 되는데 구엄이 그 삼엄, 중엄 잇고, 신엄 잇고, 또 용흥 잇고, 이 스방에 부락이 잇는데 구엄이 제일 그 네 부락 중 문제 설치가 되십주게. 경 사람이 살았는데, 계난 저 이제 모감물이 라고 잇수다게. 모감물 잇고 원물이 이신디, 저 원물하고 모감물 중심으로 옛날덜은 사름 사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아니우파. 그 물따라 츄츄 살아 온 것이 요 베릿골이렌 흔 동네가 잇고 거기 또 당할망비가 잇수다. 계난 송씨 할망이엔 흥영 지금도 저 거 뭐 일년에 흔 번씩 제를 지냄수다마는 그 당할망 중심으로 행 거기 베릿골 최초에 구엄 생겨날 때 베릿골에서부터 사름이 살기 시작해십주게. 게 츄츄 사는 것이 지금 웃 동네 알동네가 생기고 츄츄 저 모감동이 생기고 요이렇게 흥연 츄츄 구엄 마을이 형성됐언 지금 제일 계난 아직도 성씨 한 것이 송씨, 송씨 할망이 제일, 송씨덜이 제일 하고 그다음에는 고씨 계난 이게 항상 부락에 옛날도 구장 선출할 때도 이제 송씨하고 고씨하고 이제 서로 대결을 협주게. 경흥연 이번에 송씨 집안에서 구장이 나오고 구장 흔 번 해난 다음엔 고씨 문중에서 이제 구장을 흔 번 하고, 송씨하고 고씨 항상 대결하명 살아온 것이 그렇고, 옛날 여기 거 신우면 이라고 해서 지금도 저 비석거리 가든 비석이 옛날 비석 저, 어릴 때 췌 맥이레 가든 비석거리 동산이 잇수다. 계든 그 옛날 어느 그 목사가 넘어가다가 아 여기구나 엄장이라고 해서 너무 좋다. 바당완 보고 흥연 그 목사가 흥기를 아 일로 여기를 면을 헤시든 좋겟다 해 가지고 거 사또가 이제 그런 유래로 헨 돌아봐가지고 여기를 엄장면이렌 해 낫수다. 겐디 그 후제 애월러레 갔는데 면이 애월은 물이 좋아 하물이라고흥연 그 물따라 사람이 하영 사난 여긴 물이 셔도 구엄에는 큰 물이 어섯수다게. 아까 고른 모감물하고 저 원물하고 아 요거 두 가지로 헤가지고 사람이 물을 먹언 살았는데 물이 하지 안타보난 아메도 사람이 덜 살아십주게. 게 애월러렌 사람이 크고 물이 크고 허난 면도 뺏기고 계난 이제도 엄쟁이 엄쟁이 흔 것이 옛날 지금 바당에 강 보든 뒤후루 뒷맹이라고 잇수다게. 거 강보든 참 지금은 많이 부셔부런 옛날 어려우난 마을에서 추강할 때 우리 알아져마썸. 서부두 추강할 때 그걸 발파로 헨 문딱 부수명 식거가서마썸. 게 그 돌로 추강을 허다보난 거기는 바닷가는 촌 많이 헐어지고 지금 경치 존 것이 하영 어서진디, 게 앓으든 그 저 경치

가 뒤후루 뒷맹이엔 허영 좋은 경치 게 그것이 엄장, 거 저 바위엄자 써가지고 이 거는 이제 그걸 하나 해 가지 엄장이라 해 가지고 구엄리 설촌을 이제까지 하고 잇수다게.

101001 @ 거 혼 땃 년 땃수가?

101001 #1 게난 지금 땃 우리가 추측헌건 혼 스백오십년쯤 땃지 않을까 땃 그렇게 추측헬신디, 확실헌 거는 유래해도 땃 이 마을에도 문서가 엇고 헸다보난 입으로 전해 온 것이 스백오십년쯤 마을이 형성땃 것이 땃 걸로 추측을 헬 알암십주게.

101001 @ 그러면 구엄리는 저 자연부락 땃 개가 땃니까?

101001 #1 자연부락은 웃동네 싯고, 알동네, 또 저 동카름, 배릿골, 지금은 또 중간에 이제 저 대흥동이라고 한질 웃동네 거기 생겨나고 쟁 허연 각 자연부락은 그렇게 헬 이제 생겨나십주게. 이제까지도 도에 행정상 구역도 그렇게 헬 이제도 웃동네 알동네 영 생겨나불곡 허영 헵는다.

101002 @ 그 다음에 구엄리는 주로 성씨가 무슨 성씨가 잇수가?

101002 #1 아 주로 송씨, 최초에 송씨는 저 이 구엄을 형성하는 첫째 거 송씨 할망지라 송씨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는 고씨, 고씨 문중, 그 외에는 이제 나중에 땃 김씨라,

101002 #2 강씨도 하신디.

101002 #1 강씨.

101002 #2 강씨가 하.

101002 #1 예.

101002 #2 시 번째

101002 #1 강씨 집안에는 세 번째는 강씨고, 그 외에는 땃 김씨여, 박씨여, 이씨여 이렇게 조금씩 경 살곡.

101002 #2 김씨, 세 부락이 질 하주. 시 가지가.

101003 @ 그 다음에 요 구엄리 사름들은 무슨 일 허명 살암수가?

101001 #1 지금 전이는 구엄 저 옛날엔 나도 해 낫수다마는 소금빌레허영 경 살곡, 알동네는 이제 땃 바룻칠허영 꿩기, 꿩기 낙그곡 또 자리 거리곡, 정 알동네 사름덜 거 어업을 중심헬 흥곡 웃동네 사름들은 또 바당흥고 머난 거 밧디 농스헬 그 자 조 보리 허고 경, 이제 감제흥고 산디흥고 영 나룩 조금 흥곡 허명 살암십주게.

101003 #2 밧들이 경 널르지 아니 허난 멘딱 질왓이곡 헤노난.

101003 #1 쟁해도 영 잘 이제까지 산 거 보문 알동네 사름들이 바당에 바룻칠허영, 흥은 이제 꿩기 잡앙 웃드르에 강 풀른 돈을 문제 받읍주게. 아메도 경허난 알동네 사름들이 잘 살암주게. 이제는 골라졌수다마는 옛날에 그렇게 살아십주.

101004 @ 그 다음에 요 구엄 주변에 양 오름, 내창, 바위, 굴 등이 잇으면 소개 해줍서.

101004 #1 여기 구엄은 저 지금 보이는 수산봉흥고 또 그 이 쪽에 저 원내창이라고 잇수다. 내터지른 거난, 원내창 또 이 저 굴은 말라리라고 허영 바당 이염에

가든 지금은 그 저 하과, 연날 바위덜 하영 돌 캐 가부난, 것이 굴이 하영 메와졌는디 옛날엔 말라리엔 허영 또 강 보든 그 굴 저 돌 캐가기 전엔 양 사름 치가 들어가게 혼 디 잇수다.

101004 #2 사름 막 하영 곱아 그디강.

101004 #1 거 춤 췌것도 나오곡 경 혼텐 흥는 디 거 가든 저 그런 말 들어지난 영 강 바당에 몸 곱으레 강 영 강 그 즈깃디 강 보든 좀 머리가 으시시 헛 거 양. 믁스와마썸. 그디 자꾸 헛게도 나고 영 허영 비나 오곡 허영 거 저쪽에 당아래라고 잇수다. 거긴 가든 또 아기 흥그는 소리가 나. 거 우리도.

101004 #2 날 우치젠 헤사. 비오젠 흥민. 우치젠 흥민.

101004 #1 비가 오곡 어떻 날이 칩칩허민.

101004 #2 아기 흥그는 소리가 나곡. 게 물질레 갓당 믁스와그넹 그 즈깃디 물질레 갓당 믁스와그네 올명도 와 나곡, 양, 늑이영 궤치 가사. 그 때문에 믁스와.

101004 #2 그루 후젠 하과흥명 돌들 막 부와가나그네, 그것이 흥끔 저 그추룩 쯔주 아니 허여. 쯔주 아니 허영 막 메칠후제 아기구덕 흥그는 소리 남저 남저 헤도 우린 막 벋들 허여그네 물질레 가게 허벅 정 물질레 가게, 가곡 헤 낫수다게. 게난 믁스왕 못강 즈깃디 아기구덕, 게난 세백이도 못 가곡 저 헛게 가기전이 저 물 강 질어오젠 흥민 어명덜은 아기 췌 맥이곡 허젠 흥민, 가게 가게 흥영. 춘화영 우리 잘도 가 완.

101004 #1 게고, 저 셋물 뵤디엔 흥영 그 중엄 물 저 이제도 물 큰 물이 남수다게. 바당물 나든디 지금 연날 담지 아니허영 그 샘물 동산 이펜이 허든 헛게가 많이 나나서마썸. 거기 행 허든 밤이는 믁스왕 글로 넘어가질 못허여. 비가 치치고 나도 양, 거 해안 근무허명 거기 샷단 스못 저 똥줄이 나낫수다게. 믁스왕.

101004 #2 게난 구엄물은 저 아래 췌 월동사름들이 질레 가젠흥민 멀고, 물이 그디 쪽아노난 그디 으라이 가노민 허벅 부릴 디가 어성. 게민 저 샘물동산에 중엄 더레 요 궤큰 질로 허여그네 그레 가그네 질레 가든 그디 막 중엄은 널른 물이난 우리 으라이 질레 가도 으라이 벋허영 가지 안허든 믁습곡. 으라이 가든 그딘 허벅 부릴 디가 하그네 허곡. 일로 저렌 모감물흥곡 원동 사는 물은 허벅 부릴 디가 죽아마썸. 돌덜 옛날 하르방덜은 돌덜 죽게 놔신고라. 경행 재게 간 사름이 허벅 정 궤치 오곡 경 아닌 사름은 저 물 질어난 다음 물도 졸졸, 질어난 다음 질 췌 흥민 막 오래곡. 샘물뵤딘 가든 허벅채 디무랑그네 구석드레 들러놔 경흥난 재게 늑광 궤치 와지곡. 경흥난 중엄물이라도 올로 구엄 강 멀지 안헌디난 그레 자꾸 가집니다게. 서답허레도 그디 가곡. 서답허레도 가. 이딘 가든 막 샘물뵤디 모감이영 구엄은 물이 경 췌 디보단 좋지 아니허여마썸. 좋지 아니허영 허든 사름은 하영 살아도 좋지 아니허영 허든 저 중엄더레 샘물뵤디레 가명 그디강 똥지성귀도 뵤곡 아기웁덜도 느랑 뵤아낫수다게. 예, 지영 강. 모감이영 구엄물에 가든 사름은 한한허영 가곡 저 왓당 물 졸졸 나난 양, 하지 아니허영 못허여. 양 멀어도 흥썰 멀어도 벋덜허영 우리 저 물질레 가렐 허영 벋 아니허민 믁스왕으네.

101004 #1 샘물동산이 귀신 나시난 거 저 뭐 잇는디 옛날은 거기 혼 번 거 혼 여름 지나나쁜 거기 양 아기구덕도 빈주룽허곡 거 연날은 저 아이덜이 전렴병 뛰 허른 혼 여름만 지나쁜 아기무덤이 양 빈주룽케 서 마썸. 거 아기구덕도 거기.

101004 #2 바당이엄더레.

101004 #1 바당이엄에 공쳐 문을 디 어시난 줌팍만썸 팡으네 춤 슬픈 일이우다 마는 그렇게 허영 한 동안 허단 이젠 해안도로가 난 문짝 밀어부난 그런 흔적이 었 수다만, 옛날은 그렇게 허연 양.

101004 #2 새출 올레 아기덜 문은 트명으로 물 질레 가쁜 믱습곡, 벳헝 가게, 벳헝 가게, 물질레 허벅텅이 정 강. 구웁은 물이 나뻡 옛날부터 물이 경 좋지 아니허 영 험디다게. 사름은 하 밧자 저 물이 나빠. 다 원동산 가곡 모감물 가곡. 저 산 소 굽이서 나오는 물 팔팔팔 허민 샘물벳디레 츠록 물이 혼뻘에 막 하영 왕, 사름 막 몸 굽곡 그디 가쁜 지성귀덜 뿔곡 대백이 물 질어낭 지성권 독지에 놓곡 경 행으네 헤 낫수다마는.

101004 #1 원내창이라고 해서 저 아까 곁은 내창, 거기 으름에 이제 거 장마지쁜 내 터집주게. 큰 비 오고. 경 우리도 내 터정 강 궁이 심으레 가자. 강. 그 지금은 양 농약덜 치곡 해부난 양 었는디 웃드리서 궁이덜 살당 큰물 오쁜 궁이덜이 꼬성 것궁이라고 털 돌곡 큰 궁이덜이 그 알러레 꼬서왕 바당이엄에 가쁜 양, 그것이 이제 문 돌 올라오는 거 뻗 번 잡으레 강 보쁜 양 침 큰 궁이덜이 이만썸헝 것이 잡 혀지곡 허는디, 이제도 그디 강 보쁜 궁이 살아난 거기 구멍이 물엔 시난 아직도 궁이 잡곡 허는디, 그런 추억도 잇곡 뭐 이 또 바당인 가쁜 거긴 삼밧달이라 이제 도 삼밧달, 삼밧달, 것이 요렇게 형성헝 흐른 수만년 전부터 물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허단 또 산에 물 터지쁜 돌 꼬서오곡 돌 물리곡 허당 보니까 자갈이 그디 모레 영 양 이제도 짐뻍 신게 춤 문썸헝 자갈로 경치가 좋아낫수다게. 거기 흐른 또 저 포켓동산이라고 허영 거기 삼밧달에 연날 우리도 제 지낼때 자꾸 얻어먹으레도 가 왔수다. 거 가쁜 으름에도 포켓, 으름에 더운 때 지냅주. 8월 이제 7월절 들쁜 입 제헛당 제를 지내는데 거 가쁜 흘기도 불곡 허영으네 우리도 참 돛궤기도 요만썸헝 거 석점헝곡 뭐 떡 해나쁜 흥끔 썰곡 허영 거 먹으레 이제 으름에도 가 오곡, 그런 추억 다 잇고, 또 이 저 빌레에 가쁜 우리도 빌레 해나쁜 양 그 예길 좀 드리쿠다. 으름에 밧디 검질 메당 방학만 뉘쁜 검질에 밧청 메날 허당보쁜 검질 메당 보쁜 이 으름방학이 다 넘어마썸. 경 허는디 집이서 이제 부모네덜은 검질메당 강으네 저 빌레 지칭 오라 허쁜 얼마사 기쁘디 양, 빌레 지치레 가쁜 이제 바당에 강 히곡, 춘 물 그레 이제 바가쓰로 두레박으로 행 떠 낭 줌팍으로 거려낭 이제 연날은 이제ㄱ 치 담지 아니허영 바당물이 공해가 어섯수다게. 게난 이제 바당물 질어당 허곡, 더운 디 물에강 히곡, 좀 시간이 어서십주게. 게쁜 빌레지치렐만 흐민 지꺼정 강 침 헤 나곡, 이 그런 추억이 잇수다게. 또 빌레엔 어떻허냐 허쁜 그 으름 이츠히 더운 디 양 자꾸 혹은 돌은 뜨겁주마썸. 널직헝 빌레에 영 물 어신더레 것도 줌팍으로 영헝 물 곁른 걸 걸렐 캐우려, 게쁜 그디 것이 이제 거 뜨거운 벳에 물르명 저 헤

가든 것이 뜨거워가든 그냥 것이 짠물이 돼어가는 거. 게 그냥 막 어떤디는 오래 허민 돌소금이엔 허여, 그냥 그 물로 그냥 저 소금이 돼고, 건 오래 지쳐사, 또 그냥 허는 소금은 이제 혼 열흘이나 보름쯤 그걸 해 노른 소금 돼기 전이 물이 영 해 보른 막 짜마썸. 그 물을 이제 영 천낙?으로 흰 폭이라고 이서, 동글락허게 노람지 씨우곡 행 그레 문딱 춘 물을 퍼 놔 마썸. 비나 오게 돼든 그거 물 젖어불든 이제 깎지 빌레 지친 건 헛수고라, 게난 걸 ㅋ콜 폭에 담앗당 또 다음 그 물만은 족으난 또 혼 번 이제 두 번, 시불에 다 헛주게. 게든 시불 물 허연, 두 불 물 허연, 영 허 영 빌레에 어느 정도 영 호끔 하영 해지든 그뎨 허벅으로 허영 대백이엔 허영 집더 레 지어당 궤약이엔 허영 영 밋치는 것 이서서, 쉼가죽 물리운 걸로 허영 아래 물 흘러도 이젠 비니루도 시난 옛날엔 그런 거시 어시난 쉼궤약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로 행 밋처당 이제 집더레 지어당 솟티엔 허영 보통허든 소낭 물린 거 술잎이엔 허 영 여기선 그것이 저 지름기 싹고 허난 잘 붙읍니다게. 에이 거 소금 술맘직하든, 소금술맘직하든, 흥명 지들께 그거 특별히 나 두엇당 소금 숨을 때만 해 마썸. 밥 해 먹을 땐 예경 놔뒀당 허곡, 걸로 이제 ㅂ짜허영 밥 솟디 술뜨든 그것이 물 거의 뿜영 영 올앙 보른 양 소금이 해영께 큰 반 솟썸 혼 솟 물 ㄱ뚝허영 흥든 나옵니다 게. 걸 ㅂㅂ 허영으네 뱃디 물리왕 거 헛당으네 허든 구덕에영 뭇세영 저당 옷드리 에 강 곡식에도 쓸도 반앙 보리영 바짱 허곡 뭇 허곡 헛주게. 것도 잘 해사. 게 아 니든 벌써 뜬 사름 폴아동 강, 하루 종일 정 데녀도 못 풀 때도 하고. 소금빌레 흥 든 겐디 밋디 농사보단 호끔 나사마썸. 경허연 아직깎지도 소금빌레 싹수다게. 어촌 계에서 소금은 아니 험수다마는 멩그란 놔뒀썸주게.

101005 @ 게고 여기 저 구엄리에는 어떤 기관들이 잇수가?

101005 #1 구엄에 여기 흥든 저 첫째 구엄국민학교가 싹고 기관이엔 흥민 또 저 신엄중학교가 싹고 양. 네 부락이 이제 구엄, 중엄, 신엄, 용흥 네 부락에서 국민학 교 흥고 중학교는 신엄중학교, 또 여기 니 부락에서 합친 저 농협이 싹고, 지소로, 그 외에 뭇 기관은 별로 엇수다게.

101005 #2 니사무실이영.

101005 @ 복지회관

101005 #1 아, 복지회관이 잇고, 니사무실이 잇고. 어촌계가 잇고.

101005 #2 어촌계 사무실이 잇고. 그추록 그런 스스흔 기관, 옛날부터 큰 뭇시 어섯수다게. 국민학곤 구엄으로 허난 구엄사름덜이 더 뭇 해 마썸, 이제 구엄 학교, 구엄 학교, 옛날부터 해나난. 겐 아이덜도 구엄학교 감저, 구엄학교 감저. 신엄 학교 엔 아니허여마썸. 중엄 학교엔도 아니흥고. 이 국민학교, 구엄 학교, 구엄 학교, 이 구엄 제일 처음 기관이 거 마썸. 리사무실이영, 리사무실이라 무신, 공회당, 공회당 이영, 이제 공회당 ㄱ뜬 디영 그런 거 호끔.

101005 #1 겐디 마을에 큰 기관은 그것뿐이우다게.

101005 #2 이제사 복지관이여, 무신 이사무실이여 험주, 옛날에 공화당 하나 흥 고, 우리 공회당에서 야학 해 낫수다. 야학.

101006 @ 그 다음에 구엄리에 옛날 계덜 잇잖우짜? 계.

101006 #2 제?

101006 @ 예, 제, 제, 그거 흔 번 말해 봅서.

101006 #2 인향제여, 화단제여.

101006 #1 옛날 뭐 흐른 저 화단제가 싯고. 또 무신 잔치집이 허는 가메제, 가메, 거 저 잔치들른 새각시 모성가는, 그것도 제 안 흐른 안 빌려주곡. 가멧제 잇곡, 또 화단제엔 허영 사람이 돌아강 죽으른 그레 저 묻는 거, 것도 제 행 얼마 돈을 내, 쫄로 받으주. 쫄로. 쫄 흔 돼, 두 돼 영 행 받으른 이제 그것이 츠츠 메와지른 사람이 하영 죽곡 흐른 때 헤 연말에 그걸 쫄 계산허영으네 돈 흐곡.

101006 #2 옛날엔 심방들 왕으네 감예도 미어가곡. 경.

101006 #1 제는 그렇게 허영 무슨 제 무슨 제 헛자 그것이 제일 크고, 이.

101006 #2 무사, 포제엔 허영 바당에 이제 할마님 제영, 이제 그런 제도 으라게 잇수다. 포제도헤 나고, 바당에 크게 헤 낫수다.

101006 #1 그거라게, 계.

101006 #2 계? 겐 그런 뭐.

101006 @ 사발제?

101006 #2 사발제, 사발제.

101006 #1 사발제도 싯곡. 경 헨 멧이 영 돌아가명.

101006 #2 상제도 잇고.

101006 #1 상제가 이서. 상젠 뭐냐 흐른 잔치때 ㄱ튼 때 상 빌레 데니명 전 인양, 이런 이제 ㄱ트면 큰 상 허영 쪽 잔치침이 허는디, 아 전인 영 외상으로 그냥 흔 상으로 흔 사람이.

101006 #2 잔치허젠 허민 막 빌레 땡기젠 허민.

101006 #1 동넨 다 땡겨야 허여. 상제 준 사람들은 ㄱ만이 아지른 아 누구네 오늘 잔치여 흐른 게 데려당 다 거기도 계 주인이 싯곡 뭐가 이서, 책임자덜이. 계른 잔치홀 때 ㄱ튼 때는 그 집이만 강 곁으민 다 해줘.

101007 @ 그 다음에 이 마을엔 어떤 풍습들이 잇수가?

101007 #1 뭐 저 이.

101007 @ 뭐 당에 땡긴다거나.

101007 #1 당할망제 흐른 당할망제 저 음력 정월 초정월 ㄱ 넘으른 이제 저 제를 지냅니다. 이제 거 허게되른 정자 든 날 거 저 정묘일 요런 날만 들영 이제 어디강 책 뵙 왕 제 지내곡 제 지낼 때는 제관 뵙는 디도 뵙으네 상제 안 들곡 그 집이 깨끗흐곡 마을에서 영 뵙 흐끔 게도 밥 적이나 먹곡 흐끔 덕이 잇다 흐른 분을 제관을 흐른 거 당할망제는 제관을 이제 거, 제관흐고 다시 집사흐곡, 딱 전사관이라고 이서, 도새기 잡앙 거기 시정흐고, 전사관 행으네 제를 지냅주게. 게민 미릿 도새기 사당으네 것도 검은 도새기로 이 하양 거나 털 얼룩진 거는 제관으로 안 지낸, 옛날은 다 행 토종 도새기 까망 걸로 사당 걸 시쟁허영 호민 물 꿰왕 들렁 그

스리질 안 헛수다. 전인 듯 잡앙 그스리는데, 갱 이제 거 손으로 뽕곡 행 나중에 저
 돛술은 폴아 먹곡, 갱 제 행 이제 거 제 지냅주게. 산 채 잡앙 내장 문딱 빼 놓곡
 허영 딱 흥게 침 할머니 앞더레 올령으네 노민 정밤쫘 뒤편 축 이제 세 번 고허곡
 행으네 제를 지냅주게. 게른 거기서도 제 지내당 자축, 대축이라고 허영 축도 익곡
 허는디 세번쫘 축을 고합니다. 나도 침 으라번 제를 지내봤는디 이제 경 흥끔 이제
 거 대충 행 제 익곡, 거 동네분덜토 아 뭐영 허든 거 놀레와 마썰. 그날 제 지내든.
 몸이나 굿지 안은 사람덜은 왕, 집이 몸이 굿거나 상제, 영장밧디 간 이런 사람덜은
 이녁낭으로 가질 말고. 갱 행 거 강 또 밤중 뒤편 제 지내곡 그거 그 후제 또 돛
 잡앙으네 슬망 썰영 해 가든 두 세시 뒤편주게. 밤이, 경 행 또 먹곡 으름엔 저 이젠
 어서젓수다마는 포제영 허영 거 삼밧 아래 돌로 영 썩으네 포젓동산, 포젓동산, 이
 져 다 밀어젓수다. 거기 강 또 똑 같이 해도 거기 규모가 흥끔 당할망보다 흥끔 커.
 제관도 흥 열 두 사람 뽕곡, 제관 뭐 알짜여 뭐시여 행 열 두 사람 뽕곡, 제 지내는
 건 이디흥곡 비슷흥여마썰. 제관은 으라 사람 뽕앙으네 거기서.

101007 #2 경 해도 바당 이시난 생선도 놀 차 올리곡 저 바당 것이엔 해 낫수다.
 놀 차 해당으네.

101007 #1 또 물꾸럭은 이제 해 당 놀 채 숨지 아니허영.

101007 #2 포제혈 뎌 다 놀 채, 다 바당이난.

101007 #1 아무 제도 다 당할망제도 도새기 다 놀 채 올리곡, 이제도 뎌 부락엔
 포제 흥곡, 일년에 두 번 당제 흥곡 흥는디, 우리 마을은 이제 포제는 거 뭐 허다보
 난 어서지고 이제 지금은 당제만 지냅십주게.

101007 #2 자갈들 폴단 보난 문딱 하파해부러가난.

101007 #1 아, 거 자갈.

101007 #2 막 폴앗수다. 구엄 그 부락이서.

101007 #1 것이 이제 놔 뒤시킨 관광지로 막 좋을 건디. 그 뎌 마을엔 어럽곡 허
 다 보난 저 비행장 허멍 양 그 자갈을 막 폴안 식거간거라.

101007 #2 막 하영 폴앗수다.

101007 #1 문짝 파 부난.

101007 #2 막 하파허멍 해 부가난. 그 포젓동산이엔 허영.

101007 #1 포크레인이여, 문딱 큰 땀뽀 차로 거려간 그 자갈도.

101007 #2 막 폴안.

101007 #1 수백년 썩은 자갈덜 문짝 케부난, 이제 거긴 뭐 돌만 영성허연 춤 보
 기가 실코, 뭐도 관광지도 못 뒤편마썰. 그런 것이 아쉽수다게. 거 폴아먹은 거.

101007 #2 게난 ㄴ만이 폴지 말아시든.

101007 @ 농악놀이 그런 건 엇수가?

101007 #1 별로 저, 걸궁이엔 허영.

101007 @ 걸궁. 걸궁.

101007 #1 걸궁 게문 지금은 저 안 허는디 전인 걸궁덜 막 해낫수다.

101007 #2 오랬수다. 오래연게.

101007 #1 걸궁허믈 저 거기서도 뭐 저 총잡이여 이제 무신 동녕바치여, 경행 다 이제 구대 진스, 영 행 이제 거 또 여러 기관덜이 총잡이도 털병거지 씨고 이 총 들어메영 총 멩그랑 들어메영 흐곡 집마다 돌멍 독독독 두드리멍 거저 집이 들어강 재게 뵈 안주믈 강 뵈영 쏠이영 걸여줘사. 안 주믈 강 문딱 저 정지로 강 문 냄비 도 저 장난으로 데껴볼곡 이제 거 마당더레 문 케우립주게. 경 헤 가믈 재게 아이 고 이거 재게 줘사켜. 보내곡 흐믈. 집마다 텅이멍 헤 노믈, 거기도 막 쏠도 이제 혼 짐 막 벌곡 영행 침 동네 막 헛수다게.

101007 #2 아방은 부름씨만 헤시난.

101007 #1 우린 뒤에서 부름씨행 뭐 정 데니곡, 아버지네대에 예, 그렇게 허영 헛고.

101007 #2 구덕 ㄴ저 오라 허영.

101007 #1 우리 뒤에 부름씨 허영.

101007 #2 쏠 밧아 오곡 허영.

101007 #1 들렁 지어 오곡 헤낫수다게.

101008 @ 거흐고 이 마을 특산물 어떤 것들이 잇수가?

101008 #1 특산물은.

101008 @ 특산물, 특산물.

101008 #1 특산물은.

101008 @ 특별히 생산되는 물건.

101008 #1 특산물은, 특별히 생산되는 물건은 뭐 엇고. 요즘 근간에 하우스 단지가 다 뵈수다게. 옛날허믈 진제 멘네도 흐고.

101008 @ 소금.

101008 #1 소금흐고 또 바당에 꿰기 낙으레 강 흐믈, 우리도 성장에 강 보믈 으름에 양, 거 이 때라. 복쟁이가 잘 잡혀낫수다. 그 복쟁이흐믈 복쟁이알 또 해당 데 쟁. 이제 흐곡 흐믈.

101008 #2 먹으믈 죽느넌 흐영.

101008 #1 사람은 못 먹어도 그걸로 허영 복쟁이알 냄새가 지독헤낫수다. 겐디 여기선 복쟁이 몰린다 헤 노믈 막 그레 코가 깨져 마썸. 냄새로. 그 으름. 경 헤도 그것이 나중 잘 몰라노믈 복쟁이 풀곡, 소금 풀곡. 그거 흐곡 흐믈 그외에는 뭐 조나 보리 이런 거는 다 그냥 뜯 부락도 흐난 농사, 그 외에는 또 근자에 왕으네는 감제도 싱그곡.

101008 #2 그건 그 후제마썸.

101008 #1 이거 저거 행 오이, 이 제주도에서 요즘은 구엄오이영 흐민 알아줍주게. 여기 면적이 뭐 거의 지금 밧은 칠십프로는 하우스라. 게난 우리 제일 처음 우리도 하우스 시작허영 나 우이 혼 세 사람 다섯 사람이 시작을 헛는디 하우스, 그 하우스가 뵈도 모르고 헛 때 우리도 외부 강으네.

101008 #2 작년 간.

101008 #1 아니 처음엔 외부 간 저 하우스 허는 거 강 봐야전 아이고 이거 하우스 좀 해사 돈 벌어지켜. 그 때 시작헌 거 뜬 딴 간 보난 담배대엔 허여, 담배 영 옥강 여는 것이 쉴수다게. 게문 저 이십이미리 빠이프에 이제 거 팔메다 댜는 그걸 행 이제 담배 옥그는 디 혼 삼십겐가 그 때 담배허는 사람덜은 그거 특별이 줘 낫수다게. 그걸로 허단 하우스가 나중에 좀 크게 해야갓다허는 여기 작목반에 멧 사람 해 가지고 양, 우리도 담양ㄱ지 갓수다. 대허레, 왕대, 왕대허레 강, 거긴 혼민 저 여기보다 아멩헤도 여기보다 싹주게. 대장시 왕 허난, 아, 담양가든 대가 이제 여기 담지 아니허영 수월허게 사 지곡, 좀 싸게 사진다. 갱 이제 담양을 가기로 헌디. 그 때도 돈을 가져간디 이제 ㄱ뜨른 첨 은행으로 행 보내곡 허민 아무것도 아닌디. 그땐 현찰을 돈을 그냥 가정 데녀서. 게 집마다 메완 돈을 허난 이제 천원 컷고 이제 보통 만원거리 양 천원짜리 오천원은 큰 돈 만원짜리 귀 하게 얼마 어섯수다게. 천원헝곡 저 오천원짜리로 허다보난 베개보단도 크게 돈을 싸져서마썸 게난. 아들이 가명 양. 야 이거 돈 일엇당 큰 일 나켜. 이거 두린 안쳐 요거 저 영 허니까 요거 가방에 봐도 알아지고 요거. 갱허연 이제 제우 비행기 탄 담양ㄱ지, 그 때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난 뒤 비행기 탈 일이 쉴수가. 그 때 담양가명.

101008 #2 이십년도 더 댜수게.

101008 #1 우리 혼.

101008 #2 스물 췌에.

101008 #1 스물 서이 댜 때 담양 가 오랏는디, 그 때 간, 거 간 혼난 또 대 혼는디 간에, 거기도 거기만이 양, 밤이 또 여관이 강 자젠혼난 거 돈은 붕땅헝고 양 어두왕 어느놈 가져가불지 갱, 이거 큰일 낫다. 강도들든. 갱 두 친구가 양 뉘 두서 베게에 돈을 반씩 나뉘 베게에 이거 돈 들러가갓 이거 해 가든 알아지난 베게 비영 녹자 허연. 그렇게 헨 해 오고 또.

101008 #2 게난 멧 십년 댜수게.

101008 #1 게난 여기 돈 해단 베 삭 내언 짐 베 삭 내언 양 이ㄱ지 춤 식거와네 그것이 하우스 양 구업이 오깍 일어나게 된 동기우다게. 그루 후제는 빠이쁘 이제 빠이쁘 새로 나오난 이제 사단 헝곡, 대 빠이쁘는 어서갓는디.

101008 @ 게난 하우스 안네는 주로 오이, 오이 키웁수가?

101008 #1 이제는 오이헝고 저 도마도 헝끔 헝는디, 그자 이 첫째는 오이우다게. 오인 해 보든 사람은 헝끔 저 못전더도 돈이 댜어마썸. 일을 혼민 거 빨리 혼 스십 일 댜어가든 싱경으네 혼 십오일이나 이십일 메종 키왕으네 걸 하우스에 싱급수게. 싱경 혼든 혼 스십일 댜 가든 저 우트레 올랑 저 오이, 이제 저 물웨 종류 아니파게. 재게 커. 물웨 크듯 헌다 허다시피. 재게 크든 금방 타든 시장에 가든 그 땐 이제 하우스덜 얼마 어시킨 돈이 꿔 댜디다. 갱 행 주로 이제 하우스가 집마다 거의 막 일어난 요즘도 저 젊은 사람덜토양 하우스 아니 허는 사람이 어서. 우린 옛날 다 해부난 이젠 설러부런 나도 이제 헝끔 췌고. 걸 다 이제 메어볼젠 너무 아쉽고

헨 조금 헛 멧 백평 싣고. 경헨 이제 여긴 주로 이제도 하우스 오이우다. 구엄오이 허믈 제주도에서 알아줘낫수다.

101009 @ 그 다음에 이 마을 자랑거리 시민 헛끔 곱아봅서.

101009 #1 자랑거리 뭘 특별헨 거.

101009 #2 옛날 축구도 헛곡

101009 #1 아, 옛날 양.

101009 #2 공도 창 일등헛곡.

101009 #1 이 스계에서 구엄헛민 무시 못해낫수다게. 이 운동을 잘 허여.

101009 #2 운동을 잘 허여.

101009 #1 예, 거 돌아간 분도 잊지만 고두경씨라고 그 사람이 막 축구 어린 때 부터 시에 놓고여 어디영 막 데니멍 축구선수로 제주도 도선수허연, 또 저 윤... 그 분덜 축구 도 선수덜이 멧 사람 섯수다게. 그 밧침 헤가지고 제주도 춤 저 이 애월 읍 허믈 아 구엄 이기지 못허여. 구엄 허믈 이제도 구엄도 운동 정신이영 게이트볼 허믈 구엄에 요번에도 제주도 연합회 전체에서 간 일등헛수다. 게난 육지ㄱ지 가완. 거 이제도 헛믈 거 저 구엄 마을 노인정에 강 보믈 이제 트로피가 방안에 ㄱ득앙 놀 디가 어실 정도로 헛고, 또 우승기도 멧 개 싣고 이런 건 아주 침 저 전통적으로 구엄리 운동 허는 전통이라.

101009 #2 요새 젊은 아이덜토 운동 선생덜 다 죽엿수다게. 나이 들기 전이 죽 연. 젊은 때에. 돌아가도 이제 젊은 아이덜은 그 정신으로 이제 운동가도 이제 구엄 구엄 험니다. 어떻허난 뭘시 전달웨신가. 그추록 허영 헤도 구엄 젊은 사람덜토 양 운동이영 허믈 어디강 안 떨어지는 생입디다게. 그 운동 선생님덜 다 돌아갓수다.

101009 #1 것이 전통이 성으네.

101009 #2 것이 이제도 뭘시 셔 마썸. 이제 공회당에 강 봐도 그런 무시거 아이 고 운동허영 무시거 탕 왓져. 젊은 사람덜토 뭘시 신 생이라마썸

101009 #1 물림이 싣수다게.

101009 #2 물림이 이성 마씨게.

101010 @ 아까 물어본 거 이외에 구엄에 대해서 더 곤고 싶은 것 잇걸랑 곱아봅서.

101010 #2 거 뭘.. 하도 옛날 옛날 헤나난 무신 옛날 저.

101010 @ 소금 헤 난 거 헛끔 곱아봅서.

101009 #2 소금 양,

101010 @ 소금 헤 난거.

101010 #1 소금, 그 땐 이제도 싣수다마는. 소금 거 바당에 가믈 그것이 소금도 밧ㄱ찌 물려주곡 양 풀곡 사곡 헤마썸. 하간 소금빌레 허민 멧 판이 멧 판이 다싣 판이라, 멧 개, 이제 헛민 것도 허민 이제 갈랑줘.

101010 #2 큰 아덜은 멧 개, 죽은 아덜은 멧 개씩.

101010 #1 것도 소금빌레영 허믈 갈랑 쥘 멧 판이 아덜꺼 멧 판이 성 줄 거옌 헤 노민 이제 것도 잘 안주믈 형제간도 것 때문에 좋지 못허영 싹기도 허곡 허는디

소금은 거 지금은 영 형식만 세멘으로 헛주마는 전인 양 그 천흑 허영 천흑으로 다 흑을 돼게 막 블라냥 흑으로 영 저 소금판이 멩그랏수다.

101010 #2 동글락 동글락 허영.

101010 #1 이제 ㅅㅅ 물리왔당 흐른 그 뭐 흑 혈 때 소금 해도 그냥 흐른 그게 흑이 안 돼난 ㅅㅅ ㅅㅅ ㅅㅅ 막 천흑으로 꿰영 막 다려. 게른 것이 끈닥끈닥합니다. 지각흐른 그걸로 손으로 싹 허명 영 흑질허영 행으네 판이를 멩글아. 멩글앙 그레 이제 흐 동안 청 앓젓당, 물 이제 밧앓당, 이놈 요것이 쫌물에 영 굳어지른 양, 비 와도 얼른 씻어지지도 아니허곡, 대각허영, 저 물 들어도 잘 흑은 안 씻어져. 게른 이제 이걸 바가지나 뿔으로 이제 그 빌레흐른 물 질어당 호갈이마다 물 채왕.

101010 #2 줍팍은 집이서 멩글앙.

101010 #1 경헤영 저 그레 채왕 ㅅ 뿔당 요것이 흐 땃새쭈 ㅅㅅ 앓앓당 영 흐른 날 덩곡 헤 가른 이 때 돼른 거 영 비슷하게 빌레엔 현 건 영 펜안흐 디도 잇주마는 펜안현 딴 돌 소금 흐곡 돌소금이엔 흐 건 어평허냐른, 딱 허게 펜안현 딴 물 영 비그릇현 딴 빌레엔 허영 지치른 더운 물이 영 허영 뱃디 좇아지곡 헤 가른 츄 ㅅ ㅅ 질 거 아이우파. 펜안현 딴 양 돌소금이엔 허영 아 이건 돌소금 앓일 디 갱 영 펜안흐른 물이 지칠 디 어서도 이것이 지냥으로 자연이 뿔어가른 나중에 아래 흐끔씩 소금이 생겨납니다. 갱 그대로 딱 ㅅ두른 소금 더러 건지명 물이우멍 거 돌 소금이고.

101010 #2 호갈이 소곱더렌 건정 그레 냇.

101010 #1 그냥 소금 이제 소게소금이렐 허여. 돌소금, 소게 소금.

101010 #2 게난 그건 산에 가도 흐끔 쫌 더 줍니다. 돌소금 구웁 왓쟁허영. 쫌 뿔왓세기로 하나 더 줘.

101010 #1 돌소금이우다. 이건 소게소금이우다.

101010 #2 갱 돈 더 밧곡 행.

2. 제보자 일생

102001 @ 다음은 양 그 냇고 자라온 과정을 곱아줍서. 냇고 자라온 과정.

102001 #1 냇은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 팔남매우다게. 집안에 팔남땡디 위로는 누님이 세 분 계셨고 또 알로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작은 어머니 저 큰 어머니 돌아가부난 큰 어머니 뿔만 시 성제 나고 거 나가 알기로는 젊을 때 돌아갓는디 헤 부난 이제 돌아가부니까 우리 어머니 이젠 생모를 헤 다가 이제 오남매, 원래는 육 남매라냇수다게. 육남매허고 어평허냐하른 위로부터 형님이 다섯 분 계셨고 또 이제 알로 나보다 누이동생이 하나 이섯고, 우이로 다섯분 허연 이제 사삼 사건에 흐 분은 돌아갓고 영 허연 이제 여기서 자라냇는디 허다보난 나도 원래 우리집이 가난 허다보난 아버진 돌도 깨곡 돌챙이 생활허다보난 집이 돈이 별로 어실 거 아니우

파? 돈 버는 것이 엇다 보난 중학교도 이제 처음엔 못 가고 혼 삼년 가기 전에 그 때 주론 헌 건 뭐냐 허면 쉼 맥이는 거여. 어린 아이덜토 쉼 쉼출허레 땡이고 검 질매고 이것이 줍주게. 어린 때 사는 게. 경 허단 여기 저 밑에 한문서당이 하나 생겼수다게. 게난 한문서당에 그 분도 다릴 양쪽 절단뎌 그 사름이 혼다 버치난 그 사람도 사삼사건때문에 그추록 뎌는디 거기 이제 한문서당을 땡이는디 한문서당에 간 보난 뭐 이 천자문허는디 반은 더러 공부를 하영 덜 헤십디다게. 난 나중 들어간 보니까, 것도 이제 열 니설, 아 열 다섯 때, 거 한문에 간 보난 뜬 아이덜은 반은 혼 천자문 오백자쯤 익어서마썸. 아 난 간 이제 뵈도 모르고 영 저레 허난 공불 영 헤보난 어린 때난 산디 혼끔 쉬와보여마썸. 게네 혼 사름이 어떻허냐하든 혼 공부를 허는디 열으섯자씩 공부해서마썸. 아니 저 으둡자, 으둡자 허든 양 두 줄 행 공부를 뎌는디, 아 영 으둡자 허든 너무 싱거와마썸. 공부를 허다보난 아 거든 난 곱을 해야겄다. 열여섯자를 게 열여섯자를 혼 혼 장씩 막 나간거마썸. 게 혼 덜 뉘가난 그 사름들이영 ㄴ찌 맞 먹어가. 갱 공부를 허니까 선생님이 항상 그날 공부헌 건 양, 어떻허냐하든 아장 뉘시엔헌다 갱 복습을 허든 이 거 선생 앞이 갱 그거다 그 아시날 공부헌 거 다 듣고 거 이제 뉘 자 쓰라 허든 눈 끄앙 책 베리지 말앙 글을 썸 바쳐사 헤마썸. 경 헤사 너 공부헸다. 또 수판 배우고 이제 거 우리 주로 헌 건 수판허고 거 한문인디 거기서도 수도라고 해서 제일 문제 공부헌 사람덜은 천자문을 뎌 사람덜, 이제 돌아가부러수다마는 그 두 분은 이제 천자문을 뎌난 그 사람덜 앞이 공부를 허는디 여기서도 옛날ㄴ치 시험을 뵈수다게. 혼 들에 혼 번 시험을 뵈. 게민 이제 거 선생도 내곡, 거 저 수도 선생, 수건이엔 혼당 문제 혼 사람덜이 시험을 내어 마썸. 시험을 내든 갱 그 시험을 당 허든 채점은 선생이 다 헉니다. 왕 딱 공부허영 질 잘 헌 사람은 장원이엔 헤 가지고 떡 헤 가고 또 두번째 공부헌 사람은 준장원이엔 허영 콩 볶아 가고 경 헤십주게. 게든 이제 장원은 선생인 장원책 써 쥘 딱 거 도장찍곡 행 집이 가정 오민 아 너 장원헸고나. 이거 장원헸수다. 떡 뉘 저 헤 줍서 허든 그 때는 오메기 오메기 떡 허영으네 영 줍쫄떡으로 오메기떡 허영 다 이제 인절미헸 갑주게. 가든 이제 거 아이가 혼 스십명 오십명 거의 뎌수다. 그 때 게민 그거 혼 사름이 열마씩 떡 태우고 두 개 정도 보통 태우고 또 준장원이엔 허영 콩 볶아가든 이제 영 흠팍 달은 걸로 혼 사름씩 손 내밀렌 허영 거 다 이제 태와주고. 경 헸 먹어난 뵈도 잇는디. 나가 중학교 가게 된 건 양 거 갱 영 허든 선생님이 그 때 어떠난산디 넌 학교를 들어가사헌다. 너 여기서 쉼맥이는 건 아까우난 공부를 영 헤보난 어린 뎌 영 잘 헤져사신디, 아 거 저 선생이 자꾸 갱 글 바칠 때마다 그 말을 곺아. 넌 중학교 가 아까와. 너 여기서 공부 서당만 허영 쫄내는 거 어렵다. 저 너무 아깝다, 아깝다. 부모님 앞이 나가 곺으커메 이제 널랑 중학교 가라.

102001 #2 집이 오난 가게 허여. 쉼 맥이레 아이 갱 공부헸젠.

102001 #1 할으방넌 그 말 곺으난 막 매 맞으멍 욱 들영 헤도

102001 #2 할으방 몰르게 저 하귀중학교 가곡,

102001 #1 저 귀일중학교에 양.

102001 #2 양, 슬쩍기 쉼 맥이레 가켄 흥여웬, 슬쩍기.

102001 #1 이 저 돌아가부러트주마는 문귀광씨라고 그 분이 성으 선생이라났수다.
저 나도 그 때 흥끔 옥아지난 열 으섯슬.

102001 #2 열 일곱 돼어 갈 때주게.

102001 #1 웬 거라. 열 여섯, 열일곱허연 나는 헤 가난, 간 이제 선생님 앞이 성
으 선생님이에 험디다. 귀일중학교 성으 선생님, 동네 분이난 양 잘 골으난 너 아버
지 앞인 골아봤냐 허난, 저, 골앗수다.

102001 #2 골으난 쉼 맥이레 가렌 흥곡

102001 #1 이제 집이나 흥민 난리나곡 우선 입학 지어 놓고, 아, 거기도 간 보난
흥 오월달쯤 나실 거라마썸. 겐 간 보난 두어덜 공부해십디다게. 그 어린 때 중학교
1학년 나쁜 영어, 영어도 멧 장 공부헛고양. 아 경해도 거간 영 헤보난 한문 공부해
나난 국어 ㄱ쁜 것은 자신이 셔 마썸. 한자 잘, 천자문, 뜯 사름은 육개월 헤도 천
자문 떼기 어려운데 난 딱 석달만이 천자문을 떼서, 떼난 선생님도 아파불고 그루
후제 계속 더 못허고 행, 그걸로 돌아가명 웬, 난 학교 가문, 게 하귀중학교, 아, 귀
일중학교 텅이멍 나가 제일 늦언가노난.

102001 #2 나이가 하 부러트주.

102001 #1 나이도 하고 허난 나도 규율부로 거기 간, 규율부장도 허멍 이제 학교
뎡것수다게. 하귀중학교 졸업허고, 아 이젠.

102001 #2 쉼 맥이레만 가렌 흥고.

102001 #1 집이 뭐 졸업허난 나도 학교 어디 영 집이 몰르게 원서 내난, 아버지
네 첨 영 곶양, 돌아강 뉘허주만 난리가 나트수다게. 안 돼 절대. 돈 어신디 어떻행
갈래. 게다가 보난 이제 공부 못 허고, 허다 봐도. 겐 이제 저 강의록 불런도 동북중
고등학교 강의록이 셔 나서. 그것도 공부허고, 츠츠츠 허난, 에 고등학교 졸업만 헤
사. 어 디 요 허다 못행 순경이라도, 고등학교 졸업을 안 허민 순경을 못헤마씨. 졸
업장이 셔사. 아 게난 허젠 허난 이제 애월고등학교라도 강 흥 번 졸업장을 밋아보
카허연 간, 저 거 부모님 몰르게 허난.

102001 #2 부모님 몰르게 허난. 몰르게 간.

102001 #1 거 가문 저 시험을 봐봐사 헐 거 아니우파? 3학년으로 편입허켄 가난
실력을 테스트 영 허연, 게도 시험문제를 냅니다. 나만 간 시험 웬, 더러 아는데로
간 허니까, 아메도 고등학교 2학년배긴 못허겠다. 3학년으로 못 허켄. 집이완 골으
난 부모님네 뭐 돈 잇수가게. 그 때는 양, 이제는 이해가 돼는디, 그때는 부모 앞이
도 막 반감이, 섭섭해났수다. 첨 헤났수다게. 웬냐허문 그 때는 이제 거 허면서 흥
교도 졸업 못 허고 그루 후젠 좀 서월 간, 형님에 게섯수다. 서울에 겐 군대생활 흥
고 허난, 오라 오라 서울 왕 이 좀 어디 일이라도 텅이멍 야간이라고 흥끔 헤보라
허멍. 처음에 가난 게 믋음대로 뵈니까? 어디 취직도 못 허고, 그럭저럭 헐 게 허단
또 부모님 늑곡 허난, 게난 여기 살림을 해야 헐 거 아니우파? 흥 사름도 엇고 허

난 나가 다시 고향으로 완 혼 게 이제 스물세살 나는 헤에 이 사람광 결혼을 헤 가지고 이제.

102001 #2 영, 정, 살았수다게. 하하.

102001 #1 이제 헉다 보난 아이도 다섯, 오남매, 딸 서이에 아덜 둘. 경헨 낭곡.

102001 #2 게난 하도 공부에 인연이 댜언. 이 할으방. 하도 성질도 못 댜어 먹고 헤노난, 인연이 댜언, 아기덜 흑교라도 시켜사 허겔다. 막 늬이 일 허멍, 밥 굶으멍도 아덜 딸 학교 시키멍 헛수다게. 하도 난 공부 못 헨 것이 소원이엔 허멍. 우런 영 못헤시멍 부모 원망만 셔나부난.

102002 @ 예, 다음에 양, 부모님을 어떤 일을 헛수가?

102002 #1 아버지진 우리 태어난 보난 주로 이 돌 일, 돌쟁이엔 혼연 춤, 방에도 몰방도 마탕 헉곡 거 댜 사름 헤 노른 몰방에 혼나 허른 돈이 꿰 댜 낫수다게. 게난 몰방에 멩글양, 그 큰 돌 해당 몰방에 댜들젠 혼민 도치로 막 좇곡 끌로 깨곡 허멍 몰방에 헉곡 주로 이제 거 죽은 방애 헉곡, 방엿돌을 다 헤나서. 마탕. 경 헤나고 뭐 저 그 외에는 농사도 짓곡 그자 야채 헤 낭, 부모님이 혼끔, 주로 농사는 뭐 연날 조 보리 허곡 영 허영 농사지영 먹영 산디, 경 헤도 식구가 하다 보난 이제 우이로 형님이 다섯 댜고 나가 으숫째 댜난 아, 식은 먹영 살 때 아니우파? 식은 오물랑오물랑헉곡, 우리도 양 이제 생각나는 디 아버지가 게른 혼끔 손재주가 성으네 거 몰방에 혼멍도 남박세기영 저, 박세기도 잘 파곡 이런 손놀림허는 재주는 셔 마썸. 경 헨 나도 이제 그 재주 혼끔 물려십주. 하하, 저 뭐 영 멩글 때도 멩글곡 헤 지는디.

102002 #2 메 당 하귀장에 어머니은 폴레 가곡. 남박세기 파 낭 즈근즈근 행 이만저만 멩테기에 정 강 폴곡.

102002 #1 국세영 허영 돈딱 잘 글경 보기 좋게 허른, 남박세기 헉곡 국자 헉곡 뭐 이 저.

102002 #2 국자라, 저 무시겔고. 국자가. 낭으로 댜든 거. 국 거리는 거. 그 거 헉곡 초신 삼양 헉곡 경 헛디다게. 줌팍 파곡 양.

102002 #1 초신 헉곡 줌팍 담양 장엘 어머니가 폴레 강.

102002 #2 경 허영 그 댜 아버지신디 하건 거 안 헴젠 헤도, 영 심들게 부모들이 헤 낫구나. 이제 혼끔 나이 우리 다 늙으난 양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신디 죄송헌 생각이 나 마썸.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살리우젠. 경 헨 초신 삼양 폴레 가곡. 경헨.

102003 @ 그 다음에 어머니 고향은 어디우파?

102003 #1 어머니이 원래 구엄이우다. 구엄이 어디 저 처음엔 고내, 내가 알기로 고내 시집간 살단 그 저 돌아간, 신랑이 돌아가부난 혼자 살단 이제 우리 아버지도 또 거 누님네 세 분 나명 어머니가 셋이라낫수다게. 각각 혼 누님씩 이제 큰 누님, 셋 누님, 죽은 누님이 셔난. 게다 보난 이제 그 분덜은 다 영 갈리멍 뭐 헤도 더러 돌아가고 양. 큰 누님 어멍. 게다 보난 어머니가 어멍 만나전 이제 우리 헨 것이 육형제, 육형제, 칠남매, 아니 육남매를 나아십주게. 아덜 으숫에 쥔 막내 딸 낫단 건

어린 때, 줌 세 설, 네 설에 돌아갔는다. 어머니는 원래 구엄 송씨우다.

102003 #2 구엄인디 고내 시집가난 이제 고내 간도 자제분이 아덜이 이섯수다. 큰 아덜이, 큰 아덜이 이션. 우리도 시집간 보난, 시아바님이 고내 자꾸 가명, 밧 갈레 가곡, 초신 삼양으네 가곡. 이상허텐, 무사 경험신고 보난 고내, 고내 어머니이 고내 본 시집이라. 그대 시집 갓단 어떻 그디 시아방이 일본 간 어떻 죽어부러텐헌디, 경 험 어머니 구엄, 구엄 알동네라, 구엄 알 동네 사름이우다게. 경 험디 시집 완 보난 시아방이 자꾸 쉼 몰곡 장비 지곡 허영 어디레 감수가 아버지 허른 고내 밧 갈아똥 오켜, 밧 갈아똥 오켜. 경 헌디 고내 큰 아드님이 어머니 강 난 큰 아드님이 근간ㄱ지 소식이 셔 난디 이젠 자제분들 셔 가난 소식이 었수다. 경 혼디 경 해부난 어머니이 친정에 완, 어머니이 구엄완 살단으네 아바지히고 영영 헛저. 게 아바님이 스실 말을 곱아낫수다. 영 험 험난 느네덜 다 낫저. 경 험 곱아낫수다.

102004 @ 그 다음에 어릴 때 무슨 놀이허멍 컷수가?

102004 #1 어린 땐 저 이 자치기허고 이 자치기에 허영 저, 낭계기 한 쪽으로 탁 허영 허른 탁 허영 밧으곡, 자치기 허곡 또 흑다마 흑으로 다마 멩그랑 다마 따먹기 경허영 따먹기 탁 맞추른 이제 따곡, 또 빠찌, 빠찌영 허른 이거 종이로 멩그랑 당 딱 허영 이제 게 허영 이기른 앓곡 허멍

102004 @ 엮어치기영.

102004 #1 게 엮어차기영, 자치기영도 허곡.

102004 @ 이제 빠찌영 험니까?

102004 #1 예, 빠찌영.

102004 @ 빠짱이영 안 허여. 양.

102004 #1 빠찌, 빠찌치기 허자.

102004 @ 그 다음, 돌 탈락.

102004 #1 아, 몰탈락, 저 가른 이 몰 탕 허른, 막 보잉큐 허멍, 막 일본말 그 때 영 행 열ㄱ지 허른, 이젠 잊어부러구나. 나중엔 영 베령 몰 탕 쥔 행으네 보잉큐 행 허른 그초록허멍 놀이 헤 나고 주로 일제시대에는, 게른 나 가른 쉼벡이레 강도 그 추록 행 놀이를.

102004 @ 뽕이 빠 먹는 거.

102004 #1 뽕이도 빠 먹고. 감제도 또 꺽 먹고.

102004 #2 인동고장도 타 먹곡, 무신 저 탈도 타 먹곡, 무신 옛날사 먹을 거 어 시난 들이 가민 맨딱 먹어. 아무 거나.

102004 #1 장난을 줌 헤노난 양 가른, 거 흐끔 큰 아이덜 쉼 맥이레 가른, 너네 장 감제 파 와. 나 앓젠험서.

102004 #2 늬이 밧디 강, 도독질 양. 쉼 맥이레 갓당.

102004 #1 팔월 강 감제 들어가른 감제 강, 감제 든 딜로만 하나씩 땅 벌러진 딜로만 하나씩 파당, 언제 임제 들리른 혼번씩 매도 맞곡.

102004 @ 보린 안 귀 먹어 볍디가?

102004 #1 보리도 귀 낫수다. 보리도 양 요거 물긋물긋힐 때, 이제 쥔 부비믄, 불
믄 맛 좋아. 거 먹어나믄 입바우가 거멍케 돼영.

102004 @ 멘네 타 먹곡.

102004 #1 예, 멘네, 멘네.

102004 @ 멘네 드레 타 먹곡.

102004 #1 드레엔 해도 그거 맛 좋아. 덜 핀 때는 먹으믄.

102004 @ 아, 게난 퍼렁흔 때 게. 드레.

102004 #1 감제 귀 먹곡.

102004 #2 늪이 밧디 강 늪 몰르게 그초록 행 허고.

102004 @ 그 다음에 게가비, 이 개구리.

102004 #1 예, 개구리.

102004 @ 으름 때, 거 다리 근창으네. 물리왓당으네.

102004 #1 돌로 두드렁, 허리 꺾영, 가죽 뱃경 물리왓당 거 쥔 먹곡. 또 이 저 우
리도 뭐 허난 베염, 베염도 무사 독사, 그거 물펜이, 물펜이 그러 허영 거죽 뱃기믄
양 이거 잘못 물리믄, 나도 혼 번 물려 나서. 이디 무난 이디 슬갓이 흐끔 두꺼운
디. 거 어린 때 영 허단, 그거 잘못 건드렷단 탁 들려들언 무난. 이제 뭐 허연 거난
막 숙뚱허연 살앗는다. 쟁 물펜이도 행 쟁 낫당 먹곡. 벨 거 다 먹어낫수다게. 말촉
도 귀 먹고.

102004 #2 그 땐 일이 그거엿수게.

102004 #1 나상 먹을 건 이건 먹을 거 백이 어선.

102004 #2 거 먹을 거만 생각허연. 시장허곡 허난 먹을 거만 생각허고.

102004 #1 쉼 보레 가믄 쉼 어디 에와동으네 밧디 빈 밧디 좀 에와동 뵈 먹을
거나 구허레 강. 감제 흐나 쥔 먹자. 멀리 어디 임제 어신 밧디 강. 허허.

102005 @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양, 생활 해 보진 안 헛주마는 별로 생활상
을 혼 번, 그 다음에 공출이라든가 이런 거 혼 번 말해 봅서.

102005 #1 게난 건 주로 아버님네 당흔.

102005 @ 게난 들엇던 얘기 곱아봅서.

102005 #1 아, 저, 공출허믄 양, 여기 구장이, 좀 독헌 구장이 셔 낫수다게. 그
이름은 안 곤겿고, 돌아가부난, 아 게헤 노믄 집이 쏘 허영 먹을 거 허젠 허믄, 그
때는 막 집 더듬으난, 췌팡 더듬으난 쏘은 멀리 행, 잡항우이 문영 놔 두곡, 그 거
깟지 알양 다 공출로 양 가져강 해 노민 이디 들어보곡, 또 게난 해방될 때, 이제
큰 형님이영 이시난 일본놈덜 다 감젠. 우리도 혼 다섯 살 정도 이성. 다섯 살. 그
때우다. 거난. 아 일본놈덜 가난 이제 구루마라도 강 해 와사켄 허연. 게난 이 여기
혹교가 이선 일본놈덜이 주둔해 나서. 구업 혹교에. 주둔허난 양 그 때 우리 셋 형
님은 학교에도 육혹년 텅이난 일본말 잘 해 낫젠 험디다게. 일본말 모른 거 어시난.
일본놈덜 허고 통허연 영 보믄 뭐 간재미여, 우리 어린 때 췌웨기 간재미 먹으믄
구수협주게. 간재미에 뭐 이거 저 모기장, 지금 이젠 모기장 하도 그 땐 모기장도

어려운디, 거 보든 문딱 이제 베로, 베 모기장이라낫수다게. 모기장이여 뭐 이 일본 시대허든 이 중엄이도 장이 셔 낫수다. 장이 시든 우리 어머니 떡 행 강 그 일본 군인덜 앞이 푹는디 뭐. 그 일본말 잊어부런. 그 어릴 때 들은 말, ‘고지생’ ‘고지생’ 허든 아 일본 군인덜이 왕 돈 내영 사 가고, 우리 영 대여섯 살 때 양 앓양 영 푹는 거 보고, 여기 중엄 장이 셔 낫수다게. 방드리왓디 장 셔나지아니허연. 방드리왓. 102005 #2 이제도 오일장 오일장 허여. 장 셔 낫수다.

102005 #1 구엄 여기 초등학교에 일본 군인 주둔지라낫수다. 게고 저 수산봉 수산봉에서 주로 이젠 다 메와졌는디 일본놈덜 땅굴 팡 깊인 안 파고, 영 움막움막허영 영 호주게. 이제ㄴ트든 총 들영 쏘게. 그렇게 판 디가 빈중 해 낫수다. 게고 거기 근무허영 허민 저 간재미 뭐 영 주든 양, 그 일본 군인덜토 시장허난 간재미만 먹지 못허든, 우리 그걸 맛 좋게 먹어서. 감제영 뭐 지슬허영 거 군인덜 주든 그 사람덜은 시장해도 먹지 안 허영 쉼 간재미를 줍주게. 어떻게 맛 좋은지양. 그거 경 먹어난 기억이 싯고. 뭐 일제시대엔 그루후제 해방뻬젠 허난.

102005 #2 그 일제시대 게. 우리 벵디 물 질레 강 보든, 거 군인덜 따문 믱스왕 해 낫수다게. 군인덜 가든 거 무시거 잇잔아. 뭇고? 밥 허는 거, 군인덜 밥 허는 거. 향고.

102005 #1 향고.

102005 #2 향고 빈주룽커냥 헤물동지에 밥 헤노난. 우리 그 춘화ㄴ라 이모ㄴ라 아이구 저 향고 밥 하나 얻어, 밥이 경 맛 조양. 말젠 양, 밥 해주민 우리신디 불 솟아주든 무시거 그거 고치장 주켄. 겐 고추장을 요망썩헌 거 무시거 하나씩 얻어 먹으멍, 물 질레 갓당, 게든 물질레 가든 그거 허젠 허든 재게 못왕. 어멍은 왕 무시거 물 질레 강 영 오래 살아시니. 욱은 해도. 그 군인덜이 그 물에 막 덕어져낫수다게. 일제시대에 우리 어린 때.

102005 #1 일본 군인덜은 데스까보엔 허여. 데스까보, 이 저 철모. 데스까보엔 행으네 저 문 물 데왕 뭇 허든 우리도 거기서 향거, 이제 여기서 주든 그 데스까보에 솟읍디다. 솟이 향고 어신 사람은 향고에 어떻 향고에 솟지만, 데스까보에 슬망 문저 강녕이영 뭇시영 행 강 허든 뭇덜 무시거 저 감빵이영 바짜줘낫수다. 장도 주꼭 허든 우리 얻어당 먹어난 기억이 셔 마썸.

102006 @ 그 다음에 사삼사건에 대허영 아는 대로 혼 번 곱아줍서.

102006 #1 사삼사건은 양, 우리 어린 때도 저 산목이엔 허영 이렇게 그건 사삼이 뭇지 모르는디 그 저 혼 일고 여덟살 쉼 맥이레 강 영 보든 아 저 수산봉 질로 퀘물 저 어디 답동 그디 사름들이영 왕 기 들영 양 수산봉 질로 ‘와샤 와샤 와샤’ 허든 ‘야 저 폭도 왓저’. 우리 믱스왕 게든 이딘 안 들어오꼭 행, 똑 길로 대목 이제 대목 ㄴ튼 질로 기 들렁 양, 와샤 와샤, 게고 아이고 그 때부터 폭도 뭇이 생겐 허난 아 이제 허다보난 양 구엄 습격 들기 전이 서북청년, 어린 때 보든 서북청년단 이라고 허영 여기 왕 막 총 들렁 양 집마다 텅이멍 수셈으로 세어, 게난 우리 형님은 중학교 텅일 때난 나보다 크고, 난 이제 국민학교도 1학년 때고 흑교 텅일 때난

아, 영우 형이라고 허연 중학교 간 오단 흑생덜 막 심으레 온거라. 서북청년이. 아 영 저 그 점방굿디로 들어오난, 아 뒤에 조차온 우리 형님은 겁난 집 안트레 확 들어오난, 그 서북청년들이 총 가전 완 그 때 총이 므스왔수다. 총 타각탁 엠완, 저 구구식 총 차각작 허믄 므스완. 아까 흑생 어디가시닌 흐믄 우리 아버지인 야이 흑생이 아니주. 영 보난 어린 아이난, 아 거 말고. 흑생이 들어왔다고. 우리 모르켄 영 허난 가 분 기억이 싣수다. 또 이 농고생덜 와 가지고 양, 저 공회당에 헤 노난, 것덜 주로 산쪽이우다게. 산쪽이난 그 여기서 주장허는 주로 마을의 유지덜 불려당 막 끌려앗연 양, 우리도 간 구경, 저 공회당에 모연 막 취조헬젠 허연. 우리 어린 때고 조룩허게 간 보니까 막 예 끌려앗젠 양 그 모자로 영 이제 알아져. 거 저 영 그 농고, 거 퍼렁헌 걸로 양지 두드렁 이디 영 체어지멍, 때 허연 그추룩헌 기억이 싣고. 그 외에도 이제 구엄리 습격이 세 번 들어왔수다. 세 번 들어온디 첫번째는.

102006 #2 이월달에 들어왔수다. 이월 스무 이틀날. 체암 들어온 땐. 친구백스십 멧년에.

102006 #1 그 들어완 허난 저 동네를 불바다 멧글앗수다. 밋밋 그딘 초집이난 혼 번만 흐고, 하늬 불믄 양, 밤이 들불 난 다 집이 멧 십채 문짝 카부럿주기. 아 카고 메칠 어선 또 허난.

102006 #2 유지덜이라 그 때 구장 헤난 집이영 순경 헤난 집이영. 그 때 그런 사름덜만 좇안.

102006 #1 거 유지덜 집이 이장 허곡 뵈 허난 집이 그 집만 주목허영 왕 이제 그 야기 낭단도 죽곡. 그런 집이 으라이 죽엇수다.

102006 #2 그 때 그런 사름덜만 좇안. 야기 낭단도 죽고.

102006 #1 이제 게난 그디 남편덜은 아기나는 거 각시덜 침 창으로 막 찢러부난 죽고 헤신디. 그걸 낭군 우틴 순경을 가고 헛는디 나중에 세번째 들어온 건 어떠냐 흐믄 것도 이제 동짓덜 잊어버리지 안 헛주. 열 여드렛날 그 때 마지막 세 번 들어온거라. 습격을. 아 게 날은 붉아가는디 흑교에 완 2학년 뉘 가난 알아져. 초등학교, 국민학교 혼 2학년 때라. 총소리가 파박파박 난 영 허난, 아버지네 영 싣단 아 이고 습격이여. 습격 들어왔져. 큰 일 났다. 아 경 헤가난 별써 다, 다 들어온거라. 들어완 허난 앞이 우리 영 헌디 초집이영 뉘 지름 대롱에 지름불 그냥 불리웁 헛불 싸가지고 멘 초집아니우파, 그 땐. 이 집더레 강 각 질르곡, 저 집더레. 밋거리 돌아 데니멍 질으니까 불이 벌경 허지 안허우파? 막 카가난. 게난 막 총소리 나가멍 헤가난 우리 또 아버지네 살고, 쉼가 세 므리 양, 그 때 쉼양에 불 붓저부난 쉼 코 딱 케노난 어디 돌아나질 못 험주게. 쉼 시 므리 칸 죽고 헛 땐, 아 우리 저 뒤에 영 테왔디영 영 선 허니까, 아 좀 시난 그 때 아버지가, 할머니 그 때 살아났수다게. 밋거리에, 그 불 칼 때에도 그 때 아버지가 그 생각을 허연예, 아이고, 어머니 칸 죽어부런. 큰 일 났다. 겐 어머닐 업어 온거라. 그레. 아 업어완 그레 허난. 그 해에 게난 다 그 불 붓더불고, 집은. 안거린 흐끔 남은 디, 건 막 붉간 이제 소방서덜 완 불 꺾완, 거 흐끔 뼈만 살런, 다 카불고 헛 보난 뒷날 일어난보난 형님도 한 분 학

교에서,

102006 #2 두 분 다 돌아갔수다.

102006 #1. 돌아갔고. 스춘형은 또 저디서 거 지켜단 그 때는 죽창 거, 철창 들르고, 순경 하나든 이제 거 저 가빈총이나 췌고, 그 외로 다섯, 으섯씩 그췌 보초를 샷수다게. 입초 샷쟁허여. 입초 상 영 뭇 허든, 아 우리 형님도 거기 사춘 형님도 입초 사단, 죽은 어머니가 이쪽 베릿골 우리집 알녁집이 살아났수다. 우리도 이제 이레 와 부렸지마는. 겐 막 이제도 밤이 불끄랭이가 뜬니다. 막 이놈이 새끼덜 집 불 붓점저, 막 해가난 우리 스춘형은 즈깁이 샷단 아이고 어머니 다 죽엄젠 허연.

102006 #2 지붕우의 올란 막 해가난.

102006 #1 지붕우의 올란 담 소리 오죽 막 남니까게, 돌아오단 양.

102006 #2 질레에서 총 췌 부런.

102006 #1 그놈덜 양 목 지킨 것췌룩 총 췌 부란 그디서 직사허고. 또 우리 여주 형님 말췌 형님은 학교 그 저 급사라났수다게. 어틸 때, 열 여덟 술에 돌아갔는디. 학교 급사로 선생이영 거 숙직허단 밤에 거 일제시대난 집이 문딱 우리도 강 보문 숙대낭으로 다 벽채허고 문딱 낭집이라났수다. 우이도 기와, 우인 기와 덕엇주마는. 겐 낭집이라난 그레 허난 그 놈덜 똬 석유 지천에 막, 불 다 학교 카는 브름에 양, 형님도 그 아래 싯단에.

102006 #2 마리 알러레 들어간.

102006 #1 그 사이 멧이 저, 혼 사람은.

102006 #2 우리 외삼춘네 허고 마리 알러레 들어갓단 나오지 못 허연.

102006 #1 나온 사름은 살고,

102006 #2 혼나 나오고.

102006 #1 그 안네 이제 허난.

102006 #2 신엄 문선생은 나오고.

102006 #1 마리 아래 곱앗단 거기서 다 돌아갔수다게.

102006 #2 그 때, 세 분이 다 돌아가섯수다.

102006 #1 이제도 거기 비석이 이신디.

102006 #2 이제도 흑교에 비석이 다 이서마췌.

102006 #1 또.

102006 #2 힘들어났수다게.

102006 #1 그 때 알아진 기억은 그 때 구엄 사삼사건 습격 들어온 때, 고내 자운 당 애기벤돌거리라고 잇수다게. 이렇게 오가든, 옛날에 한질은 넘지 아니헷수다게. 혼, 지금 혼 팔메다 길 정도도 안 똬서. 경 헨 길 허고, 저쪽 헌디, 그 놈들이 들어 올 때는 똑 이, 전화기를, 전화줄을 꼭 끈영 들어오는디, 통화해도 안 똬게. 그 때는 전화를 이 군인덜이 게메 이 저 폭도덜토 머릴 췌. 전화기를 안 끈은거라. 전화줄을.

102006 #2 순경 지켜는디.

102006 #1 거난 이 저 한림지서레 전화허곡, 구엄 습격들어왔젠. 저 시에 경찰서

레도 전화허난, 아 이제 막 기관총 걸고 차 헐 돌아올거 아니우팡. 구엄리 습격들었젠. 날씨가 겐디 붉아갈 때라, 거의 우리가 알기론. 겐 시난 요 자운당 애기벤들거리랑 요렇게 길이 흐끔 험헌디우다. 이젠 길 느추와부난 모르는다. 거기 비석이 서 낫수다. 이젠 어신디. 그 때 허난 양, 이렇게 곱안 허니까, 길은 양, 올라간 디난 폭도덜이 곱앗단으네 거 저 운전수부터 문제 썩 부난, 거기서 다 전멸당허고.

102006 #2 순경덜이영 하영 돌아갓수다.

102006 #1 구엄, 구엄.

102006 #2 높은 사름덜 하영 돌아갓수다.

102006 #1 구엄, 주임 저 문씨라고 허영 그 분도 돌아가고. 그 분 때문에 구엄 오다가 경 애석허게 젊은 경찰덜 많이 죽엇수다. 순경덜.

102006 #2 많이 돌아갓수다. 우리 친척도 돌아가고.

102006 #1 그 때도 혼 사름은 양, 그 폭도덜 들어왕 옷 다 뺏겨 가고, 총 다 가져가고, 기관총이영 그디, 실탄이영 문딱 가져가고 해도 혼 사름이 살아가지고 모든 걸 증언을 해 십주게.

102006 #2 경 허난 더 잘 알앗수다게.

102006 #1 어떻 된 건지.

102006 #2 게 아니믄 모를건디. 게난 잘 알아.

102006 #1 경 허명 사삼사건 넘어서마씨. 이제 생각해도 첨 이거는 양. 어디 구별 못허게 다 이디서.

102006 #2 사삼사건도 그 뿐 아니우다. 막 혈 일이 막 하영 하영 잇수다마는. 첨.

102007 @ 그 다음에 그 중매 결혼 험디강? 연애 결혼 험디강?

102007 #1 중매, 중매헌디 저, 이 사름이 지금도 뭐 허지만 어린 땐, 그 일본 텡이명 허고 험난 얼굴이영 고와낫수다게. 게난 중매헨 저 우리 그 처 삼춘이, 스춘.

102007 #2 우리 아버지 스춘.

102007 #1 이제 저 삼춘이, 저기 우리 동창네 아버지라낫수다게. 거기 허난 이 사름은 일본 그 아버지엔 일본 가 불고. 여긴 어머니영 너 오누이가 사는다. 큰 딸 입주게. 게난. 곱아된 어떻허연 혼 두번 간 처음엔 우리 집이 돈 엇텐 안 헐 이제 해도 츠츠 혼 것이 결혼헤졌수다게. 결혼해도 이 사름은 시집 안 가켄, 저 일본ㄱ지 밀항허연 가명. 결혼허지 전에, 경해도 저 어머니네영 허연 제우 좇안 데려단 결혼 시겼수다게. 난 스물 세 술에 갓고, 이 사름은 스물 하나에, 두 술 아래난. 그 때 게도 저 우리 차로 결혼헸수다게, 차로. 이제 ㄱ뜨믄 쓰리꼬다 달믄 차.

102007 #2 아니 양, 택시 앞 막아진거라.

102007 #1 택시 닳은 차.

102008 @ 거 흐고 사주 봅디강?

102008 #2 양.

102008 @ 사주.

1020087 #1 사준 저, 사줏쟁이 집이 간 택일허고 헐 보난 켜찬텐허연 절혼허게

했수다게.

102009 @ 그 다음에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 어떤 걸 마련헐디강?

102009 #2 결혼 예물 사 찻장허고. 무신 퀘 허고. 퀘도 이제도 잇수다. 저 소낭 퀘. 찻장허고 찻장이엔 요 구엄동네 찻장 짜는 사름도 잇곡, 퀘 짜는 할으방 셔 나 셔마썸. 고씨엔 허영, 고. 저 하귀 고하주 아방이엔 셔 난. 우린 뭇도 몰르고 뭇, 어머니가 그디강 맞추켜, 맞추켄 허난. 퀘영 찻장이영, 뜯시 무시거 화리영, 화리영. 경 헨 시 개 맞추난 그건 이제 이디 허고 이불 둘 요 둘 허고, 그거백이 무시거, 미싱허고, 미싱은 일본 간 오명 죽은 어멍 씨 난 거 어정 간 주나네 거 어전 완 어전 오고.

102009 @ 그 당시엔 하영 혼 겨우다.

102009 #2 양.

102009 #1 하영 현 거라.

102009 #2 하영 헨, 그 일본 가 오난, 일본서 주난 헛주기. 게 아이시든 우리 어머니넌 살 수가 어서낫수다게. 살 치메, 그거 행, 겐 큰 딸이엔 허영 허곡, 게난 찻장도 이 구엄더레 저 오곡, 퀘도 저 오곡, 식거오, 저 왓수게. 짐 폐로 허연으네. 아시 밤이 저 완, 시집 오젠 허난, 구엄 완 저 밧거리 저 완 보난 마당에 보리낭 놀런 전 그디 셔렌, 누게 저 온 사름 말이, 우리 켜당 오라방덜 저다 도렌 허난, 아바지도 일본 셔 부난 허연. 시집 갈 때는 몰르고, 사진도 아이 찍고 경 헛수다. 사름으로 퀘도 저 오고, 화리도 저 오고, 찻장도 저 오고, 미싱도 다 사름으로 다 아시날 문딱 저 완 마썸. 뭇 번 저 완.

102009 @ 잘 해왓덴 허지 안헐디강?

102009 #2 잘 해왓덴 현 디게. 원 우린 어떻사 헤신디 잘 헤 온 것도 모르고 난 그자 사는 거엔 살안, 살안 우리 아버지.

102009 #1 잔치는 양, 그 때는 한창 마당에서 헛수다. 식장을.

102009 @ 예, 그거는 양, 나중에 물어보쿠다.

102009 #2 게난 이 이불 두 개, 요 두 개 헤 노난 이제 ㄱ뜨든 시어머니네 하나 안넬겨주만, 안넬이랑 말양, 게난 이불 하나허고 요 하난 풀안으네, 만이천원 받안, 이제 돈, 잊어불지도 안 허여. 만오천원 받안 풀안으네. 이제 이불 사간 사람도 신업 살앗수다. 겐 풀안으네 그걸로.

102009 #1 양단 이불이엔 허연, 비싸낫수다.

102009 #2 양단 이불 일본서.

102009 @ 그 땐 비쌌수다양.

102009 #2 그 때 일등으로 헛쟁 허여. 게고 옷도 양단 옷 허영 우 알 입언. 양단 옷 우 알 입어네. 게난 그 양단은 애월에 허는 할망 셔 난디. 그디 간 맞추안. 양단 풀레기 일본서 어전 완 맞추안, 게난 켜당덜은 우리 친정이 돈 어신 사름이 뜯 경 출려쥬젠 흐명 곱아나서게. 곱아낫수다게. 게난 그 땐 나 일본서 오명 어전 오난으네 잘 출렷젠 흐고. 켜당덜은 에에 밧도 돈 어신디 그거 허연 출려쥬젠 흐명. 밧도

굴머가는 디 출러췌젠 허멍 해도. 도새기 두 개 질루우단으네 도새긴 두 개 질루우단 하나 풀안에 잔치 행 먹젠 허난 이제 돛 잡는 사름도 빌어사 돈 주고. 하나 풀안 그걸로 비용 헤 가고, 하나만 잡앙 헌 걸로 우리 알아져마썸. 나가 그건 알아지는거. 경 행으넌 시집이우다. 시집이, 하하하하하. 시집이우다. 시집이, 예.

102010 @ 다음에 양, 결혼식은 어디서 험디가?

102010 #1 결혼식은 양, 마당에 식장 출려 난, 이제 거 전인 결혼 안 헌 총각덜 멧이 다 짱 텅이멍 식장을 우리가 꾸멋수다게. 게른 무시거 천막이영 치곡, 낭 해당저 명석하곡 허영 딱 청 허른 식장을 만들어, 경 허영 거기서, 게도 우리 헐 땀 양, 주례도 셋고 집사영, 다 헐, 또 사진도 찍고 헛수다마는. 게른 친족들이영 이제 다 모아들영 찍은 것도 있고, 게 한 쪽엔 보릿낭으로 허허,

102010 #2 보릿낭 시난.

102010 #1 그 보리낭 양.

102010 #2 보라낭으로 양 막앙으네. 보릿낭 우인 보난 호박도 싣고.

102010 #1 마당에 식장 출련으네 잔칠.

102010 @ 뽕풍 청으네?

102010 #2 뽕풍은 못 봐 원. 뽕풍은 안 친 것 님아.

102010 @ 뒤에 청으네 사진.

102010 #1 뒤에 뽕풍은 첫.

102010 @ 사진 찍젠 허난 게.

102010 #1 뽕풍 영.

102010 #2 명석 끈 건 알아진다. 명석 끌고. 올레서 영 들어가는데 발 탁탁 차멍. 올레 들어가민 입돌이영 톱 정으네. 들어가멍 걸리멍 나도. 우리 집 담지아니허영 돌로 문딱 시아버님 문딱, 돌 허영 영.

102010 #1 돌쟁이 집이난.

102010 #2 돌로 문딱, 입돌허고 흥끔 높으고, 또 이문간 저레 흥곡, 돌 시 반디썸션, 경 헌 집입디다게. 경 허연 발 걸리멍, 그레 넘어강 지방 넘어가고 이문간이 널 짹문이 허른 게,

102010 #1 경 허고 잔치 때도 양.

102010 #2 그레 넘어강.

102010 #1 둘러리엔 허영 신랑 둘러리 혼 사름 허고 새각시 둘러리, 그 새각시 둘러리도 이제 사진에도 잇수다마는 허고, 신랑 둘러리 허른 그디강 모든 걸 이제 신랑 뒷바라지를 헤 줍주. 사진 찍을 때도 웃도 잘 보고. 영 행 사람덜도 메우고 이제도 험수다마는. 또 새각시 둘러리는.

102010 #2 사진쟁이가 곱으난게. 사진쟁이.

102010 #1 사진쟁이사 게 왕으네, 마당이 왕 찍곡, 영 그 땀 게난 집마다 잔치허른 어느제나, 게른 거기서도 문 저 축사도 총각덜 허른, 친구덜 허른 축사도 왕 잃어주곡 또 주례도 왕.

102010 #2 그 땐 거민 무사 부모님덜은 아니 나왕 찍는고?

102010 #1 무사 연날.

102010 #2 경 허연 그 날은 부모님덜은 아니 찍어서.

102010 #1 아니 부모네 찍은 디 어떠냐 허면 이제 사진 잇수다마는 신랑 신부만 처음 찍고, 이제 친족덜 문막 ㄴ짜 찍어서. 이제는 주례 뭐 집사허고, 부모네 양가 부모허고.

102010 #2 헤꼬만 현 사진기로 허난.

102010 #1 그 땐 양가 부모를 안 찍어서, 흠치 권당들이영 그자 이.

102010 @ 사진 값도 비쌌주예.

102010 #1 예, 비싸곡 허난.

102010 @ 흔꺼번에.

102010 #1 흠치 찍어분 거.

102010 #2 게난으네.

102010 #1 겐 또 주례도 사진 안 찍엇주마씨.

102010 @ 사진이 비싸부난산디게.

102010 #2 그 때도 쉼 하나 폴앙으네 잔치허젠 허난게. 난 영 소문만 들엇주. 시 집오난 동네에.

102010 @ 그 때는 사진찍는 사람들이 별로 드몰어마씨.

102010 #1 사진 못 찍은 디도 하고.

102010 @ 아이, 핫주게.

102010 #2 족은 아들이난 사진 찍곡. 쉼 폴앙 할으방네 험젠 허난, 영 이제 담 문 넘언 들어났수다. 들어도 난 새각시난 그거 영 행으네.

102010 #1 돛 행으네 거 저, 흔 칭, 그 땐 흔 칭짜리 돛이엔 허든 막 태 낫수다 게. 아이고, 그 집인 잘 백연 그 집인 흔 칭 돛 잡암젠 험서, 영 허연.

102010 @ 삼춘이 하영 혼수품 행 와 부나네 사진 찍은 거 닐아.

102010 #1 하영 출런 와부난.

102010 @ 와 부난.

102010 #2 식구덜 하고 허난.

102010 #1 도새기도 흔 칭짜리 돛 잡고 행으네. 잔치를.

102010 @ 잘 보이게.

102010 #2 게난 족은 아들이난 경 헤 줍젠.

102010 @ 것도 이실거고.

102010 #2 뭐 현 말덜토 들어도 난 시집오란.

102010 #1 우터레 형덜 행 못 현디.

102010 #2 못 행. 잔치 무시거 헛수가게.

102010 #1 족은 아덜 돼가든 흠끔 낫곡.

102010 #2 잘 험젠.

102010 #1 이 사람도 무시거 출런 오꼭 헤 가난. 체멘도 잇고.

102010 @ 그러십주.

102010 #1 아멩이나 잔치허지 못허연.

102010 #2 게 우리 할으부지가 애월읍에서 소문나랏수다게, 구장. 군이 아홉해 허연 양, 구장을 아홉해 허연.

102010 #1 중엄 흥 구장 침이엔 허멍. 흥글어나서.

102010 #2 게난 아버진 일본서 셔도 할으버지가 경 흥 구장 흥 구장, 애월면에 가도 흥 구장 손지 무시거 험구나허영, 경 뿃 아니허곡, 시아바님네도 흥 구장네 집 이 죽은 메누리 험서 험서 행으네, 경 동네에서도 막 허난 저 둘쟁이, 그 때도 둘 깨는 사람덜이 막 으라이, 간 보난으네, 할으방덜 그디 완 잔치 먹은 사람덜 멘딱 둘 깨는 하르방덜이라게. 게난 아버지 벗들인 생이라. 벗 양.

102010 @ 예, 벗들 게.

102010 #2 뜬 디난 몰르고 문딱 둘 깨는 하르방덜게. 옛날 저 강씨 하르방네영, 누게, 이젠 보난 문딱 그 하르방덜 완 먹으멍 경. 죽은 아덜이난 저 흥 구장네 집이 죽은 아덜 풀앙, 잘 먹언, 잘 잔치 멘들안. 잘 먹으크라. 잘 먹으크라. 가다 허멍 허는 소리해도 우린 뿃도 몰르고 그 땐 마당에서덜만 먹으난 양, 어느 무신 천막을 치카. 명석 끝앙 마당에서 먹읍디다게.

102010 #1 경 헤도.

102010 #2 경 헤도 눈영 비영 흐끔씩 그 때 와도 어떻사 헤신디 사진도 나오고 저 하근 거, 먹는 것도 마당에서 어떻사 허연, 막 왕왕작작 먹으나네 초가집 헤끄만 현 집에서.

102010 #1 마당 완 저 천막쳐난 그디서 막 손님 접대허멍 헛는다, 전인 게도 양 그추룩허멍 먹엇는다 우리 어릴 때 잔치헐 땐 보든 그 통보리압이엔 허영 잔치도, 거 밥이 두 가지 시 가지라 나서. 통보리압허고 이 저 그냥 우시상에 밥 허고 딱 난 거, 거 통보리압은 제일 저 아이덜허고, 그냥 제일 일반사람덜 겐디 그 땐 허든 거 돛레기가 어려우난, 돛레기 석 점허고, 거 저 수에 혼 점허고, 두 비 혼 점 먹곡 행 그것이 뭐냐든 조커지, 조꼭, 꼭고리, 조집, 조남 꼭대기걸로 푹푹 격엇당 그것에 다 적고지 꿔멍 밥 우터레 꼭꼭 꿔멍 다 이제 잔치는.

102010 #2 혼 사람이 하나.

102010 #1 갱 헐 먹곡. 또 그 때는 어른덜은 양 산, 지금은 영 낱 ㄱ찌 먹으민 뉘는다, 메 상마다 상을 이제 독상허영.

102010 #2 사람마다 독상허영.

102010 #1 푹푹 출렁 갑디다게. 게난 집마다 갱허난 잔치 먹으레 가든 상 받앙 와샤, 상 받안. 그추룩허영 출렁 헛고.

102011 @ 경 허고 신흠살림 양, 어디서 헛디강?

102011 #1 신흠살림은 아부지 물려준 그 집, 박 안팏거리가 셔 난수다게. 안거리 에는 아버지네가 살고, 우린 밧거리에 헐 이제, 거 한 쪽은 쉼막이고 방 하나 싹고,

그디 죽은 영 삼방 새끼 잇고.

102011 #2 밧거리에 우리 사는다.

102011 #1 거기 살아낫주게. 게난 저 창문도 열젠 흐른, 요즘은 유리창인디, 유리창이 이섯수강? 종이 블랑 영 해노문.

102011 @ 그 때야 다 그거주마썸.

102011 #1 눈, 눈 와가든 거 영 가마니테기나 영, 흐끔 비 들이치든 해 가든 와와현 디서.

102011 #2 불이 셔게? 술이왓허영 썬으네 허든.

102011 #1 자꾸 와와해도 이제, 그 때는 다 호야 등 썬.

102011 #2 호야 등 물로 씻지 아니허든 어둡곡.

102011 #1 어두와가든 등 허기가 뭐 허고.

102011 #2 호야 상.

102011 #1 살림은 게 허다보난 침 아버지네영 ㄴ찌 살멍 허다보난 이 사름이 고생 많이 헛수다게. 업는 살림에 허다보난 해도.

102011 #2 경 해도 멧 년, 이제 우이로 알레레 하나 나나네 아버지네도 이제 저 상간집을 느네 안거리에 왕 살라. 우리 저 요 한질에 큰 아덜네집 밧거리에 그디. 우리 큰 할망이 목실어낫수다. 게난 그디강 살켜 허멍예. 두 어른이 그디 완 살아부난 안거리에 그루후제 상간집이 살앙으네, 밧거린, 저 보리장만, 보리장만 해당 농곡, 조 장만해당 농곡, 우리 살아난 디 그추룩 허멍 안거리 상간집이 살멍. 살아도 오래오래 살안. 오래오래 살안 아기 둘 난으네 아기 싯 채 나는 디 잊어볼지도 아니허여. 이제 와와현 죽은 구들에 영 창문, 영, 종이 블른 창문덜에 이제 국이영 밥이영 구들러레, 구들문, 부억더레 가는 디도 게 무신 낭 널짱문 허영으네 영 행을 곡 덕경으네 허난 구들에 불가시든 허주마는.

102011 #1 산체기문도 해서.

102011 #2 국 거려노난 게, 죽은 구들에 저, 아기, 저 아기 두 번 채 아기영, 구들러레 국 거려가렌 허난, 이 아방은 큰 아기만 거넘허단 보난, 두 번 채 아긴 그 국에 디어 먹언. 경 허고 오물랏기 알레레 데어 먹으난 어디강 구완헐 디 십니까? 어둡곡, 호얏불허곡 어디 갈 처리도 모르고 올 처리도 모르고. 아이고 이거, 아기 그날 아기 밤 새낭 우난. 무신 지름도 데겨박, 그 때 무신 그런 거.

102011 #1 웬장도 블르멍.

102011 #2 지름 블르곡 무신 아무것도 헐 충 몰르난에, 지름 블라가난 더 와삭허연, 와삭현 걸 몰랑, 밤 새낭 호얏불이 싯카. 뭇 허영. 게난 뒷날은 누게 말이 도립병원에 가렌. 도립병원엔 어떻허영 가 십니까? 그 때 한질에 가난 무신 차 저, 택, 이제ㄴ뜨든 짐차, 화물차, 그거 허연 재게 가젠 허난, 버스도 싯젠은 해도 버스 탈철일 몰르곡, 게난 그 차에 누게 붓던으네, 저 용흥사름 손 들런 막 이제 우리 아는 사름 막 살려줍젠 허난 무사 무사 허난 아기 데 먹언 도립병원에 감젠 허난, 이제 도립병원에 가나네 그디 가난 약 블라주고 무신 양까징기 해 주난, 도립병원인 어

디레 간 철인 알아, 그디 가나네 누게 그디 간 누게고라 어떤 할망고라 들으난 에
 에, 아기 데 먹은 거문 저 춤지름 볼르곡 저 무시거, 갯냥쌌 백상 채 매민 웰건디
 해도, 아이구 이디 온 거 아맹해도 아방이 약 불량 가젠 허연, 병원장신디 가나네,
 양 삼춘 이거 저 자기 불찰입니다. 경 허멍 불란 올 땐 경해도 저 도립병원이, 아니
 이젠 보난 관덕청이라. 그 땐 관덕청을 무시거엔 골아나서. 게난 그디 노력완으네
 걸언 와네, 버스 타멍 헤 난. 버스 타네 집이 왕으네 오멍 해도 그 때 병원에 가나
 도 밤새낭 업언 살안. 불은 호얏불, 지름이 셔사 불도 싸질 거난, 지름이 어시민 사
 례 가집니까? 못 사례 간. 불간 가사 지름도 사고, 겐 사례 가젠 허민 돈 앓정가사,
 천원. 그추룩 행, 허연 도립병원에 뗏 번, 저 혼 사흘 가 와도 좋지 아니허연. 이젠
 막 그디 똑고냥이영 막 이디 아래영 문딱 데우쳐부난 문딱 헤싸저네 헤가난, 이제
 그 쫘시에 창오지 덕영 헤봐도 안 댜곡, 무시거 저 무신, 낭 백산 그 사름 곤는 것
 백산 해도 한 뉘난게. 한질이 베릿장 어명이엔 허연, 점방에 저 양면골지, 양면골지
 사당 덕으젠, 사당 덕으젠 한질에 가난 베릿장 어명이 이제 영영 헤 낫수텐. 날은
 어두와가고 쉼지름 흐끔 산 놔 두고, 아이고 영 헤낫수텐. 아이고 그거 경 허지
 말앙 강 들헌 물 사끄랑흔 물, 사끄랑흔 물이나 설탕물이나 허영, 아기 일령 크렌.
 경 허멍 양면골지 하나 풀아주고. 삭가렁이영 설탕꺾를이영 줍디다. 돈은 어스난 게
 난 닐랑 왕 드라. 거 어전 완 그날 처낙 삭가렁이영 허연 남박에 헨 카네, 그 아길
 양, 것도 아집디다게. 일로 문들락기 데난 밥 먹을 생각이랑 말앙, 게난 큰 아긴 완
 할망신디 뗏겨두고. 할망신디 돌아뉘, 아이 영 심어간 시에 가노렌 헤노난, 그 할망
 은 재게 안 완젠 욱해도 이제 그 베릿장네 집이 양면골지 사례 가난, 양면골지도
 그냥 주고, 애기 우리 손지도 그 때 저 무신 불에 저 무신 불에 난로가 아니고, 그
 때 저 무시거, 흑으로 멘든 거 뵈고? 저 그걸로 헨 데 먹언그네 영영 헛저. 겐 설탕
 허고 저 무시거 삭가렁허고 쥘 게 오란으네 카 그네 영 행 들어앗지렌. 게난에 들
 어앗지렌, 들어앗지난 양, 그날 저녁에 쑥 헨 게, 아기가. 쑥 허난 그 데 먹으난 문
 딱 헤싸전 가족 헤싸전 잘잘잘 헨. 잘잘잘 헨. 양, 불은 왁왁허고, 업언만 살멍, 살
 멍 허단 이제, 그 때 전기 시설은 완 다 헤 논 때라. 우리 생각에 그 때 양, 다 이
 디 완 초집이도 문딱 무시거 전기 시설은 다 헤 난. 수도물은 혼 메칠 전이 므너
 므을에 오고, 겐 전기시설은 이제 나중 그 때 행 설탕물에 행 똑고냥도 쑥, 존등 아
 래에도 쑥 허연 이제 쑥 허연 흐끔 잔, 이제 뵈날은 도립병원이 가젠 천원도 차비
 언곡 허연 이제, 경 헨 이제 저 그후젠 아, 혼 메칠 시난, 이제 무신 불 완젠. 불이
 무시 것산디 양. 말젠 보난 업언 산 당당당 호야만 닥가, 아방은 호야 닥그지 못허
 고, 난 아기 젓 맥이고, 아기 업곡 허난 무시거 어명이 잘 먹어져사 젓이 나옵니께
 게. 무시거 잘 먹지 못 허고 허난, 겐 말젠 업언, 쉼찬이 헨 때 업언 허단 보난 어
 떤 사름덜이 이제 무시거 등 들안 무시거 험젠. 겐 말젠 보난 전기다마 양, 아 게난
 양 아기 들앙 아진 뵈날은 병원에 가곡, 그 설탕물허난 쑥 헌디, 아이 게난 불이 싸
 지는 거라. 아이고 지꺼전, 아이고 지꺼지난 스몫 이런 일이 어디 신고 허연 잇어불
 지 아니합니다. 가이 두 술 때 경 헤난거. 게난 가이가 이제 마흔 일곱이우다. 게난

이제 몇 년사 돼신지 양, 그처럼 해 낫수다. 마흔 일곱마씨, 가이.

102012 @ 그 다음에 양 아이덜은 어떻 웹수가?

102012 #2 아이덜 다섯 쉴수다게, 다섯.

102012 @ 오남매?

102012 #2 예, 큰 아덜은 몸이 불편허연, 몸이 불편허연. 이제 거세기 장애인센터 에도 가곡, 잣다 왔다 허연, 이제 그 군인, 이디 사름 군인 살 때에 어떻 뭇이 잘못 웹고라, 경 험 고생 많이 헛수다게.

102012 #1 여기서, 저 나가 곧주. 보충역 살명 저, 한림도 살곡, 여기도 헛는디,

102012 #2 신창도 살곡.

102012 #1 그 디서도 그 보초 사명 뭇 잘못허른 매 맞곡 해십주. 경 허단 헌게 허명 어떻 어떻 정신 좀 장애가 생겐. 경 현 것이 허난 군대 보충역 졸업해도 뭇 허단보난 그럭 저럭 현 것이 이 고생 많이 헛수다.

102012 #2 지금도 것이 좋아지질 아니험마씨.

102012 #1 또 작은 아덜은 아까 데어먹언 어디 저, 요양병원에 이제 잇수다.

102012 #2 복지과 나완으네, 이제 세 번 간 와네.

102012 #1 거 똥도 그냥 어디 저 복지계 나완으네

102012 #2 잇수다마는.

102012 #1 저 어디 요양원에 쉴고.

102012 #2 탑동 어디 험젠.

102012 #1 셋 똥은 어디 요 저기 가게 좀 보고. 작은 똥은 저 한림 이제 교육청 에, 저 교육계에 뭇 그디 자모.

102012 #2 그럭저럭 다.

102012 #1 밥은 먹엄수다.

102012 @ 계난 저 아덜 돌이고 똥 셋이고나양.

102013 @ 그 다음에 아까도 막 곁앗수다마는 시집살이허명 기억에 남는 것덜 흐 끔 곁아줍서.

102013 #2 아이고, 게메, 시집살이허명. 기억이나 뭇.

102013 #1 계난 나부터 먼저, 우리가 거.

102013 @ 시집살이 허명이우다예.

102013 #2 예.

102013 @ 여자 삼춘이 말해 봅서.

102013 #2 시집살이, 하하하, 에이구 게메, 시집살이엔 흐난 게 시부모님이, 아이 들이 뭇이 잘못웹디다게. 계난 성질이, 아이덜이 침 마칠 철이도 몰르고, 심방허영 뵈 철이도 몰르고, 아기덜이 밥 아이 먹어가도, 게른 영 험신가, 울어가도 영 험신 가, 시장험 우는 철이도 몰르고, 계난 늙이 사름덜은 심방허라, 굶허라, 경해도 경도 몰르곡, 우린 식구가, 동생, 형님덜이 으라이우다게. 너이곡 헤노난 양, 우리 시어머 닌 하겐 것이 옛날 노인이라서 하겐 것이 흐끔 앞뒤 생각을 잘 못헤 양, 경 헤나난

이거 죽은 메뉴리엔 행 흐끔 영, 흐끔 영 감싸그네 무시거 허지 못허난, 그런 때고 저런 때고 잘도 힘들언 양, 나도 힘들언, 아이고 이거 영 해도 살아질건가, 살아질 건가, 게른 흐끔 뜬 메뉴리덜 보멍 눈치 알앙 흐끔 영 메뉴리들 흐끔 영 무시거 허 질 못헤마썸, 어머니. 게난 나대로만 허영 영 행 나가젠 허민 그렇게 힘들곡 아기 울어가도 시어머님은 옥헤마썸. 거 무사 올렘시, 아기덜. 아기 올렘시니 배고프곡 어떻 뭐 행 못허영 헌 철인 몰랑 존심이 흐끔 어서노난 양, 것도 경 허난 양, 형님 덜광 뜨라가지 못 허여마썸, 나가. 뜨라간 생활을 못 허여마썸. 경 허곡 성님덜은 딱시 날 젊엇쟁 어디 아기 어디 어머니 뱃겨똥 아무디라도 가지주기 뭐. 경 해도 그것도 질 아쉽곡, 생활이 항상 똥신것이 어려와노난 똥 찜, 잘도 힘들디다게. 힘들 영 그자 친정어머니 신다 강으네 무사 완디, 무사 완디? 허른 가그네 무사 아니우 다 허른, 친정 어머니 배 고픈 철이 알앙 밥도 영 무시거 출렁 주곡, 속도, 보리떡도 헛당 주곡, 경 행 해도 그런 말 왕 곤지도 못허고, 그자 우리가 힘들어나난 아기 덜이라도 흐끔, 해도 살아가든 잘도 힘들언 늬이 뽕작밧디 양, 허영 양, 뽕작밧을 느랑 헛수다게. 느랑 허난 무시거 게도 그날 그날 영 무시거 용돈이라도 나야 혈건디 늬이 뽕작밧디 그거 애쓰게 허영 아기, 아이덜 무시거 고무신도 상 신어사, 머리도 각그레 보내사, 게난 회비도 못 내영으네 늬이 집마다 돈 꾸레 땡이곡 양, 게도 동네사름들이 조앙으네 돈 꾸아쥔 다 살앗수다게. 우리 돈 꾸레 땡이멍, 아기덜 경 허연, 경 허연 살앗수다.

102013 @ 다 경 허멍.

102013 #2 그 당시 힘들게, 잘도 힘들언.

102014 @ 그 다음에 자식덜 결혼은 어떻 헛수가?

102014 #2 자식덜 결혼은 저 두 아인 집이서 허고, 서인 다 식당에서 간, 예, 식당에서 인날,

102014 @ 제주시?

102014 #2 아니 요, 예, 제주시도 간 허고, 제주시도 간, 두 사름은 제주시 간 풀고, 하난 딱시 하귀 하나로마트에서 풀고 경 헛수다.

102014 @ 하귀 하나로마트면 요 근래네?

102014 #2 예, 이게 뱃 년백이 혼 삼년.

102014 #1 죽은 아덜.

102014 #2 혼 삼사년백이, 막 늦언 시겿수다.

102014 #1 거의 이제 늦언, 가이도 어디 저 공부허켄허연, 육지 올라간 서울 사는 것이, 군인 간 완 거 헌 것이 거기서 어디 저 대학교, 육지서 나완, 저 서울 간 무신 저 시험공부여 똥시여 허단보난 양, 시험은 안 똥고.

102014 #2 세월은 다 가불고.

102014 #1 세월은 막 가고, 마흔이 넘어가난, 마흔.

102014 #2 아니, 서른 일곱에 오긴 왓주기.

102014 #1 완 흐난, 재게 오라, 느네 어머니 아버지, 늬는 철이도 몰르느냐, 하도

오랜허난. 아이 오켄 허단 완 현 것이. 어디 쟁 새각시 얼른 구해집네짱? 요즘 담지 아니허연, 게 제우 허연 결혼시견허난, 이 시에서, 아 첨 하귀서 시겼고.

102014 #2 하귀서 헛수다.

102014 #1 이제 첨 손지 하난 난으네, 아들 손지 이시난.

102014 #2 컷수다, 문.

102014 #1 죽은 딸렌 아덜,

102014 #2 죽은 딸은 이디서 결혼헛수다게.

102014 #1 집이서 결혼허연.

102014 #2 가이 교육청에 신 때 양, 어머니, 손님덜이 함니텐, 게난.

102014 @ 응, 교육청 하 주게.

102014 #2 교육청에 신 때난 첨 아니 와본 선생님덜 우리 집이 많이 완, 한수풀 어른덜 많이 와 간 양, 첨 우리도 경 곤주기, 어머니 나 때문 영광이우다. 기여게, 기여게, 딸이라도 하나 잘 나사느네게. 게난 이제 집이서 허젠 허난 이틀 손님을 마당에 천막도 서너개 쳐 놓고, 첨 큰 잔치 혼 번 허고, 큰 딸하고 죽은 딸 허고 집이서 헛수다. 경 허연, 게난 이제 죽은 딸도 아덜 성제에 딸 흐나, 경 헨 신디, 직장덜 두 가시 텅이는 사람덜이난. 다 그런데로 밥만 먹엄수다. 크젠 못 살아도.

102015 @ 메뉴리허고 사위에 대허영 혼 번 곱아줍서.

102015 #2 메뉴린, 메뉴리허고 사우이도 다 늬이라마씨. 늬이라. 아명헤봤자 메뉴리 딸만이 못하고, 딸은 소켄말 다 헤지곡, 나쁜 말 막 욕을 헤집니께.

102015 @ 시어명이 잘 영 해야 텔 거 아니우파?

102015 #2 예, 친어명 친어명 해도 메뉴리신딘 딸신디츄록 못허는 겁디다, 못허여. 게난 어떻 눈치만 봐정 어평허코. 지도 나 눈치보곡 이추룩허영.

102015 @ 서로 눈치 봐부럼고나.

102015 #2 예, 경 허영 이제 딸신디 사우이도 게, 사우이도 각시엔 현 양만 행으네. 하하하.

102015 #1 사우이도, 이,

102015 #2 사우이도 늬이라.

102015 @ 늬이주게.

102015 #2 옛날 늬 늬 해도 무사 늬이엔 곱암신디,

102015 @ 각시 눈치만 보주게.

102015 #2 예, 각시 눈치만 뵙 허나네. 각시도 나신디 곱은 말 다 스나이신디 아이 곤곡 허는 생입디다게. 나안티 욕들은 말도 다 아이 곤곡.

102015 @ 예, 안 허주게.

102015 #2 예, 다 아이 곤는 생입디다. 예.

102015 @ 다 자존심.

102015 #2 예, 어머니, 엄마헌티 현 거 다 무사 신랑에게 곱음니쥬게. 나 그디간 못 현 거 뵙 잇수젠허명 경 다 아이 곱읍니다.

102015 @ 요즘 여자들은 다 잘 헛젠 곱아.
 102015 #2 양?
 102015 @ 다 잘 헛텐 곱아.
 102015 #2 다 잘 헛젠 곱아. 경 헛그네.
 102015 @ 무신 거 상 오곡 허지 안 헛니까?
 102015 #2 에이그 상 읍니다, 하건 것덜. 상 하근 거.
 102015 #1 게도 집이 오믄, 올 땐 요 번이도 오켄 헛도. 아 요즘 덩곡.
 102015 #2 더웬 이디 오지 말렌 헛십주게.
 102015 #1 헛끔 선선허건 오라.
 102015 #2 족은 똥네도 다 오란 그디.
 102015 #1 이제 오지 아니허곡 허영.
 102015 #2 어머니넨 에어컨도 엇곡, 시원헌 것도 엇다, 헛난.
 102015 #1 그 땐 무신 거 영 뭘 먹을 거영 영 사읍니다게.
 102015 #2 스스흔 거 하영 헛니다게. 어머니네 건강허게 먹는 거영. 이것저것 막
 요번이도 한림서 거 무시거 죽 찻젠, 것도 흔 박스 오멍 퇴근헛 오멍 이레 놔 된
 가고. 이제 우리 도마도 아이, 작넨엔 도마도 아이 싱그곡, 오이도 안 싱그고 허난
 한림 가믄 그 직원, 기능직 직원덜 막 무시것덜 그런 것덜 폴레 읍니텐, 방울도마도
 도 오곡, 허믄 그거 자꾸 사당 가믄, 다섯시믄 퇴근허여예. 다섯시 반이믄 이디 오
 라마썸.
 102015 @ 한림초등학교에 잇구나.
 102015 #2 한림고등학교에 이서 마썸.
 102015 @ 한림고?
 102015 #2 예, 한림고등학교에 잇수다.
 102015 @ 거기 교장 선생도 잘 아는다.
 102015 #2 알아마썸? 게난.
 102015 #1 서무과에 거 뭘.
 102015 #2 게난 교육청에 오래 잇단 저 이젠 한라초등학교에, 아기 이만이 벤 때
 난 집, 그 즈깁이우다. 한라초등학교 즈깁이 살암수다. 부영아파트. 게난 거기 배 이
 만이 현 때도 경 땡이곡, 흔 오넨반 한라초등학교 땡이다네, 이젠 저 서귀포 교육청
 에 또 가단, 가단에 차 몰양 땡이는 사름이난에게. 가단 또, 이제 딱시 한림더레 전
 학, 이제 일넨 넘어가난 새 해 나믄 어머니, 몰라 시에 가질 건가? 간 보난 그디 선
 생님덜 ㄱ찌 근무헛난 선생님덜 하십디텐.
 102015 @ 예, 경 헛니다게.
 102015 #2 하십디텐 허연 이제.
 102015 @ 선생덜에영 왓다 갓다 허지예.
 102016 @ 그 다음에 결혼에 대허영으네 다 곤지 못헌 말덜 잇걸랑.
 102016 #2 결혼에 대허영 다 곱앗주. 하하하하하.

102016 @ 거난 경 해도 더 허고 싶은 말.

102016 #2 더 허고 싶은 말은 무시거 곶을 거 잇수가. 못 살앙으네, 에이, 별 말 다. 쫓. 곶읍서? 하하하

102016 #1 하하하하하

102016 #2 힘들엉, 곶읍생허믄.

102016 #1 힘든 말만 허믄 안 돼주게. 거 영. 저 지쁜 말도 싹꼭 해야주.

102016 #2 부끄르왕 난 못 곶으크라, 부끄르왕.

102016 @ 아이, 거. 누게 아무거나 게 곶암시믄.

102016 #1 참, 이.

102016 @ 앞뒤가 엇수다게.

102016 #2 앞뒤 어시 곶을, 부끄르왕 못 곶아.

102016 #1 잇수다게, 처음 결혼허연.

102016 #2 부끄르완.

102016 #1 허니까, 그 일본 텡이멍 영 이젠 영 양지 서늡광 해도 그 뎨 참 곶와 낫수다게. 스물 한 살이난. 게난 저 난 늑우뵤 뵤작 좀 행 허곡 허믄 넘어가멍 곶질 메는 디 허믄, 저 아긴 누게고? 영 곶닥허게 늑우 곶질이나 안 뵤직헌 아이가 완 뵤저 허멍.

102016 #2 자꾸 할망덜 그런 말 곶안.

102016 #1 넘어가멍 뵤 텡 막 곶곡허믄, 난 강 왕 그런 소도리허멍, 울멍해도, 거 다 흘 수 엇다, 어떻허느니.

102016 #2 하영 울멍 헛수다, 울멍 살안.

102016 #1 자꾸 울멍 뵤 곶지 아이허곡 허믄. 달레멍 뵤 행 살곡 양. 그것이 게 곶 그 때는 거 텔레비 이젠 나도 라지오도 어려왓수다. 집마다. 라디오가 없어. 게 난 라디오 하나 허젠 허믄 막 무선통신이엔 허영 막 높이 안테나 세왕, 그 무선 조 립행 것도 전파사에 가서, 거 저 조립행 꺾는 것이, 게믄 귀레 영 들영 라지오 듣곡 허단, 그 때 나중에 이제 기념 뵤 허젠 결혼 얼마 어션 허난 셋 형님이 서울 살단 그 내려오멍 트란지스터 라지오 곶 하나 사와서 마썸. 기념으로 사 오난. 아 거 둘 어메영 테니믄 집안에도 노믄 영 소리나고, 동네에서 그거 들으레 양,

102016 #2 막 오라난. 밤이서도 막 오고.

102016 #1 라지오 들으레 양, 하 그 집이 라지오 싹저 허영.

102016 #2 막 밤이서도 오고, 동네사름.

102016 #1 멡 텡이고 허다가. 또 이 그걸 이제 결혼 초에 얼마 안뵤 뎨디, 셋아 주망이영 허난 게믄 시에 가자 강 극장이라도 좀 구경시기게. 그 뎨 극장 구경이 경 어려왓수다게. 웬만허믄 시에 아이믄.

102016 @ 대단해신게마썸. 하하.

102016 #1 극장을 못 간. 겐 그 뎨 어느 제일극장이던가 가서 이제 이제도 잇어 불지아니허여. 그 극장을 보느디 그 참 연산군, 이제 보니 연산군 거 영화라마썸.

그 영화도 그 때는 저거 시네마스코프라고 해 가지고 그림이 다른 건 영 죽안 이 화면이 크고 충천연색으로 그 때는 충천연색, 그냥 흑색이 이서나십주, 영화도. 겐 충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춤, 햇고 또 그 영활 본 후제 밥 어디간 맛존 거 사줍디 다게. 두 가시가 간, 아 그날 겐 셋 형님은 빨리 가켄 허연 가부난. 우리도 밥 사먹고 허연 오단 허니까.

102016 #2 질을 일러부런.

102016 #1 어두와간, 날은 어둡고 현디 버스는 그 때는 아홉시나 지금은 혼 으덱 시른 버스가 끝나마썸. 아 거 그럭저럭 시내 어디 텅이단 보난 시간도 엇곡, 완 보난 떠 나부런. 어떡니까? 시에 이제 밤이 잘 디도 돈도 엇고, 시에 잘 디도 어디 잘 몰르고.

102016 #2 밤새낭 걸언. 하하.

102016 #1 이제 걸어가야겠다, 허영. 거 라디오 들리 메고.

102016 #2 하이고, 밤새낭.

102016 #1 걷는 게 요 동귀 저 이 지금 그 드리 신 하귀 내창 이염에 거기 저 이 사름네 육춘이 살아. 이제 시집간 얼마 안 간. 아 그레 완 밤이 그깟지 걸어 오난. 아이고 이거, 더 밤이 못 가켜. 이디라도 강 뉘 자야겠다. 그 집이 간 밤이 뉘 자는 거, 그디 들어간 양,

102016 #2 우리 스춘 성이 그디 살아났수다게.

102016 #1 춤 그디 자명 허연 뒷 날 아침 걸언 완.

102016 #2 걸언 또시 엄쟁이깟지 오고.

102016 #1 추억이 그거는 잊어볼지아니헤져마썸. 영화 본 거 허고, 그 걸언, 신흔 때난 걸언 와 나서.

102016 #2 이제 걸믄, 걸으렌 허믄.

102016 #1 그때 밤은 왁왁 어둡지, 뭐 이젠 차도 막 텅이느디 차도 그 땐 어섯고, 밤 질, 침 귀신이나 남직현 때 걸언 와난 기억이 이제도 잊어볼지아니허여마썸.

3. 밭일

103001 @ 오늘은 양 그 밭 일에 대허영 물어보쿠다. 밭 일 양, 밭 일은 어떤 것들 잇수강?

103001 #1 밭디 허게 뉘믄 옛날 이제 보리 갈곡, 조 보리 그르에.

103001 @ 예.

103001 #1 조 이제, 조 불리곡 헤 낫느디, 밭디 허믄 우선 요즘은 하근 원예작물이 막 해부난 조 보리를 덜 험니다게. 이 덜허느디. 전이 먹을 걸로 해 가지고 조, 불령 끝나믄 이 보리끄르에 다시 조 가느디, 조도 게우다게. 마가지라고 해가지고

양, 이 스방엔 흑이 양, 춤질왓 돼 가지고 그냥 그걸 잘 갈지 아이허믄 씨가 사질 아이협주게. 씨 사도 허곡 허난. 여기선 그초록 행, 마가지라 허믄, 막 켓데 이제 곧 거 날짜 영 봐 가지고 겐 아 이젠 막아가, 이던 막어가믄 막앗넨허지 아니협니까. 제주도는 양, 남풍 불고 막 마브름 불어가믄 마가 가쳐가믄 그 때 영 기회뵈네 마가지를 협주게. 게믄 어떠냐허믄 조 허게 되믄 이제 우선 초불 갈아놔 쟁기로 갈아놔 다음은,

103001 @ 거난 양 그 밧 일허민 보리 허고 그 다음은.

103001 #1 보리 허고.

103001 @ 종류만 일단 말 협서.

103001 #1 조 허고, 콩도 갈고, 팻도 가느디, 콩은 이제 또 유월절이 잇수다게. 절 재게 갈믄 그것이 이제 낭만 나불어. 게믄 열매가 적읍주게. 게믄 절,

103001 #2 잘 올질 아니허영.

103001 #1 예, 잘 올질 아니허여. 절이믄 이제 절기 저, 소서 유월절이라고 해 가지고 절기 때 이제 기준행 콩을 갈믄 낭도 얼마 안 크고 열매만 다글다글 허느디, 그 전에 갈믄 여기서 그냥 뭐 게곡 또 비료ㄴ튼 거 굽비료를 헉나토 아니허여마씨. 거 헷당으네 낭만 커불믄 콩은 안 돼곡.

103001 @ 산디, 산디는 안 해 볍디가?

103001 #1 산디 협니다. 산디도 이제 행 허믄 옛날 우리 아버지네 살 때 늘 산디 헷수다게.

103001 @ 나룩은 마씨.

103001 #1 나룩은,

103001 #2 나룩도 허고.

103001 #1 나룩은 이제, 이디서 보리 으물아 갈 때 메종이엔 허영으네 논에, 수답에 잘 골랐당 그 씨를 메종 낫당 이제 걸 싱경, 이식행 논더레 싱거사 허느디 메종 노첸 허믄 여기서는 걸름을 양, 풀걸름을 협디다게. 여기서 풀걸름이 뭐냐 허믄 저슬살이 ㄴ튼 거 비어당 이제 작두로 썰영 미릿 놉 골라놔 그레 물에 동가마씨. 그레 팍 헤노믄 그것이 혼 열흘 돼가믄 썩읍니다게. 썩어가믄 그레 나룩씨를 미리 킷당, 물에 킷당, 혼 흐를쫂 킷당 건정으네 나룩힐 때 나도 나룩을 해 나난.

103001 @ 나룩, 허고 양, 그 다음에 저 뭐는? 감저.

103001 #1 감자도, 나도

103001 #2 하영 싱거낫수다

103001 #1 주로 나도 하영 싱거낫수다마는

103001 @ 감저 양, 뺏대기, 뺏대기 허영.

103001 #1 아니, 아니. 겐. 전분공장에,

103001 @ 물 감저로.

103001 #2 전분공장 시난.

103001 #1 게믄 감제도 메종 낫당 저걸 이제 싱거사 허느디 혼 천 켱 이상 싱그

젠 허믄 하영 메종을 봐야 협주게.

103001 @ 수박도 해 보고 양?

103001 #1 예, 수박.

103001 @ 그 다음에 참웨?

103001 #1 참웨도 해 나고.

103001 #2 참웨도 해 보고.

103001 @ 고치?

103001 #2 고치도 해 나고.

103001 @ 다 해놔고나양.

103001 #2 예, 다 했수다.

103001 @ 지실도 해 보고?

103001 #2 아이 지슬은 안 했수다.

103001 #1 무사 혼 번, 농촌 저 진흥원에서 씨 조은 거옌 허연 그거 이제 혼 번 해 보도록 허난 그거 씨를 진흥원에서 권장허는 거, 일본씨옌허연 간 다단으네 허난 어디 저장할 디가 잇수강? 이제 고구마 저장고옌 허영 양 저 여기는 이제도 잇수다. 저 절간 으 혼 펜이 신디, 땅굴 파서 그 안네 딱 허게 온도조절기 놔 가지고, 저 감제, 여기서 감제옌허믄 고구마를 예기허는 겁주게.

103001 @ 예, 감저는 고구마.

103001 #1 지슬은 이제 그냥 지슬이난. 감자가 지슬인데.

103001 @ 예, 그냥. 믱멀도 해봣디가?

103001 #1 믱멀은 이 토질에 양, 이 스방인 믱멀은 안 돼어.

103001 #2 아이 돼어마씨.

103001 @ 담배는 어떻허고 마씨?

103001 #1 담뵤 옛날 아버지네 적에.

103001 @ 해 봣디강?

103001 #1 담배 현 거 담배 심부름.

103001 @ 자세현 건 나중에 물어보쿠다. 자세현 건 나중에 물어보고.

103001 #1 예. 허고.

103001 @ 밧 일 처음에 허는 것이 보리농사?

103001 #1 예.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 우선 그 보리농사 짓젠 허민 어떤, 무슨, 어떤 준비를 험니까?

103002 #1 첫째 양, 보리농사 허젠 허믄, 것도 큰 농사난 먹고 살젠 허민 보리허곡 조, 허허, 이디서 일년에 두 번 행 걸 먹는다.

103002 #2 도새기 걸름 식거가사.

103002 #1 보리허쟁 허믄 도새기 통시에, 그걸 걸름을 허는디, 걸름도 어떻허냐
허믄 보리낭 자꾸 노명 돛은 이제 질리우왕 허믄 그 돛 똥 싸고 오줌 싸고 행 걸름
을 막 헤노믄 쉼양에 걸름도 통시레 놔 마썸. 내어당 혼 들에, 두 들에 혼 번씩 내
어당 통시에 놓곡 또 보리낭 꿀곡허영 거 막허게 돛걸름 행 통시에 헤 노믄 썩영
그걸 내쫓당 양,

103002 #2 내청 이제, 질 애얌더레,

103002 #1 딱 허게 물 빠지고 허믄,

103002 #2 막 내영 놔둬사.

103002 #1 이제 보리 갈젠 허믄 그걸 저당.

103002 #2 골체로 내청,

103002 #1 거 골체로 내쳐 낱,

103002 #2 골체로 내청, 정, 혼뻔에 어저가젠 허믄.

103002 #1 밧 더레 저 가쟁 허믄 옛날 뭇 구르마가 싯수가, 뭇 잇수가? 뭇 이
등짐백이 어시난

103002 #2 게난 이제,

103002 @ 쉼로 헛주.

103002 #1 베, 쉼 행, 쉼질메행,

103002 @ 쉼질메.

103002 #1 양 펜이 네 개 식으곡, 지곡 행으네,

103002 #2 우리 저 강,

103002 #1 밧디 강.

103002 @ 아 거난 처음에, 저, 돛통에 이신,

103002 #2 돛통에 걸름을,

103002 #1 걸름을,

103002 @ 그 걸름을 내영으네 믋시 빼영으네 거 뵙아야 될 거 아니우파?

103002 #2 아니 게난 건 말제고. 마당 이염데러, 질 이염데레 흥끔 영 질러레 도
새기 똥을 막 골체로 날랑으네 그레 행 데명 영 행 데명 놔뒹당 흥끔,

103002 #1 물 빠지곡,

103002 #2 썩으믄 이젠 또 그 놈을 쉼에, 쉼덜 빌영, 동네 쉼덜 수눌영, 느네 집
이강 흥를 허민, 우리 집이강 흥를 허게허여그네. 수눌영, 쉼에 이제 짐 짐에 저 이
제도 우리 집이도 이서, 창고에, 게난 이제 등짐힐 것 뵙고.

103002 #1 걸름착허영,

103002 #2 걸름착 아니고 영, 무시거 쉼질메, 쉼질메엔 허믄, 양 펜이 영 허믄,
걸름착 두 개가 영 식거저. 게믄 쉼들 수눌영허믄 쉼 시 개로 행으네 몰앙으네 저
두에기 저 웃드르 밧디 식거강, 게난 그건 흥를에 헤도 다 못 허여. 영 군데 군데
놋당, 뒹날은 믋시 이제 아 그걸 강 흥를에 다 못 식거강, 나 뒹당, 뒹날은 또 우리
쉼로만 허영, 수눌음제 아니허영 그 쉼랑 가불랭허영으네 이젠 우리 쉼로만 허영으

네, 그 때 췌도 잘 맥이지 아니허든 가당으네 어떤 건 어퍼불곡 저허나네 어떻 췌도 믋음씨 존 췌를 헤지든 허곡 게 아니든 몬 질메도 질메에도 몬 격어불곡 걸름도 가당 몬 어퍼불곡, 경 헤도 어떻 어떻 달래여그네 허든 제우 나 그 읍집이 췌 빌언 허명 대명 허연, 이제 거저다 노든, 게난.

103002 #1 옛날은 그 때 비료도 엇고, 비료가 어섯수다. 비료 나오질 아니허난 우선 걸름허고 이제 또,

103002 #2 걸름을 막 뿌령 뒷날은,

103002 #1 오좁도 이, 오좁 항에,

103002 @ 게난 밧 갈 기 전이,

103002 #2 갈기 전이, 그걸,

103002 @ 걸름 뿌려?

103002 #2 예, 걸름을 뿌려 낱,

103002 @ 그 밧 갈앙,

103002 #2 걸름을 뿌려낱, 이제 다 뿌려지든 뒷날은 이제 췌 이제 췌를, 췌도 배 불어사 밧 가는 때문에 췌 죽 췌사, 췌죽, 도고리행 췌죽 췌그니 잘 맥영, 밤이 츠 자강 맥영 보리싱은 물 컷당 정 가사, 정 가그네 이제 그거 뿌령, 걸름 웃터레 뿌려.

103002 @ 물 컷당으네.

103002 #2 으, 물컷당, 게사 재게 나곡게, 재게 나렌 경 허연 어떻사 헤저신디 경 물커, 경 허난 그걸 정 강으네 거 뿌령, 뿌령으네, 췌로, 췌로 갈아, 갈든, 췌도 딱 시 낫 돼가민 강으네 저 웃터레 강 출 풀 비어당 췌 맥이곡.

103002 @ 그 다음에 섬비, 섬비로 끄습니까?

103002 #2 섬피로 아이 끄는 사름도 싣고, 다시 딱랑 아이 끄서.

103002 @ 그냥 밧만 갈앙 내불어?

103002 #2 질 왓디 잘 갈아지는 밧은 그냥 내 불곡, 웃드르에 빌레방들은 돌 낱 허는 디 끄서사. 야티 잘 못 갈앙 췌가.

103002 @ 게 선비 우에 돌 낱으네 영 끄서야.

103002 #2 경 행 끄서도나고.

103002 #1 해벤 밧은 갈기가 저,

103002 #2 경 헤나서.

103002 #1 돌이 어스난 갈기가 부드러왕 가는다, 저 한질 우터레 가든 멘 자갈, 아래 뭐도 싣곡 헤노든 그거 이제 그냥 씨 뿌려도 잘 안 돼난 양,

103002 #2 자갈이곡 돌이곡 허난, 건 딱시,

103002 #1 보리씨를 묻영 경 행으네 굴체로 허택이곡 이러저럭 허명,

103002 #2 막 심들어주게.

103002 @ 갱 이제 그냥 췌로 갈아낱, 또 이제 섬피로 우이로 막 끄성 놔뒤마씨. 갱 허든 이제 겨울 들어가든 나.

103002 #2 갈앙 와. 갈앙 와그네.

103003 @ 아까 물어 본 건디 보리밭 걸름 양, 어떻 마련허는지 한 번 더 곱아줍서.

103003 #1 보리에,

103003 #2 도새기, 도새기, 통시에 걸름 내청, 그디 보리낭 농곡, 짓 주곡, 도새기 짓 주곡,

103003 #1 췌 허고.

103003 #2 췌 걸름도 그레 짓다 낱으네,

103003 #1 거자 이 췌 어슨 집이 어십주게. 보리 농사 짓젠허든 다 췌나 한 므리씩 두 므리씩 질루는디, 췌 걸름, 이제 거 출 해당으네, 겨울에 집이 매명, 그 겨울엔 어디, 여기서는 노을 디가 엷수다. 게난 배 매영 췌양에 출 썰어주곡 허영, 먹영 해 노른 그레 똥 오줌 싸곡 해노른 췌가 막 질어마씨. 그추록 허든 이제 보리낭 빠당, 보리낭에 양 미룻, 집마다 보리허든, 집마다 보릿낭 혼 놀 놀엇당으네 자꾸 빠명 췌 짓 췌,

103003 #2 묵은 보리랑 게, 잇날 거.

103003 #1 췌 짓 췌 해노른, 슝스슝한 디 누든 폭 행 존 디, 췌 똥 싸곡 해노른 걸름이 합니다게. 겐 그걸 이제 두어 들에 혼 번씩 통시레 담아마씨. 옛날 그냥 걸,

103003 #2 도새기, 질르메, 다,

103003 #1 도새기 질루는 데레, 통시레, 이제 걸름 내영 양, 걸름 내영 그레, 통시레 봐 노른 돛은 구정물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레 해노른, 췌 걸름허고 돛 걸름이 ㄱ치 막 텔 거 아이우파.

103003 #2 막 이만이 허여 마씨.

103003 #1 이제 게든 일년에 혼 번 내치는디. 그 때 음력 혼 구월이나 팔월웨든 그걸 미룻 내쳐마씨. 질레레 어디, 질 영 통시 오피 영 담 해쌍 그레 내청 다우멍 우터레 이제 발로 불르멍 행 딱 놔두든 더러 물 빠지곡, 물착물착헌 것이 걸름만 떠기가 조아마썸. 흥끔 덜 썩은 것도,

103003 #2 게난 이녁만 버치든 동네 장남들,

103003 #1 막 췌덜 수늘영 양,

103003 #2 수늘영 허곡 경 허여.

103003 #1 오닐은 누구네 집, 오닐은 누구네 집,

103003 #2 식거가고,

103003 #1 허든 그거 막 췌질메로 식으멍,

103003 #2 저 웃드리레 강,

103003 @ 거난 거, 우리 동네는, 췌가, 돛걸름 내영으네, 그 어느 정도 물빠지면, 영 둥그스럼허게 허영, 씨 뿌령, 거기서 씨 뿌령으네,

103003 #2 보리씨?

103003 @ 예, 보리씨 뿌령, 막 불랑, 쉼로 막 불랑으네 이제 어느 정도 보리씨가
 골고루 가면 걸 돛걸름착에 담양 경 해낫주마씨.

103003 #2 거 저, 메, 땃걸름, 게난 우리 동네에는 우리 동네는 뜰러.

103003 @ 여기가 땃이 좋앗다는 거라.

103003 #2 예. 땃이 좋앗수다.

103003 @ 웨냐며는 돛걸름만 실러가그네,

103003 #2 예 게, 돛걸름 메날, 메제 해그네 식거가.

103003 #1 게난 이딘 그런 거 아니고, 메제 행 식어당 걸름을 땃디 뿌령, 다 뿌
 러 낱 이제 것도 보리씨 꺾 뿌령, 우테레 띠영, 쉼로 갑주게. 갈양, 영 갈아보멍 덜
 묻어진 디가 봐 지믄, 허믄 섬피로 더러 흥끔 꺾곡.

103003 #2 경해도 경행.

103003 @ 설피?

103003 #2 섬피.

103003 @ 섬피.

103003 #2 섬피 게. 섬피 멘들양, 팡 낭으로 영, 옛날 팡 낭 해당, 멩글양.

103003 @ 팡 낭으로 양.

103003 #2 팡 낭 행으네 묵영으네, 뭇 끈이 셔? 무시거 셔?

103003 @ 예 게, 우티 돌 땃 개 놓곡 허영,

103003 #2 경으네 이제.

103003 @ 쉼로 끄섯지양, 쉼로.

103003 #2 예, 쉼로도 꺾곡, 쉼로 끄섯주기.

103003 #1 사름도.

103003 #2 무사 암췌 신디, 꺾지 아이해서?

103003 @ 사름은 버청 안 웨어.

103002 #2 예, 암췌는 새끼 들곡, 경 허여.

103003 #1 게난 췌 딱 코, 코허영으네 가리석해노믄, 췌로 꺾곡, 버청 허믄.

103003 #2 하이고 어떻사 살아신지. 옛날 어른덜 불쌍허게 살안. 이 한질 알리
 레 땃 신 사름은 지게로 저 가난 덜 헛주.

103004 @ 보리헛 때 보린 언제 감니까?

103004 #2 시월, 시월,

103004 #1 보리가 이 저 어디 음력, 음력,

103004 @ 거 감저 그루에 허지 아니허여?

103004 #1 감저 그루 게, 게난 상강 전이 해 나서, 상강이 이제 거 모든 건 상강
 기준해 가지고 농서를 지으난 상강 넘으믄 이 저 그냥 감제도, 이제 조나 뭐나 상
 강 기준허믄 다 상강 넘으믄 이것 묵은 묵음이 다 돼 분거라마씨. 어디 이슬 내렸
 다허믄 곡식은 벌써 으물 기운이 났 웬 거. 거난 여기 상강 기준 행 감제도 파곡
 상강 넘영, 너무 해가믄 컴 직해도 상강 우리가 해 보믄 상강 넘영 해 노믄 것이

저 씨로 저장해도 잘 썩어불곡, 계난 상강 쓰시엔 파사.

103004 #1 먹을 거 어시난 감제 헤사.

103004 @ 서리 내령 행으네,

103004 #1 서리 내린 때문에 그 전에 팡, 걸 이제 고구마 저장고에 강 저장도 허고 허는디.

103004 #2 구들에, 네 개 담양 놔 두주기. 네 개 담양 놔둬.

103004 #1 그것도 고구마 저장고에 가도 양, 거 우리가 학교엔 영, 거 우리가 담안, 거 부락 전체에 이제 담안 거기서 저장을 헛는디, 관리하는 사름 주고, 나중엔 양 것도 잘 썩은 오십입디다게, 그루후제 영 저장헌 것이 능금 학교에 능금 학교에 이제,

103004 #2 네 개씩 담안.

103004 #1 담곡, 가멩이에도 담곡 행 이런.

103004 #2 가마니에, 감젤 하영 담안, 감제.

103004 #1 온돌, 온돌방에 이제 거 백장 ㄴ튼 디 양, 이불 아사튀 그레 똑 놓곡 허믄 아멩해도 득시주기.

103004 @ 거난 보리는 혼 십일월달에 가는 겨우다양.

103004 #2 예, 십일월 달.

103004 @ 상강.

103004 #1 상강 기준해 가지고 갈아마씨.

103004 @ 예, 보리 저, 밧 갈 때, 보리밧 갈아야 텔 거 아니우파? 밧 갈아야 헐 거 아니우파? 거 누게가 감니까?

103004 #2 계난 이디.

103004 #1 나가 갈아야, 누게가 감니까? 하하

103004 #2 쉼 이제,

103004 @ 눅 빌영?

103004 #1 아니 아니, 보통은 이녁만씩 허는디 계난 이제 쉼예기우다. 쉼도 잘 ㄴ르치쟁 허믄 이디서 쉼을 질 들여야 헐 거 아니우파. 허젠 허믄 멩에하고 침 그 무신 땃돌이엔 헤 가지고 양 고냥 딸랑 돌에 헤 가지고 무겁게 막,

103004 @ 맛수다게.

103004 #1 쉼을 이제 코 꿰영으네 꾹곡 허는디.

103002 #2 계난 그것도 쉼 곳 사오믄 밧 갈지 못허여. 그거 거 빌영 헤사. 동넛 할으방, 빌영 쉼 ㄴ르쳐도렌 행.

103004 @ 우리도 그 쉼 ㄴ르치는 거.

103004 #2 쉼 ㄴ르청으네, 쉼 ㄴ르치는 걸,

103004 @ 봐 낫수다게.

103004 #2 빌영 헤사, 사온 때 곧 못 헤 마썸.

103004 @ 맛수다게, 순허게 멩글아사.

103004 #2 예, 계난.

103004 #1 쉼 코 켜전 허믄. 누게 지정해사.

103004 #2 막걸리, 탁배기 맨들앙 맥이곡, 집이서 허영으네.

103004 #1 우리 어린 때, 뭐 못 허믄 그디 동네에도 게도 영,

103004 #2 동네 할으방덜.

103004 #1 심 께난 쓰곡 옛날 허는 사름덜 행으네, 쉼 빌영 쉼 코 켜어 나믄 ,
그날 이제 술도 맥이곡, 허허 영 행으네.

103004 #2 막 계난 보리 갈젠 허믄, 탁배기 막 조 행으네 옛날 행 놔 뒤사. 술
가믄 맥이곡.

103004 #1 걸름힐 때 우선 저,

103004 #2 막,

103004 #1 보리감주영, 저 조감주영, 경 헛당 그걸 꺼냉 맥여야,

103004 #2 그추룩헌 거 안 맥이믄 사름덜 그거 맥이멍 ㄱ찌 강으네,

103004 #1 그걸 안 맥인 사름 집인 잘 아니헤줘.

103004 #2 아니허곡 게. 계난

103004 #1 그거 먹으레 가멍 또 일도 ㄱ찌 수늘어가멍 허곡,

103004 #2 ㄱ찌 수늘어가멍 헤 낫수다게.

103004 @ 그 다음에 양,

103002 #1 탁배기 좋아허영.

103005 @ 그 다음에 보리씨 어떻 뿌릅니까?

103005 #2 보리쥔, 멩텅이에 담앙 게, 멩텅이에,

103005 @ 멩텅이에 담앙으네,

103005 #1 그냥 저 물 컷당,

103005 #2 물 컷당 건정,

103005 #1 거 이제 순 나기 전에라도, 영 순이 뽕족뽕족 나믄 좋고 게믄 그걸 멩
텅이에 작작 영 행,

103005 @ 손고락 사이로 행 뿌려.

103005 #1 예, 삭삭 영 나가는 거 보멍,

103005 @ 골고루 뿌려야주.

103005 #1 예.

103005 @ 좇지 아니허기시리.

103005 #1 그건 나가는 거 보멍.

103005 #2 계난 체음 힐 충 몰른 사름은 잘 나지 아니허여.

103005 #1 이제 거 잘 뿌려야 허는데.

103005 #2 그것도 배와사.

103005 #1 그거 해나도 여기선 양 전이 웃드리 밧덜은 자갈이 하 놓고 아까 곤
똥이 헛지만 여기 해변 밧은 자갈이 별로 어서마씨. 쟁 갈아 노믄 옛날 그 일본시

대일부터 자꾸 허는 골이라 골친다 험니다게. 저 영 갈앙 헤 노른 고량더레 이제 영 갈아 노른,

103005 @ 고량더레 씨를 뿌렁.

103005 #1 예, 영 갈앙 이제 나른 문딱 블라주곡 뭐 허는디 그걸 대토엔 헤 가지고 양, 벳 가는 영 낭쟁이허는 잠대에 메왕, 벳 갈,

103005 @ 빼영으네,

103005 #1 예, 그거 행 새로 갈른 양펜더레 착착 갈라집주게.

103005 @ 나도 밧 갈아 톱디다, 밧수다게.

103005 #1 갱 허는디 허른 사름은 잘 안 돼는디 들어강 너무 덕거진 건 잘 영 손으로 골라주고, 한 참 또 블라줘마씨. 경 헤노른 보리가 실허고 잘 나마씨. 실 행 으망,

103006 @ 그 다음에 보리도 종류가 잇지 아니허파양?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수가?

103006 #1 아, 보리는 솔오리 싯고, 보리, 걸보리라고 헤 가지고, 솔오리는 맥주 보리 비슷해서 걸보리는 그 옛날 보리, 옛날보린디 그거는 톱 맥주보리 헤도 저 보리 수확도 잘 나오곡 허는디, 거 장만허기가 곳어, 걸보리는. 게난 그후젠 일본시대에, 옛날은 걸보리만 헨 먹어난는디, 일본시대에 난 맥주, 맥주 술 담으멍 맥주보리가 나고, 그루후제 솔오리라고 허영, 지금 대부분 솔오리우다게.

103006 @ 게난 거 밥 헤 먹는 거 아니?

103006 #1 밥 헤 먹는 건디, 게도 밥맛은 걸보리가 맛 좋아마썸. 솔오린 이 수확은 하영 나는디 뵙뵙허게 하영 잘.

103006 @ 게난 종류가 세 개구나?

103006 #2 예, 세 개마씨.

103006 #1 아니, 종류가 더 돼우다. 어떠냐른 출보리엔 행 무사 거멍헌,

103006 #2 출보리도 싯고 침.

103006 #1 출보리가 검은 쌀, 그건 헤 노른 밥 맛은 좋아마썸. 겐디 건 수확이 덜 남니다게.

103006 #2 거 허는 사름은 멧 사름 어서.

103006 #1 건 어느 허른 들벵이 하나 헛당, 톱 딴 다 솔오리 갈곡, 그 저 검은 쌀, 나는 거 저 출오리, 출오리엔 허여, 출오린 혼 두개 혼 드르벵이 헛당, 지영 놔 둌서러 흥끔석 석으멍 밥에 출지게 허여,

103006 #2 게난 걸보리 허른, 맥주 보린 허른 막걸리 잘 나옵니께, 막걸리 그 맥주 보리가, 막걸리 옛날은 집이서 허른 탁베기 담앙으네 탁베기 노앙덜 소낭아래 앓앙 가른 맥이곡,

103006 #1 저 맥주보린 거기서 받아가멍, 거 저 맥주회사에서 받아갑주게. 받아가른, 얼마허른,

103006 #2 우리 헐 땀 풀지 못허연, 침, 문 쉼 맥이멍 풀지 못허연.

103006 #1 계난 양,

103006 #2 그루후제 저 탁베기 공장덜 나난,

103006 #1 그걸 헤 놔도.

103006 #2 그전인 어평사 해신디 몰라도. 맥주보리 풀지 못해나서, 체암은. 계난 탁베기 해내.

103006 #1 이젠 방에공장이여 뭐시여 해도 옛날은 방에공장이 셋수강? 어시난 그걸 이제 들방에에 행 물 우젓당 이제 쉼나 들로 해가지고 그걸로 허멍 계속 돌령 으네,

103006 #2 들방에 알아지쿠강?

103007 @ 예, 그거 나중에 물어보쿠다. 나중에 이거, 이제 다 물어봅니다, 이제. 계난 아까ㄴ치 보리 종류는 뭐뭐 잇수강 허며는 그 정도만 말허민 돼는 거. 그 다음에 양, 보리밭 밟기, 보리가 어느 정도 돼민 겨울에 보리 볼릅니까?

103007 #1 이제 들르지 못 허게.

103007 @ 예, 그거 흔 번 말헤봅서.

103007 #1 그것이 눈 왕 얼어노른 양, 발이 들령,

103007 @ 여기서도 여긴 잘 안 볼브지양?

103007 #2 여긴 잘 아니,

103007 @ 웃드르ㄴ뜰 디.

103007 #1 웃드리 이제 흑이 게벼운 밧에는 허고, 여긴 허는디 양 보통 벳토허영 삭삭 영 덕거불른 볼르지 아이해도 돼마씨. 여긴 흑이 딱 허게 출진 흑이난 하고, 요 웃드리레 가른 것이 얼어노른 눈이 부각부각,

103007 #2 볼르레 가 낫수다.

103007 #1 발 들러진덴 허영, 그디 강 탁 볼릅주게.

103007 #2 글라 강, 아버님 살 때,

103007 #1 거 사름으로 다 볼랏수다, 사름으로.

103007 #2 사름으로 행 볼르라 볼르라 행, 볼르레, 볼르레 가 낫수다, 거 저 웃드리에.

103007 @ 계난 거 저 헤변은 잘 안 볼를 거라.

103007 #2 예, 헤변 아니,

103007 @ 눈이 잘 안 오는 디난 게.

103007 #2 예, 우리 볼르레 가 낫수다.

103007 #1 눈이 와도 흑이 출정.

103007 #2 가난으네 실평 허지 아니허영 오꼳 돌아나볼곡. 경 해낫주. 볼르라 볼르라 허곡.

103007 #1 수량도 이디가 하영 남니다게. ㄴ뜰 췁수에 해도.

103008 @ 보리 검질 멧 번 맵니까?

103008 #2 보리 검질은 우리 두 번 맵, 두 번 맵는 거.

103008 #1 대토 혼 번 허곡, 검질 매기 전이, 대토행 흑 덕으믄 웬만헌 존 검질
은 거 안 나옴주게. 흑 덕어지믄.

103008 @ 처음에 매는 검질을 뭐엔 허여?

103008 #1 초불,

103008 @ 어, 초불 검질,

103008 #1 초불 검질 매 낱으네.

103008 #2 두불만 매어, 두불.

103008 #1 두불 검질 매고 나중에 저 아이 시불 허는디, 대우리라고 허영 보리
말고 뜯 저 똑 저 보리 닳아.

103008 @ 보리 스춘.

103008 #1 거 대우리영 허영 대우리 맨다허여.

103008 #3 대우리 매 가믄 시번은 댜어.

103008 #1 건 시번채.

103008 @ 그러면 처음 매는 검질을 뭐?

103008 #1 초불 검질.

103008 @ 그 다음?

103008 #1 두불 검질. 다음 시불 검질.

103008 #2 대우리 매어, 시불은.

103008 #1 굽영 텅이멍, 저레 가멍 그자. 거 중간에도 알아지믄 허는디 똑 보리
닳아노난, 그거 저 영 피영으네 고고리가 나와사 그것이 허는 거지, 게 아니믄 대우
런지 보린지 잘 구별허기가 어려와.

103008 #2 게믄 두루 험젠 아바지안티 욱들멍, 잘 아니허영 감젠 허멍.

103008 #1 경허믄 몬 보리 불르지 못 허게 허영 멩심허영 대우리 매라. 거 헤노
믄 몬 보리 내려 앓곡, 불라도.

103008 #2 계난, 보리, 그눔이 대우리도 거 보리씨에 석거정 보리쌀 받아오믄 잘
야숙헌 사름덜은 잘 영 행, 거 대우리 골령 씨허믄 덜 허는디. 경 아니허영 ㄴ찌 빼
어노믄 그눔이 대우리가 낱 허민 그디 매기가 꺾어.

103008 #1 대우리 매곡 허영 쉼출도 허곡.

103009 @ 그 다음에 양, 그 검질, 보리밧디 검질은 어떤 것덜 남니까?

103009 #2 똑 보리 비슷한 검질 나.

103009 @ 계난 검질도 종류가 잇지 아니허파? 뭐 보리밧디 나는 검질.

103009 #2 제완이 나곡,

103009 @ 양?

103009 #1 제완이 이젠 안 나게. 이제 으름에 것, 물룻 ㄴ뜯 거. 또,

103009 @ 물룻.

103009 #1 저 이 보쿨이라고 허영 양, 그런 것도 잇고, 보쿨허믄 그거 그눔으 것
이 이,

103009 #2 죽질 아니허여.

103009 #1 씨가, 게우 이 잘 혼 번 저 노른 잘 끈어지질 못 허여마씨. 게른 그런 건 맹심허여 매지 아니허른 또 뒷헤에 나곡 뒷헤에 나곡, 요놈으 것이.

103009 @ 고니쿨은 안 나, 양? 감제밧디 나지 이건? 고니쿨.

103009 #1 보리골?

103009 @ 고니쿨, 고니쿨, 그 저 작지 우에 봐도 죽지 아니허는 거.

103009 #1 고니쿨, 이디선 고녕이쿨이렌 허여, 고녕이쿨.

103009 @ 고녕이쿨?

103009 #1 예, 고녕이쿨이엔 허여, 그건 저 잘 안죽읍네다. 다 내쳐사.

103009 @ 게난 거 작지왓티서도.

103009 #2 게난 저 옷드릿밧 허며, 게난 옷드릿 밧허며 우린 막 얼 먹엇수다게.

103009 @ 여긴 고녕이쿨?

103009 #2 예, 고녕이쿨. 막 얼먹언, 검질이 하영 매주기.

103009 #1 저 으름 검질은 빈네, 빈네엔 헤 가지고. 빈네 검질로 이제 헤 노른, 것이.

103009 @ 그건 감제밧디 잘 나.

103009 #1 예, 빈네는.

103009 @ 보리밧딘 아까 곶은 보쿨허고,

103009 #1 이저 무신거 거 고녕이쿨허고, 겨울에 허는 게 주로 이제 늦어가든 또 아까 ㄴ찌 제완지도 나고.

103009 @ 아 거난 보리밧디도 나? 보리밧디 보리밧디?

103009 #2 늦이든 나, 보리밧디. 게도 매지 못허여 내불어, 보리 커 불든 매지 아니허여. 게난 제완지신디영.

103009 @ 게난 세 가지 뱃기 업네.

103009 #2 예.

103009 @ 보쿨

103009 #2 고녕이쿨

103009 @ 그 다음

103009 #2 지완지.

103009 @ 제완지.

103009 #2 지완지는 막 늦어사 똑 저.

103009 #1 대우리 나오곡.

103009 @ 제완지 이 저 조밧디 잘 나메, 이거.

103009 #1 제완지 이거는 으름 검질인디 이 조 불르는, 똑 요놈으 것이 조에 똑 ㄴ찌 들었으네, 거 하나 매쟁 허당 조 매 지곡,

103009 #2 감제, 이렌 양 땅이 이상허연.

103009 # @ 막 억울허주게.

103009 #2 감제왓, 감제왓디도 거 나고.

103009 #1 감제왓딘 그저 췌비늬므ㄴ쁜 것 잘 나고.

103009 @ 아 거난 보리밧디, 보리밧.

103009 #1 보리왓딘 보클허고 이 저 무신거 고녕이쿨허고 대우리허고, 그 외로 밋죵.

103009 #2 제완지도 늦어가믄 나. 늦어가믄 나는다. 겐디 보리 커 블믄,

103009 #1 그것이 씨 젓당으네 허믄 요게 날 딱사가믄 똑 제완지가 나거믄마씨.

103010 @ 보리 수확해야 텔 거 아니우파양? 보리, 거 어떻 험니까?

103010 #1 망중은,

103010 @ 우선 제일 처음에 보리 비어야 돼곡, 말해 봅서.

103010 #1 망중을 기준허영 이디서도 예, 언제 망중이라? 보리 이제 곧 망중 넬 모리라 허믄 이제 보리가 누릿누릿헤가믄, 익어가믄 망중 영, 망중 넘으믄 이제 곡식은 다 으문거라마씨. 게난 흐끔 설어봔도 망중 넘으난 비어게. 경 행 이제 웬만허민 비곡 허영 물류는딘 전이도 하도 곡식이 어려운 땐 어떻게신고 허믄 그 섭풀이라고 헤 가지고 양 보리,

103010 #2 익기전이 게.

103010 #1 익기전이 곡식은 다 먹을 건 다 떨어집주게. 다 떨어지믄 이것이 식구하난 먹어야 헐 거 아니우파? 경 허젠 허믄.

103010 #2 프랑헌 보리 비어당.

103010 #1 퍼렁헌 보리 물긋물긋만 허믄 보리왓딜 강 봐, 흐끔 물긋물긋만 허믄 비영으네 요걸 집이 저다 낵 밋 짐, 게 이제 화덕 솟디 불살랑 그거 영 채왕 흐끔 더러 그시립주기. 그시린땡 허여, 그시렁 이제 고시락 카고 뭐헤 노믄 요것이 흐끔 돌르멍 화젓덜허믄 막 발로 부비멍,

103010 #2 도께, 도께로 두드려서.

103010 #1 막게로 똑똑똑 두드리곡.

103010 #2 도께 허영으네 우린,

103010 #1 보리췌 영 나믄 그것 이제 문 이제 거 뵈이 안 돼난, ㄴ레, ㄴ레에 골양 그것에 헤 노믄 양 껌질째 뵈겨집니까? 늘 거, 나 경 무싱거만 부병 헤 노믄 보리췌 헤도 이제 거멍헤 마썸. 보리췌헤도. 그럴 행으네 죽 췌 보리죽 췌 노믄 침, 죽도 아이고 밥도 아이고, 하하하.

103010 #2 맛이 좋아. 하하하

103010 #1 경 허멍 헤도 어떻험네까? 그거 침 식구덜 모다앗앙 그거 떡곡, 겐디 그 때도 양 뵈시엔 양 우리집이도 나중ㄴ지 싯단 어셔젓는다 남박세기이엔 허영여기 박세기에 죽 헤노믄 식구 한 집인 혼 적씩 착착 분행.

103010 #2 아이 게난 보릴, 방에톡이 셔 낯수다, 우리 집이. 방에톡으로 허믄 그 보릴 이제 ㄴ레에 골기전이 방에톡에 혼 번 다 혼 번, 고시락을 다 두드려가믄 부서지게, 게믄 대체 으저당으네, 청 허믄 그걸 청 으물웜 때 딱시, 원 그 때 그렇게

먹는 것도 심들언.

103010 @ 일단 보리 강 비영,

103010 #2 저 왕,

103010 @ 거 묵어야 헐 거 아니우파?

103010 #2 예, 묵영, 묵영 저 왕,

103010 @ 예, 저 왕,

103010 #1 비나, 비나 온텐 허믄 양 밤중에라도 강 묵어사.

103010 #2 묵영 정 와.

103010 @ 정 왕,

103010 #2 정 왕으네 이디 고시락불 살랑

103010 @ 놀 놀지 아니 허고.

103010 #2 아니 게, 저, 우리 저, 체암 섭푸리 밥 먹을제, 헛끄만 헤 올 때, 헛끄만 헤 올 때엔,

103010 @ 아니 하영 헤 올 때,

103010 #2 하영 헤 올 때엔 밋디 데명 놔둬사주게. 밋디 데명 놔두곡.

103010 #1 밋디도 놀영, 놀영 놔두곡, 집이도 또 저당 허믄,

103010 #2 가까우믄 밤 새우곡 게. 먼 딴 어려와.

103010 @ 아니 집이 가정 와야 될 거 아니.

103010 #2 집이 가져와사 헐거주게, 아멩해도. 뒷날이라도.

103010 @ 가져 왕으네 클로,

103010 #2 클로, 홀트는 클 해당

103010 @ 홀타야주.

103010 #1 보리클.

103010 #2 보리클 어디강으네 늪 헤난 거 빌어 왕 우리 헤도

103010 #1 보리클도 매집마다 어서마씨.

103010 #2 빌어왕 허믄 이제.

103010 #1 어느 집이 보리클 꺾남저 허믄,

103010 #2 갓 강 빌어다냥 허믄.

103010 #1 이제.

103010 #1 게 아니믄 헛를 강 막 서로 영 췌어 주멍 .

103010 #2 게난 이녁만도 못 허여.

103002 #1 수놀영 막.

103002 #2 보리첼엔 췌 주곡 허엿주.

103002 @ 보리타작 아니우파양?

103002 #2 예, 보리타작, 경 해냥

103002 @ 끄는 것까지 놀르는 것까지 헤그네, 다음에, 보리,

103002 #1 놀엇당.

103011 @ 타작해야 될 것 아니우파? 그 타작허는 건 우선,

103011 #1 눌엇당, 이디션 멘탁기허영 양 거 원동기 지금은 뭐 해도 기계 식곡기 탈곡기 식곡행 집마다 그땐 집인 어떻게 옛날은 뭐헌디 마당에 비가 덜 오면 허는디 똑 보리 장만 할 땐 비가 장마가 진 때 똑 저 이디서 허면 우리 뭐 할 땐 뭐 저.

103011 @ 장마가 와.

103011 #1 똑 장마가 저마씨. 게은 그걸 이제 허면 집안네 어디 창고가 싯수가, 뭐 잇수가? 창고 아이싸으른 양, 집이 삼방에 양, 보리 이제 눌 눌어뒀 혼 못씩 쭉쭉 빠명 이제 거 보릿기게, 구들러레, 보릿기갱이 홀트는 기갱이 구들러레 해 낱 혼 구덕 혼 구들 그냥 깎딱 해 낱당, 아 이제 장마 행 보리헌다허면 그 탈곡기도 양, 그 방엿공장이 주민 대 여섯사람씩 인불 빌영 거기서도, 탈곡에서도 기계오야지엔 허면양, 그렇게 행 그사름덜은 탈곡행 그걸로 이제 보리, 보리 대 혼 말에 얼마 허영 그 삭을 밧읍주게. 보릿삭을 허는디 것도 집마다 허면 어느집이 헌다 허면 탈곡기 꼬성 탱이멍게.

103011 #2 탈곡기 사름으로 불르난 무신 기계우파?

103011 #1 아이 그건.

103011 #2 사름으로 불르멍, 탈곡기 보리 장만 해낱주게.

1103011 @ 뭇도 허지 안헛수가? 도께질.

103011 #2 도께질도 허곡, 도께질.

103011 #1 저 별로 도께는 안 허고.

103011 #2 도께는 체암 먹을 때,

103011 @ 멘탁기로 허고 양. 보리 홀탕으네.

103011 #2 보리 홀탕, 홀타냥.

103011 @ 가와로 올렛주게.

103011 #1 슬오리 헛당,

103011 @ 가와 올렁으네.

103011 #2 가와로 올렁 허곡. 경 행 장만허민.

103011 #1 그건 양, 나중에 가와로 올리고, 처음엔 여기선 양 슬오리 갈아노면 그 장마때나 막 홀팅, 홀탕 이제, 구들에 이빠이나 삼방에 막 헛당, 이제 어느날 어느집 맥타기가 막 집마다 맥탁기 식영 탱이멍 마당에 앓정 이제 그걸 스몹 침 장만 헛주게. 장만허면 삭은 혼 말에 혼 뒀던지 어떻게 진 그때 마련헛 우리도 주엇고. 게난 그걸 쫄 맥타허면 옛날, 또 그전에는 그 저 뒀헛허면 도께로 두드려난디, 그때는 별로 여기 얼마 뭐 안 헛수다게. 도께론 덜 허고.

103011 #2 게난 우리보단 막 그전에 노인덜사 해 나신디. 우리 헛 때도 도께로 두들렁 허는딘 하영 알아져마씨. 알아진디.

103011 #1 아이라게. 도께해도 별로 아니허영, 그 탈곡기,

103011 #2 무사 말젯아방 폭낭 아래서 도께질 헛신디, 순일이 아방네영 조그만이

해서게. 도깨질 이제 할으방내영 도깨질 헤낫주. 그루후젠 탈곡기 허멍 장만헤낫수다.

103011 #1 게허고 거 양, 탈곡기 헛고 나중에 어떻헛냐허믄 이제 하건 것이 개랑 웨언 이제 아까 예기허듯이 줄 올리는 걸로, 경운기로 탈곡기영 꼬성 텡이멍, 게난 이제 그 때는 사름으로 안허영

103011 @ 사름으로 꼬성 발동기 행.

103011 #1 발동기 꼬서 나고, 그루후제 경운기로 허믄 그저 탈곡기 허믄 낭채, 홀트지 아니허여, 낭채 장만헛수다. 낭채, 예 영허영 짹 맥이곡, 짹 맥이곡 허믄, 인 부덜 다 들앙 허믄 혼 집어.

103011 @ 예, 경 헤낫수다. 웨어주는 사름이 싣고. 거 심들어.

103011 #2 웨어줘사.

103011 @ 그 다음에 보리낭 묵으는 사름, 나오는데로 그자 묵영,

103011 #1 묵으는 사름이 열 먹곡, 정신 엇수다게.

103011 #2 게난 보리낭도 비 아이 맞게 놀영 놔둬사. 거세기 짓지젠 허믄 그걸 집더레 저 가사. 게난 도새기 짓 짓곡 웨 짓 지쟁 허믄. 저 가사.

103011 #1 전인 양 저 가고 그걸 어떻헛냐허믄 통시 으피 놀엇당, 옛날 무신 화 장지가 이섯수가? 걸로 양 막 빵 똑고망 썰영으네 텍기곡.

103011 @ 나도 경 헛수다게.

103011 #1 보리낭으로 똑고망 썰영.

103011 #2 막 놀 혼 놀 놀어노믄 브름도 안 자곡 집은 초가집이고 옛날 허멍.

103011 #1 게난 똥 이제 도새기도 하영 허멍 누구던지 다 허주마는 착착 도새기 대가리부터, 허허, 똥 싸 노믄 착착 털어놔부러.

103011 @ 이런 것도 다 물어봅시다양.

103011 #2 다 그런겨주.

103011 @ 묻는 말만 대답허민 웨어. 양.

103011 #2 예,

103012 @ 그 다음에 보리썰 어떻 장만헛니까? 이제 썰을 장만헤야 헛 거 아니우 파?

103012 #1 장만허영 물리우믄 이제 또 방엿공장이 싣수다게. 방엿공장에 강 지어, 보리를. 보릴 지믄 그것도 이제 막 차례 대기로 행으네,

103012 #2 방엿공장은 말제주기, ㄴ레에 막 굴아냥.

103012 @ ㄴ레, ㄴ레에도 헛수다게. ㄴ레도 그것도 혼 번 굴아봅서.

103012 #2 ㄴ레로 행 보리썰 내왕, 좁썰 내왕 먹곡 헤 낫주기.

103012 #1 경 영 부서진 건 준 쏘이엿 허영으네, 준썰 그거 뭐 행 죽도 썬 먹곡,

103012 #2 ㄴ레도 오래 막 돌르믄, ㄴ레 행 아기덜 죽 썬 먹고. 보리썰 게 안허믄 홀경 죽은 못 썬부난에 ㄴ레 행 허민,

103012 @ 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채라?

103012 #2 아니 질 므녀 나오는 건, 저 문딱 거렁 채로 무시거 영 청, 청 또 아
랫 컷도 다 먹어질거라. 깍깍 질르명도. 죽 쭈른 빼각빼각 질르명도 먹어정, 그 다
음은 영 친 후제 ㄱ레 곶아. ㄱ레 곶양으네 그전인 그거 허믄 보리가 반착 보리쫄
이 반착반착 멧 것에 체져. 게믄 밥허기도 쉽곡,

103012 #1 줍쫄이엔 허영.

103012 #2 줍쫄이엔 행 뽕뽕허지 아니허영, 줍쫄이엔 행 뽕뽕허지 아니허영 밥
헤나고. 그 아래 체암 거는 보리 ㄱ를이영 보리 채영 반작헤진 것은 죽 썰으네 것
도 떡곡 허명. 경 헨 헌디 막 멧넌 허다네, 이 동네 방엿공장이 셔 낫수다. 방엿공
장이. 요디 방엿공장 할으방, 방엿공장이 뿔산디도 우리도 몰르곡 헌디, 방엿공장에
강, 방엿공장에 헨 이제 그 땐 방엿공장에 가믄 막 사름덜이 신기허연.

103012 #1 맥으로 맥으로 전.

103012 #2 맥으로 정강 보리 정 가믄, 것도 보리쫄로 이제 허믄 지네 쫄 허믄 혼
말에 얼마헤영 보리로 다 맞읍니다.

103012 @ 음.

103012 #1 경 행 이제 허믄 깡통 두 말 가웃들이 혼 뉘 허믄 나중에 거 혼 깡통
허믄 얼마씩 허명, 혼 뉘씩 딱딱 받으명,

103012 #2 보리, 그디강 보리 허여 와도 ㄱ레에 또 곶안 먹엇주기. 그디 양 보리
양, 보리쫄만 헤노난 ㄱ레에 곶믄 뽕뽕 덜 허영으네 경 헨텐 허명 게난 집집마다
ㄱ레가 끈어지질 아니허여.

103012 @ ㄱ레 양.

103012 #2 아직꺼지도 양 ㄱ레가 느량,

103012 #1 ㄱ레도 풀ㄱ레 싹곡, 무시거.

103012 #2 ㄱ레도 두개씩, 시개씩 혼 집이 경 십다다게 원.

103012 #1 아 이제도 우리도 뉘 뉘뿔수다. ㄱ레, 우알짜이.

103012 #2 우리도 셔 마썸, ㄱ레도. 하도 어머니네 헤난거. 우리 뉘 허난 저 집이
살 때, 이디 오명 완 식거다 나뉘수다만.

103013 @ 그 다음에 보리쫄로 뉘 험니까? 보리쫄허민.

103013 #2 보리쫄 밥 행 떡곡, 보리쫄 술망 누룩허곡 게, 누룩헛당 탁베기허곡,
경 허명 경 헤낫주게.

103013 @ 그 다음은.

103013 #2 게난 예, 보리 강 저,

103013 #1 누룩헛 때 더 보리냥 소곱더레, 밥 술망, 떡 행으네.

103013 #2 보리 ㄱ를 허젠 허믄 ㄱ레에 멧 번사 곶안, 멧 번 곶아사. ㄱ를 허젠
허믄. ㄱ를 허젠 ㄱ를 그거 나오믄 이제 그걸로 행으네 떡도 행 떡곡 옛날은 무시
거 저.

103013 #1 식겻때엔 그걸 행으네 보리적,

103013 #2 보리 적 허영, 보리 적 허영으네 올려나고.

103013 #1 보리적 허영으네 식게에 올리고, 또 보리 삼메엔 허영,
 103013 #2 ㄹ레도 막 으라번 굴지 아니허믄,
 103013 #1 그 기주 행으네 ㄹ찌 영 허믄 이제 거 이제ㄹ튼 막걸리 시난 옛날은
 집이서 기주협주게. 기주엔 허영 그거 떡에 ㄹ를에 찢당 뜨뜻헌디 어디 영 덕엇당
 키왕, 영 이제 보글보글 깨믄 그거 떡 다 행으네 식게 때, 무사 순우네 집이서 보리
 떡 허멍,
 103013 #2 우리도 해 낫주. 무시거 허멍.
 103013 #1 떡 해낫덴 허여, 보리떡. 집마다. 나중엔 왜 삼메엔 허영 밀ㄹ를 해영
 현 건, 그건 아주 고급스러운 요즘 빵이고 그땐 어디 가도 식겟집이 가믄 보리적하
 고 보리 삼메허고,
 103013 #2 보리 막, 기계가 셔시믄 허주만는, ㄹ레에 막 굴아사. ㄹ레에 멧 번 굴
 지 아니허믄 ㄹ를이 나오지 아니허는 따믄, 치멍 대체로 우리집 체도 이서. 영 저
 ㄹ는 체로 치믄 ㄹ를 나왕 허고, 따시 그거 낱 굴앙 ㄹ를 나왕, 혼 사름만도 못 허
 여, 풀 아프나네, 영 서너이 ㄹ레 굴젠 허믄 해멍 혼 사름은 치곡, 두 사름은 이레
 굴곡 경 허멍.
 103013 #1 게난, 요사이는 뭐 헌디 그 때 굴멍도 이 맥주, 저 아니 술오리는 게
 도 양반이라마씨. 옛날 길보리 현 땐 그것이 아멩 방에 저도 체가 더러 붓드난 그
 걸 굴앙 떡을 해노믄 아멩 잘 쳐도 떡에 반은 체가 빈주룩허영,
 103013 #2 깍깍허영, 깍깍. 경 해도 그거 먹은 사름덜 이서.
 103013 #1 깍깍 질르곡 먹쟁허믄 그루후제 침 술오리 난 허니까 게도 그보다는
 좋게. 양반.
 103013 #2 옛날 옛날 어른덜은 더 막 해신가? 우리 혈 땐 그추록 경 헛는디, 경
 허연 탁베기 허연 그자 보리로 탁베기허고 술 허곡, 누룩허곡, 이제 기추록 행으네
 식게혈 땐 그거 탁베기 허곡,
 103013 #1 다 어디던지 보리 저, 보리,
 103013 #2 보리 구슬이 술도 허멍,
 103013 @ 보리 저기 거 저 보리로 떡 만드는 거?
 103013 #2 예,
 103013 #1 적도 거 무신 적이 싣고, 양, 지지는 거 허고, 또 무신 케는 보리적 싣
 지 아니허파? 게 행으네 이것도 다 무신거 헛당, 보리떡 혈 때 걸 적을 다 허영 케
 영 그것도 ㄹ찌 북은 텡 허여. 영 드뜻헌디 아랫목이나 덕영 놔두믄 것이 깨믄,
 103013 #2 게난 거 보리로 허영으네 탁베길 맨들앗당 이제 보리 ㄹ를 낱, 그 탁
 베기에 석영, 둔 것이 셔, 뿔이 셔? 탁베기에 영 석영으네,
 103013 #1 삭가령이엔 허영 흐끔,
 103013 #2 무시거 갈적삼 영 씨왕 나두믄, 바가지에 갈적삼 씨왕 놔두믄 그레 흐
 끄믄 드뜻해가믄 부그락허게 올라와. 게민 이제 보리떡을 만들야, 만들앙게 징기 어서
 도 만들앙으네 솟디 청, 치믄 치는 것이 셔? 대왓디 강 무신 치는 거 대 끈어다 낱

시리깅, 이젠 시루깅이엔 허주, 영 솟디 허영 치는 거 영 대로 영 멘들앙 대로 행역앙으네 멘들앙으제

솟디 낱 그 우테레 낱 청, 경 허믄 알론 보리낭불 솟곡, 그거 치곡, 보리낭 불 솟당보믄 혼 사름 솟앙은 베졌디레 불 붓더부난 경 허멍 청으네 식게 허고, 경 현 맨짱 낱 더러, 어디강 소낭이나 저 수산봉에 강 봉가다 낱 혼 사름덜은 그런 거 솟기도 좋은디 우린 아기 들곡 아기 들곡 헤노난, 그런 거 비레 잘 못강 보리낭 그자 도새기 주는 보리낭 즈깁디 놔뒀당 거 혼 못 빠당 정지에서 불 솟곡 허믄 경 허멍 거 떡 치쟁 허믄,

103013 #1 경 허난 그 보리낭으로 그 보리쌀허영 밥 헤먹으믄 떡 존넹헤나서, 옛날은. 주로 맨 건 그자 보릿낭으로 밥 행 왈락 꿰왓당, 밥 헐 때도. 흥끔 틈 들엇당으네 이제 또 나중엔 물 뿔으믄 그 맨 이제 나중 썩 솟으믄 것이 좀 재영 밥이 뒀는다.

103013 @ 그 다음에 양 계역도 멘들앙 먹지 안 헛수가?

103013 #2 계역도 멘들앙 먹엇주. 계역도 복앙 ㄹ레에 곶아사, 계역도 복앙.

103013 #1 나중엔 방엿공장에 강 곶아 왓는다, 처음엔,

103013 #2 처음엔 우린 그냥.

103013 @ 솟뚜껑에? 예?

103013 #2 솟뚜껑에 허영 게. 솟뚜껑, 선생님도 알암신게. 경 헤영 ㄹ레에 곶앙 먹엇주.

103013 @ 거 복앙으네. 복앙 예, ㄹ레에 곶앙.

103013 #1 비 와가믄 뒀 헐 거 잇수가? 이디션 허믄 보리장만 허는 디는 집마다 계역헤노믄,

103013 #2 매날 그, 복으는 내가 나.

103013 @ 비가 와야.

103013 #2 비가 오믄 복으는 내 낭으네,

103013 #1 보리 복으는 내가 고소허게 동네 집마다 나.

103013 #2 느네 ㄹ레 곶와샤? 빌라라,허믄, 것도 빌려주곡,

103013 #1 계역 곶켜 허믄 오란 곶아도 가곡.

103014 @ 그 다음엔 양 보리쌀 말 헛고, 보리체가 잇고양, 보리체로는 뭘 헛수가?

103014 #2 보리첸 이제 거시기게 쉼 맥이곡, 보리체도 쉼도 맥이곡, 막 그건 밧갈디나 갈 쟁 허믄 잘 맥지쟁 허믄 보리체,

103014 #1 방엿공장강 곶아온 누까엔 행,

103014 #2 누까엔 허영,

103014 #1 누까엔 허영 그걸 이제 그 출 썰영 흥끔 영 석엇당 쉼 맥이곡 허믄.

103014 #2 썰영 그레 헤 노믄,

103014 #1 쟁 쉼을 봉그랑케 맥여사 밧도 갈곡,

103014 @ 도새긴 안 맥입디가?

103014 #2 도새기도 맥엿주. 도새기도 맥연.

103014 #1 옛날 도새긴 양 뿔 줄 거 어선 거 해노른 도새기가 막 무신 이제 것지 술집나짱게. 그디서 옛날 혼 칭이엔 허영 듯을, 혼 칭 듯이, 거 혼 칭이 백 근인디, 요즘은 백근은 아무것도 아니라. 겐디 옛날은 아 그집이 혼 칭 듯 셔. 잘 맥연헛젠.

103014 #2 게난에 보리썰 씻어난 물 허곡게, 쉼 맥여사. 것이 막 영양가렌 허영. 보리썰 씻어난 물, 보리썰 씻어난 물 허른, 막 딱로 놔 뒗당 쉼 맥영으네, 쉼 맥이곡 도새기도 맥이쟁허른 막 그것 하나토 텍기지 아니허영 이젠 보리썰 씻영 무시 거 허여도 도새기 체에 석영으네 도새기도 맥이곡, 보리썰 해난 물, 쉼도 그거 맥이곡.

103014 #1 이젠 살기 좋으난 헛주, 그전인 누까, 누까 우미도 먹어나고.

103014 #2 누까 떡도 허연 먹어났수다게. 옛날 누까 떡 하영 먹엇주기, 옛날 어른덜은, 우린 덜 먹엇수다마는.

103014 #1 거 전인 감젯주시해가지고 석언 경 헛 뒗 해노른 그냥 비삭비삭허난 뒗허나네 삭가렁 흐끔 들게 탕 그 물로 떡 행으네.

103014 @ 그 다음에 양 보리낭, 보리낭으론 뭘 헛수가?

103014 #1 보릿낭은 주로 이제 쉼 짓 주고, 밥 행 걸로, 으름에는 걸로,

103014 #2 불 숨고, 밥 허고.

103014 @ 쉼도 먹어 보리낭?

103014 #1 안 먹읍니다. 쉼 똑고망에 깔앙, 쉼 이제 질착질착해가른, 도새기 통시에도 짓 주고.

103014 @ 돛 통에도 담곡.

103014 #2 도새기 새끼 나른 것덜 깔지 아니허른 문딱 물 소곱더래 뿔 허곡 허난, 비나 와 노른 도새기 똥은 어디 나가지 못허여. 물 나가지 못허른, 거 막 하영 깔아사. 하영 깔아사 도새기 새끼덜토 저 나오곡 어멍 누까물, 보리썰 씻은 물 허영 주른 도새기 새끼덜만 남박세기 흐끔 갓앙 주른, 영 흐끔 먹어가. 흐끔 먹곡, 갓 해도 누까물 못 먹영 어멍 젓 먹쟁 허른 어멍은 먹을 거 어스른 스뭇 도새기통을 막 니긋으로 돌아, 시장 해노른, 게난 밋디 갓당도 도새기 채 주젠 재게 오라사. 혼에 똑 지 이제 ㄴ뜨른 사름 삼식 먹듯이,

103014 #1 게난 허른 돛도 양, 그 돛도고릴 주둥이로 갈럭허영 문딱 엽퍼불른 어떤 쟈 새끼덜 문 지들루곡 허멍 양 돛도 시장해 노른 침 심술 부려.

103014 #2 게난 빗물 아이쥬 썰 씻은 물 막 놔뒗당 돛도고리에, 새끼 나른 도새기길 막 맥여사.

103014 #1 거 뒗 우유가 씻수가 뒗 잇수가, 그것이 아주 침 영양제로 그건 썰 씻은 물 딱로 놔두라 헛당, 도새기 주곡, 보리썰 씻은 물.

103014 @ 그 다음에 고시락, 고스락 양. 고시락으론 뭘 헛수가?

103014 #1 고시락은, 주로 이제는 그자 고시락도 허영,

103014 #2 굴묵 짓곡 저, 옛날 무신거 절삼허멍 게, 베 짤 때에 놔 뒷당 베, 미녕 찰 때에 흥끔 우리 할머니덜 헐 때 봐 낫수다.

103014 @ 고시락을 무신 미녕 찰 때에 허여?

103014 #1 아니,

103014 #2 아나라.

103014 #1 이저 불치엔 해가지고 양, 마당에 영 브름 잔디 짝 불 살아놔 그 미녕 창 죽은 할망네집이, 쪽 행 거 씨 헤노민 풀 헤여마씨. 풀 행 그 씨레 영 너른디 풀 헛당 그거 물리우젠 허른 고시락불을 살아사.

103014 @ 아, 고시락불을 살앙으네.

103014 #1 갱 행 그걸 물리왕 이제 문딱 들이멍,

103014 #2 돌 돌아 매냥 그거 허영.

103014 #1 열레기엔 허영 그것에 탁 감곡 허멍 이제 거 우리집인 어서 나고 알 렉집 죽은 할망네 집이 헐 땐 베 차고 미녕 차곡 영 허멍 침 시간 이실 때마다.

103014 #2 우리

103014 #2 게난 우리 죽은 어머님네 허고 우리 할마니, 시할마님네, 우리 읍집이 죽은 시어머님네도 갱 헤나고, 헤낫수다, 하영덜.

103014 @ 아, 나 그거 처음 들엄수다. 처음 들엄수다, 고시락이영 미녕 찰 때,

103014 #1 미녕 찰 때 그 저 뭐시엔 헌다, 옥자엔 허던가 금방, 영,

103014 #2 실 감는 거.

103014 #1 거 말고. 미녕 찰 때 이렇게 뿔 디르는 거.

103014 #2 몰라. 저. 대와세기 달른 걸 무시거 디물멍 허여.

103014 #1 게메, 그거 이름 옥자엔 허든가 뭐시엔.

103014 #2 게도 헤난 거 양, 나도 이 총기가 이서.

103014 @ 그것도 양 다 물어볼거우다. 미녕 차는 거.

103014 #2 미녕 차는 거, 이상허다, 알아지커라.

103014 #1 아는 혼은 곱아사주게. 게 우리 본 거영.

103015 @ 모든 거 다 물어봐. 그 다음에 양 보리 농사에 얹힌 추억이나 경험, 보 리농사허멍 재미났던 일,

103015 #2 보리?

103015 @ 예, 보리농사허멍. 재미났던 일, 어디 장마철에 보리 나 부렀다든가, 이런 것덜.

103015 #1 아이고, 그 때는 측우소도 어섯고 일기예볼 몰라마씨. 뒷날 비올 때 영 뵙, 이거 마 불영 똑 비웁직허다허른, 어디 이디 요즘 7뜨른 일기방송이나 들영 아 내일, 겐디 내일 비올 것도 몰라마씨. 갱 헛당으네 닥치곡 허는디 비가 옴 시작 허른 양 보린 땀막 저 비온 왔디, 이거 큰일나마썸, 밤중에도 강으네양 그걸 언주와 노멍 더러 헤 가지고 놀지 안허른, 보리 다 그 장마때는 메칠 뗏날 헤노른 다 썩영

뿔사농곡 또 이 행 장만허쟁 뿔사낫당 뿔날 묵으젠 허민, 그췌 날 비가 잡아 골겨
노른 이견 양 보린 혼 번 비 맞앙 뿔헤노른 돌돌돌 다 털어져 마췌.

103015 #2 털어지곡 거멍허영 먹지 못허여.

103015 #1 거멍허영 먹지 못허고.

103015 @ 보리 나진 안 험니까?

103015 #1 무사 안 나? 오래 가른 나부러. 게문 다 뿔사낫 나 둔 디 또 비오른
그 다음엔 우리도 혼 밧 내불어낫주. 아 뿔날 영 험 묵으젠 험, 그날 저녁 바바 비
골겨부난, 물이 봉봉 차 그 밧은 물 안 빠징. 겐 물이 둥둥 턴 다 행 허난 내불언.

103015 #2 삼백평짜리 저 수산봉 즈깁이우다마는. 삼백평짜리 저디 싣수다마는.
그 밧디.

103015 #1 보리 허난, 내, 큰 비 오난 민짜 끄서부런, 어떻사 현디.

103015 @ 예, 좀 쉬엇당 허쿠다.

103016 @ 그 다음에 이제 조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예. 조농사 허젠 허민 어떤 준
비가 필요험니까?

103016 #1 우선 이디 저, 질왓이난 여긴 밧 가는 것이 제일 문제라마췌. 겐 초불
밧 거시행 덜 거시리엥 허는디 으름 밧 혼 번 거시렁 놔두른 비 맞곡 뿔 맞으른
양, 비료, 걸름 혼 번 준 건 만이, 게난 여기선 질왓은 하여튼 어떻든 밧은 초불 갈
아사. 겐도 또 물 맞게 갈아야지 너무 몰라도 잘 못 갈곡, 너무 질문 이제 병탱이
나 노른, 이것이 생전 풀어지질 아니허여마췌. 게난 물 맞게 잘 가는 것이 제일, 우
리 농스 저 보른 그것이 질 문제라마췌.

103016 #2 밧덜이 질왓덜, 질왓.

103016 #1 밧을 어떻 이제 물 맞게 가느냐, 거시린 덴 허는디, 밧 거 물 맞게 잘
거시려서 영 행, 꼭 물 맞게 췌로 허영,

103016 #2 저 웃드리렌 잘 험덴 허는디.

103016 #1 우에는 땅이 비가 와도 좀 허곡 몰라도 덜 허는디, 아 이 해변 밧은
양, 질왓디 헤노른 초불 거시렁 낱 콩 갈젠, 아이 저 조는 그렁고, 콩은 나중 예기
허쿠다마는, 이 조 허젠헤도 밧 거시렷당 또 이 날씨 영 뿔 막아질 일 이제 헤 점
직허다 허른, 그 땐 이 일기방송을 들어지카 뿔 아무것도 모르는데 산데레 베리곡
바당더레 베령 이거 비는 이제 큰비는 아이 완직허다. 마 불언. 여기서 마브름 불른
빌레 열 나올 빈 덴 헤 낫수다게. 마브름 계속 터지른.

103016 #2 줄 허젠 허른 늠이 뿔덜이영 췌덜이영 수눌어사. 불리젠 허른. 이녁
췌 하나만도 이녁 췌 같고, 뒤에서 불리는 뿔덜이영 췌덜이영, 이제.

103016 #1 사름덜이영. 수눌영 어디 밧 불린다 허른 뿔 신디서,

103016 #2 그디 강 먹어 낱.

103016 #1 오늘은 누구네 집이 밧 불럼저허른 이제 그레 갈아가명 줍씨 빼어가
명 이제 거 줍씨 빼고 밧 가는 사름은 이제 것이 제일 선생이난. 밧 갈아가명 줍씨
빼른 뒤에 들어강 이제 뿔덜 허영 불리곡.

103016 #2 경허난.

103016 #1 경 행 씨 헤 노른 나중에 이제 거의 물 맞앙 나 노른 마가지엔 헤 가
지고 비가 다행히 안 왕 조가 날 거 아이우파. 수옥기 낭 허믄, 요놈으 것이 이제
거 물 맞앙 나노른 조가 좇게 뻘어노른 복작허믄 이제 속앙, 초불 맹, 그 다음에 두
불 매고 시불꺼지 조کم질을 시불꺼지 매사 허주게. 조کم질은 시불꺼지 매믄 이제
나중에 거 조,

103016 #2 페랭이를 씨카? 썰 거 어선, 썰 것도 엇곡.

103016 #1 조, 저 뭐시엔 허느니, 대우리, 조, 빈 으물 나는 조대우리,

103016 #2 조대우리라, 것도 잊어부런. 하하하, 거세기게.

103016 @ ㄴ랏.

103016 #1 예, ㄴ랏.

103016 #2 예, ㄴ랏, 조ㄴ랏.

103016 #1 아, 조ㄴ랏.

103016 #2 조ㄴ랏 매쟁 허믄, 매정 허믄.

103016 #1 어떤 딴 그거 조카부덴 생경 놔, 살령 놔 두믄 멘 ㄴ랏뿐이디도 셔.
게난 잘 뺏으네 매사 허고.

103016 @ 게난 이 밧을 잘 갈아야웨킨게양.

103016 #1 첫째 양, 그것이 제일우다게. 마가지행 씨 뿌린 후부터 이제 비가 잘
안 왕 이레 짝끔 왕 날씨 개곡 헤노른, 요거이 조가 나 노른 이제 거 초불검질 매
고 두불 검질 매가믄 냥, 마가지든 밧은 겨당 비가 간혹 혼 번 맞곡 허믄 요것이
울뭇울뭇 커 마씨. 조 허믄 야, 이디 마가지웨언 침 조 좋게 뽕져허영. 그건 헤노른
종곡, 장어행 물마가지웨노른 양 종자를 썬지 못허여. 또 재각헤노른 크지도 아이허
곡. 조가 나도.

103016 #2 조 불릴 때도 경 헤사. “이 놈의 물들아 어장어장 어장어장 조 보리도
잘 먹곡 조도 잘 불려사 우리 느네들토 좋고 조코고리도 먹고, 곡식도 잘 뽕 거 아
니가.”

103016 #1 “어허어, 어어.”

103016 #2 “어허 어러러러러러러. 어장어장 어장어장 요 놈이 물 들아, 말도
잘 듣곡. 어허 어러러러러러러, 어어어으 어러라”

103016 #1 게난 우리 집사름은 소리허곡 난 밧가는 장남이난 밧을 갈아사. “에허
어러러”

103016 #2 이추룩 밧기 못허여, 경허난 아기도 재와동 재게 강 소리허젠 허믄 아
긴 깨나불곡 구덕에 놔, 글체에 낵, 게믄,

103016 #1 글체에,

103016 #2 조 불리당 보민 아긴, 담 이염이 글체에 낵 흥글당,

103016 #1 밧디 담 이염이 어디 그늘 진 디 영 재우곡.

103016 #2 재우곡, 경 헤가믄 재게 불르곡, 소리 헤뽕 왕, 아기 젓 뽕이곡, 아이

고 어떻헤사 세상이 경 허멍 살아, 살앗수다.

103016 #1 조کم질 매쟁헤도 저 그늘케 행으네, 영 그 낭께기 행 강, 니곳에 영 그늘을 멩글아사.

103016 #2 조کم질 매쟁허믄 딱시 이제 아길 골체에 놔똥,

103016 #1 쟁 거기 앓앙 이제 아기 재와똥 검질 매곡, 조 불리레 강도 그추룩 행 허고.

103016 #2 게난 보리보다 더 어려와. 이것이 막.

103016 #1 잘못허당 이제 구덕 얹어저노믄 아기도 춤 올곡, 그런 디도 으라 번 이섯수다게. 저 혼 구석에 그늘진 디 어디 똥 아기 똥 놔두믄, 골체에 허당 얹어정 막.

103016 #2 조کم질 매젠 허믄 조 재게 소리 행, 헤동 왕 불러똥으네 이제 아기 젓 맥여동 가곡 허당 보믄 하르방 하난 똥 시 개 허난 버치곡, 순일이 아방은 경 허멍. 아이고 어떻사 헤연 헤 저신디. 어떻사 허연 헤저신디 다 옛날 한 거 잊어부러. 잊 어부러.

103016 #1 그땐 양, 마가지 시검저 허믄 저 두 집 시 집이 장남똥 모다들영 그 밋똥 막 ㄴ찌 같고,

103016 #2 탁베기 먹고, 술 허영 먹어.

103016 #1 그디 저 탁베기 거려오라 허영 혼 적 먹어노믄, 으름에 헤 노믄.

103016 #2 보리 탁베기 행 먹언.

103016 #1 밋 불리레 텅이멍 양, 오늘은 어느 집 어느 집, 마가지 신테레 글라 행. 103016 #2 아이구 게메, 경헌 세상도 다, 경 헤 낫수다.

조 농사

103017 @ 그 다음에 양 조팍 걸름 안 허지양?

103017 #2 조팍 걸음, 게난,

103017 #1 조는 보리끄루에 걸름 노믄 일년 가 마썸. 조팍은 걸름, 또 덩곡 헤노믄. 또 그건 조는 오래 안 걸리곡 보리ㄴ치 겨울 들영 막 오래 가는 거 아이난 조는 재개 똥는 거난, 조는 걸름 아이헤마썸. 그 비료도 엇곡 허믄 그냥 오즘 신킨 집 이,

103017 #2 오즘 저당으네, 것 허는 사름은 허고. 경 헤낫주.

103017 #1 오즘 저당 박세기 행 뿌리고, 무신킨 걸름이 섯수가?

103017 #2 허벅에 오즘 정 강 게. 오즘 세백이 저 가지 아이허믄, 아기 눅저똥 저 가지 아이허믄, 강 저당 혼 허벅, 두 허벅 박세기허영 지청으네.

103017 #1 건 것이 거멍허곡 것이 좋아마썸.

103017 #2 게난 오즘, 조도 으라 찢이우주. 오즘 저 강 준 똥 허곡. 막 수눌어가 멩 저서. 동네사름더.

103017 #1 누게네 오즘 점똥허믄,

103017 #2 게문 ㄴ찌 저 가곡. 보린 멧 번 아이 쫓수다마는. 경해도 정 가긴 정 가나서. 가까운디.

103018 @ 그 다음에 조는 언제 어떻 감니까?

103018 #1 존 이디서 보릿그루나, 주로 보릿그루나믄 으름에 저 거 처서 전에, 처서 전에 이제 초불 거시럿당, 이디션 하여튼 거시럿수다, 밧을. 거시럿당 이제.

103018 #2 곁은 말 해나고, 게난,

103018 #1 거시럿당 거 두불 우이로 살살살 쟁기 들렁 갈멍 씨 뿌령으네 사름덜 모다들영 블립주. 쉼, 게고 그전에 그건 처음 썬나고 남텡이엔 허영, 영 구루마ㄴ찌 영 현 것에, 동글락현 것에 막 돌빨ㄴ치 해 낱, 그것도 해 낱수다. 처음에 게문 이제 밧마다 강 ㄲ성 오민 돌 쉼 어신 집이 거 남텡이엔 허영 ㄲ선.

103018 @ 남텡이? 그거 조 블릴 때 허는 거 아니우파?

103018 #1 조 블릴 때, 게메.

103018 @ 예. 거난 그건 나중에 물어보쿠다예. 그 다음에 줍씨는 어떻 뿌립니까?

103018 #1 줍썬 줍진 거난 줄끈 쉼영, 이거 잘 베리지도 못 허곡, 덩곡 혹은 밧 해노난 손짐작으로 빼는디 이거 줍진 거난 께씨ㄴ찌 줍질아노난,

103018 #2 멧텡이에 맨 게.

103018 #1 멧텡이에 멧 이제 줄끈 쉼영 영 스왱스왱,

103018 #2 서툰 사름은 하영 빼여지곡.

103018 #1 게난 이 씨뿌리는 것도 좀 잘 허는 사름이 이제 씨를 뿌려사 이거.

103018 #2 빌어당 허곡. 서툰 맨 경 해낱주.

103018 #1 처음 우리도 이제 잘 허는 할으방 빌어단, 처음 조 갈 맨 이제 영 빼라, 영 빼라 허난,

103018 #2 영영영 빼어, 영영영영영. 그 할으방안티. 순일이 아방은 눈도 어둡곡 해도, 영영영 빼멍, 어떻허영 빼여그네 경 허여.

103018 #1 아이, 손짐작으로 이렇게, 우리도 해 보믄 착 허믄 손이 어느날 혼 줍 쉼영 허믄 줍진 거난 스왱스왱 빼는 게

103018 #2 어떻 허는 디 그 할으방은 영영영영, 순일이 아방은 경 해난. 경 해나서. 경 허는디.

103018 #1 나가는 보멍 빼엿주게. 지금 담아에 헤시믄 거 살충제 석영 헤영케 빼믄 봐 질 건디. 그 때 줍씨는 베려질, 잘 못 베렷당,

103019 @ 거난 줍씨는 밧 갈아난 다음 줍씨 뿌립니까?

103019 #2 밧 갈아난 다음 줍씨 뿌령?

103019 @ 그 다음 줍씨 뿌령,

103019 #2 뿌려 낱 블리웁. 돌덜 블리웁. 보리 허멍.

103019 @ 건 경 허고,

103019 #1 남텡이도 굿곡.

103020 @ 그 다음에 거 조팓 어떻 블릅니까?

103020 #1 조팏이 그추록 행 불랑 나 노른 이디서.

103020 @ 뭘로 불바?

103020 #2 뭘로덜게.

103020 #1 뭘로영 사름으로영 쉼로영,

103020 #2 뭘덜 뻬 사름 수눌어당.

103020 #1 게난 어느 집이 어떻허다 허믈 뭘 뻬 개.

103020 #2 서너 니 개썸 허영,

103020 #1 뻬 개 빌려,

103020 @ 아 거나네 뭘 허고, 아 그저 남탱이?

103020 #1 남탱이옴 거 썸곡. 쉼, 사름으로.

103020 @ 남탱이 어떤 것과?

103020 #1 이 저 낭으로 낭으로 영 스랑허게 헤 가지고 혼 발썸 허게 허영 솔진
낭 허영 거 구멍 똥르명 영 주작주작 이만썸 너 뭘발굽 곱점지 경 험 이 양팬이 영
험 돌아가게 뻬글양, 게믈 꼬서가믈 각각각, 버치믈 이제 쉼로.

103020 @ 돌아가는 거구나.

103020 #1 예, 돌아가명 불려지게. 뭘발통ㄴ썸.

103020 @ 그저 무신 건 안 헤 뻬디가? 아까, 썸비?

103020 #1 썸피.

103020 #2 썸피로 꼬성. 썸피로도 썸는 사름도 썸곡, 이 밧에 따라 허여. 밧이 부
각헌 딴 막 불려부러사. 게 아니믈 조 문딱 들어져부렁 돼지 아닝허여. 게난 이 알
러레 질왓더렘 썸피로 꺾고, 저 우테렘 부각헌 밧이난, 부각허고 자갈 신 밧이난 조
나믈 문딱 들러져부렁.

103020 #1 발 들러지지 아이허게 불렘주.

103020 #2 나오믈 문딱 들러정 돼질 아니헤난. 게난 막 불렘수게. 그 때 뭘덜이
영, 쉼덜이영, 저 이 알러렘 썸피로 꼬스 사름덜이 하고, 밧덜 저 우테레 신 사름은
불리고, 경 허난 혼 믰을에서도 농사는 두 썸이라. 두 썸로 시 썸로 허여. 밧 좋은
사름덜은 질왓 좋은 사름덜은 뭘 건 물만 맞으믈 농스허기가 막 그자 먹긴디.

103020 #1 건 저 물 잘 맞좌사. 물 잘 맞좌사 허고, 우선은 첫썸 물 맞좌사. 물
맞썸 혼 번 잘못 헤노믈 이게 나중옴 즈베기 즈베기 허명 양 농사가 어떻어뻬 곱라
앗으명 잘 안 돼어.

103020 @ ‘물 맞좌사’가 뭘라 마썸?

103020 #1 물이 적당허게 맞아사, 갈아 보믈 보그락허게 물,

103020 @ 아 저.

103020 #1 너무 질지도 아이허곡 똥르지도 아이 허고 적당히 맞춘 때 갈아사.

103021 @ 그 다음에 조팏 검질은 뻬 번 뻬수가?

103021 #2 시 번.

103021 #1 초불 매영.

103021 #2 초불 두불 시불 매사, 조팍은.

103021 #1 초불 이제 허멍 대강 속으멍 즈진 디, 즈진 디 초불, 존 때난 초불허영 요만씩헌 때 존 때 이제 홀근 벌러지, 벌을 부친데 허느냐, 벌거 초불 거,

103021 #2 벌레기, 벌레기 둘러사 헐 거주.

103021 #1 벌레기 들렁, 벌레기 들른뎡 허여. 벌레기 들르른 이제 초불 검질이영,

103021 @ 벌레기 들른다는 말이 뭐라? 벌레기 들른다.

103021 #1 묵은 검질 납주게.

103021 @ 벌레기 들른다?

103021 #2 검질이엔허여.

103021 @ 벌레기가 검질이파?

103021 #1 초불 검질 맨다 허여.

103021 @ 어, 벌레기가?

103021 #1 거 벌레기 둘러사 허여.

103021 #2 벌레기강 들렁 그 다음은 정식으로 츠레로 영영영 방 둘랑 속아냥. 두불은 경,

103021 @ 속으는 거.

103021 #2 어, 그런 식으로 영영 속아 냥 딱시 시불은 ㄱ라지영 무신 저 선 검질.

103021 #1 못 멘 거영. 강 하나씩 굽어둬서 매 명.

103021 #2 계난 검질 ㄱ쿨허게 매영, 계난 매당 보른 다 해가 저.

103021 #1 계난 잘 안 매른 알 검질이엔 해 가지고

103021 #2 거 무신 재게 매지도 못 허고.

103021 #1 잘 안 매른 빌 때에,

103021 @ 경 허른 조검질 가장 매기 힘들지양?

103021 #2 아이고,

103021 #1 덩긴 허고.

103021 #2 모제가 시카 무시 거시 시카?

103021 #1 계난 여름에 양 우리도 농손 하영 해 놓고 어릴 땐 저 검질 매언,

103021 #2 식군 하곡게.

103021 #1 식구 하 노른 저 웃드리 밧도 벌어나십주게. 거 어떻사 명에 앓으른 저 고지는 진지, 검질 매는,

103021 @2 일 실퍼노난게, 일 실퍼노난.

103021 #1 일은 실프곡 저 꺄테 가쟁 허른,

103021 #2 저레만 베리른 게, 시장허곡. 일은 실프고. 옷이 시카, 무시 것이 시카?

103021 #1 거 저 국민학교 삼 스 흑년 때부터 검질 강 매른, 강 쉼 보렌 만 허른

지꺼져.

103021 #2 쉼 보렌 가든 어디 낭 아래 강 흐름

103021 #1 흐름 쉬곡, 요놈으 검질은 매젠허든 양 어멍 아방 으피서

103021 #2 ㄱ딱을 못 허영, 할으방덜.

103021 #1 잘못 매든 마주 매 주곡, ㄱ딱 못행.

103021 #2 막 욱허곡 허멍.

103021 #1 딱 못허영으네, 허허

103021 @ 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나도 검질 여름방학 때 계속 매었수다게.

103021 #2 하이고 경 해납디가?

103021 @ 여름방학만 어서시만 해신디. 가장 기분 좋은 땀 강 목욕허렌 헐 때.

103021 #2 우린 쉼 맥이렌 헐 때가 질 좋앗주.

103021 #1 나도 계난

103021 @ 목욕허렌 허민 그 물웨하난 탕으네, 먹을 건 어시니까 물웨 간 강 물
웨 하나 탕으네 저 목욕허는 디 가는거라.

103021 #1 계난 나도 경 허곡 또 바당에 강 물 지치렌 허여. 그저 빌레.

103021 #2 소금빌레에, 그것이 질 지꺼정, 경 허든.

103021 #1 물 지치라, 강 물 때 웨어서 강 물 지쳐 오라 허든.

103021 #2 물 지쳐똥 오라.

103021 #1 건 지꺼집주게. 어떠냐허든 그디 강,

103021 #2 조킴질 매지 말랑 그디 강.

103021 #1 해수욕 저 물 혼 번 허곡, 물에 빠정 강 허곡 강 이제 이거 빌레 지치
는 건 쉬와마씨. 박세기로 잘락잘락 믋든디만 지쳐 놔두민. 물 즈쳐진 곳으로.

103022 @ 그 다음에 조팻 검질덜 어떤 거 잇수가?

103022 #2 조팻 검질은 게,

103022 #1 저 제완지허고.

103022 #2 저 ㄱ란지, ㄱ라지영,

103022 #1 ㄱ라지영, 쉼비눔,

103022 #2 쉼비눔 ㄱ뜬 거, 그런 거나.

103022 #1 쉼비눔 ㄱ뜬 거, 쉼비눔은 영 곧 나명 씨 털어져.

103022 #2 아이 계난 믋을마다 이것이 딱나고.

103022 #1 씨 털어노든 쉼비눔은 양.

103022 @ 제완지허고, 쉼비눔허고, ㄱ라지.

103022 #2 그추룩허영, ㄱ라진 제일 말제 매는 거.

103022 @ 게든 ㄱ라지허고 조 어멍 구별허여?

103022 #2 ㄱ라지 거 구별헤지주기게.

103022 #1 아니, 아니,

103022 #2 ㄱ라진 이파리가 틀려.

103022 @ 어떻?

103022 #1 이파리 잘 보든 허고

103022 #2 이파리가 어떻 저 뜰려.

103022 #1 꼬골꼬골허멍 줌,

103022 #2 조 담지 아니허여. 더 질곡.

103022 #1 아니 저 이런 꼬골꼬골허질 아니허여. 그것이 민작허게 똑, 논에 피
 짜 조금 알아져마씨, 잘 보든.

103022 #2 낭도 뜰려, 낭도. 낭도 흥끔 영 슬지곡, 뜰려.

103022 #1 게난 이 피,

103022 @ 게난 사름도 스춘이 잇주마는 이 식물들도 다 스춘이 잇수다.

103022 #1 예, 스춘이 셔.

103022 #2 스춘이라.

103022 #1 꽃이영, 꽃광,

103022 @ 나룩은 피, 조는 ㄴ라지, 보린 대우리.

103022 #2 다 이거 켜당들.

103022 @ 춤웬 갈쟁기,

103022 #1 갈쟁기, 갈쟁기, 게도 거 갈쟁기도 맛 좋아.

103022 @ 에 뭐 맛좋을 말이우파?

103022 #1 별경케 허영, 먹을 거 어스른 어떻허여.

103022 #2 씨만 한한허여. 씨만 한한허여.

103022 #1 씨는 하주만.

103022 @ 옛날에 우리도 타 먹으레 하영 뎡겐수다.

103022 #2 옛날 우리 먹을 거 어시난, 아이고 찜. 먹어지난 살앗수게.

103022 @ 그다음에 폭계, 폭계, 폭계 타 먹으레.

103022 #2 푸철기, 푸철기.

103022 @ 푸철기가 폭계영 험니까?

103022 #2 예, 푸철기.

103022 #1 푸철기도 가을 들영 조 크루에 헤 노든 맛 들영 맛 좋아.

103022 @ 아이 그거 노랑허민, 익으민 맛 조읍주게.

103023 @ 그 다음에 양 조 수확, 조 수확할 때 츠레대로 말 해봅서.

103023 #1 조는,

103023 @ 우선 비어야 텔 거 아니우파?

103023 #1 비어야 헐 건디 상강 념영 열흘만 시든 이제 게난 열흘 전이 조가 고
 개 숙영 두복허게 익어가든 조 색깔이 익어가든 알아, 누렁케 알아져 가고, 경 헤도
 상강헝으네,

103023 #2 상강 스시 비연,

103023 #1 비지 안허든 상강 전에 비든 것이 으물이 익어비어도 소곱이 아멩헤

도 그저 채 많이 나곡, 장만해도.

103023 #2 쏠이 덜난텐 허영.

103023 #1 쏠이 덜나, 몰라. 게난 상강 너먼 혼 열흘 스시 돼 가믄 이젠 으물 건다 으망, 지각허믄 이제 걸 비는디, 이디션 조코코리 이제 비엿당 허믄 날씨.

103023 @ 비영으네 거 저 쉼 질메로 행 와.

103023 #1 쉼로도 식어오곡, 저 오곡, 대게 허믄 쉼로도 식어와. 조를 묵영으네,

103023 @ 쉼질메 양.

103023 #1 예, 쉼질메, 양쪽에 딱 질메허영 식그곡 허영 집이 가져가 노믄 이제 조코고리 툷나 해가지고, 호미로 이렇게 행으네 거 못 풀멍,

103023 #2 이제사 ㄱ뜨믄 ㄱ세로 영영 헌다. 그땐 저.

103023 #1 호미레 영 세와낭으네 툷 툷 잘르멍

103023 @ 호미 영 놔그네 영 툷앗주게.

103023 #1 경 허멍 고고리 막 낫당 바싹 물리우믄 이제 물방에, 물방에 강 그거 둥그리멍 이제 씨는, 조는 수확허영 허는디, 게 방엿돌에 행 허는디 것도 막 츠레로 헤사.

103023 #2 게곡

103023 #1 게난 매 집이 아이허믄 어느 집이 어느 날 강.

103023 @ 물방에엔도 허고 물ㄱ레엔도 허고 양.

103023 #1 물ㄱ레,

103023 #2 게난 우린 쉼, 미국쉼 달믄 쉼로 헨 허단 쉼 막 방에톡 우에 올라간,

103023 #1 방에톡 우에 올라사멍.

103023 #2 말 아이들은 쉼, 행 우리도 경 얼먹어낫수다.

103023 #1 쉼도 양 이 양종덜은 영 지나보니까 옥아마씨.

103023 #2 말 아이들영으네.

103023 #1 사름 툷 이.

103023 @ 사름이나 다름 엇수다.

103023 #1 예, 다름 없어. 양종들은 옥양 양 사름신디 영 돌아사.

103023 #2 게난 조코고리 둥글멍, 조코고리 둥글멍.

103023 #1 게도 한국쉼은 여 조선쉼 순헌디 이저 양종은 양 그렇게 밧 ㄱ르치는디도 힘들고 아주 양종은 이제 툷 사름도 비슷허지 아니허파. 하하

103023 #2 게난 몬 방에 들러난 우리, 집 으피가 물가레, 물가레라낫주기.

103023 @ 물가레?

103023 #2 물가레도 허곡.

103023 #1 물방에, 물가레.

103023 #2 게난 우리 집으피가 물방에난. 아기아방은 조코고리 난 쉼 둥그렘시커라. 둥그렘시커라 물 허나네, 이제 저 막 울르는 소리난 아긴 깨낭 울어가곡 내 불어뵈 갠보난 그 높이 물이 방에톡 위에 올라가네 해난게.

103024 @ 조코고리 이거 호미로 영 허는 걸 뭐엔 험니까? 조코고리 툐다.

103024 #2 툐는 거게. 고고리 툐는 거.

103024 @ 툐은다.

103024 #2 예, 툐는 거.

103024 @ 툐으면 이것을 톨방에에 강 굴곡

103024 #1 톨방에에 강 고고리 노명,

103024 @ 도께질은 안 헤 톨디가?

103024 #1 이추룩 여기서 톨가레엔

103024 #2 게난 톨가레엔 허명도 사름 뒤에 사둬서. 영 톨 돌아오는 딴 ㅋ쿨 톨
아오지 아이허주게. 구석꺀지허른 구석꺀지 안테레 낵 톨로 모사지게 멘들앙, 경 허
당 어뎡허당 잘못허른 톨 발로 차볼곡 허명 경안헤도도 말젠 하도 경 헤가난 이만
이 긴 비치락 달른 걸로 헤네 무신 광이ㄴ추룩 멘들안 그걸 먼디서 톨은 돌아와가
도 그게 게 톨 영 돌아가도 안 돌아간 디가 시른 그거 그거 뵤사지렌 영 거러낵

103024 @ 예, 거러놔야.

103024 #2 예, 거러놔곡. 갱 이제 문 헤지른 대체 얼멩이 사당으네 얼멩이로 청,
청 우이걸랑 이제 쉼 주곡, 아랫 건 이제 또 불령으네 딱시 널엇당으네 멩석에 널
엇당 이제, 저,

103024 #1 흔 번 이제

103024 #2 공장에 강으네, 거시기 행.

103024 #1 둥그러사. 경 허곡.

103024 #2 경 허고 게난 영 친 건 흔뵤에 쉼 주지 아니허영으네, 조캉멩이엔 또
흔 번 더 둥그러사. 문 아이 털어지른 으물.

103024 #1 조캉멩이엔 허영, 조캉멩이엔 허영 그것이 이제 쉼도 잘 먹읍주, 영앙
가도 잇곡허난. 그것 두불 헤사.

103024 @ 조캉멩이 앙.

103024 #2 조캉멩일 영 처낭 또 흔 번 방에, 톨방에 또 둥그러사.

103024 @ 조캉멩이 거 도새기도 멩여낵주게. 먹을 거 어스난.

103024 #2 도새기도 멩여낵주만.

103024 #1 조체엔 허영, 그거 무신 체고, 봉당체,

103024 #2 봉당체엔 허영,

103024 #1 봉당체엔 허영 그냥 조 장만헤낭 브름에 불려나른 영앙가도 하나도
어신거 그자 그걸 조체, 봉당체허른 이제 그것에 흥끔 석영.

103024 #2 석으멍 멩이고.

103024 #1 그거 보리ㄴ를이나 조금.

103024 @ 보리ㄴ를 조금 석영

103024 #1 보리체나 흥끔 석영. 도새기 멩이곡.

103024 #2 게 아이른 아이 먹곡.

103024 #1 봉당채 이건 아무 영양도 어신 거. 그자 비삭헌 거.

103024 @ 맛수다게.

103024 # 게도 내불지 아니허곡. 게도 쉼 주른 먹지 아니허여. 쉼도 시장허난 쉼도 물칸으네, 거시기 보리쫄 씻어난 물 칸 쥐부난. 먹지아니허여. 말제에, 도고리 문 옆어불멍 경 헤나서, 게난.

103024 @ 이 덩드렁마께론 안 두드려봬디가?

103024 #2 덩드렁마께도 더러 두드려. 하지 아이헌 거. 한 건 방에에 허고,

103024 #1 덩드렁마께로 독독독 두드렁 더러 장만허고.

103024 #2 낭 마께로도 두드려낫주. 흥끔만 헌 거 장만허여.

103024 #1 경 안 헌건 물방에 강으네 둥그리멍

103024 #2 말제에 조코고리 툄므멍 두루 툄아진 건 봉가다 낵 그걸 막 곡식이영, 두루 툄아다 낵 메아낵 그걸 마께로 마께로 행으네 맥더레 놔 뒷당으네 한결허믈영 청 봉당채허믈 그걸 도새기 주곡 새끼덜 낵그네 그거 낵 죽 썰으네 흥끔 저 조도 흥쫄 낵 주고, 봉당채 주고, 죽 썰으네 옛날 경허멍 쥐 나서. 아이고 뭐 어떻사헨 살아신디.

103025 @ 줍쫄, 줍쫄 어떻 장만허여마씨.

103025 #1 그냥 저 방에에서 계속 그냥 헤 가믈 체영 나옵니다. 게난 것도 잘 물리와사. 잘 물리지 아니허믈 문 뺨사져부난 이제,

103025 #2 방에에서 줍쫄헤서마씨 무사?

103025 #1 방에에서 헛주기. 처음에 방엿공장 가기 전이 방에에서 저서.

103025 #2 방에에서 줍쫄 멘들안.

103025 #1 초불헤낵 나중에 체로 치멍. 떠 그디 낵 또 치고, 경 나중에 불리곡헿.

103025 @ 그 다음에 줍쫄 다음에 아까 그것이 뭐? 각메기?

103025 #1 아, 조각메기.

103025 #2 조각메기. 조각메긴 놔 뒷당 쉼 맥이곡, 조각메기도 흥 번 또 둥그려사. 으물 하나씩 시믈 으물 아까와뽕, 문딱 툄다사.

103025 #1 궂인 조가 씻고 모인 조 씻고. 모인 조 씻곡.

103025 #2 어떤 땀 쉼 그냥 맥이믈, 죽 썰도 맥이고. 경 허멍 정 허멍 어떻 옛날.

103025 #1 흐린 조는, 이 모인 조는 허믈 밥 헤노믈 베삭베삭허는디 흐는 줍쫄허믈 맛 좋아.

103025 @ 그 다음에 양, 방에 강 줍쫄 멩글엇지양, 방에 강 양?

103025 #2 방에 강 둥그렁, 둥그렁.

103025 @ 줍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각메기,

103025 #1 조각메기허곡 줍쫄 전에,

103025 #2 건 줍쫄 전이 나와.

103025 #1 둥글영 헤노믈 나왕 체로 청, 우이 것이 봉당채주기. 거 또 아래 건

이제,

103025 #2 조각메긴 영영허멍 딱로 허여.

103025 @ 봉당채허고 틀리구나? 좁쌀 다음에,

103025 #1 그 다음 좁쌀 나기 전이 이렇게 불리든 양, 방에에서 조각메기 영 손으로 게뿔 걸 불리든 문딱 조허고 빈 으물허고 갈라질 거 아니우파. 게문 저쪽에 간 것이 봉당채라. 그건 빅삭헌게 영양가 어서.

103025 @ 제일 뭐 헌 것이 조각메기구나?

103025 #2 조각메기 그거 허든 쉼 막, 물웃젓당 쉼도 맥이곡. 어떤 집이 등글이지 아니허영 좁쌀 신양도 맥여. 경 헤나서. 부제칩덜은 그추록더 허고,

103025 @ 아까 저, 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이서마씨?

103025 #2 노랑조,

103025 #1 흐린 조 싯고, 모인 조 싯고,

103025 #2 무사 그것이 거주게.

103025 #1 아이라. 흐린 조는 거므룽헌 게 쏘 지어노든 밥 헤노든 친닥친닥헌 게 이제 거 오메기도 허곡

103025 #2 흐령, 흐령,

103025 #1 또 영 양 떡도 허는디, 모인 조는 또 노랑헌 게 바삭바삭헿으네 잘 떡도 아니허곡, 게삭게삭허영,

103025 #2 겐디 수확은 하영 나. 노랑조가.

103025 #1 수확은 더 나.

103025 #2 수확은 더 난 게.

103025 #1 이제 밥 헿 먹을 때 그것에 좁쌀에 감제 썰어놔,

103025 #2 겐디 노랑조는,

103025 #1 경 헿 여기선 양 이제 보리썰에 허든

103025 #2 흐린 조에 허는 거 아니우파? 흐린 조에, 감제 썰어놔,

103025 #1 흐린 조에, 아니 노랑조에도 놓니다.

103025 @ 감제 썰어놔으네, 게난 우리 어릴 때도 좁쌀은 안 먹곡, 더 감제만 파그네,

103025 #2 노랑존 죽 쭈젠, 노랑조를 헤영, 경 헤낫젠 허여. 우리 어머님도,

103025 @ 말은 사름덜 죽 썰 줘 낫수다.

103025 #2 죽 쭈젠 경 헿젠 허여. 저 어머니덜이 노랑조 죽 쏘 거여게.

103025 @ 게난 두 가지 뿐이네, 흐린조허고, 맛시리에 헌 건 안 들어봣디강?

103025 #2 노랑조.

103025 #1 마시리도 들어봣는디 마시리영 허영 그것이 열매는 아주 봉알봉알헌 게 그냥 이 고고리 하나도 이마씩헌거 마씨리, 마씨리 마씨리 헿주게. 그것도 이제 노랑조도 싯고 흐린조도 셔, 맛시리.

103025 @ 맛시리도.

103025 #1 예, 노랑 맛시리 싯곡, 흐린 맛시리 싯고. 마씨리엔 헌건 이마씩 큰 고
고리가 맛시리이고. 게난 노랑맛시리, 저 흐린맛시리, 모인 맛시리엔 허여, 모인.

103025 #2 건 술 담야. 탁베기허는, 우리 할머니 항에 멘딱 술 담으멍 마시리 술
담았저, 담았저.

103026 @ 그 다음에 줍솔로 뭐뭐 험니까?

103026 #1 줍솔로 게 떡도 행 먹고, 옛날은 그 영장밧디 가문 돌레떡이엔 행 이
마씩 알건가? 선생님, 이마씩행 돌레떡 넘작넘작 그거 영장밧디강 하나둘만 먹어도
배가 든든해 마씨. 그추룩행 먹곡 대게 여기선 흐린 줍솔로 조팝행 먹곡, 감제 썰어
넣으네.

103026 #2 게난 제사땀 게도 줍쌀떡허여. 줍쌀떡.

103026 @ 침떡허영으네.

103026 #2 예, 침떡허고.

103026 #1 조 침떡허곡 또 오메기도 허고.

103026 #2 집이서 허고, 게허고 노랑, 노랑 줍솔허고 거 무신 마사리허곡 허문
탁베기 술 허여, 식겅때. 술 허영으네 항에, 항에 경 험디다게. 항 소곱에 술 헤낭
거렁으네, 거렁 제사때에 막 제사먹으레 오는 어른덜 거려내곡, 우린 아이고 그거
술내남젠 헤도 막 좋아허영덜 할으버지네 할마, 그 땀 여자 어른덜토 막 먹어. 이제
담지 아니허영 옛날 할망 어른덜은 잘 먹어나서양. 할마님덜토, 경허민,

103026 #1 전인 막 제사때는 그 적갈이 먹기 어려우난 적갈 허는 딴 7만이 트
다왔앙, 우리 어린 땀, 것이 어떻 영 요만이 파치라도 나오문 그거 이제 주문 먹곡
헤 난디. 똑 반에 저긴 몰라도 이딘 반에 반이엔허영 놓네다. 제사때도 허문 떡 하
나 예를 들영 골라놓으문,

103026 @ 지금도 반 냥,

103026 #1 예, 다 세영 놓곡.

103026 @ 세영 놓고마씨.

103026 #1 썰영 다 놓곡, 또 영 적갈이엔 혼 점씩 다 놓고.

103026 @ 거 옛날.

103026 #2 이제도 이젠,

103026 @ 이젠 경 안 허주게.

103026 #2 이젠 안 험네다. 이젠 허긴 헤도.

103026 @ 나도 옛날 어릴 때 식겅집이 하영 갓다 왔수다게.

103026 #1 반 노래 가.

103026 @ 강 보민 레기 혼 근 가정 식게 헛수게. 그러면 재수어시면 적갈 레기
혼 점 어실 때가 이서마씨. 저 이 잘못 냇.

103026 #2 예, 맞수다게.

103026 #1 게문 양, 먹당 허문 이거 적갈 떨어졌저. 저쪽에 적갈 엇다 허문 거
반 놓던 사름이 왕 적갈 혼 점 가정 왕 술 먹곡 헤낫주.

103026 #2 게난 저 똑 ㄱ뜨게 그 동네하고 저동네허고.
 103026 @ 옛날 게 어실 때난 게.
 103026 #2 아이고, 경 헤 낫수다.
 103026 @ 혼 근 가정 식게 다 헤시난게.
 103026 #2 아이고, 게메마씨, 혼 근 가정.
 103026 @ 꿰기, 혼 근 가정.
 103026 #2 식게허곡,
 103026 @ 그 저 좁쌀 가정으네, 곤썰이 어려울 때니까. 침떡도 반은 좁쌀, 반은 곤썰행으네 침떡 멍글지 안 헛수가?
 103026 #2 예 게, 반은 좁쌀, 반은, 게난 것도 매 집이 아니허연. 허는 집이 허고 매 집이 못 헛수게.
 103026 #1 좁쌀허영 허믄 이제 저 침떡이엔 허영 거 쫓씨허곡 행 허믄.
 103026 #2 흐린 좁쌀만은 아이뤄어.
 103026 #1 저 모인 좁쌀 석어사. 너무 흘착헤브런.
 103026 #2 너무 흐랑헤브런, 게난 모인 좁쌀이영 석영. 석영으네 떡 허지 아니허믄
 103026 #1 쫓씨허고 허믄 치레에 처사.
 103026 #2 쫓씨행으네 옛날은,
 103026 #1 것도 옛날,
 103026 #2 저 돌방멩이 ㄱ쌍허곡. ㄱ쌍허믄,
 103026 @ 감준 안 멍글아 볍디강? 조로.
 103026 #1 무사 조감주게, 골감주, 골감주엔 허여, 골감주우다. 이디선 허믄 식게 매 허영 그거 요즘 ㄱ뜨믄 음료수, 골감주.
 103026 #2 집이서 보리썰행으네게 키왕으네, 걸로 멘들아사.
 103026 @ 좁쌀로도 멘들아 감주?
 103026 #2 좁쌀로 만들아.
 103026 #1 골감주, 좁쌀로행 현 것이 제라한 겨우다게. 요즘 탁베기보다. 그것이 아주 들곡 혼 잔씩을 먹어도.
 103026 #2 게난 옛날 보리썰행 키왓당 이제 그걸,
 103025 @ 그거 골이엔 헤십주.
 103026 #2 예, 골 멘들앙, 이제 ㄱ뜨믄 골, 이제도 골은 골이라. 예, 게난 골행으네 그것 티왓당 허믄 그것이 보족보족 나. 나믄 이제 거세기 좁쌀로 밥 허영,
 103026 @ 아, 좁쌀로 밥 헤그네 허는 거구나.
 103026 #2 밥 허영 그것 꿰영 영, 물 췌 놔두믄 물 췌영 향 소곱에 망데기에 놔놔두믄 부각허여 혼 이틀만이 부각허민 그거 저 대체, 체로 행 걸러그네 이제,
 103026 #1 옛 멍글때 저,
 103026 #2 솟디 놔 솜앙, 게믄 탁 솜앙도 먹곡, 그냥도 먹곡, 옛 멘들땀 그냥도

허여. 예.

103026 #1 좁쌀엿힐 때ㄴ찌 그추룩헿 막 딸리믄 엿 돼곡 게 아니허영 조금 습으
믄, 덜 습으믄 것이 감줍주게. 덜허여, 무신거 든 거 안 놔도.

103026 #2 게난 그거 허영 청으네 감주허게돼믄,

103026 #1 제삿때도 감주 가져오라. 골감주허믄 게 흔 잔씩 먹고.

103026 #2 그추룩 헿 헿수다.

103027 @ 그 다음에 양 조찹, 조찹은 뭐에 사용헿수가?

103027 #1 쉼, 쉼엿수다.

103027 #2 썰언, 썰언.

103027 #1 게고 양 조찹 썰멍, 쉼도 작두로 헿 먹곡, 그냥도 주곡 허믄,

103027 #2 누가에 슬망 쫓주기.

103027 #1 쉼 잘 먹는다, 또 좃대가리엔 허영 그거는 전이 잔치집이 뭐 이 허믄
주로 잔치집이는 우리도 어린 때 보믄 잔치집이강 밥을 먹젠 통사발에 영 밥 거렁
허믄 그 좃대가리 다 격어당으네 고기 흔 점 무슨 두부 흔 점, 조 낭, 대가리 격영.

103027 #2 쫓탕이 격어당.

103027 #1 그거 해당 허믄 어느 집이 잔치헌다. 아 좃대가리 필요허다, 그거 해
다 낭 허믄 쫓탕 썰렁 밥 우터레 쫓 허게 질렁으레 다,

103027 #2 쉼기 두 점 낭, 경 헿 쉼.

103027 #1 주곡 아이덜은 주로,

103027 @ 쉼꽃이에 역할 헿수가.

103027 #1 예, 쉼꽃이 역할, 좃대가리 그거허곡, 주로 조나흔 그거 허곡, 쉼 먹이
는 거 허고.

103027 #2 썰영 누가에 조쳐 불러분 것에 누가에 허곡

103027 #1 복복 썰멍

103027 #2 장만헌 누까 허곡 슬망 쉼 멕연. 쉼 먹연.

103027 @ 조찹으로는 불 안 땃수가?

103027 #2 아이 때서. 더러 대가리덜은, 더러 대가리 남은 것은 이서. 대가리 남
은 거 굵더레, 그런 건 굴묵 지땃주기. 굴묵게.

103027 #1 쉼 멕이곡, 옛날 대신 또,

103027 #2 보리낭보단 그건 헿쫓 오래 가. 습음이. 보릿낭은 바르르 해불고,

103027 #1 조대가린 그 조,

103027 #2 조낭을 썰당 헿끔 소굽으로 썰영 쉼 멕이고, 연헌 것은, 덩친 나뒹단
불 습고, 불 습지 아까왕으네,

103027 @ 우린 해 보믄 쉼낭이 가장 좋아 뵈어.

103027 #2 굴묵 지더난.

103027 @ 쉼낭 거 밥 헿 때 가장 좋아.

103027 #2 가장 좋아낫수다마는, 쉼 우리 쉼은 잘 아니해낫수다. 쉼 아이뵈어.

103027 #1 게고 양, 이 해변더렌 켜가 잘 안 됩니다.
 103027 @ 켜가 안 웨어. 거 이 태풍때문인가?
 103027 #1 아니 하이튼 그거 비 오곡 어떻 맞추지 못허든 켜 안 웨어.
 103027 @ 이 켜는 ㄱ물아야 웨는 거게. ㄱ물앙으네 웨는 것이 두 가지우다, 두 가지, 켜허고 뭇짱? 멘네.
 103027 #2 멘네,
 103027 #1 예, 멘네는,
 103027 @ 켜허고 멘네는 ㄱ물아야 웨는 거.
 103027 #2 멘넨 이디 더럭더렌 헤도 이렌 안 헤 봤수다. 몰라 우리 산,
 103027 #1 멘네 어린 때 많이 멘네 타레 밧디 가났수다.
 103027 @ 줍썰에서 멘네까지 가부러트수다만.
 103027 #2 게메 게난 허드레 문 가부러신게. 줍썰도 다 아니허영. 줍썰도 다 아니헤된으네, 말만 허연.
 103028 @ 마지막으로 게든 조농사에 대한 얹힌 추억, 조농사 추억이 이실 거 아니우파? 조농사 허명.
 103028 #1 아이고 게메,
 103028 @ 뭇 검질맬 때라던가.
 103028 #2 추억게 무시거. 하도.
 103028 #1 조 불리는 소리를 해야,
 103028 #2 조 불리는 소리보단 뱃 난디 앓앙으네 검질 매곡 뱃 난디 앓장 검질 매고,
 103028 #1 그 땐 양 페랭이도 쟁 어선,
 103028 #2 밥도 밥도 기럽곡 먹을 것도 엇고.
 103028 #1 이녁 집이서 페랭이 줄지 아이허든 여성 그자, 아이, 머리엔 뭇 썸 거 헤노든 양지도 거멍케 카고, 등땡이 다 카고,
 103028 #2 초신 신영강 앓앙으네 무신 거 허곡.
 103028 @ 게든 조 불리는 노래 흔 번 헤 뵈서.
 103028 #2 아이고 조 불리는 노래 궂사 허난 더 허여져?
 103028 @ 흔 번 더.
 103028 #2 흔 번 더?
 103028 @ 예.
 103028 #2 헉서.
 103028 #1 예, “으르르르르 어어,”
 103028 #2 “어어어 어랑 허랑”
 103028 #1 “어 허어어어어”
 103028 #2 “걸으라 걸으라 재게 재게 걸으라. 어러러러러 허. 어러러러러 어라. 우리 뭇덜은 말도 잘 들고 늙이 뭇덜은 말도 아이 들엄시네, 어러러러러 허허허”

103028 #1 “어러러러러 허허허”

103028 #2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허러러 허러러 아이고 잘도 간다 몰들아.” 경허멍 그추룩 허멍 허당 아기 울어가믄 읊더래 가곡 허멍, 아이고.

103028 #1 옛날 삶사 삶이우파?

103028 #2 경 허멍 그추룩 허멍 해도 이제 뭘 불리는 할으방이, 잘도 노래 잘 부르는 할으방이 셔난, 그 할으방 빌기가 막 다 빌어가젠 허영 못 빌어. 우리 읊집이 난 빌었주, 우리가. 빌영 허믄 “느도 노래 배우라. 배우라”허믄, 순일이 아버지께. 아이구 게메. 경 허단 이제 이디 할망은 살안 허긴 햄구나마는, 지금 잘 불리는 대장 어른이 잇젠, 이디 완 살 멩 거 노래를 잘 헐, 뭘 불리는 노래.

103028 #1 겐디 조도 저 아무 보리도 경 허주마는 조는 그냥 요거 비 맞으믄 침안 뒹어마씨. 거멍께 줍쫄ㄴ치 거멍헤부니까 조 헛당 그 때는 ㄴ을이난 비는 잘 아니오는디 ㄴ을 들영 이제 하니까 와상와상 헤노믄, 재게 물르곡 허는디, 노허당 하니 울르젠 허믄 거 브름 불제 허믄 비가 잡아 골김주게. 그 땐 나도 양 밤이 헛단 저 맞은 수산봉 곁에 멀곡 비는 와작작 와작작 골겨 가사 어떻허여게 미리 비 오카 부텐 해서. 간 양 거 허 그거 놀멍 허난 침 그런 적도 만헛고 이 저 추억이 만수다게. 조에 대허영.

103028 #2 게난 이제거추룩 질이 널러시믄 허주마는, 영 질 좁은 딜로 조도 저 오곡, 보리도 저 오곡 허당 보믄 질 율이 질 가시에 깍깍 허영 옛날거추룩,

103028 #1 조, 조도 대가리 문 격어져불곡.

103028 #2 게난 저 쉼나 물이나 질멍 오당 보믄 집이 왕 보믄 조도 대가리 다 격어져불영, 문딱 까시에 문딱 홀터불영 어서. 조 식영오곡 허당 보믄, 경 해도, 쉼, 침 뭘 매어뒹으네 저 부렁 질 이염에 허믄, 무시거 부렁보믄 반작허영으네, 게난 이제 뭉방에 즈깁디강 매뒹 조코고리 이제 트당 뭉방에 둥그렁, 아이고, 체로 청 조각 메긴 그추룩 와 뒹당 막 헌 맥에 멧 가멩이나 맥 행 담아뒹,

103028 #1 가메기 담는 맥이 뜯로 이서, 크게 담앗당.

103028 #2 이제ㄴ추룩 경 행 와 뒹당 쉼 주곡

103028 #1 쉼 흥깁썩 맥이곡,

103028 #2 맥이곡,

103028 #1 건 쉼 양식.

103028 #2 게 아이믄 비 맞아나믄 터불영 쉼 잘 아이 먹곡, 경 잇날은,

103028 #1 모든 것이 빌 맞치지 말아사. 보리도

103028 #2 게난 아이고 그렇게 머리덜이 경 허멍 살안.

103028 #1 아니 그 땐 양, 날썰 듣지 못헤노난 이제ㄴ찌 일기방송허영 닐 모리 비 올 것ㄴ찌 다 알암시믄

103028 #2 라디오가 시카? 텔레비가 시카게 명청허게 붉으믄 쉼나 뭉앙 어디 저 쉼 맥이레 가곡, 조코고리 트당 둥그릴 생각허곡

103028 #1 요즘 무신 텔레비가 싿수강? 라디오가 싿수강?

103028 #2 계난 줍쓸 헤노른 이제 돈 얼마씩 허영 줍쓸 하귀장에 폴레 어디 가 쟁허민 이제 정 가사 아침이 아기 잘 때에 정 강 폴앙, 두어웨 정 강 폴앙으네 폴 앙 오멍 무시것,

103028 #1 고모신 사고.

103028 #2 고모신도 하나 사곡 초신도 하나 사곡 허멍.

103028 #1 나도 머리 이발허젠 허른 돈이 어시른 거 해당, 줍쓸 강 폴앙 오른 그 거.

103028 #2 폴앙, 경 헨 헤낫수다.

103028 #1 폴앙 이발도 허곡. 고모신도 못 사른 사곡,

103028 #2 곧지도 못 허곡, 이제 사름덜은 몰라, 우리 아기덜토 못 곧곡.

103028 @ 예, 수고했수다.

콩 농사

103029 @ 그 다음에 양 콩농사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 콩농사는 허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29 #1 이디서 콩은 크게 뭐 아이허주만 콩은 유월절 전에 유월절 넘으른 요 놔으 것이 이제 저 전이 갈른 낭만 커불어. 계난 유월절에 맞추앙 가느디 또 콩은 모든 건 두불에 가는 디 초불에 갈아마씨. 어떠냐허른 콩은 또 영 곁으른 뭐 헨 말 갈아도 어디 저 원수진 사름 빌영 콩 갈아. 영 허영 왜 냐른 곁게 갈른 안 웨어. 그 냥 야트게 그자 쉼 그르치멍이라도 탁탁 쟁기 들르멍 행 또 씨도 드무룽이 빠영 양 정씨로 빠지 아이허른 콩은 즈지른 열질 아이허니까, 경 행 허곡 주로 이제 콩 갈 때 아주 드물게 장기 영 들르멍 팍팍 그자 가는 체 마는 체해도 나중에 웨른 콩이 그 때사 제라허거 것이 웨어마씨.

103029 #2 일찍 갈아불른 콩낭만 나곡, 콩 잘 올지도 아이허곡,

103029 #1 걸름콩이엿 허영으네 걸름이 옛날은 걸름이 귀허난 톱 건 일찍 갈아사. 톱 보리 비어나른 걸름콩 갈젠허영, 것이 헤노른 맛이 비영 혼 불 곁앗당 그거 헤 노른 양, 비 맞곡 행 썩영 갈아노른 걸름 안 해도 혼 불 걸름헌 것추룩,

103029 #2 맛이 곁언.

103029 #1 그 땐 뭐 비료도 엿곡 헛자 통시에 걸름백이 어시난 이제 걸름콩 갈곡, 예 거 걸름콩이라,

103029 #2 딱시 이제

103029 #1 경 안헌 건 이녁 콩 헤 먹을 거는 늦게 갈아, 유월절 스시에 갈주.

103029 #2 유월절 혼 오일 전이, 일주일 전이,

103029 #1 계난 유월절 웨가른 쉼도 양 여기서 목장에 올리느디

103029 #2 강 들앙와사.

103029 #1 막, 아이 아니, 막 이저 믹시덜이 와려마씨. 쉼프리가 독해 가지고.

103029 #2 콩 갈지가 구져.

103029 #1 유월절 돼가든 돼는 이디서 농사 재게 해뵈 올러야 헐 건디 절 전에
콩 안 갈 사름은 목장에 돼 강 보리 얼마 쥔 으름 거 올리는데 그디 가든 프리도
덜 허곡 돼 진독도 덜 허곡 허영으네 유월절 돼영 콩 갈젠 헐 사름은 늦영 허는거
라. 쟁 콩만 갈아뵈 재게 돼 올러사 허켜.

103030 @ 계난 콩은 아까 물어봤수다마는 언제 어떻 갑니까?

103030 #1 콩은 유월절 스시에 해 가지고 우선 밧 거시지 말앙 이제 거 씨 뵈디
씨도 좀 드물게 뵈곡 가는 건 첨 원수 빌어당 갈아. 건 뵈냐허든 위로 툽툽 갈명
아주 야프게 콩 짚이 갈든 못 씨는 거. 콩 짚영 안 나주. 이제ㄴ치 경운기로 험시든
착착 얹게라도 헐건디.

103030 #2 콩은 쟁 헐디 날짜를 몰르켄게.

103030 #1 유월 소서, 소서고라 유월절이엔 헐다. 소서 유월절, 계난 소서돼든
날씨도 막 덥고 이저 겨울엔 뵈 어디, 소서,

103030 #2 계난 이디 돼덜이 와리는 따문 재게 갈앙 목장덜레 올러볼젠 허든

103030 #1 돼프리가 양 독해가지고, 아이튼 유월절 돼가든

103030 #2 장남 못 빈 사름은 재게 못 올리곡,

103030 #1 돼프리 저 가든 유월절 닥첨저, 어떤 때고 이 때가.

103030 #2 재게 콩 갈아뵈 돼 올러,

103030 #1 예, 돼 올러.

103030 #2 게든 장남 못 빈 사름은 훌어멍이나 할망덜은 재게 못 갈앙 막 거 게
콩 갈지 못허영 해낫수다마는. 아이고 그뵈 우리 이젠 막 놔이거 빌언 감저 싱거나
부난. 놔이거 막 갈아주단보난 우리건 늦언.

103031 @ 콩밧 걸름 엇지양?

103031 #2 걸름 아니 허여.

103031 #1 콩밧은 걸름콩, 너무 걸든 콩은 올지 아이허난 그냥 저 생땅에 보리끄
루에 해도 좋아마씨. 콩은 해노든 유월절 스시에 행 갈앙 나 노든 것이 콩이 잘 올
고,

103031 #2 보리 비어나든 것이 걸름.

103031 #1 그루후제 보리 빌 때는 막 굽으로 안 뵈니다. 흥끔 우이로 영 비영 갈
아노든 그것이 문딱 걸름돼어, 조 헐 때도 그거 허고 주로 보리그루로 헐 것이 걸
름이우다.

103032 @ 콩씨는 어떻 뿌려마씨?

103032 #1 콩씨는 드무룽이 뵈어사, 콩은 이 아멩이나 데끼명 콩 즈지든 안 뵈난
드무룽이 뵈영 거 콩,

103032 #2 망텡이 미영그네.

103032 #1 이제 거 콩씨, 거 무신거랜 허더라. 여 즈지든 안 뵈어. 우리도 해 보
든 막 천장만씩 눈 굽으멍 작작 뵈어. 쟁 행 갈아도 나중에는 콩이 처음에는 아이
고 드물다 해도 나중에 허든 콩이 올때만 지락지락,

103032 @ 막 거리니까게. 콩은 거러.

103032 #2 예, 지락지락,

103032 #1 거령으네 올때만 지락지락헌 거 으물이 킨 게,

103032 #2 쉼도 막 와령, 콩 갈제 허든 막 천장만장 돌아나곡 쉼 게난 장남이 든
든헌 장남 아니든 갈질 못허여. 막 더워노난 더워가곡 헤 나난 쉼 와령 쉼도, 세백
이 강 갈지 아니허든 양

103032 #1 어두룩 행 베리지 못헌 때 가사게.

103032 #2 아이 강 보든 양 빌지 못헌 할망덜 낫이 갈쟁 허든,

103032 #1 해가 올라가든 더워 이거 쉼 와령으네

103032 #2 막 쉼 와령허당보든 밥 먹을 시간도 엇곡, 쉼을 어디레강 낭트멍에나
어드레 매영으네 출 쥐똥 오지 아이허든 막 쉼 들러귀어노난 일러도 불곡 늪이 밧
디 강 헤 무신거 헤불곡 쉼가 막 경 헤불든 쉼 낭그늘에 돌아당 소낭 틈에 매어똥
왕 밥 먹어사, 콩 갈 때는.

103033 @ 콩밧디 검질은 멧 번 맴수가?

103033 #2 콩밧디 두번백이 아이 매어.

103033 #1 두 번, 초불, 초불 매냥 벌레기 들르멍 두불 매든 뽕족뽕족 콩이 날
거 아이우파? 이제 묵은 검질이 셔, 그딘. 보리그루에라든지 다 매지 못헌 풀들이,
지금ㄴ뜨든 제초제 헤불영, 거의 죽주마는 옛날은 사름 손으로 매지 아이허든 검질
이 살아날 거 아니우파? 그냥, 게든 그거 이제 초불 벌레기 들러냥 나중에 이제 두
불, 어떤 딴 저 일손 어스든 양 초불만 매영 내분 밧도 싹곡게.

103033 #2 콩이난.

103033 #1 겐디 콩이라든 두불 안 매든 이것이 나중에 양 콩 비어나든 검질로
스똥 다시 팍 창

103033 #2 그 검질 쉼도 강 매영 뜯어먹곡, 물 조슴에 허영 뜯어먹곡, 헤도

103033 #1 으름에 버청 일허다보든 콩 검질은 보통 덩곡 막.

103033 #2 덩곡 못 매영 내불어.

103033 #1 뭐 헤노든 초불만 매는 디도 싹고, 보통.

103033 #2 흥끔 뭇헌 사름덜은 두불 매곡 허여, 기추룩허영, 기자 두불매영 내불
어. 예, 보끌ㄴ뜨든 거영.

103033 #1 다른 검질 담지 아니허영 콩허곡 다른 검질은 쉽게 알아지난 양. 콩검
질은 쉬와.

103034 @ 게난 콩밧디 검질덜 어떤 종류가 싹수가?

103034 #2 보클 ㄴ뜨든 것 무시거,

103034 #1 제완지허고,

103034 #2 제완지허고, 보클허고,

1030349 #1 또 이저 무신거 쉼비늬

1030349 #2 쉼비늬도

103034 #1 이디션 저 춤비눔도 나주마는, 췌비눔 주로 나메.

103034 #2 보클 하영 나. 보클, 콩밧디.

103034 #1 보클이영 또 이 저 제완지. 어떤 딘 씨 진 밧디 헤노른 제완지로 짝차 노른 양, 검질 혼 ㄴ지 매 가기가 여득이라마씨. 으름에 콩검질 매당 보른 시간 다 강.

103034 #2 조컴질, 콩은 게도

103034 #1 콩은 쉬운디 조컴질은 이게 잘 앓지 아니허믄 조 민짜 그냥 뒤흔볼고. 조컴질은 속으곡 멍심행 앓아사 허는 때문에.

103034 #2 겐디 콩검질은 쉽주기.

103034 #1 콩검질은 영 눈 곱앙이라도 박박 매른 쉬운디

103034 #2 트멍에 강 못곡, 콩검질은 두불맬 땐 사노롱허영, 사노롱허영.

103034 #1 조컴질은 멍심허영 허지 아이허믄 조 다 블라져부러.

103034 #2 게난 콩검질은 두불 맬 땐 흥끔 발이라도 사노롱허영, 사노롱허영, 조컴질 담지 아니허영, 덜 더와.

103034 #1 조컴질이사 오죽 더운 때 헤노른 아래 와삭와삭 발창 뜨거왕 못 매어, 콩검질은 게도 영 그늘지난 발이 드뚝 덜 허는디 조컴질은 어디 그늘 엇고 잘못허믄 돈 블러젠 허믄,

103034 #2 대비가 시카? 대비 어시 맨발에 고무신 신영 허곡

103034 #1 페랭이도 졸바로 썰 거 엇곡 허믄, 돈 양지 카곡

103034 #2 양지 카곡 이제 콩검질은 조컴질 념영 허난 흥끔 날씨가 덜 허여, 흥끔 더움 덜허여.

103034 #1 아멩헤도 콩검질허믄, 조컴질 맬타? 콩검질 맬타? 허믄 콩검질 매레가.

103034 #2 대빌 신영 대비라도 영 신어시믄 헐거주마는 대비 엇곡,

103034 #1 멍심허영 덜 헤도 뒤는디 덜 블라지고, 조는 요거 꼬딱 잘못 놀러 앓앗당 양, 돈짜 블라져부렁, 꺾어져부렁

103034 #2 막 덥고, 발에 대비라도 신어시믄 대비도 엇고 발 뜨겁곡,

103034 #1 발 뜨거왕 양, 와삭와삭허게

103034 #2 콩검질은 게도 흥끔 수월허여, 매기가 흥끔 쉽곡, 대비 아이 신어도 이런 대비 안 신어도, 그자 고무신만 신어도 콩검질은 매기 쉬와.

103035 @ 그 다음에 콩 수확은 어떻 험니까?

103035 #1 꺾영.

103035 @ 꺾은덴 험니깁? 빈텅 험니깁?

103035 #1 꺾어.

103035 #2 콩 꺾으레 가게. 누게네 밧디 콩 꺾을 거 그추룩허여.

103035 #1 꺾영 이디서 헤 노른 거 놔뒹당 여기서 전인 다 도께로 두드렛주기.

103035 #2 도께로 두드련.

103035 #1 뭐 저 멍석 폐왕,
 103035 #2 도끼로 두드렁,
 103035 #1 나중에 콩탁긴 이제사 낮고,
 103035 #2 아이고 그 때 우린 다 도끼로 두드려서. 도끼로 두드렷수다게.
 103035 #1 돌아가멍
 103035 #2 멍석 폐와낭으네
 103035 #1 수눌영 이제 도끼로 두드리고,
 103035 #2 도끼가 매 집이 어서부난 그디 헤나믄 빌어오곡, 저디 헤나믄 빌어오
 고, 빌어오곡 헤난
 103035 #1 우리 나중에 저 스몓 도끼 어선 뭐 허다가 이 도끼도 그거 옛날 도끼
 였 허믄 잘 매지 못헐주게. 족게 매는 거였 허영, 도끼 아시 헤도 목장에 궂이 못
 땡여노믄 그거 윤노리로 행 잘 뚜껍게 허지 아이허믄 못 헤마씨. 게난 도끼가 어려
 우난 나중에 침 나도 거 용접소 난 후제 빠이쁘로 행 그거 멍글안 이제도 싯수다.
 썬 도끼렌 허영, 스몓 것도 신나났주. 동네 이디도 빌어가곡 저디도,
 103035 #2 콩두들레, 콩두들레,
 103035 #1 콩두들레 강,
 103035 #2 게난 콩은 혼 이틀만 허믄 쉬와, 조 담지 아니허영 쉬운디, 콩 불릴
 때가 흐끔 굿주기. 막 썬 브름 아니믄 불리지 못 허여. 브름이 이추룩까지허믄 못
 불려.
 103035 #1 게난 콩 불릴 브름이여. 콩 불릴 브름이여.
 103035 #2 막 썬 브름이여, 저 동산에 강 불령오곡덜
 103035 #1 콩 불렷직허다허믄 브름이 씨야허고. 조 불렷직허다 허믄 술술술 불리
 곡,
 103035 #2 게난 콩만 불리믄 브름만 불리믄, 콩은 다른 것보단 쉬와, 쉬옵니다게.
 조 담지 아니허영 쉽곡, 보리도 담지 아니허영 쉽곡, 콩은 질 쉬와. 도끼로 두드렁,
 두드렁 장만허믄 불렷 것도 얼맹이로 처사. 청,
 103035 #1 어느 밧디 멧 섬 낮저. 멧 섬 낮저 허믄,
 103035 #2 멧 말 낮저, 수확도 하영 아니, 콩은 하영 안 낱네다. 수확, 예, 다른
 거 담지 아니허영.
 103035 #1 경 이디선 양 하영 대대적으로 콩은 아니헤마씨. 집에서 먹을 거 허고
 그자 주로 장콩 담아 먹고,
 103035 #1 저 하가리 웃드리렌 막 콩덜 농사 하영 허영,
 103035 #2 막 법으로 허는디 이디는 보통 그자 장콩 담아 먹곡 집에서 콩죽 썬
 먹곡, 저 잔치 때 허믄 둠비행으네 그런 정도 백이는 별로 이제 먹질 아니헐주게.
 밧 토지도 경 어서났수다, 이렌 널르지 아니허영. 밧도 널르지 아니허영 혼 어시,
 경 허난. 그자 허는 건 다당만 무시거 허고,
 103036 @ 콩으로 행 뭘 허여마씨? 콩으로 가정 무신 걸 험니까?

103036 #1 콩으로 이디서 주로 뭐허는 건 굴아당 콩죽 썬 먹곡, 메주 썬곡 장 허젠 허든 메주를 하영 썬, 집집마다 메주 썬수게게.

103036 #1 거 잔치 때는 걸로 둬비허영

103036 #2 그레에 돌그레에 골양으네 둬비허여. 둬비허곡 잔치 때에,

103036 #1 이디 옛날 콩은 이제 콩 담지 아니허영 구시허여마씨. 맛 좋아, 갱 것도 콩, 둬비도 이제 지금은 소곰이여 뭐여 허는디 옛날은 바당물 곤 허지 아니헛수 가? 그거 해당 바당물 질어당 그거 맞추멍 둬비허여.

103036 #2 둬비허젠 허든 거 혜사. 바당물 질어 와사.

103036 #1 거 허든 간이 맞으난 더 저 소곰 안 놔도,

103036 #2 이젠 바당물,

103036 #1 요즘은 오염 돼부난 먹지 못허주마는, 허허

103036 #2 게난 바당물 질레강 둬비허젠 허든 즈깃디 사름덜 허벅 그정강, 멧 멧 허벅, 멧 사름 강 저다주고,

103036 #1 저 잔치험저 허든 물부주엔 허영 바당에 강 물 질영 혼 허벅 저다줘. 둬비,

103036 #2 게난 안네선 막 물 노멍 그레 굴멍 그 둬비 허젠 물, 그레가 그레 그 걸로 굴아냥 둬비허젠 허든 흐를에 뽕네깁? 멧날 메칠 혜사, 물 질어오는 사름, 그 는 사름, 이제 큰 솥 걸영 거 썬어사, 찜 솥아사 죽 썬고, 게난 흐를에 잔치허젠 흐를에 준비를 못헤마씨. 이추록 혼 사흠 걸려사. 경 험 율이 사름덜 물 질어다 주곡, 거 굴아주곡, 솥디냥 촌 물에 맞추앙으네, 죽 썬으네.

103036 #1 옛날은 콩죽 주로 헤 먹은디 우린 식구덜 하고 또 먹을 건 별로 엇고 헤노난 이제, 흐린조보단 모인조 석으곡 행 콩죽을 하영 썬 먹엇수다, 옛날, 거 헤 노든 그냥 콩죽도 뭐 허주마는 느멸 헤다놓곡 겨울에 드룻 느물 양 해당으네 똑 그 거 썬 죽 썬듯이 행으네 허든 식구는, 우리도 저추록 식구 한, 뭐 허난 거 각각 이제 지금 담지 아니허영 옛날은 그 낭퐁이엔 허영, 낭퐁이가 어서낫주기, 저 박세기로 팡, 아버지가 낭박세기를 잘 파서.

103036 #2 낭박세기, 낭박세기 알아집니까?

103036 @ 예,

103036 #1 국세로 허영 영,

103036 #2 우리 아바진 그런 걸 파.

103036 #1 팡 집이서 허든 집이 식구덜이 이 어멍 아방꺼영 빈주룩허게 박세기 옆영 놔뒀당 콩죽 썬든 이제 거 남제로 거리멍 행으네,

103036 #2 막 콩죽은 일등, 좋은 음식으로,

103036 #1 게난 콩죽 하도 먹어노난, 이젠 잘 안 먹어. 어릴 때 콩죽만 먹언 커 노난. 게난 이제보난 영양까친 좋은거라.

103036 #2 이젠 주젠허든 생전 안 먹어마씨. 무사 안먹엄수젠 허난 옛날 하도, 우리 씨아주바님도 경 아이 먹어, 콩죽을 경 먹어, 콩죽을 하도 옛날 먹어나난.

103036 #1 주로 뭐 콩은
 103036 #2 둬비허고,
 103036 #1 둬비허고, 장콩,
 103036 #2 장콩이 하영 해십주기. 장. 집집마다 옛날은 장, 장 허난.
 103036 #1 게고 저 이 미릇 솜앗당 보리찰허곡 줍찰허곡 행으네 콩, 콩밥허영 경
 행 이제 콩밥도 잘 솜아놔 해노믄 맛 좋아마씨. 콩밥도 허영 먹곡.
 103036 #2 게난 게, 보리낭불 허영 허젠 허믄 게 보리찰은 설곡 콩은 설곡, 줍찰
 도 어떤 때엔 설곡 허멍,
 103036 @ 콩늬물, 콩늬물 허영 식게 허지 안헛수가?
 103036 #2 콩늬물도 허연 식게 헛수다. 콩늬물도 허고, 콩 하영 안허난 이 동네,
 103036 @ 거 저 온돌방에 콩 낱으네,
 103036 #2 예, 콩 낱, 잘못허믄 썩어불곡,
 103036 #1 지리쨍에 낱
 103036 #2 아니 저, 거세기 고소리,
 103036 #1 게, 고소리가 거, 찜 고소리 현 것에 콩 키워나시난, 콩늬물
 103036 #2 지리쨍에 낱, 고소리 행,
 103036 #1 게도 그 때도 콩도 콩늬물도 어려우난 식게집이 멩질칩이 가지 아니
 허믄 그것도 먹기 어려와낫수다, 게 콩늬물 먹으레 가, 식게 먹으레 가젠, 그디 가
 므 콩나물 쥘, 호박 복은 거 허고, 경 먹어나고 이 저,
 103036 #2 아이고, 게메, 옛날도 그췌룩 허멍,
 103036 #1 콩이 주로 이디션 하영 갈질 아이해난, 콩덜은. 그췌룩 행 먹는 걸로
 보통 콩 소개가 뻬고.
 103036 @ 콩국도 허영,
 103036 #1 예, 콩국도 거 늬멸에 행 잘 허믄 우리집사름 콩국은 잘 끓여. 맛 좋
 게, 두박두박,
 103036 #2 게난 늬멸 셔? 잇날 드룻 늬물 해되놔, 씨우룽헌 늬물 셔 낫수다. 그
 늬물 행, 옛날은 게 질레 늬물 해와도 곱닥헿그네 어떻사 해신디, 질레 늬물,
 103036 #1 거고 이 조크루에는 보리 안 간 밋 저 번헌 것들이 합주게. 옷드리에
 가믄, 조크루, 내불믄 드룻 늬물이 나 마씨, 게믄 그거 이제, 그거 캐당 갓당 맥 정
 왕 헿당으네 그거 행 췌도 췌 주곡, 사름도 이제 걸로 국 끌렁 먹고. 콩죽 췌 때도
 췌어노믄, 콩 뮈해도 씨우룽헌 게 먹어보믄 맛 좋아, 하하, 콩죽 췌 때도 거 췌어
 놓곡.
 103036 @ 콩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수가?
 103036 #1 콩은 청대콩 싹고, 그냥 독세기콩이엔 허영, 이게 홀경 양 독세기콩은
 종류가 이젠 뮈엔 허는지 몰라도, 동글락 동글락 헌게 거 허고, 청대콩은, 아 독세
 기콩은 이렇게 노랑허곡 솔지고, 청대콩이엔 현 건 퍼렁허곡 줍진 게,
 103036 #2 막 줍질지도 아니 허여.

103036 #1 또 걸름콩, 걸름콩 허는 건 줌질곡 또 노랑허여.

103036 #2 걸름콩은 막 줌질고,

103036 #1 나가 알기론 시 종류가 잇는디

103036 @ 요즘 나오는 거 콩지름콩인가?

103036 #1 예, 주름콩은 전인 어서낫수다, 것이. 전이 어섯단 이제사 나온 거고, 주름콩 존존헌 게, 빨리 조생종으로 빨리 베품 허는디, 옛날은 엇고 그 대신 그 때 걸름콩, 나도 이제 저것이 걸름콩헐 때, 걸름콩 폴아줘, 어떤 디 가든 걸름콩허든 벌써 씨가 줌진 줌진헌 게, 노랑케 양,

103036 @ 걸름콩은 뒤에 씨 마씨?

103036 #1 걸름허는디 게난 일찍 갈앗당.

103036 @ 아, 걸름, 오깨기ㄴ찌,

103036 #1 아, 재게, 오깨기 전이 갈앗당 이거 저 퍼렁케허영 비영 놔뒀당 그것 이 우테레 끌앙 갑주게.

103036 @ 메주 멩그는 콩은?

103036 #1 메주 멩그는 콩은 청대콩,

103036 @ 청대콩?

103036 #2 청대콩 아니 거 득세기콩도 이저 허긴 헤난디. 이 동네렌 청대콩 행,

103036 #1 콩은 주로 저 둠비헐 때 먹고, 청대콩으로 이제 메주는 주로 허는 모양인디. 무신거 허명 메주 삶을 때 옛날,

103036 #2 청대콩으로, 우린 청대콩, 노랑헌 콩 습아나서, 우린. 득세기콩으로,

103036 #1 게든 득세기콩,

103036 #2 가마솥, 가마솥이 셔서, 그 땐. 게난 아까시낭 헤당으네, 지들커 어시난, 그거.

103036 @ 아까시낭 어디강 허여당?

103036 #2 잇날은 저 수산봉에 셔 낫수다. 오름에 강, 아까시낭 비어당,

103036 #1 옛날은 저 수산봉에도 낭이 어션, 그냥 아까시낭 그 옛날 일제시대에 막 거 전부 오름 싱거낫젠헉디다, 들어보니깐. 지금도 그거에 아까시낭이 이서마씨. 거 빨리 과당 불 습앙 뒹허고 또 솟도 구고 경헉,

103036 #2 콩 헐 땐 그런 거 헤당 허지아니허여. 보리낭은 감당 못헤, 보리낭 불은 허젠 허든.

103036 #1 보리낭불 허당 보든 몬 어느 사이에 다 카불곡,

103036 #2 보리낭불을 켜지도 아니 허영. 경허나네 그 낭빨리 헤당으네 습아사. 게명 헤낫수다.

103037 @ 콩짚이 저 콩깍지아니우파 양?

103037 #1 콩깍질,

103037 @ 예, 콩깍질. 거 어떻 활용헉니까?

103037 #1 콩깍질은 주로 쉼 뻬이고

103037 #2 막 영양, 영양보충으로,
 103037 #1 쉼 맥이곡,
 103037 #2 쉼 맥이고.
 103037 #1 불도 좀 숨고 허는디 이디선 콩깍질는 불 안 숨아마씨.
 103037 #2 막 쉼만 맥여, 막 가냥 잘 허영.
 103037 #1 콩깍질는 텃젠 허른 잘 안맥이난. 물리왔당, 잘 물리왔당 딱 놔뒀당
 흐깁씩 콩깍질는 빠쥬.
 103037 #2 맥에, 맥에 담아당 주믄, 맥 체 쉼 놔두믄 굽까지 문딱 먹영, 맥은 이
 제 거세기로 비와 오곡 허멍,
 103037 @ 콩깍질 불 살랑으네 갈치 귀 먹기도 허지 안헛수가?
 103037 #1 예, 건 콩깍질는 ㄹ청으네 그거 행 허른 갈치 아이,
 103037 #2 게난 불 잘 아이 숨아마씨. 건 아껴그네.
 103037 #1 아경 허주. 콩깍질로 귀 노믄 갈치 아이 고등에도 쉼 먹고 겨울에 저
 새왔디 가믄 거 지들께 해당 허른 콩깍질 어디서 놀영 놔뒀, 웃드리레, 거 콩깍질
 장 흐깁 빠 오라.
 103037 #2 늬이 콩깍질더 문 들어가부런. 쉼 맥이젠,
 103037 #1 빠당 쉼도 맥이곡 헌디,
 103037 #2 콩깍질 일러부럿젠 허는 소리덜 헤 낫수다. 헤 나서, 쉼 맥이젠.
 103037 #1 우리 새 허레 가믄, 아까 곧듯이 불살랑으네 고등에도 쉼 먹곡 헛주
 기.
 103038 @ 그 다음에 콩농사에 얹인 추억이나 경험 말해봅서.
 103038 #1 별로 콩은 이제 혼 번 놀언 놔두난, 그것이 아까 곧듯이 저 이 덜 허
 니까 이 콩 일러부러마씨. 밧디 잘 놀영 놔두지 아이 허는디, 놀언 놔두난 막 콩이
 혼 놀 놀언 놔두난 간, 콩 장만허레 간 보니까, 콩이 싹 줄어들어서. 거 뭐 어디사
 가져갔는지 몰라도 이초록허영 옛날은 밧디 잘 안 늬주게. 콩 일러분덴허영.
 103038 #2 우갸디 ㄹ저완, 우갸디 ㄹ저와난.
 103038 #1 콩 혼 짐이믄 썰도 혼 짐이앵 허여마씨. 콩은 그렇게 굽까지 헤노믄
 수확이 하영 나는디 어떤 딴 우갸디 갓단 놔두난 어디 사름덜은 밤에 콩장만헛 놔
 두난 아 거 누게 도둑질허레 밤이 헛 놔두니까 전 나오단 양, 우리 친족넨디 거
 바가전 이제 이름 안 곧쿠다마는, 그런 면이 이선 우리도 야 이거 콩 큰일난다. 콩
 일러부럿당,
 103038 #2 게난 우리 그추룩헛은 아니 일러먹고 밧에 놀언 놔두난 더러 일러부
 러난,
 103038 #1 문 빠간.
 103038 #2 그 땐 콩이 허른 막,
 103038 #1 귀 헤난
 103038 #2 다른 것보단 막 콩이 뿔 헤낫수다게.

103038 #1 게난 요즘은 밧디 게도 저 비엳당 놀영놔두지 아이허여마씨, 콩 일러
부러나난, 요사이는 즉시즉시 비명 몬 준 거는 맥에 담아오고

103038 #2 게난 콩 비명 그자 몬 못 비어도 더러 묵영 짐으로 저와.

103038 #1 가져오곡,

103038 #2 저와 낫수다게. 니아까가 시카? 무시거시 시카 옛날은? 콩 혼 못이몬
혼 짐백이 아니헿게.

103038 #1 묵으기 구지난 맥, 맥에 담앙, 경 행 낭이 즈른즈른헿주게. 게몬 요만
씩허여, 콩 격어놔 허몬 묵을 나우가 업어, 경 안 허몬 폐들락허영,

103038 #2 맥에도 담곡,

103038 #1 맥더레 담곡 허영 집이 가져와 낫수게.

103038 #2 구덕에도 담곡 허명, 경 허명,

103038 @ 쉼질메로 허영 오진 안 헿수가? 쉼질메로 허영으네.

103038 #2 쉼질메가 우린 아니 헤 봤수다. 늬이 사름덜은 쉼질메허몬,

103038 #1 쉼도 헤영으네 거 콩은 양,

103038 #2 맥에 담아사.

103038 #1 잘못허몬 거 무생이나 잘 행 허몬 좋은 걸로 허곡 게 안허몬 무생이
잘못허몬 게난 이 쉼 비어오던지 나룩째이라도 허영 가정 강 콩 묵으젠허몬 무생이
별도 헤여사. 경 행 허몬 이제 우리도 무사 망머를헿 때 콩 묵언 쉼에 식어와나서.
저 웃드리 밧디강.

103038 #2 장전, 장전 즈깁디 간, 장전 아래간, 에이고 경 정 그런 세월, 저런 세
월도 저, 다,

103038 #1 게난 이제 말 곧단 보난 다 추억이 나왓서.

103038 #2 옛날 헤난 거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

103038 @ 게난 그것들 곱서게.

103038 #2 하나씩 생각허명, 생각해나는 거 곱아. 게난 콩 작물 허몬 쉼 강 밧젠
두어 돼 정 강 하귀가 풀앙으네 걸영 강 재게 강 풀앙오젠 허몬 어떻허당 채수 좋
으몬 콩 살 사름이 재게 나오몬 확 풀앙오고, 게 아니몬 전화가 시카, 뭐시 시카,
집인 아기 눅저똥 가몬, 재게 못 풀몬, 그거 풀아사 뚝 그날 무시거 상 고무신도 상
오곡 무시거 대비도 상 오곡 허젠허몬 헤살거라부난 옛날 아이고 어떻행사.

103038 @ 콩 비쌌지양? 옛날,

103038 #2 옛날 비싸, 천오백원허곡, 백오십원허곡 허몬 게. 백원만 주몬,

103038 #1 콩은 보리썰, 좁쌀보단도 비쌌수다.

103038 #2 비싸낫수다. 예, 콩이라낫수다.

103038 @ 제일 비싼 것이 콩이로구나.

103038 #1 께 허고,

103038 @ 께는 옛날부터 비싸고.

103038 #2 천오백원도 허고 백오십원도, 게난 질 풀기도 그것이 양 잘 받아가.

잘 받아가곡 해도게 어떻 허당.

103038 @ 콩 사당 뭐 헤신고거? 콩지름 냅곡,

103038 #2 장시나 허게, 그것덜.

103038 #1 콩지름도 허곡 주로 이 거 메주콩이영, 이 무신 둥비콩이영 폴아실거 우다. 그 사름덜도 장시난 항상 사당 폴곡,

103038 #2 게난 콩 두드려가든 늬이 사름덜은 콩 언제 폴레가멘, 언제 폴레가젠.

103038 #1 전이사 이젠 갑바여 뉘시여 셔네 전인 콩 두드리젠 허든 으피강 멍석 빌어오곡 헤사, 것이 이제 갑바덜 하난 해도 옛날은 갑바가 귀헤낫수다. 게난 멍석 주로 허영 허든 멍석 으피 문딱 들렁 콩은 침 사돈침이ㄱ지 친텅허여. 게난 도께질 허젠 허든 멍석 빌어온 것이 혼 뗏 집이강 빌어와사 막 끌앙으네 콩장만허여.

103038 @ 콩 두두리는 노랜 엇수가?

103038 #2 양?

103038 @ 콩두드리는 노래는 어서?

103038 #2 몰르쿠다, 나도 이젠, 하하하하하, 콩 두드리는 노래,

103038 #1 헤 봐.

103038 #2 아, 아, 못 허여.

103038 @ 콩 두드리는 노래,

103038 #2 신일이 아방은 잘 헤난디, 난 콩 두드리는 노래, 도께 도께질허멍,

103038 @ 도께질허는 거,

103038 #2 도께질허멍

103038 @ 혼 번 헤 봅서.

103038 #2 아이고 오닐 못 허쿠다. 하하하. 이 생각 아이 난. 생각 아이 남신게. 어이고 게메.

103038 @ 생각허멍 좀 못 자지랑 맵서양.

103038 #2 예, 게, 경 허커라.

103038 #1 게난 이 저 영 험니다게, 도께허젠 허민 영 어신 때 허영 사름 쪽 양 쪽이서,

103038 #2 으피 사름 맞으카부텐, 멀리상

103038 #1 혼 사름이 문제 소리를 허영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영 “얏”

103038 #2 “이얏” 혼 발 착 두드리고,

103038 #1 게난 저 허든 저쪽에서 소리가 나옴주기. “어여여어어허어어어야, 야 요늬으 도께야, 확”

103038 #2 착 허든 저 펜이서 또 소리허고

103038 #1 저기서 확 허곡 이쪽이서 확 허고, 겐 이제 마주 잘 못 안허든 맞추지 아이허든 도께끼리 이제 두드려지난, 경 허멍 이제 노래 허멍

103038 #2 경 허다그네 탁베기, 감주 혼 잔 먹고, 그추룩허멍 쉬는 건 거백이 감

주 혼 잔 먹는 거 쉬곡, 콩 두드렁,

103038 #1 게난 콩을 하영 현 집인 콩이 하다 허믈 그걸 자꾸 두드리멍 냇은 읍 더레 허고 마당은 옛날 크지 아니헤십주게, 족앙 허믈 콩 두드리는 마당 허믈 벌써 널르지 아니허믈 몬 튀엿 삼방까지 몬 튀곡 허는다. 영 행 양 그 콩이 하다 허영 영 허믈 도꼐 쿡 찢렁 그 도께가 쓰러지지 아이허믈 콩, 요집이 콩 멧 섬 나오켜. 벌써 짐작을 허영.

103038 #2 옛날을 글 몰르곡 멍청허게 살아노난,

103038 #1 얼마 아이튀엿 허믈 주로 영 우리도 헤 보믈 콩을 이제 행 다 두드렁 허믈 이제 이거 몬딱 냇 헤도 그거 불리지 아니헌 거난 합주게, 게믈 도께를 쿡 세 왕 씨러지믈 이거 멧 섬 안나코, 도꼐 행 구작 상 어 그집이 콩 섬이나 나카, 콩 섬은 혼 섬 아이고 멧 섬, 콩 섬이나 나크라. 영 행 이제 도께 세왕으네 헤 보고.

103038 #2 게 콩 두드릴 때도 두리리는 사름만 아니허메, 여자덜 둘이 할망덜 둘 이 상,

103038 #1 작데기로

103038 #2 작데기로 콩을 텬사 농곡, 텬사 농고. 영 허멍 양펜이 텬사냥 헤사 소 곱에 두드려지게, 영 텬사농고, 텬사냥으네,

103038 #1 영 앞더레 가멍 텬쓰곡

103038 #2 것도 도께 어슬 때 어떻 확 허게 헤사.

103038 #1 뒤터레 가멍 것이 빨르게 헤사, 게 아니믈 도께에 잘못허믈 맞아져.

103038 #2 그추록 허고 맞앙으네 맞으카부텐, 경 허곡. 게난 콩 식구 하영하영 헤서. 흐끔만 헤도 으라이 허쟁 허믈 양펜이 허젠 허믈 식구가 하사. 날 좋은 때 헤 불젠 허곡

103038 #1 경 허고 콩은 추지믈 못 허여. 날씨 뵘 하니브름이나 불곡 현디 콩 내 놔도 저 브름 바른 디레 막 널엇당 이제 요것이 와상허게 헤야 도께질 허지 흐끔만 추져다 허믈 질그락질그락허멍 안 까지주기.

103038 #2 까지질 아니허여.

103038 #1 게난 브름 바르고 하니브름 불 때, 콩은 비어당 놔뵤당 주로 그때에 장만헷던 거주기.

103038 @ 예, 오늘은 여기까지 허쿠다.

밭벼 농사

103039 @ 오늘은 그 저 여긴 알뜨르나네 산디농사 대신에 저 나록농사 양, 나록 농사에 대허영으네 허쿠다. 그 저 나록농사는 어떤 준비가 필요헷니까?

103039 #1 나록도 수답이 싯곡 건답이 신디 수답은 물이면 흐를 헤원 인제 물을 언제나 빠지지 아이헌 것이 수답이고 현디, 메종을 보통, 메종을 낱 싱거사 헷주게. 갹 메종을 어떻허영 싱그냐 허믈 게 메종을 여기선 쉼걸름그믈 건 아이 놔 마씨. 거 쉼걸름을 노믈 메종 놔도 그지곡허영 잘 안튀어. 게믈 어떤 메종을 허냐 허믈

거 풀을 해당 저슬살이렌 현 풀 잇수다. 여기 쉼도 안 먹곡 독헌 풀.

103039 #2 막 독헌 풀. 거 무사 그런 풀.

103039 #1 그런 풀 해당으네 이제 해다 낳,

103039 #2 독헌 풀,

103039 #1 걸 작두를 줄게 썰영 수답에 이제 밭 잘 켜이로 땡 펜안허게 땡글아 낳 거기 이제 풀 썬 걸 이제 그레 다 뿌령, 밭로 또 블라마씨. 블랑 우일 또 그건 걸름용이난 그 다 블랑 그 우티도 올라오게 허영 펜안허게 허영 씨를 혼 이틀 전에 뿌렸당 이 으름이 돼 가든 저 봄 돼영 해 가든 거 날씨가 드뚝허든 재계 순이 나 마씨. 뽕족뽕족허든 이제 그때 씨를 뿌리는 거라. 씨 뿌령으네 그걸 허게웨든 물은 언제나 가뜩, 거,

103039 #2 수답에 뽕니깁게. 건답에,

103039 #1 반앙 걸어낳,

103039 #2 물을 빠사 돼는거주. 더러 빠사,

103039 #1 아이, 경 행 물이 나기 시작허든 그 때 물을 빠는거라. 물 빠든 요것이 으깬 밭아가 돼영 우터레 솟아 올르든 커가는 양,

103039 #2 광이로 골 쳐 낳으네,

103039 #1 물코도 치곡 허영 그 때부텡 흐끔 물리와사 메종이 실허여 마씨. 물려사 실허여마씨.

103039 #2 메종따문 물을 빠부러사.

103039 #1 물을 뽕 고량이만 흐끔 안지게 해 가지고,

103039 #2 경 아니허든 걸름을,

103039 #1 이제 거, 거 해강 커 가든 피도 뽑아주곡, 이렇게 행 길루앗당 그것이 혼 스십일 스십일 돼가든 메종이 영 혼 뽕썸 커 갑니다. 혼 조리, 혼 조리 커가든 영 보든 메종 언제 가식힐 거 알아지든 그 때 미리 이제 논을 좀 그 이식힐 밭디 이제 거 ㄱ궂 밭 갈곡 허영 정릴 허는거라. 정리헛당 것도 이디션 물이 항상 부족 허난 경 돼어가든 오월 톱 장마가 걸려마씨. 장마가 걸리든 이제 그걸 운헛당 장마 철행 물 죽으니까 그걸 기준 행 걸 사름덜 빌영 문 싱금니다.

103039 #2 저디 내창물 밭젠 허든 막 싸왕 나룩 싱그젠허든 우리 논에 물 하영 노켜, 저 우리 논에 물 단으켜, 게든 불아강 보든 우리물 대영 놔두든 지네 논더레 문딱 터불어. 나룩 물이 부족해가든양, 저 거세기 메종 놓젠허든 물을 광이로 문딱 아래 팟당 물을 흐끔 알려레 느린 다음에 메종을 키우젠 헛당 이젠 그걸 막앙 물을 이제 물을 골르게 허젠 허든 막 나 믈녀 물 받으켜, 나 믈녀 물 받으켜허명 복도록 요 수산 할으방은 매질허명 해 낫수다, 막 그 물 따문에. 우린 영 헛 나룩썸으로 보 리낭허연 물 영 난 이 아방 밤이 간 문 돌 지들난 헛 놔두난 그 할으방 와네 지네 논더레 문딱 문딱 터불언. 나중에 문딱 터부난 이제 우리 나룩 물이 받아사 혈건디 저 나룩이 잘 돼지 아니허연, 돼지아니허연 이제 그 하르방이영 스뭇 모가지 심으 명 싸완 이 아방, 막 그 이제 저.

103039 #1 어떠냐 허믄

103039 #2 그 물 지네 눈에만 밧젠, 지네 눈에만 싱그젠,

103039 #1 눈 물 인심허곡 땀 팻 인심은 뚝 ㄴ뜨덴허여. 땀도 그거 영 땀팻 여기저 원 행 그레도 땀팻허믄 거기서 막 서로 허듯이 나룩도 물 혼 적 그거 생각허영은 누게 밧 혼 적 주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현지 인심이 메마른지 양 이웃간에라도 양, 싸우멍 이녀밧디 물을 논을 흐끔이라도 대쟁허믄, 싱경,

103039 #2 갱 허믄 메종 논딘 내불어뵤 그 논엔 헤뵤 저 펜 눈 물 받앙 이제 광이로 논을 떠사마씨. 막 옷 벗어두고, 침 무신 무신 썰 건 시카? 맨발에 막 광이로 논을 떠사, 떠 낳으네 이펜 메종을 그레 갓당 싱그젠 허믄 물 부족허믄 그 때부턴 썩기 시작허영, 막 나 하영 허커, 나 물 받으켜 허멍 막 인심행 원 저 나룩 경 행 싱글 때도 양 막 원수다리 항으네 말도 아이 곁안 싱겨낫수다. 막, 복기 전이 밤세 낳 그 하르방덜광, 그 사름덜광,

103039 #1 게난 이 저,

103039 #2 지네 눈에만 받앙, 그렇게 힘들어.

103039 #1 눈을 골르젠 허믄 너무 어렵고 허니까 삼태기라가지고 이렇게 갈퀴리 담은 거 진 거 행으네 쉼로 양 눈을 골라마씨. 게멍 쉼 잘 못허믄 쉼 이껜 그거 허멍 문짝 골랑으네 갱 나룩을 싱그는디 나룩도.

103039 #2 하이고 것도 어려와. 나룩도 어떻사 헤신디.

103039 #1 싱겨봐도 첫째는 물이우다게, 물 부족허믄 안 웬데, 아까 이 사름 곤듯이 매일 가른 물과 전쟁이우다. 나룩, 물이 흐끔이라도 잘 간 디는 나룩이 뵤고,

103039 #2 나룩, 종곡, 수확도 하영 나곡, 경 허여.

103039 #1 물 어시믄 안 되는 농사가 나룩 농사,

103039 #2 게난 광이로 일단, 초불은 물을 떠 낳 이제 쉼도 아무 쉼난 허지 못허영 막 쉼, 실현 쉼 허영 그 진진현 널짝 행으네 그 쉼 이끄멍 눈을 문짝허게 골라놔사.

103039 #1 저 삼태기ㄴ찌 요렇게 뵤 거 잇수다. 양 쪽에,

103039 #2 경 행 골랑으네

103039 #1 딱 행 쉼는 가운디 끄스곡 게헤가믄 영 펜안허게 골라질 거 아이우파?

103039 #2 게믄 그 메종, 메종 뽑으멍 게난 거 아무나 그 일도 아니헤줘. 아무나 아니헤줘 나룩 허젠 허믄 양, 그렇게 침 힘들게 헤여네, 게허난 그거 행 농사허젠 허믄 그놈이 물이 다른 거 담지 아니허영 몰라가면 물 밧곡 이제 물이 하믄 나룩 썩엄시카부덴 물이 빠고, 빠곡, 덕으곡 이것이 과정이 경 힘들어마씨. 경 험 잘 현 사름덜은 밤이 줌 안 장으네 그거 농사허영, 나룩 일 허는 사름덜은 곡석을, 나룩을 험 먹은디, 침 밤이 줌 자불곡 현 사름덜은 잘 못 행. 우리 막 싸와낫수다. 막

103039 #1 게난 것도, 그것도 아니주마는 나룩을 험 때에는 저 익영 비어눌 거 아니우파? 비어 노믄 장만허는 과정도 처음엔 양, 클, 보리클 달믄거, 걸로 홀타낫

수다게. 저 나룩허멍 홀 헤 낫는디, 나중에 또 발로 불리는 탈곡기라고 헤 가지고 양 게, 못을 준준하게 묵엉 못에 이렇게 보리허는 탈곡기는 경운기로 헛주마는, 이 건 처음에는 발로 불양 갱 이거 니아까에 꼬성 탱이멍 논마다 탱이멍 그걸 행 지네 도 콧 헤 먹고 혼자 사긴 비싸난 빌영 우리도 장만허곡 허는디 그거 허믄 탈곡기허 므 아주 홀트는 것보단 쉽곡 깨끗허게 장만이 웨어, 경헨 허곡 잘 안 웨믄 켜 죽쟁 이 천지로 불리믄 안작이라 이 건 브름에 나가는 게,

103039 #2 물을 밧앗닥 싯닥 똑 온도맞추는 거 모양으로 잘 허지 아니허믄 나룩 이 읍지도 아이허곡 죽어불곡, 경 허믄 그 탈곡기 장시도 그런 걸로 콧 아이 받으 켜,

103039 #1 게 허곡 비료 양, 비료를,

103039 #2 콧 아이 받으켜 허여.

103039 #1 눈에 비료를 멩심허영 헤사허여마씨. 이 비료가 너무 걸영으네 요술 하영 나중에 헛당은 낭이 익영 펠락행 시러저불믄 거 웨질 아니어여마씨. 그리고 나중에 처음엔 옛날 나룩덜 헛는디 나중에는 농요기라고 허는 종자가 나와나서, 눈에, 지금은 뭇사 헛신디 몰라도 그 때 농요기엔 현 거는 요거 메줄 추 현 게 이제 허믄 커 가는 거 보멍 비료를 흐끔씩 줘사. 물 반양 약간씩 뿌령 놔두믄 것이 다 흡수웨영 허믄, 또 이 농요기 종자는 양, 아주 요렇게 ㄱ늘면서도 열매는 싹허여, 게믄 아주 고고리가 수북허게 허영 요거 첨 또 밥맛도 구수허고,

103039 #2 게난 논마다 다 틀려.

103039 #1 또 농팔이엔 현 거는 이파리 넘작넘작헌 게 아 요놈으 건 농팔인 흐끔만 허믄 이제 비료가 쪼금 더 가도 이게 읍지 아니허고 잘, 농팔이엔, 농육 농팔 주로 헛는디 게 농육은 잘, 농팔은 읍지 아니허곡 죽쟁이가 하 마씨. 잘 이거 비료 조절 안 헛당은 반작 죽쟁이라 헤 노믄 게 농육은 아주 종자가 ㄱ늘고 약해도 양 열매는 요거 좋고. 우린 이제 주로 농육을 많이 헤낫수다게. 농육헛당,

103040 @ 게믄 양, 나룩은 언제 감니까?

103040 #1 나룩은 메종을 놔서 주로 허기 때문에,

103040 @ 언제?

103040 #1 여기서 행 우리가 허믄

103040 #2 저,

103040 #1 아니, 아니,

103040 @ 메종 놀 때.

103040 #1 춘분 흐 이십일 전에 그 때 흐끔 나룩 메종 놀 때는 흐끔 추워마씨. 발도 싹럽고,

103040 @ 게 어떻 갈아마씨? 메종 놀 때,

103040 #1 메종은,

103040 #2 발 싹루와도 막,

103040 #1 저 헤도 그레 주로 하영 여기서 나 노니까, 하영 허는 사름은 쉼로 이

제 불리멍 허는디, 갱 아니헿 우리 영 해보든 그 삼태기로 꾀곡 해가지고 이제 풀을, 풀 주로 이것이 해 나든 잘 아이허든 그디가 메종 자리는 이제 잘 돼질 안헿니다. 게난 풀 이제,

103040 #2 독헌 풀 헿, 걸름해나네.

103040 #1 발이 지깅 얼거진 게 메 해나든 허난 이제 저슬살이 풀 것도 다른 풀은 잘 걸질 아니허여마씨. 이제 저슬살이 풀만,

103040 #2 것도 스끼로, 스끼로 영 묵영, 니기반듯허게 허영 그 안네서만 허영으네 그 논 전체 다 허지못해그네, 영 스끼로 묵어낱 어느만이 헿 그 안네허영으네 불랑으네 허영 씨도 빠곡,

103040 #1 물이 펜안허게 골라낱, 물을 어느 정도 좀 허여, 또 불라가든 흑이 올라올 것 아이우파? 게든 거 이제 풀 논 건 중간에 가, 우이는 펜안허게 뿔 수 잇든 물 영 반앙 잔잔허게 해야 그 씨가 잘 들어삽주게. 게든 브름이나 안 불곡 이렇게 허든 이제 메종을 흔 이틀 사흘돼든 이제 빨이 뽕족뽕족 납니다. 물 컷당, 나룩 씨를, 갱 헿당 뽕족뽕족 날 때 이제 이렇게 뿌리멍 브름 잔 날 이제 걸 허영,

103040 #2 게난 이제 씨 뿌린후젠 물 조정을 잘 해사. 물 하영 놔도 그거 꼬서가 불곡, 족게 놔도 아이 돼고. 막,

103040 #1 그뻔 막 첨 비라도 오민

103040 #2 밤이도 막 강 지켜곡 해사.

103040 #1 저,

103040 #2 날 동안은.

103040 #1 비 하영 오든 또 터 나갈카부덴,

103040 #2 터 나갈카부덴, 아이 물을 하영 받든 허곡, 또 족게 받든 안 돼고,

103040 #1 물이 이거 돌르든 줄바로 잘 나질 아니허고.

103040 #2 게난 밤이도 간 자꾸 해낱수다게.

103040 #1 메종 낱당, 아무 메종도 경 허주마는 멍심허지 아니허든.

103040 #2 밤이 강 자꾸 해 낱수다게.

103040 #1 흔 사흘 닷새만이 이것이 발만 내려강 앓앙 빨리가 아래 벗기 시작해 노든 이제 올라오든 웬만헌 건 잘 그때는 좋아.

103040 @ 메종허는 거는 어느 정도 키와야 돼어.

103040 #1 메종은 게난 흔 스십일 정도.

103040 @ 사십일 정도?

103040 #1 예, 여기서는 이제 보통 뭐 늦은 거는 순 나지 아이허여, 우리 영 놔보든 이제 스십일 정도, 삼십오일에서 스십일 정도 메종 놔. 게든 요만큼 허영 흔 조리 메종 우터레 흔 조리 정도 콥주게. 게든 것이 그때는 콥기 좋곡 거 뽕앙 다 묵으멍 이제 축축 물 갈아낱 허든 던지든 이제 줄 이렇게 잡앙 허메,

103040 @ 사름덜 하영 빌영으네.

103040 #1 하영 빌영 허는디

103040 #2 하영 빌영허여.

103040 #1 거허민 그냥 아멩이나 깍깍 찢러난디 나중엔 그땐 농촌지도소에선 안
봐완 양, 걸 얼마나 강조헌디 그냥 잘못허든 막 야단허멍 줄을 잘 험셴, 줄을 표시
가 딱딱딱 텔 거 아이우파?

103040 #2 경 험 싱건.

103040 #1 몰라도 막 둥이든 이제 탁 다시 이거 소리, 어어어 허든 탁 넘어가고.
어어어 허든 탁 넘어가고 허멍, 게난 한 사름씩 간격을 텅으네 싱급주게, 딱 싱거
노든 일로도 맞곡 절로도 딱 맞아.

103040 #2 그전인 아멩이나 우리 싱건. 게난 드든 디영 좇고,

103040 #1 나룩 빌 때도 두 세포기씩 영 호미로 탁 걸렁 허든 착착 비영 쉬와,
이거 여러 가지 검질 매는 것도 논 검질이 막 더운 때 그땐 이제 나룩이 요만큼헌,
요만쫘 커강 요저 엇 정도 뛴든 검질을 매는다.

103040 @ 검질은 나중에 물어보쿠다양.

103040 #1 예.

103041 @ 그 다음에 저 나룩 걸름 어떻 마련험니까?

103041 #1 걸름은 옛날 저 이디서 복합비료엔 허곡 용성비료가,

103041 #2 용성산디, 뫼산디, 그 때 불치, 불치

103041 #1 그 때 비료는 용성비료 나완 우리 화학비료 썼고

103041 #2 불치 사그네,

103041 #1 이제 쉼걸름이나 흐끔씩 눈 갈기 전이 경 허영 뿌리곡,

103041 #2 불치 한 사름은 허곡 게 아니허든.

103041 #1 갱 주로 헌디 이디선 쉼걸름은 보리허고 주로 나룩에는 그냥 저 이
꼭는 비료, 그 때 저 뫼 거멍헌 비료 무신거라?

103041 #2 무시것산디, 거멍헌 거.

103041 #1 거 일름도, 비료 이제 허든 검질도 잘 난 텅 허영 그 비료 사당 건 뚝
불치ㄴ치 헌디 거멍해마씨.

103041 #2 백오십원,

103041 #1 겐 그걸 그땐 우리 얼마씩 쥘 사당 허든. 막 관에서 그걸 쓰령 막 헤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영, 요거 허든 나룩 실행 좋넹허영, 그추룩도 험 헤보고. 저
뫼 웃드르 낭 싱경 허든 흐 이십일 뫼가든 요것이 거 도 상으네 도 상 푼트푼트허
게 올라웁주. 게든 웃비료엔 허영 약간씩, 하영 허든 안 뫼고. 요소비료 흐끔씩 데
경 놔두든 요것이 또 발이 딱 붓뫼,

103041 #2 요소비료 험 때도 물 하영 빠 부러사. 물 흥당허든 아이뫼어.

103041 #1 물 너무 하도 안 뫼고, 물이

103041 #2 질착질착험 정도만 허영,

103041 #1 흐끔 영,

103041 #2 빠브러사.

103041 #1 발만 적실 정도, 그 저,

103041 #2 물코가 나오는 물코가 이십주, 경 헛당 그것도 물코 막쟁허믈,

103041 #1 게 비료를,

103041 #2 밤이강 막곡.

103041 #1 브름 잔 때 이거는 게난 농약도 치지, 비료 브름 잔 때 허고, 처음엔 농약도 그 무신 분무기가 셔 낫수가? 그 땐 분무기가 어선 게난 늪 어진 분무기, 요새 거 무신 영 지는 분무기허믈 스믈 그 동네에서 멧 사름이 돈 메왕 계를 허여.

103041 #2 분무기 아이고 그 땐 무신,

103041 #1 아이라게. 분무기라게.

103041 #2 달믈걸로, 무시거.

103041 #1 이제 행 이피엔 현 농약도 췌고. 이렇게, 그때부터, 우리 처음엔 농약을 몰르고 안 헛수다게. 농약을 모르니까 막 거 나비 들어오고 막 헨, 병이 이선 뭇 들엇저 허여, 뭇강나방인디.

103041 #2 무신거 췌수가?

103041 #1 생이 소리, 제비 소리. 뭇 들엇저 허는디 뭇강나방이엔 허영 그것이야 이파리허믈 흐를에도 막 갈아먹어. 게믈 이건 여기선 우리 무신 약이 잇수강 뭇 허팡? 처음엔 헛는디 뭇헤부턴 막 농촌지도소에서 양, 나산 이거 대대적으로 약 아 이허믈 안웬다고 허는디, 분무기영 상 허려했난 무신 요즘사 기계로 헛지아니허파? 그 땐 지는 분무기도 췌수가? 우리 다섯 농가 여섯 농가 합쳐 돈 이제 분무기를 상,

103041 #2 하나 사믈, 하나 사믈 그거 허곡, 이제, 이제거추록 경 분무기가, 그 땐 불치, 맥에 불치 정강 뿌리는 사름도 췌곡 해도.

103041 #1 게난 분무기로 행 약이 처음 나올 때는 우리도 양 약 허멍, 이피엔 현 농약 살충제로 써십주게. 살충제, 하여튼 벌거지만 못 먹으믈 댜어, 나룩은. 경 헨 이피엔 현 농약도,

103041 #2 흐 현 딴 막 ㄱ뜨라네 나룩 원 아이웨난 해도 이췌수다. 그땐 우리 막 싱근 삭도 못 허고게.

103041 #1 그 땐 어떠냐믈 돌 칸다 흑 칸다 헤가지고,

103041 #2 언제산디,

103041 #1 막 으름네냥 석 들을 그냥 ㄱ뜨란 비 흐 적 안 오난,

103041 #2 나룩 못 헤 먹어났수다.

103041 #1 미신 거 밧딘 퍼렁현 것도 실리가 잇수가, 엇곡 헤가지고 게난 사름 먹을 것도 어시 믈 경 헨 허낫주.

103041 #2 게난 믈 비영 쉼 주멍 내불멍,

103041 #1 , 그땐 허난 물이 엇지, 물 신디 흐끔 저 멀리서 물 대불믈 깅더렌 물이 안 와. 논 깅 더렌 안 오믈 우리도 그냥, 하도 허단 비 안오고 허난 나중엔 포기엔 내불멍 헛수다. 그런 해도 췌고.

103041 #2 나룩 농사도 그추룩,
 103041 #1 나룩은 하이튼 물이 호랭이난, 물만 시든 잘 돼주.
 103042 @ 거고 저 나룩 씨 뿌릴 때 어떻 뿌립니까?
 103042 #1 씨는 흑을 펜안히 거 저 수답에 보통 메종 놓니다게. 이거 밧디 노른,
 103042 #2 물을 빠블어사,
 103042 #1 ㄱ물앙 나중에 메종 매쟁 해도 곳곡 허난 수답 항상 물이 차 있는, 발
 디디든 요 동모리ㄱ지 움싸움싸 들어오는 수답덜 싯지아이허팡? 므른 것이 건답이
 옴 허고, 수답이옴 허는디 수답에 풀 해당 미리 혼 열을 전이 끌앙으네 거 저슬살
 이 풀 해당 끌앙 막 알로 블랑 흑 올라오게 허영 펜안히 골랑 혼 댓쇄 물을 앓저마
 씨. 게른 물이 이제 풀 썩어가곡 헤가든 냄새도 나곡 물이 거무룽, 빨그룽헌 물이
 영, 거 물 받앙 놔두든, 경 헤가든 영 강 뵤 야 이거 메종 놓게 뽤신게허든, 사흘
 전이 썰 물에 컷당 동갓당으네 거 이제 브름 잔 날이나, 이제 이견 좇게 뿌려사허
 여마씨. 메종, 메따문에 좇게 안 뿌리든 드물든 얼마 나오질 아니허여, 메종이. 게난
 좇게.
 103042 #2 물 소급이 꺼라부난,
 103042 # 또 피 뽤아불곡 허든 얼마 돼질 아니허난 이제 좇게 뿌려삽니다게. 좇
 게 뿌리든 처음에 좇아 뵤어도 나중 속으곡 좀 저 피 매곡 헤 가든 제대로 뵤어 강
 으네,
 103042 #2 게난 물에 뿌렁게, 물이, 물이 막,
 103042 @ 예, 손으로?
 103042 #1 예, 손으로,
 103042 #2 손으로 뿌려.
 103042 #1 손으로 게난 영 브름 잔 때 허든 멩탱이에 영 저 담앙 그거 행 혼 줌
 썩 앓아내멍 영 뵤 착착 씨, 거 물 뵤영허든 썩 흘근 거난
 103042 #2 빠긴 좋아마씨.
 103042 #1 어디 간 거 안 간 거 알아집주게, 게든 그거 보멍 브름 썩게 불든 못
 허고. 브름 잔 날만 빠영으네
 103042 #2 게난 씨 뿌리젠 허든 물을 이만이 헛당거 빠브러사, 흑을 영 앓아질
 꺼라부난.
 103042 #1 물 침 빠죽빠죽허게 이제, 물이 뽤죽뽤죽 행으네 또,
 103042 #2 경 헛당 딱시 이제, 거 나가든 또 물 받아사, 이 물에 나는 거난, 물
 받아사 물 크곡, 물 너미 하영 받으든 흐끔 영 수답 알러레 물 흐끔 영 골챙이로,
 팡이 매날 그디 곳당 놔 두곡 무신 뵤 저 거시기 슬각 슬각 으정 가그네 불 붓정
 그레 바리지 아니허든 누게 논더레 박아지곡,
 103042 #1 저 게도 옛날은 이제 ㄱ치 까치옴 헌 것이 어섯수다게. 게난 우리가 그
 런건 이제 헤시든 까치가 좇어 먹어불주마는,
 103042 #2 먹당도 남을 건디. 그 땀 이젠,

103042 #1 뭐 그런 거는 엇고, 또 그런 가냘이 또 먹지 아니허곡 허믈 썩이나 가끔 뭇헤도 썩도 저 물 이서노난 잘 안와마씨. 게 메종에는 크게 일 어시 이제 나기 시작만 헤 노믈 그거 흐끔 이제 혼 보믈 혼 덜 돼가믈 발이 아래 영 사려지곡 커가믈 들어강 영 고량으로 저 다 헛당으네 피도 뽀곡 어지러운 침 잡폴덜도 ㅋ쿨 뽀아 매멍 길루기 시작헛주. 게당 또 뽀으네 메가 약허다 허믈 영 뽀 요술 흐끔씩 데껴마씨. 하영 허믈 절대 안 돼고. 약간씩만 산득산득헤도 물에 들어간 거나 골로루 다 먹영 메종이 노랑헛당 가무릉헌 게 이제 침 흐끔 실해갑주게. 경 행 혼 들 이제 혼 스십일 키우믈 보통 싱글만 헛니다. 게 이거 메칠뽀서 허믈 혼 마흔날 뽀서, 영 행 허믈,

103042 #2 게도 썩날도 뽀언 우린 이만 혼 거 싱그부나네.

103042 #1 메종이 안 크믈 썩 날이라도 뽀 싱그는다.

103042 #2 썩 날 뽀으으네 싱거부나네. 그 뽀 잘 아이뽀언. 얼룩달룩헌 거.

103042 #1 보통 뽀믈 혼 마흔 날 스시믈 이제 싱극곡.

103042 #2 게난 완전 기술이 부작헛 우리도 경 헛주기, 그뽀, 수산할으방덜은 메종을 멍텅이에 정 온 거 보믈 침 좋앙 우리 건 나빠뽀허믈,

103043 @ 그 다음에 그 검질은 뽀 번 뽀니까?

103043 #1 검질은 거 혼 서너번 매는다 처음엔, 이.

103043 @ 뽀로 매어?

103043 #1 손으로 논검질.

103043 #2 피나 뽀앙게.

103043 #1 아니, 나룩 검질이, 고량에,

103043 @ 고량에 이신 것덜.

103043 #1 ګ쟁이로 행 이제,

103043 @ 옛날 저 뽀로 아니허헌 저 뽀 제초제, 아니 제초제 아니고 미는 거.

103043 #1 미는 거,

103043 @ 거 뽀엔 허는 고?

103043 #1 것도 처음엔 어섯수다게.

103043 @ 거 뽀엔 헌다마는, 썩로 뽀 거, 영 혼 거,

103043 #1 미레기엔 허던가, 미레기엔 허여, 영 밀영 강 돌아가멍 혼 짹 흑도 일어나곡 허멍 검질 영

103043 @ 검질 영 매어지멍,

103043 #1 건 고량으로 영 작작, ګ 맞추앙 허믈,

103043 @ 손으로,

103043 #1 예, 그거는 나중에 것덜 나오고 처음엔 다 업더전 뽀주기.

103043 @ 손으로,

103043 #1 손으로 다 헤나믈,

103043 #2 뽀 사름씩 게.

103043 #1 손콥이, 요즘 장갑끼주 옛날 장갑이 셔, 그 땀 안 쥘 일 헛수다게. 게 난 거 논검질매나쁜 손콥이 문딱 몽글아져.

103043 #2 물 웃땀 해 농곡허든.

103043 #1 물 웃뜨고, 영 검질,

103043 #2 게난 우린 아기 들곡,

103043 @ 거 혼 땀 번 매어?

103043 #1 시 번.

103043 #2 경 현 사름도 씻고 두 번 현 사름도 씻고.

103043 #1 것도 혼 두번 헛당 나중에 피 매곡 해야주. 나중, 제일 다 고고리 올라와 가쁜 멍심헛 피 매곡 허영, 것도 피 털어져노쁜 요거 씨가 얼른 끈질 못허여. 새도 나곡 자꾸 해노난 피는 멍심헛 매지 아니허든 안 돼어.

103043 @ 고고리 피기전에 매야 땀겅네예.

103043 #1 예. 고고리 피어갈 때,

103043 #2 고고리 피어 갈 때 ㄴ찌, 비슷해노난,

103043 #1 똑 나룩이나 뭐 비슷해노난, 요놈으 건 침 잘 안 땀당 씨도 금방 털어져. 이제,

103043 #2 비슷해노난 허기 굿어마씨.

103044 @ 그 다음에 나룩밧디 어떤 검질덜 이서 마씨?

103044 #1 나룩밧딘 저 물, 물세기엔 허영,

103044 #2 거 무신 검질고? 나룩밧디,

103044 @ 예?

103044 #1 물세기 좀 녀작녀작허명,

103044 #2 물세기.

103044 #1 그 저 무신 거 현 거 잇수다게. 그런 거 이제 뽀아내곡 주로 이제 거,

103044 #2 잇어불지도 안 허여게, 이 할으방,

103044 #1 쉼터럭 쉼터럭 담은 거,

103044 @ 뭐라 거난?

103044 #1 뭐, 허허허허 ㄴ만 셔봐, 무신 검, 검이엔 허더라 그거 헛 시킴인가 뭐 이제 요놈으 것이 부그락이 낭으네 요겅 잘 아이헛당은 나중에 온 나룩밧이 번져 게난 그겅 일엇다허든 금방 매지 아이허든 안 돼어. 물세기렌,

103044 #2 아이고 잘 땀수다게 우리도 게.

103044 #1 침 이 손콥이 다 달아지게 땀주게. 나룩을, 게 아니쁜 이거 검질 씨아 노쁜 양 잘 읊지도 아니허여.

103044 #2 나룩 장만허젠 허든 양 땀딱 그거 들어강,

103044 @ 모든 농사가 게 검질 이시쁜 안 돼어.

103044 #2 땀딱 나룩 장만해노쁜,

103044 #1 검질 쉼어, 씨와노쁜 이디 나룩도 잘 안 읊고

103044 #2 게믄 막 요밧디 나룩 아이뵤저. 요밧딘, 검질 췌왓젠허멍. 밋밋 나룩 논덜이난 그 하르방덜 넘어가명덜 곤곡 늑덜토 곤곡, 게난 우린 잘 헤젓저.

103044 #1 게난 아까 이, 우리 집사름 곤듯이 이거 커씨나 물 때문에 양 이웃간 에도 이진 막 싸와마씨. 매닥질허멍 싸웁니다게.

103044 #2 물이, 물이,

103044 #1 물이 이녀 헛단 나도 거 멧 번 에피소드 난 건 무사냐믄 지이 나룩 싱건 이제 물 근근이 대언, 오늘 게믄 복도록 물 대믄 뵤젓다 허연 것도 츠레대기로 딱 헤논디 아 저 멀리 가명 이렇게 보난 누게 사름이 어드룩헌디 무시거 몬 헤전 어두운디 아뜩아뜩 허는 것이 나. 이상허다 이제 집더레 가단 또 완 보난 양 우리 밧디 우리 논에 현 것이 그 물코 다 터불언 지네 논에, 지네 논더레 터부난, 그 냥 이제.

103044 #2 나 다 경,

103044 #1 이진 양 지네 땅은.

103044 #2 뜬 사름도 경 헤난 논더레.

103044 #1 물 인심이엔 현 건 침 뵤밧디 인심ㄱ찌

103044 #2 이 나룩은 것에 막.

103044 #1 모지우다게.

103044 #2 못전디는 겹디다게. 물이 조정행.

103044 #1 먹을 땡 영 게난 쌍놈이 일 허고 양반이 먹는 것이 나룩이엔 허여마씨.

103044 #2 게난 양 물 때문에.

103044 #1 양반이 ㄱ만이 앓앙 먹진 조은디 일은 쌍놈이라, 이진 완전이,

103044 #2 혼 번 물 대영 ㄱ만 놔뵤췌시믄 허주마는 못 허영 이거. 물을 느리왓닥 올리왓닥 허는 때문에, 겐 말젠 막 물 이제 그 어디고? 수산봉 저수지 사름덜 저 물 흐를은 이디 주곡 흐를은 으펜 밧디 주고, 몬딱 그 사름덜이 왕 골아주난, 경 헤가난 덜 싸와갓수다게. 그 사름덜이 완 막 경 골아췌.

103045 @ 그 나룩 수확 건 어떻 헉니까?

103045 #1 나룩은 다 익으믄 호미로 비논디 이게 줄이 이렇게 맞추아 노믄 그 전인 아멩이나 싱그난 비기도 구진디 이젠 탁 허믄 세 포기 네 포기 다닥다닥 비영 다 눅젓당 이것이 비나 와노믄 또 논에 이거, 아무 곡식도 경허주마는양, 멩심헤야 허여. 게난 이제 비영 낫당 허멍 전인 영 홀타밧수다게, 가랭이,

103045 @ 비, 비믄 묵어야 헉 거 아니우짜?

103045 #1 묵영,

103045 #2 혼 줍췌 묵영 하영도 안 묵어.

103045 #1 겹당 나중이 거 탈곡기 허젠허믄 혼 줍췌 묵영 요만췌,

103045 @ 클로 허지 아니허연 옛날은?

103045 #1 옛날은 클로, 클로 허믄 혼 사름은 이제 보리 홀트듯이 홀탕 이디 아

사주곡 허믄 행 째은 묵어가믄 경헨 장만헛수다. 또 게고 돌에 영 낱 착착 두드려서. 홀트기도 허고 돌로 영 석돌 담은 거 허영 닉신 돌 허영으네

103045 #2 이만씩 허영 영 착착 두드렁,

103045 #1 와작작 와작작,

103045 #2 막 천장만장 차작차작,

103045 #1 명석 끝아놓곡 허영으네. 튀지 못허게 허영,

103045 #2 게난 게 농사짓는 게 농사짓는 거산디 뵈산디,

103045 #1 돌로 그냥 가운디 낱 막 두드렷주기.

103045 #2 경 행, 그추룩 행.

103045 #1 경 헨 몬 불리곡 헤노믄,

103045 @ 돌 이름 뵈지 알아지쿠가?

103045 #2 뵈, 뵈돌 아이 그거?

103045 #1 석돌이엔 허영,

103045 @ 석돌?

103045 #1 석돌이엔 영 앙상앙상헨 거,

103045 #2 앙상앙상은 헤도 미딱헨 돌 아이라.

103045 #1 모난 돌 모난 돌 영 벌러진 돌 헤사 걸 허지.

103045 #2 닉신 돌 헤사.

103045 #1 거 안허믄 잘 안 두드려져마썸. 게믄 막 마주 앓앙 질게 영 낱 와작작 와작작,

103045 #2 저 펜이레 할망 두들룩, 이펜이도 두들곡, 그짜 막 두들언. 경 헨도 하영 헛수다게. 옛날 경 헨디 그후제 탈곡기여 무시거여, 허명,

103045 #1 또 그렇게 허다네 보리 홀트는 것이 이 서랭이 그 가랭이 저 뵈 무신 거옴허여 저 잊어부런, 그 보리 홀트는,

103045 @ 클?

103045 #2 클, 클이 아이고 무시거? 무신,

103045 #1 서랭이, 보리 홀트는 가랭이, 이렇게 헨 거 무사 영 행 보리 농사,

103045 @ 가랭이?

103045 #1 가랭이주게. 그걸로 홀탄.

103045 #2 가랭이엔 허여 이디션. 영영헨 줍아텡이명,

103045 #1 보리 홀트는 거,

103045 @ 홀트는 거 잘 기억허믄 뵈니다. 옛날 그 도구.

103045 #2 게메 도구를 잘 기억,

103045 @ 도구 이름이 뵈가?

103045 #2 옛날 가랭이 우런 가랭이엔 헨, 이디션.

103045 @ 도께질은 안 헤 뵈디가?

103045 #2 아이고, 무사 아이 헛수가? 도께질,

103045 #1 도깨질도 헛는디
 103045 #2 도겐 나룩은 잘 아니헛.
 103045 #1 나룩은 이디션.
 103045 #2 문딱 처 나곡 저,
 103045 #1 도깨질은 잘 아니헛난,
 103045 #2 돌로 문딱,
 103045 #1 도께로 어떻허냐 허믄 헤노믄 더러 까지곡헤노믄, 쓸 반작 나불믄 도
 께질은 잘 아이힙니다.
 103045 #2 쓸 부좌지고,
 103045 #1 거 잘못헛 너무 물론 거 헤불믄 부스믄 문딱 도께에 맞으믄 쓸 까저
 부러.
 103045 @ 까저부니까예.
 103045 #2 까지곡 허나네.
 103045 #1 아이허곡 주로 허단 나중에는 이제 거 돌아가는 영 탈곡기,
 103045 #2 발로 블라나서, 발로 블르멍,
 103045 #1 발로 블르멍 그자,
 103045 #2 탈곡기도 헤끄만헌 건디 니아까 달믄 것에 무시거 허영으네,
 103045 #1 영 탈곡기 그 저,
 103045 #2 발로 영영영 블랑,
 103045 #1 발로 블르멍
 103045 #2 발로 블랏수다. 블르곡 무시거,
 103045 #1 밀영가멍, 돌아가는 걸로 확,
 103045 @ 돌아가는 거?
 103045 #2 예, 경 헤그네 밧디영 밧도 거 두둑이 조은 디 가곡 두둑 이상헌 디
 강 헤주지도 아이 허곡, 짐 저레 들러내치렌 허영으네, 경허멍 장만허연, 우린 신작
 로에서 들러내곡 한질이도 들러내곡 헤 낫수다, 옛날.
 103046 @ 그 다음에 나룩쓸 허며는 나룩쓸 가정 무신 거 멩글아 먹엇수가?
 103046 #2 나룩은 이제, 막,
 103046 #1 그때 나룩은 귀헌 거난
 103046 #2 제상에도 싯주기, 돈 거 폴아당으네,
 103046 #1 이디션 집이서 잘 먹질아이허여마씨. 아이덜 셔도 거 곤밥도 잘 못 헛
 먹고
 103046 #2 헛 곤밥도 못헤줘십주.
 103046 #1 경 헛으네 이제 폴앙.
 103046 #2 폴앙,
 103046 #1 폴앙 걸 큰 돈으로 헛으네,
 103046 #2 술도 사오곡 게,

103046 #1 뭐 이발할 때도 그거 혼 말 장에 강,
 103046 @ 식게 때
 103046 #1 식게 때도 허곡
 103046 #2 식게 때, 식게 때 밥은 곤밥허영 저당, 공장이 강
 103046 #1 곤밥허고 행 먹는다, 주로 저 이견 귀헌 거난 쓸 폴앙으네 무신거 집
 이 가용쓰고, 영 행 저 살아가는거우께. 뭐 돈 쓸 일이 그 때는,
 103046 #2 아이덜 무신 거 허끔, 어린 아이덜,
 103046 #1 지금 담지 아니허영 전인 이제는 무신 원예작물 행 영 돈 나도, 그 때
 는 먹을 거,
 103046 #2 먹을 거 밧기, 폴안 먹을 거 뱋기
 103046 #1 돈이 얼마 돼지도 아이허여마씨. 폴멍 그자,
 103046 #2 무시거 허끔.
 103046 #1 늬 볼 때는 나룩 쓸 허영 저집이 곤밥행 먹엄저,
 103046 #2 어떻 먹는 사름은 헤도, 우린 정 아이 먹어봤수다게. 하도 어려와노난,
 거 폴아당으네 폴앙으네
 103046 #1 식게 허젠 헤도 그거 폴아사 적갈도 허곡 밋,
 103046 #2 식게도 허곡 게,
 103046 #1 하건 비용 들어가든
 103046 #2 신도 사곡 게, 저 무시거 감도 사당 감물도 들이곡 무시거 허멍 경헤
 도 그거 아니 꼭 돈도 아이 돼어. 무시거 막 헤밧자 돈 얼마 아이돼고 허난, 애월장
 에 강 정 강 폴아오고 저 서문통 제주차보깁지 저 강, 제주차보 잇날을 정 강으네,
 103046 #1 게난 맥에 정 양
 103046 #2 허를 헤양 강 와사. 혼 말 정 강으네,
 103046 #1 둘이 정 가사, 혼자는, 둘이 정 강 허믄, 그디 가믄 시에 사름덜 졸바
 로 돈 줍니까? 게도 어쩔 수 어시 폴앙 왕 그 돈으로 하근 걸.
 103046 #2 술 산디 밋 산디 몰르곡,
 103046 #1 그때는 차가 드무난 걸영 가 오고, 걸영 오고 헛수다게.
 103046 #2 무사 땀뿌차도 난 타 나서.
 103046 @ 떡도 멩글앙 먹지 안헛수가?
 103046 #2 양?
 103046 @ 찰로 떡,
 103046 #2 예, 떡도 멘드라낫수다마는 경 가난헌 사름이 경 못 멘들앗주기에, 경
 자꾸. 아이 식게 때는 자꾸 떡 만들고, 제사 때에는, 예,
 103046 @ 식게 때, 멩질 때,
 103046 #2 예, 식게 때, 멩질 때, 송펜이영
 103046 #1 송펜이영,
 103046 #2 송펜이영 그걸로,

103046 #1 절반, 이 저,
 103046 #2 새미인절미 허고,
 103046 #1 새미인절미 허곡,
 103046 #2 곤떡허고 해네
 103046 #1 송펜허고,
 103046 #2 옛날은 그걸로,
 103046 #1 곤떡이영 허른 영 동글락허게 허영 영 빗었네 똑똑똑 칸으로 찍으
 명 곤떡도 허곡, 새미인절미허고 주로 제삿 때는 경 행,
 103046 @ 저기 우리 저 우리 보며는 뭐냐 저, 곤떡도 보민 여러 가지라, 똥골락
 현 거영 부치는 거영,
 103046 #1 예, 고달떡이 싹고, 곤떡도,
 103046 @ 목안허고 우리 대정하고 틀려.
 103046 #2 저 거세기 반, 반들, 반들허고, 반들떡도 잇곡,
 103046 @ 예, 반달,
 103046 #2 반달떡도 이서. 건 이제도 이서, 이제도, 이제도 폴아. 동문시장이,
 103046 #1 반으로 밀멍 꼭꼭 직어내믄, 슬망
 103046 @ 영 해그네 손으로 영 졸랑, 영 붓저그네이 짓는 거 잇주게.
 103046 #2 건 우리 식이 아이라.
 103046 @ 여기 목안은 하나 행으네 멩글라부러. 건디 대정은 영 붓정,
 103046 #1 아, 붓정,
 103046 @ 붓정으네 영 놀르곡 또 똥사그네 영 놀르곡 허영으네,
 103046 #2 거봐, 것이 정상인디 이딘
 103046 @ 여긴 하나로,
 103046 #2 하나로만 영영 해불영 경 아니 허여. 게난 그런 것도 허고 폴앙 그걸
 로 가용돈 행 게 동싱 집에 잔치먹으레 가젠 해도 쓸 혼 똥 두어 똥 어정 가곡 게,
 동네에도 잔치 무시거 나오믄 그 나룩 저 당 게 혼 똥 가정가곡 경 무신 돈으로 가
 정가지 아니허영 그런 걸로 가정 간 먹엇주. 가정 강 먹어.
 103046 #1 쓸 두 똥만 허믄 아이고 큰 부주 헛저. 큰 부주여.
 103046 #2 쓸 두 똥 허영, 그 부주 행 가. 그 똥 다 우리가 아니 다 경 헛수다.
 부주행 강,
 103046 #1 닻똥 이제ㄴ찌 닻똥 부주 혼 말 부주, 혼 말 부주 해 노믄 동싱이나
 영 큰 부주 아이허믄 혼 말 부주는 잘 엇고, 보통은 닻똥 부주엔 허믄,
 103046 #2 두 똥 해 강, 잔치 때나 해나고,
 103046 #1 두 똥, 걸 닻 똥영 허는디 족을 말치로 허영,
 103046 @ 게난 쓸이 비싸긴 해서.
 103046 #1 비싸십주.
 103046 @ 옛날 보면은 친목회할 때도 쓸 혼 가마니냐,

103046 #2 혼 가멩인 막 그 부제 예, 부제, 부제로 헛수다.

103046 #1 쓸제가 싯고 허믈 제 영 허믈 쓸제허믈 뭐이 이 화단제여 무신 제여
해도 쓸제가 질 행 허믈 건 잘 돼어마씨. 뭇 일 낫다 허믈 쓸제허믈 에 쓸제 받앙,

103046 #2 혼 가멩이 받아, 쓸제,

103046 #1 게믈 이제 혼 가멩인 잠깐 돼어 으라 사람 메와노믈, 두 돼씩 해도
열,

103046 #2 경 받앙 쓸제허곡 또 것도 일나믈 갇아사 헐 거, 나룩 저 당으네,

103046 #1 다음 뭇 허믈 또 거 돌아가멩 허는 일어난.

103047 @ 그 다음에 나룩짹 행그네 뭇 멩글앙 씨마씨?

103047 #1 이디션 느람지도 허곡, 새 어시믈 또 나중에는 이제 우리 셋기틀 사당
셋기도 까곡 건 처음이고 쥔 처음 헐 때는 그 느람지도 허곡 쥔도 뻬이고 이건 여
러 가지 이제 현 디,

103047 @ 주쟁, 주쟁이는 안 멩금니까?

103047 #2 주쟁이, 주쟁인 저,

103047 #1 무사 느람지 행으네 주쟁이도 좀 허는디, 주쟁인 이디션 새로 주로 험
니다게. 새왔디,

103047 @ 아 그 주쟁이는,

103047 #1 예, 새로 허고, 주쟁이 새 주쟁이 허믈 영 녓작험주게. 나룩 주쟁이,
나룩짹은 얼마 멀린 못허여. 게난,

103047 #2 나룩은,

103047 @ 느람지만,

103047 #1 느람지는 보통 게도,

103047 @ 나룩짹으로

103047 #1 새 느람지 해야 또 오래 가곡,

103047 #2 아이 저 나룩, 나룩 나룩짹으로 현 건 물 혼 번만 와 나믈 이것이,

103047 #1 이것이 삭아정 혼 여름이면 현 디 새는 허믈

103047 #2 주쟁인, 주쟁인, 새로 헤 노믈 흥금 오래 사 감신디 재게 어떻 아니허
여.

103047 #1 두 험 감니다게, 저 이 새로 행 역은 느람지난.

103047 #2 도새기 돛통에도 게 도새기 질루는 디게 우이 그 주쟁이 행 거 씨왕
노믈 조짹 우이도 그거 씨왕수게.

103047 #1 새끼 팡으네 허고

103047 #2 새끼 팡도 허곡

103047 #1 난 그 때 새끼 기계 사단 새끼틀 팡,

103047 #2 꼬아 짜 낫수다. 그거 나룩짹 논 벌멍 그 나룩짹을 뭇 허난 경 험 이
녁낭으로 우리도 꼬멍 꼬멍,

103047 #1 나중에 쥔구르마허영 어디 한림이영 어디 주문받앙 식거강 풀곡 허믈,

거 용돈 씨곡,

103047 #2 게메 어떻사 헨 살아신디.

103047 @ 그 신은 안 멩글아봍디가? 나룩쩍으로,

103047 #1 신? 신은 우리가 양, 어린 때 신 삼아낫수다. 찻신,

103047 #2 아바님네 뭐, 아바님네가 양,

103047 #1 뭐영 허믄 그 때 멩 멩석 좇곡,

103047 @ 맞아, 멩석.

103047 #1 멩석 좇곡 뭐 헛는디, 맥 좇곡

103047 #2 저 신은 아니 헤 받.

103047 #1 찻신은,

103047 #2 ㄹ렛방석 즐아봍주. ㄹ렛방석

103047 #1 ㄹ렛방석이영 맥도 좇곡

103047 #2 ㄹ렛방석은 좇 즐아봍고, 죽은 거난 허고

103047 #1 그런 이 멩석은 혼 스무날 걸러마씨. 하나 멩석허젠 허믄, 막 멩심허영 찻 두드리멍, 이디서도 비 온 날은 헐 것이 업지 아니허짱? 보리 장만허고 이제 가을 헤노믄 똑 으름에 찻 잘 행 놔봍당 거 허믄.

103047 #2 나룩쩍은 막, 털영 곱닥허게 허영 묵영,

103047 #1 행 나봍당 맥 멩석 좇곡

103047 #2 멩 멩석 즐젠 허믄 게도,

103047 #1 일등헌 걸로 이제 조은 걸로 멩석은 즈릅주게. 맥은 헤도 멩석 좇는 건, 그걸로 이제 다 꼬양 헤냥, 혼 십오일 보통 걸립니다. 멩석 하나 허젠 허믄,

103047 @ 게난 나룩쩍이 활용도가 높으긴 허여.

103047 #2 예,

103047 #1 하이고,

103047 @ 쓸도 경 허주만.

103047 #2 셋기 꼬곡 양,

103047 #1 이디서 가멩이는 안 짜, 겐디 맥은 즐아마씨.

103047 @ 가멩이는 욱지서 내려오는 거 아니?

103047 #2 여기 ㄹ렛방석허곡 저, 멩텅이 허곡, 멩텅이도 헐 충 몰란,

103047 #1 멩텅이 즐양, 멩텅이영 영 허믄 그거 어디 똥도 주스레 텅이곡,

103047 #2 이상케 허는 욱 들으멍, 허지 못 허연.

103047 #1 주스레 텅이곡 멩텅인 이저 무신거 미영 텅이멍 나룩씨도,

103047 #2 똥똥도 즐젠 허믄 멩텅이가 셔사. 멩텅이 아이믄 게 거 주서당 놔봍사, 똥똥은 어디 쉬와? 막 사름덜 다 주시레 텅이멍

103047 #1 어디 저 못 ㄹ뜬 디에 노믄 쉼덜, 쉼 똥덜 물 먹으레 왕 똥 싸곡 허믄 그거 누게가 주서간 처리 몰르게 우리도 곱체허곡 멩텅이허영 우리도 저 밑에 정반 못이영 허영 이염에 살아십주게. 그냥 쉼덜 왕 물 먹영 혼참 행 강 허믄 막 똥 싸

곡 그디 헤 노른

103047 #2 막

103047 #1 누게 먼저 주서간 철 모르게 우선 문제 줘는 것이 임제난 경 험 저
흐끔이나 걸름허젠 그걸 주서가고,

103047 #2 게난 거 나룩줍이 침 하근 거 잘 씻수다. 이것 저것 써, 솟기도 꼬양
와 뒷당, 나룩줍 어정강 무시거 목으, 그거 아니른 험 것이 어서, 나룩줍으로 목영
비 아이 맞게 잘 덕엇당,

103047 #1 것도 비 혼 번 맞아불른 삭앙으네 영 질기지 아이 허곡,

103047 #2 경 험 덕엇당 우이도 새 느람지라도 허영 덕으지 아이허른 나룩줍만
덕으른 비 맞으른 눈작해부나네, 어디 구들 아이 씨는 구들러레 더러 데명 와두고,

103048 @ 그 다음에 나룩 농사허멍 아까도 말 험 게마는, 그 얹힌 추억, 경험 거
혼 번 말해봅서. 아까 물꼬 때문에

103048 #1 예, 물꼬, 물꼬 나룩은 제일 중요헌 것이 물이난 하나로 열까지가 물
이우다게. 게난 이거 물 어시른 안 돼어. 게난 이거 밤에고 낮이고 양 나도 저 눈은
처음에 허영, 늪으 논이영 뱅작허영 허른 이거 물걱정이라. 비가 밤이 와도 적정,
그물아 가른 이거 어떻 물 대코 허는디 겐디 거기서도 막 원물이엔 허영 요렇게 물
꼬허멍 츠레대기가 싣수다. 문제 거 원물 문제 거 나오는 디가 첫째 츠레라.

103048 #2 대가리가, 머리가,

103048 #1 그 다음에 츠츠츠츠 헤 가른,

103048 @ 처음 논이 최고로 조컨게.

103048 #1 예, 일번 일번, 게난 그디서 다 채워야 뒤터레 츠츠 내려와.

103048 #2 헤 나사 알러레 츠츠 헤 오젠 허른, 나룩은 몰라가곡 죽어가곡,

103048 #1 게 안 허른 막 싸왕으네 느 대켜, 나 대켜 게른 그렇게 헤 와도 나중
에 허른 양, 저 뒤테레 가른 이건 업어치기 현 사름덜이 하, 밤이 왕 몬 물 터불곡
이거 뭐 이건 어쨌 험 밤새낭 터불른 뒷날 이제 물 봉봉 헤시카부텐 강 보른 바싹
몰라 이녀 논에,

103048 #2 게난 처음 짓는 건 이제 밤중에 그디 논에 자꾸 가곡 어떤 뎀 허벅으
로 거 물 저당으네 메중헌디 놓곡.

103048 #1 거멍케 칸디, 물 비와 가멍,

103048 #2 카불른 허벅에 물 저당 두어 개 이 아방이영 나영 정 가랏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 바싹 몰라불곡, 물 경 허멍, 밤이 경 뎡여난 것이 질 양 이제 잊
어불지 아이합니다게.

103048 #1 이제그찌 경운기가 성, 기계라도 올리멍 물 헤져, 게고 그렇게 물이
어서 마씨. 지금은,

103048 #2 물 정 강, 그거 저 밧자 양, 그까짓 거 돼지 아니허여.

103048 #1 옛날에 원뿔이엔 헤 가지 물이 제우 먹는 물 나곡 허는 디 이제 저
원동산, 그 물 뱃긴 그 스방엔 어서마씨. 그 물 하나로 나룩을 다 허는디 이쪽에 그

저 우리 깍에는 허단 버치난 물통 판 어떻습니까? 골라가난 통 팻단에 게 허든 거
기 퍼 노른 종곡 그냥 ㄱ물아가든 이제 물통 헛당 그거 흥끔씩 목숨 살리는 거라.
내불든 그냥 카나든 양 이것이 막 늦어지곡,

103048 #2 칸 문딱 막 경 허단 보난 몰라네 나룩 아이웁 헨 어이가 어십디다. 그
때 경 해난 해가 이서. 막 그추룩허연.

103048 #1 그 뎨 돌 칸다, 흑 칸다,

103048 @ 옛날은 흑으로 골 뎡그니까, 물 와도 물 하영 오질 안허여.

103048 #2 아아고 게,

103048 #1 카 빠지멍 양,

103048 #2 돌 ㄱ뜨든 허주마는 양 뎡딱, 땃땃헌 거난,

103048 #1 세웁이나 땃 헌거든 영 잘잘 내려오주만, 흑이난 그 스방이 다 빠져사
그더레 올 거주, 졸졸졸,

103048 #2 흥 헨 침 오꼴 내불영, 아이고 어이가 어서낫수다. 매날 밤낫을 그디,
밤이 매날 뎡여낫수다.

103048 #1 이제 늣 빌언 막 싱건 키와노난 저 ㄱ물안 빈 아니오지 허단 버치난
이젠 나중엔 내불언 포기헨, 포기헨 내부난 그거 늣시 땃지 아니헛디다게. 이제 비
어단 쉼뎡이멍 그냥 땃 허지.

103048 #2 경도 흥 헤도 해난 침 헤 낫수다마는 이제 아이고, 이제 사름덜 골으
든 게,

103048 @ 예, 줌 쉬영 허쿠다.

교구마 농사

103049 @ 이 저 감저농사에 대허영 물어보쿠다양, 감저 농사 허젠 허민 어떤 준
비가 필요헛니까?

103049 #1 감전 허젠 허젠 허든 우선 것도 아무 농사도 경 허주마는 이제 메중
을 잘 길좌사. 땃이 번헌 것 셔도 메중이 시원찬허든 하영 못 싱그난, 여기서 하영
싱경 허젠 허든 메중을, 게난 감젯메 헨 감제를 잘 보관을 해사마썈. 요것이 상강
전에 캐영 씨 헨 거를 갱 딱로 미룻헨 고운 겘로 상처 안 난 겘로 요놈으 거 파당
굴갱이나 흥끔 땃 허거나 이제 쉼로 갈아정 헌 거는 씨가 안 땃주게, 게난 고운 겘
로 굴렁 상처 안 난 겘로 판썈헌 겘로 허영 초불 이제 잘 그늘진 딜로 흥 열흘 나
땃당 겘 이제 처음엔 땃 감제 이 마을에 저 감제 저장고가 셔 낫수다. 흥 부락에
헨나썈 여기도 잇주마는 지금도 저장고, 거기에도 그놈으 것이 감제가 잘 썈어마썈.
이거 보존을 잘 헌텐 헤도 게난 이제 이것도 안 땃겿다 해가지고 우리도 양 맥에
영,

103049 #2 사과 상자,

103049 #1 또 늣금 하꼬에,

103049 #2 늣금하꼬 해당으네,

103049 #1 능금 하꼬에 허영 그거 딱딱허멍 신문지 옆으로 흐끔씩 허멍 너무 고
 냥 난 딴 물르지 못 허게 허멍 똑똑 냥 이제,
 103049 #2 신문이라? 저 무신, 무신 종이?
 103049 #1 저 이 백장에,
 103049 #2 백장에,
 103049 #1 백장에 저 영 잘 쌍 놔뒀당, 것이 자꾸 온돌허곡 해가든 처음만 잘 허
 든 잘 안씩어마씨. 나중에,
 103049 #2 문을 잘 덕거사게. 아이덜 확확 문 올라볼곡, 이추록 현 문이라게, 무
 시거, 영,
 103049 #1 놔뒀당, 식량으로 감제도 겨울엔 먹을 거 어시든,
 103049 #2 것도 청도 먹고,
 103049 #1 그거 청 먹고 허멍 메종은 딱 행 살렷당 그 메종을 언제 노냐허든 이
 제서도 춘분 스시에 건 이제 보통 보든 삼월 이십일이 춘분 똑 양력은 맞아마씨.
 그 스시 전후행 메종을 놓주게. 메종을 놓는디 어떤 식으로 놓냐허든 거 밧 갈앙
 이것도 썩은 걸름을 땀 개나 아무 것도 뭐 허주마는 걸름을 부그락이 쉼걸름 으름
 에 허멍 자꾸 쉼시랑질 행 나뒀당 요놈으 것이 비맞고 뿔허고 허든 복삭 삭아마씨.
 그걸 이제
 103049 #2 글채 아정강,
 103049 #1 글채로 허영 삭삭삭 감젓메 놀 딴 뿌렁 갈앙 놔 뒀당으네, 딱 삼월 춘
 분 돼가든 걸 지금은 양 전이는 춘분 스시에 헛는디 이제는 혼 십일 내지 이십일
 앞당경 해 마씨. 왜냐든 비니루 나기 때문에 비니루 행 영 텀멜 허곡 허든 훨씬 빨
 라마씨.
 103049 #2 그 땀 덕을 것도 엇고 허나네게.
 103049 #1 그 땀 비닐도 엇고 우리 처음 헐 때,
 103049 #2 늦영 와사.
 103049 #1 감젓메 헐 땀 이제 거 춘분 스시에 냥 이것이 츠츠히멍 물 주멍 검질
 도 매곡 허멍 골 주성 놓니다게, 여기서, 저 흑 다 강아냥 켜이로 복짝허게 쉼시랑
 으로 해 냥 골 영 작작 짓으네 그레 이 감제 순 나는 거를 우터레 가게,
 103049 #2 흑 덕그멍,
 103049 #1 경 행 쪽 노멍 우이 흑 덕그멍 행으네 이제 메종을 놓는디 갱 뽕죽뽕
 족허게 나 가든 물도 주곡
 103049 #2 물 질어당, 대백이로 저당, 저디강 저 와사.
 103049 #1 츠츠 냥 해가든
 103049 #2 바당이강 물 질어당, 물이 어선,
 103049 #1 논디는 메종도 실허고 걸름 잘 안 간 딴 이젠 그 대신 불치영 저당
 밧을 이제 보그락허게 잘 갈앙 해 와야 요게 이제 나중 메종 놔도 실허주 게 아니
 든 쉼 사리다 뿔허든 감제 싱거도 잘 들지도 아이허곡

103049 #2 오줌도 질어당 주곡 헤사,

103049 #1 또 이거 플라부렁 죽곡 허난 경 허젠 허믄 이디서 제일 문제는 흑을 먼저 보그락허게 멩글곡 걸게 썩은 걸름허영 북작 썩영 반작 석영으네 헤 놔야 감젓메 놔도 이제 콥주게. 재게 크는디 허믄. 싱글뎀 어떻허냐허믄 이디서 무신 저 밧 갈아가멍 요것도 양 유월절 소서 유월절 전에 해야지 늦영 심으믄 감제가 상강 가 까우곡 허믄 클 어이가 어시 재게 들질 아이허여마씨. 게난 이거 어떻든 춘분 스시에 메종 낱 그 상강을 백일 앞뎡 재게 싱거삼주.

103049 @ 장마철에 싱그는 거 아니?

103049 #1 아 장마, 거의 이디선 장마 끝나강 싱금니다. 쟁 마브름 잘못허당 허믄 톱 장마끗데는 잘 불어 마브름 불믄 두 헤 열 나흘 간 계속 불어노믄 양 이거 잘못헸다 허믄 감제줄 죽읍니다게.

103049 @ 감젓줄 죽어부러.

103049 #1 그때 어디,

103049 #2 하영 죽언.

103049 #1 이제 ㄴ치 무신 수도가 셋수가? 밧디 장치 안 뎡 거난 더러 어떤 딴 보리낭도 덕그는 사람도 싣고

103049 #2 나룩찝도 덕그곡 헤서, 우린 하영 해부는 덕거보지 아이헤서,

103049 #1 나룩찝도 덕그고, 우리도 혼 보통 그자 혼 삼스천평 감젠 싱거낫주기.

103049 #2 싱거낫수다게. 싱경 허믄,

103049 #1 경 허믄 허는디 감제헸 뎀 이제 놉 빌영으네 수늘어가멍 이디선 놉 잘 늠우 일덜 허영 허는 사름 별로 어서마씨. 서로 수눌멍

103049 #2 옛날에 경 헸수게.

103049 #1 난 쉼 시나네 밧 갈아 주곡 그 집이 강 허믄 아 그 사름덜 왕으네

103049 #2 감제 싱거줘.

103049 #1 감제 싱거줘. 쟈 밧 사름 수눌어? 허믄, 게 밧이나 잘 갈아줍서 허믄 강, 밧 갈아주믄 이제 왕 감제 싱거주곡 허믄, 요거 허믄 이제 감제도 헤 노믄 도 상 커도 검질도 잘 매사 허고 또 거 벳토을 헤사허여, 고량에,

103049 #2 고량에 송그랑게 헤사 감제 크곡 큰덴허여.

103049 #1 감제가 잘 난 이제 어느 정도 좀 쟁 줄 영 벗어가믄 쟁기 저 벳토 벳 잇수다게, 요렇게 잠데에 메왕 허믄 흑이 양측이 착착 갈앙 걸로 갈앙 벳토 헤 줘사,

103049 #2 경허믄 검질도 덜 허곡, 고량 크믄

103049 #1 검질도 덜 허곡 감제도 좀 잘 들곡,

103049 #2 잘 들곡 허여 경, 삼천평 허믄,

103049 #1 경 헤도,

103049 #2 흐를이랑 메칠 헤사.

103049 #1 감제는 또 검질이 잘 지서.

103049 #2 게도 쉬웁니다. 감제,감제가,
 103049 #1 조킴질 담지 아니허영 감제 검질은 매긴 쉬웁니다.
 103049 #2 블라저도 어떻 아이허곡 해도,
 103049 #1 게난 고량에 탕 앓앙 감제 침 더러 늦게 싱근 건 감제 봉강 먹어가명
 도 검질 매곡게
 103049 #2 그추룩 해 낫수다.
 103050 @ 그 다음에 감저, 아까 말 했수다마는 언제 어떻 감니까?
 103050 #1 감제 가는 거?
 103050 @ 응, 감제 거난,
 103050 #2 파는 거?
 103050 #1 파는 거?
 103050 @ 아이 아니. 감저 줄기 해당으네 아까 소서 때?
 103050 #2 아, 소서 때 감저 싱그는 과정, 감저 싱그는 때.
 103050 #1 아, 싱그는 과정, 싱그는 과정은 소서 전에 싱거야지, 유월절 돼가든
 거 절기가 급박해불어마씨. 막 덩곡 또 메 싱거봐도 더위 해곡 해노든 감젓줄 문
 골아부러. 땅이 질쩍해가든, 유월절 스시 돼가든 땅이 뜨거웁주마씨. 막 뱃도 나곡
 허든 감제 하영 실패허난 이디선 어떠든 유월절 혼 보름 전에 싱금니다게.
 103050 @ 거나네 밧 같아야 헐 거 아니우파?
 103050 #2 예, 쉼 허영 밧 같아, 잠데에 메왕,
 103050 #1 잠데로 쉼 같은 이제,
 103050 #2 우리 집이 씻수다, 이제.
 103050 #1 이 저 사름덜 빌영 골갱로 영 짹 허멍 이제,
 103050 @ 어디 어디에 싱거?
 103050 #1 이렇더래.
 103050 @ 이렇?
 103050 #1 이렇,
 103050 @ 게난 높은 디가 이렇, 낮은 디가 고량,
 103050 #2 고량, 게난
 103050 #1 게난 이렇더레도 골갱이 골치멍 그레
 103050 @ 손으로도 허지 아니허연
 103050 #2 골치멍도 허곡,
 103050 #1 손으로도 허곡 밧이 보그락헌 밧은 잘 갈아정,
 103050 @ 손으로 허고,
 103050 #1 물 맞인 딴 손으로 허고. 게 아니허영 병탱이 나곡 문 헌 딴 게,
 103050 #2 질왓더렌
 103050 #1 골갱이로 영 두드리멍 거 병에 웰 수 이시든 잘 들게 허쟁 보그락허
 게 행 싱거삼주.

103050 @ 나도 옛날 싱거,
 103050 #2 게난 맛을 잘 갈아사. 가는 과정도 잘 갈아사.
 103050 @ 나도 싱거봐신디 아이 보리그루에는 싱그기가 좋은디 유채낭그루에는
 아이 손 찢러부렁,
 103050 #1 게고 유채낭 그룬 잘 들지도 아니허여.
 103050 @ 경헤마씨?
 103050 #1 감제는 보리그루에 헤야 들러정 걸름도 돼고 경 험디 유채렌 양 우리
 도 유채헤봐도 잘 안들곡,
 103049 #2 감제 들지 아이허여마씨.
 103049 #1 그것이 이것도 유채는 땅의 기운을 문뜩 지름으로 빠 먹어부난 메 즐
 라마씨. 메 즐르문 이것이 보리그루 거 아주 걸지 아이허팡? 보리 일영 우이로 비
 어노문,
 103050 @ 싱그기도 막 힘들어.
 103050 #1 쉽곡, 유채 그룬 문 손,
 103050 @ 찢러부렁게.
 103050 #1 찢르멍 잘 아이허문 저 가운데 베 살문 그거 씨 허기가 굿어.
 103050 #2 겐디 이딘 보리 하영 아이 갈아낫수다게, 질왓덜이라노난 맛이 나빠마
 씨, 이렌, 신엄덜 보단도 맛이 이렌 흥끔 덜 허여.
 103050 #1 게도 보리그루에 하영 싱것주.
 103050 #2 경 헤도 우린 보리, 삼천평 싱글 땀 무신 보리 하영 갈아낫수가? 천평
 백이 아이 갈안. 저 거세기 헤 불언, 보리씨 공출헤부난 그 때 허지 못허고 못헤낫
 주.
 103051 @ 그 다음에 감저 걸름 어떻 마련헉니까?
 103051 #1 감제는, 감제도 또 걸름 안 돼어. 저 줄만 쳐 놔, 들질 아니허영 잘 뒀
 허젠 허문 싱거노문,
 103051 #2 무사 저 쉼걸름덜 놓긴 와나서.
 103051 #1 우리도 쉼걸름 놔도 주로 이디선 경허문 거 요소허고 염가, 이게 요소
 만 허문 줄기만 쳐 나불영 안 댜난 옷비료옌 허영 저 염가 석영 저, 비, 널 비오켜
 허문 오늘 약간씩 이렇더레 축축축 뿌려줘사마씨. 예 줘해주멍 헤노문 나중에 요것
 이 이제 거 감제 염가는 감제 기운 놔빼 크듯이 감제도 열매나네,
 103051 #2 걸름논 흥 밧은 걸름 놓곡, 두 밧은 아이와부난 감제가 막 차이 셴.
 103051 #1 걸름 논 거 안 논 거는 큰 차이 나고.
 103051 #2 쉼걸름 맥에 저장, 저 쉼로 식거강 흥 이틀 건 식거사. 경 아니허문
 걸름도 엇곡 경 허문 천평 뱃긴 못 낳 허문 저 딱나.
 103051 #1 보리그루에 저, 질이고마씨, 감제는,
 103051 #2 저 신 사름덜은 양 막 걸름 하영 헉니다마는.
 103051 #1 두그락이 불러지멍 감제가 잘 들어마씨.

103052 @ 그 다음에 아까 들어본 건디 이거 감저는 어떻 심는 걸 다시 혼 번 골아봅서.

103052 #2 이령에 게,

103052 #1 감젠 쉼로,

103052 @ 감젓 줄 허는 거부터 시작허영,

103052 #1 감제줄은 양 감제줄 어느 정도 혼 뽐 이상 크믄 이제 아 이거 밧이영, 밧을 게난 물 밧추젠 허믄 감젓메도 잘 길르멍 때를 봐사, 비가 오고 이디,

103052 @ 감젓멘 어디 남수강?

103052 #2 저 밧디, 밧디게.

103052 #1 감젓메는 밧디 노는디 어디 우영팟이나, 우리도 우영팟디 낵

103052 #2 우영팟 어스믄 감저 싱글 디가 혼 구석에 낵 노믄 메 즐랑 헤도, 밧어스 땀 그추룩 헤사,

103052 #1 예에 거, 막 저, 스몫 그거 안 헤도 오죵도 주곡 헤 노믄 좋아마씨. 우영팟디 낵 메종을 잘 길루와사, 갱 행 이제 혼 뽐 이상 영 혼 조리 이상 크믄 그 때 비어당 북북 비어당 때 보멍 싱거삼주.

103052 @ 거 등짐으로 저 갓수강?

103052 #2 게 등짐으로 저 가주.

103052 #1 다 맥에 담양 지곡,

103052 #2 맥에 담양 저 가곡게.

103052 #1 이제 무신 저,

103052 #2 대구덕에 행도 저 가곡,

103052 #1 구덕에도 저 가고.

103052 #2 경 험신디, 다 맥에 저 가, 맥에덜 문딱 솟기 꼬양 그걸로 허믄 싱그레 간 사람덜도 ㄴ찌 저다주곡, 우리도 저 가곡, 아

103052 #1 더러 이제,

103052 #2 아시날 더러 저 가곡,

103052 #1 감젓메가 질믄 찹으로 행 영 묵으멍 출ㄴ찌 혼 날씩 묵으네,

103052 #2 묵영,

103052 #1 가져당 어디 밧 이염더레 낵 뵈 덕어사,

103052 #2 궤약이 헤그네

103052 @ 시들어불카부텐,

103052 #1 예, 시들어, 게 안 뵈주, 게난 덕그멍 감제 싱거가는 양 영 그레 갓다취사 이제 싱근 사름덜토,

103052 #2 갓다주곡,

103052 #1 영 행 싱그곡 허는 디, 골 허믄 영 게난 감제 밧을 잘 갈아사마씨. 밧을 행 속 영 아멩 잘 갈아도, 초불 갈믄 질지도 아이허곡 속 묻어지믄 소곱이 디깅 허믄 들질 아니허여마씨. 게난 감제 싱글 때 뵈 수 이시믄 거시령 놔뵈당 또 갈아

야 그거 속 안 살앙 허지 속 살믄 안네 생땅이라,
 103052 #2 겐디 보리그루엔 그냥도 헛수다.
 103052 #1 게믄 그디 감제 잘 아이, 보리그룬 웨는디 그냥 뜬 그룬 이제 유채ㄱ
 뜬 거 해난 거거, 초불,
 103052 #2 유채 해난 딴 아이튀어.
 103052 #1 초불 갈앙 텔 수 이시믄 갈앙 놔뒀당 또 갈아야 보그락허곡 손질도
 좋곡, 감제도 잘 들지. 게 안허믄 소급에 허믄 속 물어정으네, 손 각각 찢르멍,
 103052 @ 유채낭이 잘 썩지도 안 허곡,
 103052 #1 예,
 103052 #2 쉼 어신 사름은, 쉼 어신 사름은 그냥 하영 갈곡 게.
 103052 #1 초불에 갈곡 헨디 하여튼
 103052 #2 쉼 싯고 쉼 성 장남 싯곡 헨 사름은,
 103052 #1 두불 갈앙으네,
 103052 #2 두불 갈랑 영 허멍 해낫수다게. 경 허믄 천평 아니 아무만이 해도 게
 잘 아이 들믄 밧단들이 경허믄 골을 둥그랑케 행 해노믄 할망덜 앓앙 영 관 해그네
 그레 덕그곡 덕그다그넨 무시거 시원헌 거 감주 가져갓당 먹곡 허멍, 거 행 흐를
 얼마 얼마, 얼마 얼마 허믄 밧 갈아주믄 싱거주켄, 밧 갈아주믄 싱거주켄 허믄 우리
 혼 언젠 늑이거 갈단 보난 이녁 감제 못 싱건. 내불어낫수다게. ㄱ물안 못 싱건.
 103052 #1 아니 어떠해냐허믄 그 때 이제 그때도 장마 막 전 허단 막 장마가 끈
 나서마썌. 겐 물도 막 허니까,
 103052 #2 막 ㄱ물안,
 103052 @ 장마때 싱거야주게.
 103052 #1 예, 장마에 서늘서늘헌 땀 싱경 살려야 허는디,
 103052 #2 늑이 것만 막 갈아 찢주게.
 103052 #1 아이 이젠, 사름덜 빌영 우린 하영 싱그난, 메종은 하영 놔 놓고 이거
 늑으 거 허당 이제 다음 비 흐끔 오건 우리 거 싱그주 헨,
 103052 #2 모다들언 막 싱그젠 허연. 싱그나네,
 103052 #1 문딱 둥그런 막 늑우 것만 갈아 줘서. 늑우 밧덜, 아 계단 장마 막 끈
 난 므르기 시작허니까 이건 우리 건 완전 내불엇어.
 103052 #2 계난 이제 그걸 비어단 문딱 쉼 맥엇수다. 도새기도 주고,
 103052 #1 쉼 맥이고 침, 가슴이 아팍디다. 경 허멍,
 103052 #2 잘도 감젠 혼 고지 짹 허게 메종 놔 논디,
 103052 #1 게 그렇게 하영 난 헨 허고,
 103052 #2 경 해 낫수다.
 103052 #1 계난 아이덜토 양 이 감제 게니까 이제 감제 팡 잘 초불허영 아이덜
 토 주곡 흑교에 땡일 때 운동헨 때도 그거 뭐 먹을 것이 잇수가? 감제 청,
 103052 #2 운동회날은 감제 청 가곡 헛수다게.

103052 @ 포따리에 쌍 갖추게.
 103052 #2 계난 운동헌 때 감제 청 갈 거 으선, 경 해난,
 103052 @ 우리도 경 헛수다. 옛날에,
 103052 #2 경 해낫수다. 그 때게
 103052 @ 우리도 감저 치곡 그 영,
 103052 #2 운동헛 때에,
 103052 @ 운녕팻디 감낭 좀 이서나신디 그 풋감, 풋감으로 우령,
 103052 #1 감 우령으네
 103052 @ 감 우령, 그거 담곡 행으네,
 103052 #2 담곡 행,
 103052 #1 것이
 103052 #2 쉼 벅이레 강도 감제 청 어저가곡 해 낫수다.
 103052 @ 제일 먹고 싶은 것은 두 개라, 이 저 감 물랑물랑헌 거,
 103052 #2 홍시,
 103052 @ 홍시 거 폼주게. 그거 하난 먹고 싶으고, 그 다음에 저 풀떡, 풀떡
 103052 #1 예, 풀떡은,
 103052 #2 풀떡도 셔난, 먹어나서.
 103052 #1 그 때 이만씩 커낫수다게.
 103052 @ 게메 풀떡 이 저 돛지름에 허영으네,
 103052 #1 거지빵이엔 허영으네 막 나도 저,
 103052 #2 돈 어시든 상 먹어집니깁? 못 상 먹영 허난 감제 친 거 먹곡
 103052 @ 경 헛수다.
 103052 #2 감제 계난 혼 언젠 오꼴 내부난 그 땐 막 곤란허연.
 103052 @ 물 감저 그거 맛도 어신 거 그냥,
 103052 #1 허허, 겨자 먹기로 울자 겨자 먹기로 먹어십주, 시장허난.
 103052 #2 경 허난 그 뒷헤에, 뒷 헤에 막 곤란헛 양 식구들은 잇고 허난 전분주
 시 헤다네 저 감제 공장에 간 전분주시헤다네 담 우이 민딱 널언에 담 우이 멘딱
 저 묵은 집이 살 때에, 멘딱 담 우이 널언 그거 백산 양 떡 허곡, 시금시금허명 헤
 도 아이 웨영 어떻습니까? 경도 해낫수다. 그렇게 그 때 숭년이 숭년 저 나서.
 103052 #1 밀, 밀주시도 양 그 때 밀주시라고 허영 거 뭐냐허든 밀도 초불 간 거
 잇고, 두불 내린 것이 셔, 두불 거는 복삭허여마씨. 게든 거 차료허는디 그거 헛 우
 리도 먹어나고, 그 헤엔 우리가 양 거 소문나나서. 감젠 하영 허고 못 허난 밀가를
 밀ㄱ를 뭐 열아홉번 먹엇저, 우린 계난 밀츠베기 첨 이,
 103052 #2 밀츠베기허곡 무시 거.
 103052 #1 ㄱ를츠베기 매날 헛 먹엇주기.
 103052 #2 밀, 밀 체 헤당으네 허곡, 감젼주시 떡 허곡, 경 허명 그 시절이 엄청
 난 첨 일을 당헛수다게. 경 해낫수다.

103053 @ 그 다음에 양 감저밧디 검질 뻬 번 맵니까?

103053 #2 감저밧디 검질은 두번도 매텍, 얼마 아이 매텍. 감저밧디 검질은 쉬왓수다.

103053 #1 예, 게도 거 막 저,

103053 @ 두번?

103053 #2 예, 두번, 두번뻬기 아이 매텍.

103053 #1 뻬곡 감제헐 뻬 뻬 장마끗데 매텍 노믐 뻬곡 요눔으 거 양 헤노믐 어떻 그 마 불어놓곡 허믐 검질은 뻬작허곡 뻬은 여긴 질왓이란 양 뻬은 쉼지, 골갱인 안 들어가지 검질은 뻬작 나 노믐 이 저 보통 제완지헐고 쉼비눔꺾믐 거 나 노믐 이제 요걸 비 왕 뻬헐디 헤노믐 우리도 저 헐 뻬 이염에는 한질왓디 저 거 물통이셔, 골챙이에 물 들러당 그레 지첫당 그거 보그락허믐 매텍

103053 #2 게난 무신 뻬날 매텍니까?

103053 @ 게난 두번 양,

103053 #2 예,

103053 #1 두번 매텍 뻬토,

103053 #2 두번뻬기 아이 매텍.

103053 #1 뻬토허여. 쉼로 뻬토헐 이제 골 갈곡,

103053 #2 막 검질 한 디, 예,

103053 #1 아이 감제도 헐믐 잘 들곡 검질도 좀 제초뻬고. 고투은 제초뻬고,

103053 #2 뻬토허곡 두번뻬기 아이 매텍. 어떻사 헤신디 두뻬뻬기 아이 매텍 낫수다.

103054 @ 게난 감저밧디는 아까 검질, 무슨 검질?

103054 #1 검질 주로 제완지헐고 쉼비눔헐고,

103054 @ 그 다음,

103054 #2 보클도 헐고,

103054 #1 보클도 나고, 겐디 이디션 건 제일 제완지헐고 쉼비눔만 안 나믐 좋아. 제완지헐고 쉼비눔,

103054 @ 제완지는 쉼주게, 저거.

103054 #1 요거 양 바짝 흑은 므르지,

103054 @ 마지막이렌 막,

103054 #1 마지막은

103054 @2 쉼 주믐 잘 먹영,

103054 @ 불으믐 막 뻬져 노니까.

103054 #1 비 와 노믐 불영,

103054 #2 잘 죽지도 아이허곡,

103054 #1 잘 담양 내치지나 아이허믐,

103054 @ 쉼은 잘 먹어, 저거,

103054 #1 쉼은 폭삭허연 막, 허허,

103054 #2 답을 건 무신 거 셔서.

103054 @ 제완지는 쉼 잘 먹어.

103054 #2 들으썅 내불른 또 살아낭 또 붙어그네.

103054 #1 쉼출허레 탕이곡,

103054 #2 쉼출헤당 맥이곡 허멍,

103054 #1 이 저 으름에는 첨 쉼허고, 자연허곡 뵈이 싸움이우다게. 쉼출 으름에, 경해도,

103054 #2 검질만 매렌 허곡, 골갱이 어정 강,

103054 #1 검질 으름, 막 어린 때도 영 기억은, 그자 검질 매난 기억벧기 엇수다.

103054 #2 흑교 가지 말앙 검질 매렌,

103054 @ 검질 매는 거.

103054 #2 흑교 가지 말렌 헤서, 경 허멍,

103054 #1 저 어디에는 요 우리도 한질 우녀 저 췌이 강 큰 밧디 거 저 이젠 그 때 문중밧이엔허영 벌엇는디, 그때 허른 이제도 보는 그 밧이 커, 혼 천 멧헝이라, 그디서 헤노른 양, 그 으름에 그딘 주로 뵈냐허른 조허고 콩 갈앗는디 콩검질 매젠 허른 것도 덤긴허지 그 자갈은 무사 또 셔? 자갈 메웁헝 요 혼 고지 매 가젠헤도 으슴허여, 낮 전은 못 매어, 영 헤노른 첨 아까궤치 어머니덜은 저 멩에질 짓 들러 주곡 허른 게도 쉬왕,

103054 #2 어머니 뵈이엔 곱아, 재게 매라 즈낙이 식게 먹으레 갈 거엔허영, 경 그추룩 허멍 허연.

103054 @ 달래멍,

103054 #1 게면 달래어, 누구네 집이 식게난,

103054 #2 게난 그 땐 뵈이 불이 이서, 뵈이 셔? 그 땐 호야헤그네 허나네, 경 허멍,

103054 #1 이제랑 느네 재게 매사 식게침이 갈 거라이,

103054 #2 경, 그추룩 허난, 경 헤낫수다게.

103054 #1 경 허른 강 콩늬물도 먹곡, 잘 맛 조은 것도 먹영으네

103054 #2 식게 먹으레 갈 거여, 시에 산지에, 산지에 갈 거여 허멍, 산지포랑 어 디레, 불도 엇곡,

103054 #1 게난 우리 큰 형님네가 시에 살앗수다게. 시에 그 저 뵈 이 목공도 허 곡 허멍 살앗는디 꼭 여름에 식게가 셔 마씨. 게 이제도 칠월 초나흘날 제사가 신 디, 이게 큰어머니 돌아간 제사라마씨. 건 자식도 엇고 똥 하나 싯단 뵈 현디 아 그 때 허른 뚝 으름에 김막가허영 양 춤웨허고 그 식게 먹으레 강 허른 여기서 갈 땐 어떻 간 줄 알ampus가? 여기선 그 땐 버스가 잘 어시난 넘어가는 추력 어떻허영 탕 양 가곡,

103054 #2 도라꾸 추력이라. 도라꾸,

103054 #1 도라꾸이엔 허영 탕 가고, 그디 강 저 산지 살았는디 양, 산지 강 보
몬 아, 밤 이던 전기가 뭇 처레 모른디 전깃불이 밤이 강 보몬 베롱베롱베롱 흰히
싸진 것이, 야 이거 신기허다. 전기가 어서난디 게도, 겐디 우리 형님네도 윽 방이
살 멍 양 도둑질 행 전길 거 영 돈 안내젠 허영, 그디 영 전기 오몬 그디 영 딱 강
톡 걸영으네 방도 싸곡 허영, 건 돈을 안 낸 해낫수게. 걸 나도 알아전,

103055 @ 그 다음에 감저 수확 어떻습니까?

103055 #1 감제는 주로 쉼로 갈곡,

103055 @ 아 거난 수확할 때, 감젯줄을,

103055 #2 감젯줄을 막 허연,

103055 #1 줄을 비영, 줄 비영,

103055 @ 뭇로 비어서?

103055 #2 호미로게.

103055 #1 호미로 사름으로 골 처가멍

103055 @ 쟁기론 안 해 뽕디가? 감젯줄 허는 거.

103055 #1 쟁기로도 해도, 이디선 주로 호미로 두 고지에 하나씩 큰 밭더레 게,

103055 @ 둥그리멍,

103055 #1 감젯줄 비어나몬 애 먹주기. 작작 골 처 낵으네 나중에 둥그리멍 이것
도 다 비영 감젯줄은 또 쉼 잘 먹으난 잘 저장헛당 허는디 이거 낵엇당 이제,

103055 #2 예, 감젯줄허기가,

103055 @ 게난 감젯줄 비엇당으네,

103055 #2 시들어가몬,

103055 #1 비엇당 시들어가몬 한쪽더레 더러 밀어가멍 감젤 가는 거라.

103055 #2 감제 갈아가멍 그거 더러 읍더레 내쳐가멍,

103055 #1 쉼로 이제 주로 이디선 쉼로 가난, 감제 허몬 땃 사름씩 좇어,

103055 @ 감저 팔 때 이?

103055 #1 감제 팔 때 감제 주스레 오라 행, 영,

103055 #2 비는 것도 장만허영 흐를에도 못 비영, 메칠 비어사.

103055 #1 이디선 처음엔 뽕따기도 허고 헛단 그 후제 전분공장 나난 그거 이제
행 허몬 망사리허영 혼 망사리 얼마씩 허몬 망사리에 담안 이제 전분공장더레 식거
갓수다.

103055 #2 그디서 식그레 와. 그디 사름덜,

103055 @ 뽕데긴 안 해 보고?

103055 #2 뽕데긴 아니 허고,

103055 #1 처음엔 뽕따기 해 낵는디,

103055 #2 흐끔 해낵수다게.

103055 @ 돈 더 벌젠 허몬 게,

103055 #1 경 해도 이디선 주로 전분공장,

103055 #2 전문공장더레만 다 간, 잘 안 해놔수다.

103055 #1 거 날씨 좋곡 잘 행 물리울 디가 셔사주, 이디서 감저뺏다귀도 물리울 디가 어디 산담이나 게 아니믄 어디 늬우 산더레 널영 영 지치곡 허는디,

103055 @ 밧디 그냥 널믄 뒤주기?

103055 #2 아이, 질왓뒤불곡 양,

103055 #1 밧디 헛당 비 오믄 줍젠 헤도 경허고, 질왓, 옷드리 옷드리ㄴ썸 자갈 싰 밧이믄 몰라도 이디싰,

103055 #2 질왓덜 허곡,

103055 @ 흑 막 붙어불고,

103055 #2 예, 붙어불곡,

103055 #1 비 혼 번 맞으믄 범벅 뒤불어.

103055 #2 게난 아직꺼진 뺏데긴 아니 허연, 체암 흐끔 허단 공장 낮 져, 뺏데긴 체암 어디간 널어시냐허믄 바당에간 널엇주게. 바당에 테역 우티덜 더러 알동네 사 립덜 더러 널단,

103055 #1 므 저가넌 널언

103055 #2 저 가명 헨 널다네 공장 생겨가나네 공장 험젠 소문나나네,

103055 @ 여기도 이선게, 전문공장.

103055 #1 예. 다 그디덜.

103055 @ 이젠 치왓선게마는,

103055 #2 다 그디덜 간 폴아.

103055 @ 큰, 큰 전문공장이더라고,

103055 #1 크게 해놔수다.

103055 #2 크게 해놔수다마는.

103055 #1 이 근방에 부족허믄 막 저 동촌에 강 식거와, 감제덜. 감제덜 막 전문 공장이,

103055 #2 그레 폴안 뺏데기 아니 헤 받. 혼 번 헤밧자 범위가 헤꼬만허게 허고 게, 거 늘감저만 하영 폴앗수게.

103055 @ 게난 팔 때는 쉼로 팡?

103055 #2 예, 쉼로 갈앙

103055 #1 @ 갈앙으네.

103055 #2 손으로 줏어.

103055 #1 보통허믄 수늘어가명 허믄 쉼 들썸, 싯썸 혼 밧디 쟁기로 막 커노믄, 쉼 하나에 사름 줏는 사름이 싯, 싯은 버쳐, 너이나,

103055 #2 아니, 싯썸허믄 싯썸도 허고,

103055 #1 가명 막 읍더레 잡아 테껴가믄 한쪽에선 양, 또 그날 막 망사리에 담 아 가명,

103055 #2 망사리레 담아가명,

103055 #1 게다 보든 사름이 멧시영 셔도 다 필요허여.

103056 @ 그 다음에 저 감저 어떻 보관헉니까?

103056 #1 감제는 집이 먹을 거 왜에는 이디션 다 풀아불어. 게 메종 놀 거 허고 먹을 거는 놔 두는디, 처음에 감젯눌.

103056 #2 거세기 감제 땅 팡 그레 구덩이,

103056 @ 감젯 구덩이?

103056 #1 감젯구덩이 파,

103056 #2 감젯구덩이 팡그네

103056 #1 이제 것도 물 들른디, 비 왕 물 나쁜 안 돼고, 이딘 질흑باتي 하 노난,

103056 @ 썩어부니까게.

103056 #1 예, 썩 팡으네 하도 중이 헤가난 영 저 썩,

103056 @ 썩 철망 낱으네.

103056 #1 썩 철망허고 또 이 조집, 조집 아이허든 나룩젯은 물 탕 주든 비오든 안 돼난 조집으로 허영 영 휘 둘렁 철망허영 그레 아레 영 놓곡 또 우터레 영 무신 거 연통ㄱ썩 허영 우에 공기 나가게 경 행 문영 헤도 양 재수 좋으든 그것이 잘 살 곡 썩지 아이허곡, 게 안허든 썩는 디가 하우다게. 게든 그후젠 집마다 이젠 온돌방에 가멩이나 맥에 담곡 또 능금하꼬에 이제 영 행으네 그,

103056 #2 백장에 낱 나두곡,

103056 #1 백장에 다 허명 이 하꼬도 너무 이제 영성영성허든 신문지 영 노명 덜 들르게 허렌 게 허영 그레 즈근즈근 좋은 감제로만 낱당, 것이 겨울 양식도 허영 먹곡 혼 하꼬 들러내든 식구덜이여 청 감제행 먹고,

103056 #2 신문지도 셔? 공회당이강 흐끔 빌어왕으네 놓곡 경 해낱수다.

103057 @ 그 다음에 양 우리 여자 삼춘이 말 헉서. 그 감저로 뭇 헤 마씨. 감저로,

103057 #2 감제, 감제술도 허영 풀곡,

103057 @ 감제술 허영,

103057 #2 게 감제떡도 허영 먹곡, 감제술도 허영 풀아낱수다. 고소리허영 옛날,

103057 @ 게 이거 뽕데기 헤야 뉼 거 아이라.

103057 #2 뽕데기도 아니허곡 저 그냥 슬망도 헤 나서, 슬망 누룩에 허영, 우린 그거 허는 과정을 처음 잘 몰른디 할망네 허는 거 보든 감제술, 감제술, 감젤 무사 슬망수강? 허든 감제술헉 거 아이가게, 야이 저레 불이나 습아시라 허명 경 허명 허연, 감제술하고 감제떡, 감제떡허곡게 감제떡허든 귀신 아이 나온덴, 귀신 바려진 덴 감제떡을 옛날은 할망덜 경 헉다게. 윈 나도,

103057 @ 감저 침떡도 헤서양? 뽕데기 곱앙으네,

103057 #2 감제 침떡도 뽕데기 곱앙 감제 침떡도 허곡, 게난 감제떡허든 귀신 아이 나온덴 허명, 경 옛날 우리 할마니네 경 허연, 경 허고 감제술도 허고,

103057 @ 게난 먹을 거 어시난 경 곱아신테주.

103057 #2 게메 먹을 거 어시난 경 골아선게. 잇날은 먹을 거 엇곡 손지덜 오믄
 줄 거 엇곡 허나네 그추룩 골아실테주, 원. 게난,
 103057 @ 게난 이제 빼떼기도 허고
 103057 #2 뺑떼기 흐끔 허영 게 어디 브름 구덕이 낱 놔뒀다그네.
 103057 @ 겨울에 먹지 안허파 양? 처 그네,
 103057 #2 하영 안 해 나서.
 103057 #1 떡 먹을 땐 물 흐금 영 컷당, 컷도 들허게 무신 사카린 물이나 흐끔허
 영 영 컷영 뿌렁 놔두믄 들허여마씨.
 103057 @ 그거 창에 붓든 것이 맛 좋아, 창에,
 103057 #1 허허 창에, 하하하, 창에,
 103057 #2 하하하하하,
 103057 #1 수집쟁에 딱 붙은 거
 103057 @ 그거 떼영 먹는 것이,
 103057 #1 것이 맛 좋주기. 하하
 103057 #2 이제 사름덜 그런 거 먹음이랑 말앙, 게난,
 103057 @ 이젠 쉼 줘도 안 먹을거우다. 건강식으로덜,
 103057 #2 예, 경 허난 양,
 103057 #1 이제 건강식으로 먹주.
 103057 #2 아이고, 감제, 감제가 질 조은 거라낫는디,
 103057 #1 감젯 양 무정허여마씨. 왜냐믄 때만 게난 잘 물 맞추앙 싱금만 허믄
 감젠 웬만허믄 돼는디 대풍에도 뭐,
 103057 #2 밥에도 게 보리쌀로도 감저헤난, 감제 썰어놔, 밥에 느랑 허연,
 103057 #1 게메 좁쌀에 보리쌀에 무신 거 영,
 103057 #2 느랑 허연
 103057 #1 저 감제 썰어 놓곡 허믄 맛 좋주기. 밥 행, 모인 좁쌀허영 감제 썰어
 놓곡 허영,
 103057 #2 느랑 경 허연, 좁쌀,
 103057 @ 에이고, 그거 허민 감제만 파 먹엇주.
 103057 #1 하하하, 맛 조은 걸로 감제,
 103057 #2 아이 쌀은 흐끔만 놓고, 쌀 어시난 흐끔만 놓고,
 103057 @ 좁쌀 놔그네 감제 놔그네. 아이고,
 103057 #2 감제밥 행 먹고, 감제떡 허믄 귀신 아이 나온땡 우리 할마니 무사 경
 골암신곤 경 헤낫수다.
 103057 #1 감제떡은 올리믄 거멍허여.
 103057 #2 게난 귀신 아이 나온, 귀신 나온땡 허멍 경, 떡 허고, 감제 슬망 무신,
 103057 @ 빼떼기도 저거 비 맞으믄 거멍허주게.
 103057 #2 예, 게, 거멍허여. 거멍허여.

103057 @ 게난 이 감저떡도 거명헐 수 밖에 없어. 저 포도당입주, 포도당.
 103057 #1 예,
 103057 #2 이디 이젠 그런 거 먹는 것이 좋은 건디 양,
 103057 #1 건강식이우다게.
 103057 @ 건강식이라마씨.
 103057 #2 게난 먹지 아니허여,
 103057 @ 감저 막 비싸우다, 이젠.
 103057 #2 예, 막 비싸마씨.
 103057 @ 참, 요즘은 비싸고,
 103057 #1 전인 참 하영 싱거네 분무기도 타 나고 니아까도 타 나고, 감제떡,
 103057 #2 감제술이엔 허명, 우리 할마니 감제,
 103057 @ 감제술도 답아마씨?
 103057 #2 감제술도 허영 고소리에 허영, 어떻사 헤신디,
 103057 @ 게난 감제술도 허고.
 103057 #2 감제술도 허고, 감제떡도 허곡게,
 103057 @ 그 다음은,
 103057 #2 저 감제밥도 허영, 느량.
 103057 @ 감제밥도?
 103057 #1 밥에 썰어 낱으네,
 103057 #2 밥에 썰어낱도 허고, 감제술도 허여.
 103057 @ 우리 할마닌 느량 감제술에 보리에 어떻허연 헤나서. 보리 거 무신 보
 리 잇잔아. 꺼끌꺼끌헌,
 103057 #1 것보리,
 103057 #2 것보리로, 그 보리로 헤네, 감제영 허영 술 헤낫수다. 게른 정지에 강
 보른 정지 꿔팡더레 강보른 이만씩헌 거 술 냄새가 구싱허여그네, 윈 잇날은 중이
 사 들엄신디 뭇사 험신디 헤도 그거 거려다그네 할으버지 술이 좋아허는 우리 할으
 버지덜이라노난 느량 그 감제술 먹어. 감제허곡 것보리헝으네, 술 허영.
 103058 @ 감젓줄로는 뭘 험니까? 감젓줄,
 103058 #1 감제줄을 쉼, 쉼, 물리왓당 그건 아주 잘 보관헝 참 나룩썸에 뭐 이
 조집에 헝 늘어도 허곡 감젓줄은 이제 그 사이에 노멍 늘엇당 여기선 쉼 맥이는,
 103058 @ 잘 물리와야 헝 거 아니라 양.
 103058 #1 잘 물리와사.
 103058 @ 거 안 허민 썸어불어.
 103058 #1 게난 이제.
 103058 #2 썸어불른
 103058 #1 사이에,
 103058 #2 도새기,

103058 #1 노명 해야,

103058 #2 도새기 신디 통시레 놔 부렁게.

103058 #1 덜 몰, 덜 썩읍주게. 게난 덜 몰라, 이, 저, 조낭허고 감제허고 영 허
른 혼 도리 낱 놀 때, 혼 도리 노른, 조낭허곡 혼 도린 감제줄 농곡 영 행 놀영 헛
당 이제 빠 맥일 땀 거 썰멍 이진 양식으로도 막 감제, 쉼가 잘 먹으난, 썰멍 흠치
ㄱ썩 석영.

103058 #2 게난 싱싱해사게.

103058 #1 것도 별경허게 몰라사.

103058 #2 몰르지 아이허믄.

103058 #1 거멍허영 시들영 썩어노른 안 먹어,

103058 #2 도새기, 돛통더레 놔 붙어사. 돛통더레 낱 걸름웨영으네, 그거 허영 걸
름은 일년에 두번 도새기통에 꺼 내어나고.

103058 @ 에이, 그거 걸름은 잘 안 웨어. 그거그거 막 긴 거.

103058 #2 게믄 놔둘디 어시믄,

103058 @ 돛통에 노민,

103058 #1 걸름 내기도 굿곡,

103058 @ 걸름 낼 때 힘 들어.

103058 #1 그거 지각지각허멍,

103058 #2 걸름내기 굿어도 어드레 못 허난 그레 낱 놔두곡, 베끼디 걸름 현 딴
감젓줄 현 딴도 농곡 허멍, 으시대겨불고 어떻 해불언,

103058 @ 그 감젓줄이 정말 독해난 거라, 저 웨덜 거 저 밧 갈 땀 양, 그거 특별
음식이주게,

103058 #2 예, 혼 못 별경현 거,

103058 @ 감젓줄 해당 주민 쉼 잘 먹어.

103058 #2 밧 갈당 흐끔 쉼 때에,

103058 #1 감제줄 시든 거, 감젓줄 시들영 놔뒀당 갓다주믄 그건 침 잘 먹어, 쉼.

103058 #2 아이 쉼도 갈당 게 쉬는 시간에 흐끔 쉬영 허겐허영, 그 땀 감젓줄도
혼 못, 두어 못 갓당 어디 놔뒀당,

103058 @ 냉기는 것도 어서, 잘 먹어, 쉼덜.

103058 #2 예, 문짝 먹어마씨. 거 저 나룩집으로 묵영으네 헤 노른 문짝 먹어, 싱
상헌 것썩은 잘 먹곡.

103058 #1 별경케 잘 몰리와사. 뽕사노멍,

103058 @ 별경해얹주게.

103058 #2 아이고 게난, 그 작산 삼천평,

103058 @ 요즘은 사름덜도 이제 먹지 안 험니까? 감젓줄,

103058 #2 다 늘경, 늘경, 예, 늘 거 행 텡가리 맛 조아마씨. 텡가리.

103058 #1 예, 감젓텡가리 그거 영 이파리 따곡 또 거죽 뽕경으네,

103058 @ 거죽 뱃경으네,

103058 #1 물리왓당도,

103058 #2 맛 줍네다.

103058 #1 거 술망 물리우믄 고사리ㄱ찌 허곡, 고사리 담아, 경 행 먹곡 허는다.

103058 @ 계난 쉼 잘 먹으나네, 사름덜도 아 이거 우리 먹어도 뽕직허다 헤네,

103058 #1 건강식으로 이제,

103058 #2 감젓텡가리 이제 동문시장에도 폴아, 예고 게메 그자 썽 감제 삼천뽕 허멍, 계난,

103059 @ 그 다음에 감저 농사허멍 얹힌 추억, 다 못 곶은 거 혼 번 영,

103059 #2 다 못 곶은 거. 아이고,

103059 @ 곶아볶서.

103059 #1 감제를 하영 헤 난디 아 거 저 아버지가 그 사이에 몸이 좋지 아이헛 수다게. 늙은 혼 으든 아홉에 돌아갓는다, 아 계난 아버지는 감제는 막 한참 헐 땀 디 아 이제 거 아버진 임종을 허게 돼어도 아 감제를, 게면 영 보난 이제 돌아감신 가? 아니다. 감제 우선 감제 공장에 강 식어가라. 차는 막 대고,

103059 #2 식거가렌 곶안,

103059 #1 이제 허난 간 식어단 간 완 보난 아버진 돌아가부난 임종을 못 허고, 그것이 이제도 서운해마씨. 게도 땀 형들은 보고 다 헛는다 나만 우리 두 갓만 못 본거라.

103059 @ 감제 때문에 양,

103059 #1 감제때문에, 아 거 강 왕, 우선 뭐 허젠 간 완 보난 돌아가부런.

103059 #2 아 경 험디 경해도 서윌 섭섭헌 일이 서, 아버지가 이제 저디 살멍 그 땀 이발소도 엇고 머리 허난 이 아방이 성질이 개떡 담아마씨. 이 하르방, 개떡담으 난 성질깁을 허여, 하르방 이발을 헤 내어. 양, ㄱ세로 이발 허는다, 이발 헤 드렌 허난 조용허영 허믄 허주마는 똑 개떡ㄱ찌 막 할으방신디 대답을 허멍 머리를 각아서. 머리 이제 간 보난 난 아기 업곡 간 보난 영 이디 영 갈적삼 쳐 놓고 머리 각 암서. 그 머리 각안 올리지 아니허영 돌아가션 양, 계난 그것도 흥끔 아이고, 우리도 잘 헤져신가도 생각허고, 돌아가신 날 잘 못 봐부나네 잘 헤져신가 생각도 허고, 모든 것이 다 부모신디 잘 못 헨 것만, 섭섭합니다게. 계난 이 우리가 막 일 버치고 쉼 때문에 뭇 허곡, 무시거 허곡 허난 양 부모탓 것추록 성질이 개떡달마마씨. 바룩 바룩허고 경 헤노믄, 난 무사 경 험수강허믄 아버지따문 아이라이, 아이라 허멍도 나 보기 미안허영 헤도, 경 헤도 성질허멍 땀 형들은 좋긴 좋아도 게, 돌아갈 땀 보긴 본디, 머릴 ㄱ세로 각양 그루후에 메칠, 돌아가긴 돌아간, 그런 뭇이 셴.

103059 #1 경 허고 저 감젓줄은 아까 곧듯이 잘 물리와야 허는다, 요게 똑 그 때에는 물리당 허믄 다 물라갈 때 이제 비가 똑 오고 잘 읍니다게. 밤중이라고 강 허믄, 이거 이제 작산거,

103059 #2 삼천뽕이나네,

103059 #1 큰 양식인디 아 이거 밤에 비가 왁직허다허믄 그냥 막, 어떤 날은 그거 다 놀당 보믄 날이 불아불어. 경 허믄 빈 아이오곡, 그거 덕영 야 이거 잘 헤젓저허영 침 허곡 허느디. 이 그런 추억 저런 추억이,

103059 #2 겐디 감젓줄을 우린 아니헌디 감젓줄 문딱 저 가불영, 도둑덜 정, 양, 옛날은, 쉼 맥이쟁 들러간 사름네도 하 마씨.

103059 @ 감젓줄을,

103059 #2 예,

103059 #1 아이고, 여기서 거 문 밤이 양 지켜사,

103059 #2 밤이 문딱 저 왁젠 스몫, 경 헤부난, 밤이 밧디 가곡,

103059 #1 게 안허믄 이 저녁 저 감저, 들러감저 현 소리가 우리도 어떤 때, 저 으씩헌 밧은 문 일러부런.

103059 #2 쉼 맥이쟁, 쉼

103059 #1 어디 뭐 좇아집네깁게.

103059 #2 톱 ㄱ뽕 감젓줄덜이난,

103059 #1 그레 가져 강 지네 밧더레 놔 불믄 매깁주.

103059 #2 경 험젠 허영 소문 들으난 우린 일러불진 아이 헛수다마는, 경 행 밤이 지켜레 막 땡연, 동네사름덜 자꾸 경 곤곡 허연, 곶아노난,

기타 농사

103060 @ 그 다음에 감저 농사는 끝나고 양, 수박 농사 어떻습니깁? 하나만 물어부쿠다양 거난, 전체적으로 수박 농사에 대허영 혼 번 곶아봅서.

103060 #1 수박은 이 저 우선은 아무것도 거 주마는 땅이 중요허여. 이 질왓디 헤노믄 양, 이런 수박ㄱ뽕 것도 비 아이 왕 물 골르믄, 우선 썩어불믄 안 돼니까, 질왓은 이제 곶량을 잘 치곡 헤가지고 허느디, 게난 보통 여기서 수박도 허믄 신엄 수박 뭐 땅이 저 메물라마씨. 비와도 잘 안 골르곡 또 스며들어불곡 이렇게 행 물 잘 빠지고, 이런 밧디 수박은 또 호박 담은 거난 그렇게 헤야 그런 밧이 이제 맛도 좋고, 농사허느디, 이 질왓디는 좋질 아이허고 또 이 좇게 싱경도 안 돼고, 좇게 이 게 손 잘 봐야 허고 손 어떻게 땃냐허믄 거 딱 허믄 세 줄만 냉겨, 세 가달씩, 딱 석 줄만 냉기고 그걸 이제 가까운디 열 다섯 안네꺼는 타불어야, 요거 저 빨리 가까운 거 헛당은 이것이 나중에는 그거 하나로 허쟁허믄 뽕디 큰 것이 크질 못허여. 그거 다 영양 빨아먹어부런. 게난 텔 수 이시믄 열 다섯 마디 이상 돼영 타불곡 또 시 가달로 헤 가지고 처음엔 드물다 허영 영상헤야 수박이 드랑드랑허지 즈지믄 이거 양 줄 안 첫당은, 요즘은 저 호박에 붓진 거난 거 흐끈허믄 침 막 줄이 무성헛니다게.

103060 #2 접목 헤사마씨,

103060 #1 접목헌 거난,

103060 @ 접목 붓진 거구나.

103060 #2 예, 접 붓저사마씨.

103060 #1 접 붓저 이제,

103060 @ 호박씨에? 호박 난 것에,

103060 #1 예, 계난 호박도,

103060 #2 메종, 메종은, 다 낚사.

103060 #1 이디 호박이 아니고 접목 호박이 잇수다.

103060 @ 아,

103060 #1 것에 다 해당 붓저 허믄 아렌 호박이요, 우에는 수박입주게. 경 허난 이제 웬만이 걸름그든 거 너무 하영 놔도 이거 호박 종류난 양 낭만 무성해부러.

103060 @ 접 붓질 때 어떻? 거 수박, 수박 꼬뭇에 해야 헐 거 아이라.

103060 #1 접은 메종 해당 요즘은 영 삽접이엿 우이로 꺾는디 그전에 우리 헐 댜 호박메하고 수박메하고 호박메를 문제 놔, 낭이 좀 켜 허믄 그 다음에 혼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로 하이튼 일주일 전후는 놓니다게. 켜 그거 수박메 낫당으네 십 오일 네지 이십일 돼영 어느 정도 본일이 영 나왕 호박에, 아 수박에 영 허믄, 계난 이것도 호박을 너무 재게 키우믄 안 돼어. 억제시경 바짝 믋디가 줄르게 헛당 이제 거 믋디가 줄르믄 강헐 거아나우짱? 브룩브룩허믄 이제 우린 호접이엿 허영 이제 거 호박에 수박에 그췌 멧당 칼로 영 쑥 빼멍 마주 요렇게 각강 톡 디물믄 이것이 딱 붙들거 아니우파? 게믄 이제 거 크접이엿 허영 요만헌 거 톡 췌정으네 허믄 그 메종 싱그는 사름 또 가당 두 겔 그췌 영 싱거, 싱경 살아낭 좀 커가믄 또 저 어느 정도 켜 헤가믄 호박멘 저 이 독독 잘라볼곡 우인 이제 수박돼고 아렌 호박뵈주기.

103060 @ 그거도 막 심든거네예 양.

103060 #1 예, 경 헤 낱으네,

103060 #2 심듭니다.

103060 #1 밧디 싱거. 밧디도 혼 일메다 혼, 켜디 구십 보통 놓니다. 팔십 좇으믄 팔십, 계난 줄은,

103060 #2 이젠 막 일메타 싱검주.

103060 #1 줄을 좇게 허영 손을 잘 봐점직 허믄 혼 팔십전, 팔십센티 낱 수박 간 격을 하나에 뵈, 것도 밧 갈양 멀치를 헤사, 비닐 멀치, 비닐 멀치는 헤 낱 거 이제 거 딱 허게 줄 맞창 구멍 헛당 거기 딱딱 싱급주.

103060 #2 수박 종자 키움도 과정도 헝끔 힘, 꺾어마씨.

103060 #1 그것도 약도 잘 허곡,

103060 @ 약도 양,

103060 #1 메종을 잘 아이허믄,

103060 #2 온도 맞창,

103060 #1 온도 맞추곡 행,

103060 #2 전기 온상, 전기 온상허영,

103060 #1 전기 헝니다. 전인 우리도 처음에 실패헌 건 뵈냐허믄 그거 전기가 이

디 농업 전기가 안 들어났수다. 게난 여기서 허냐허믄 쉼똥 몰똥 좇어다 이거 이제 나룩찝 아까 현 나룩찝허고,

103060 #2 막 어디 으피 데멋당,

103060 #1 혼 징 혼 징 노멍 물 허멍 주젯경, 또 이거 그것만도 안 돼어, 누까에 이제 요소비료 조금씩 데껴노젠,

103060 #2 열나게 멘들 거, 열나게,

103060 #1 으라 징 낱 막 블라. 블랑 이제 놔똥당 어느 정도 썩는 열에 의행으네, 그걸로 이제 메종을 낫주.

103060 #2 열이, 열이 드똥해가믄 것더레 메종 놔.

103060 #1 흑을 이제,

103060 #2 흑 우이,

103060 #1 상토예 허영, 흑을 부그락허게 이제 썩은 흑 허나, 게 아이믄 이제 나중엔 종묘사에서 다 풀앗수다. 상토는,

103060 #2 건 막 후제, 그 후제게, 우린 헐 땀,

103060 #1 나중이고, 처음엔 이제 상토헐 땀 땀딱 흑을 이녁낭으로 허여. 썩은 걸름 행 석엇당 두번 시번 옆영 이제 막 젓영 딱 허게 놔 똥당 그걸로 거 이제 메종을 헉주게.

103060 #2 나룩찝영 누까영 낱, 쉼똥 주서당 놔두믄 거기가 드똥해가.

103060 #1 썩어가믄 드똥허멍.

103060 #2 게난 이까지끼, 막 일로 저 널르게 현 사름 하나가 혼 십메다 이상, 십메다? 뉘,

103060 #1 경 해도 본상이라고 해서 저 수박메허고 호박메하고, 젠디 호박메부터 몬제 놔, 갱 혼 삼일똥영 뽕족뽕족 호박이 남 시작허믄 이제 거 수박을 눅주게. 낱 행 이제 어느 정도 썩 영 똥 호박도 영 본입이 나오젠 조지락허믄 아이고 접목해야 겠다. 그 땀 해가지고 사름덜 빌영 양, 수눌멍 게 호접이엔 허영 아까식으로 영 허믄 지금은 삼접이엔 허영 갈랑 콧콧 질르는데 전이 우리는 호접이엔 허영,

103060 #2 우리 옛날은

103060 #1 저 거 메종 노믄 호박메하고 수박메를 ㄱ찌, 접목허는 사람 땀로 빈주릉게 앓곡, 또 이펜이 이제 메종 매는 사름허믄 메종 매영 다 주믄 우리 이제 접목허는 사름덜은 땀로 앓으멍 요거 입에 영 ㄱ쟁이 하나 물곡, 칼로 멘도칼 닳신 걸로 행, 아, 연필 각으는 칼, 그거 해야 잘 먹어, 저 멘도칼로, 쓱 각앙 콧 찍으멍 툭허게 껌정주믄 이쪽에선 뽕죽헤 노믄 또 싱그는 사름이 죽 싱거오멍 이제 또 온돌 잘 맞화사. 게 안허믄 이게 재게 커불던지, 또 온도가 떨어지믄 이게 곰팡이 들멍 썩어불고.

103060 #2 게난 나룩찝에 누까에 석은 건 땀똥해봤자 오래 가질 아니허여. 이제 ㄱ찌 전기ㄱ뜨믄 온도가 조정허멍 어떻게든디 그건 막 재게 식어불곡 허믄, 메종이 하난 크고 하난 죽고, 그추룩허멍,

103060 #1 게고 그르치는 일이 하곡 양,

103060 #2 그추록 누까에 현 거에 온도, 이제, 이제 사름덜은 전기로 메종을 허는디 그뻔 그추록,

103060 #1 요즘은 귀천몰르게 전기 허는디 전기 쌍포엔 짝 끌앙허든 뉘 온도도 일정허고,

103060 #2 예, 나룩찝, 나룩찝 막 행 놔뒀다그네, 나룩찝 물 적정 저당으네 거 눈 팡팡 오는 디, 나룩찝 강 물 적정 저와.

103060 #1 저 웃드리레 올라강으네 거 똥 좇어당 쉼똥 똥똥 좇어당 나룩찝에 헛당으네 그레 혼 징 혼 징 노멍 누까 흥끔 뿌리고 요소 쪼끔 뿌리곡 행 걸 멧 칭 이제 높일수록 열이 잘 나난. 경 행 막 불랑으네 잇당,

103060 #2 드똥해가든,

103060 #1 것이 열이 나기 시작행 혼 열흘 뉘가든 열이 납주게. 영 온도게 켜아 똥 어느 정도 열이 납다허든 그때 상토 준비헛당 썩 끌곡 그 메종을 놉주게. 나중 이 이거 재게 안 허든 또 열 식어불든 커지지 아니여.

103060 #2 커지지 아니허고 메종 그르쳐불어. 썩어불곡.

103060 #1 커지지 아이허곡허난 또 그추록 헤 노든 나중에 수박도 싱경 접목헤 노든, 그래도 온돌 맞추아야 헐 건디, 그거 위행도 메칠날 현다 허든 그걸 맞추앙 또 온상을 블라사 그디. 온상 블른텐 허는디, 불랑 그걸 맞창,

103060 #2 나룩찝 놓고, 쉼똥 놓고.

103060 #1 거를 맞춰사

103060 #2 누까 놓고,

103060 #1 그레 접목현 거 이제 거 쫓쟁이엿 그릇 담아, 요만현 거 포트 팝니다 게. 처음엔 포트 어시난, 우리도 양 비닐 주머니 영 행 끈영 흑 다 그저 한 쪽은 좇 불로 맥영 영 수에ㄴ찌 헐 거 아이우파? 똑 수에 담아. 게든 거 수에ㄴ찌 담앙 똑 똑 찢르멍 허멍 그레 싱경으네 다 맞디 가정가곡, 맞디 싱글뻔 영 칼로 족족 재멍 비닐은 빼뉘,

103060 #2 그추록 헛수다, 수박 경 현디, 우리 헐 뻔 그렇게.

103060 @ 게난 수박 농사도 힘든거네 양.

103060 #1 힘들어마씨. 갹.

103060 @ 먹긴 좋아도.

103060 #2 갹 허곡 그 수박도 손을 잘 봐사. 손을 잘 두루 보든 좇아불든 이놈으 것이, 수박은 커사 이제 상품가치가 신 거난 줄든 안 뉘어. 줄든 파치엿 허영 개끔 주난, 커야 하여튼,

103060 @ 수박은 양,

103060 #1 예, 커양 상품으로, 이거 멩 덩어리짜리, 멧 덩어리짜리 허든 준 거 허든 이진 반작으로 디물어불어.

103060 #2 이제덜은 하근 시설이 조양 쉽게들 험수게. 메종도,

103060 #1 이젠 양, 개인적으로 메종 자꾸 실패하고 허난 잘 안 놔마씨. 메종을 사당,
 103060 @ 예, 전문적으로,
 103060 #2 예, 메종을 딱 이 충청도 어디서,
 103060 #1 예, 메종은 또 전문적으로 허는 사람덜이 셔, 여기서도.
 103060 #2 사당으네,
 103060 @ 거난 나도 저 선생혈 때 저기 수산, 유원지 옆이 김상순씨,
 103060 #1 예,
 103060 #2 상순이 아지방 메날,
 103060 @ 거기 혜네 아 거 집이가시난 수박 묘종 오십개 주멍,
 103060 #2 아이고, 하영 쥐신게.
 103060 @ 앓아강 싱그렌. 게 싱것수게. 과수원 이신디, 그늘 진 딴 또 안 댜는 거데 저거.
 103060 #1 뱃이 발라야,
 103060 @ 아 경혜네 싱거신디, 계산이 앞선거라.
 103060 #2 계산이 앞선,
 103060 @ 묘종 하나에 수박 세 개 온텐, 거난 이제 오십개니까
 103060 #2 백오십개,
 103060 @ 백오십 덩어리가 나오며는 이것을 어떻 처단혈 건가.
 103060 #2 하하하하하,
 103060 @ 허단 보난, 허단 보난 나중에 가난 양, 보나네, 요 주먹만씩 현 거 두 개 이십디다, 두 개. 아이고.
 103060 #2 거난 아이웨어, 아이 웨어, 그늘 처부난마씨.
 103060 #1 거 양,
 103060 #2 그늘 처부런마씨.
 103060 @ 약도 안 허고.
 103060 #2 예, 약도 안 허고,
 103060 #1 잘 걸리고 약도 잘 허고,
 103060 #2 손 보는 과정도 못 허고게.
 103060 @ 그자 싱그민 올카부덴 헨,
 103060 #2 싱그민 올카부덴 허연.
 103060 #1 호박도 감 종류나 관틸 잘 헤사.
 103060 #2 관리 잘 허곡, 약도 잘 허고 헤사.
 103060 #1 경 허고 준 거 가까운 디 건 타불어사.
 103060 @ 음,
 103060 #2 건 타불겄 헨 게난,
 103060 #1 열 다섯 믋디 아레 건 타불어야지 그겄 그냥 들린 양 내불믄 나중에

저 쫓터레 가믄 준준헌 거.

103060 #2 기운이 그레 아이 간텐.

103060 #1 주먹만썩도 아니허여.

103060 #2 경허멍 계도 경,

103060 #1 아무 농사도 마찬가지로.

103060 @ 잘 들었수다. 쉬멍 양.

103061 @ 그 다음에 춤웨 농사는 어떻 험니까?

103061 #1 춤웨도 전인 춤웨를 그냥 집 아이 헤낫수다게. 밧디, 그냥 영 구텡이
짓멍 메종을 이제 거 씨 대여섯개씩 영 구텡이 부그락허게 짓으멍 무신 그땐 비니
루여 뭐 정도 엇고 처음 헐 땐 우리도 웨, 춤웨 헤낫주마는 구텡이 영 보그락허게
짓으므네 그레 씨 멧 방울 대여섯 방울 꼭꼭 찢렁,

103061 #2 밧을 간 말부터 헤사주. 아이고 참.

103061 #1 아 게 바짝 갈아야지. 갈와 낱,

103061 #2 쉼로 갈아낱,

103061 #1 이제 고지 잡기를

103061 #2 동그랑케.

103061 #1 골 청,

103061 @ 골 청 그 다음은?

103061 #1 흔 시 고지에 하나씩,

103061 @ 골아지는 대로 골믄 뛴는 디 마씨.

103061 #1 시 고지에 하나씩 영 골 갈앙 가운데 헤노믄 물 빠질 거 아이우파?
잘 빠지곡 그추룩 헤 낱 불치로 각 구텡이 헐 때는 영 흔 행 허믄, 이디서 불치 하
영 해당 그레 흔끔씩 흔 쯤팍씩 노멍 보그락허게 구텡이 짓어마씨.

103061 #2 씨 놀 디게, 씨 놀 디.

103061 #1 씨 놀 더레, 구텡이 짓멍 그레 보그락허게 헤 노믄 씨 나도 아메도 잘
클 거 아이우파? 불치 낱 석으곡 허믄 그디,

103061 #2 게난 구텡이마다 막,

103061 #1 불치, 이제 흔 쯤팍씩 그레 노멍 구텡이 헐 딴 다 보그락허게 헤 낱
씨 헤 노믄, 보통 영 동글락허게 헤 노믄, 영 굿멍 댓 방울 꼭꼭 찢렁,

103061 #2 쯤팍에, 쯤팍에 담앙 강 게 영 영,

103061 #1 씨 담으멍 경 허영 복작 나 노믄 이제 요것이 그 땐 농약 별로 엇고,
나 봐도 요거 무시거 잘 끈어먹던지 양 이제 헤블어 경 행 멍심행 이거 약 아니허
당 그 땐 약이엔헌 건 뭐,

103061 #2 무사게 디디, 디디티 간에

103061 #1 디디티 ㄱ를 무신 수건, 두건에나 영 쌍 ㄱ를이난 툽툽툽 막텡이 허멍
그 ㄱ를 털어질 거 아이우파.

103061 #2 디디티 행,

103061 #1 농약 버프리른 벌거지가 잘 안 먹어. 경 행 키왕 허곡, 요것이 이제
헝끔 커가든 속으우멍 거기서 나중에는 젤 나중엔 하나 좋은 걸로 냉경 다 뽑아불
고, 경 행 이제 허곡 현디, 이견 니 믋디텔 때 보통 이제 웨, 춤웨 하영 헤 나난, 춤
웨 잘 알아집주기. 갱 시 마디 니 마디에 길루갯다허든 이제 우 막아마씨. 혼 요 다
섯 마디쫘 뒤든,

103061 #2 순 나오게 똑똑 꺾엉,

103061 #1 똑똑 꺾엉 이제 텡이멍 다 꺾으곡 행 나두든 읍 가지가 나기 시작헐
거 아이우파? 게든 석 줄 하고 싶다허든, 이 처음엔 석 줄 행, 나중엔 좇게 현 사름
은 두 줄이 셔. 두 줄 딱 우 시 믋디 텔 딱 막아불든 두 가달만 남아. 이거 혼 오십
전 내지 육십 전 직전에 하나씩 헝주게, 좇게 두 가달로 현 사람은. 겐디 우린 보통
허든 팔십 전 내지 구십 전엔 헤마씨. 구십, 구십 쉰찌, 그 정도 영 낭 씨 허든 세
가달 영 버프렁 허든 이것도 다섯 아니 혼 으섯, 으덥쫘, 으덥 마디쫘 뒤든 또 올
막아마씨. 똑똑 막으든 이,

103061 @ 옆으로 나는 것도,

103061 #1 예, 순 짓은 날 거 아니우파? 아덜 순이엔 합니다. 으덥 개쫘 허든,

103061 @ 손지 순 나와야 허컨게마씨.

103061 #1 예, 손지 순 나든 이제 또 그걸 어떠냐허든, 가까운 디, 덩치 가까운
디 건 허든 이것이 장손이엔 허영, 잘 그레 메종 가불든 크지도 아이허곡, 경 가불
든, 요걸 또 두, 세 마디 보통 끈어불어마씨. 게든 영 빨리 하나허든 요만이 빌 거
아이우파? 안 올앙, 게든 그 사이에 허든 꼬트머리 가서 웨는 홀급네다게. 맛도 좋
곡 흑는다, 요것이 덩치 가까이 올라불든 꼬터레 간 건 영양분 못 빨아먹언 줄곡,
크지도 아이 허고, 올때는, 거 손보기에 달린 거, 춤웨는 손 잘 봐사, 하영 헛저 허
든, 거 어떻 손 봐 지젠, 영 행 이션,

103061 #2 손 하영 뵈젠 합니다.

103061 #1 손 잘 보젠허든 이거 곧 또 순 나가든 이거 믋디 막는데 장난이 아이
라마씨. 똑 게곡 해당 잘 손 안 봐 노든 버쳐노든 양, 그 사이에 또 비나 오곡 장마
정 헤노든 얼른 커불어. 게든 어느 거 어느 건 철 몰랑 범벅정 헤노문 양,

103061 #2 막 순이 막 와상 다 허영,

103061 #1 와상허든 나중엔 허다 버치든 막 호미로,

103061 #2 호미로 막 비어,

103061 #1 주작주작헌 거만 ㄱ령 내부든 수 맞기 어떻허여. 게고 또 약은 벌거지
먹영 갱 허당 보든, 제일 무서운 것이 거 저 흰ㄱ루병, 여기서 제 지쳤쟁허여. 어
거 제 지쳐부런, 춤웨. 잘 헤사커라, 제 지천.

103061 #2 그 집이 아이 뒤서, 갱 허멍,

103061 #1 우에 헤뜩헤뜩 헐 그냥 거 똑 제 올라, 똑 제 올든 것츄록헤 노든 그
건 허든 옛날 저 그 처음엔 약이 잘 어션, 예, 제 지쳤저허든 이디션 춤웨 밧딘 무
꾸럭, 무꾸럭 행 제를 지내서, 옛날은. 그거 행 허든 무꾸럭ㄱ찌 허든 춤웨가 잘 발

번으라 행, 무꾸럭해당 꼭 춤췄바t 가운데 강 이제 이 상돌 피와놓고 메 해곡 행 똑 무꾸럭행 강 제 지냉 해 낫수다, 우리도 어틸 때, 허허. 하도 아버지, 너 제 지내지 아이허믄 빙 걸리메. 잘 허여.

103061 #2 진 빙 경 아이걸려서 게난? 나 원 덜 빙 어떻산디 그 땐 병도 덜 헛 주게. 덜 허난게 경.

103061 #1 갱 제 지내낫는디 나중에 저 허믄 또 이것이 약 어스난 이제 송둥이 이라고 행 양, 이제 무신 거 잘 먹어마씨. 거 춤웨앗디 해노믄 그 때 약 어스난 에 춤웨왔디 송둥이 드리레 가사,

103061 @ 송둥이 하기는 허여.

103061 #1 예, 저, 이, 대왔디 대쩍으로 허영,

103061 #2 대쩍 해다 놔그네,

103061 @ 요만큼 헛 거.

103061 #2 영영 낱 거렁,

103061 #1 놀멍 거 뜯어먹어불어.

103061 @ 불그렁헛 거.

103061 #2 불그렁헛 거, 요몐이, 요몐이 헛 거.

103061 #1 송둥이. 송둥이 드리레 간다고 허영 그거 막 허믄, 그 순간은 놀아 나 불엇당 또 뒤에 앓으믄 곧 앓아먹영 매날 송둥이 드리레 강.

103061 #2 대 해다 낱으네.

103061 @ 거 묘종 하나에 춤웨 멧 개 정도 읍니까, 양?

103061 #1 게난 아까 곶앗지만 메종을 손을 잘 뺑 허믄 일고여덱 개 거 으는디 게 안허믄 으라 개 올라밧자 간절기ㄴ찌 해가지고 즐앙으네 이견 아무 가치가 어십 주게. 즐믄 저 풀지도 못허고 그냥 늣 쥐뽏뽏긴. 게난 흑게 허젠허믄 하영 들리지 말아, 대여섯만 들렁 혼 구땡이에, 경 허고 손 잘 보곡 약 잘 허믄 이게 이제.

103061 #2 그 땐 춤웨 씨도 경 잘 들리지 아이허는 거, 옛날 그 때는.

103061 #1 씨는 저 질 씨 헛 건 이저 일본 그 춘양 참웨엔 해가지고 이견 보믄 춘양 참웨엔 해도 일산이라마씨.

103061 #2 우리 잘 들리지도 아이허고.

103061 #1 그건 게도 맛도 좋곡 헛디 춘양 참웨는 별로 뭘 아가네여 무신 일름 이 으라 가지랏는디, 아가네 춤웬 영민이 아방네 허난.

103061 #2 원 맛 경, 민들락민들락헛 거.

103061 #1 보기가 좋아. 겐디 맛이 없어. 부그락헛 소게 웨엔 허영, 게고 또 옛날 은 그 웨가 팔모웨, 뭘 여러 가지 저 곶개비 웨, 여러 가지 신디 곶개비 웨는 어룩 어룩헛 게 곶개비 똑 등땡이, 거 웨가 이서.

103061 @ 그 웨가 잇수다.

103061 #1 또 팔모 웨엔 헛 건 영 니모지멍 헛디 이제는 영 익영, 익기 전이 타 는 디, 전인 우리 웨 탈 땐, 거 구땡이가 털어정 영 지냥으로 털어진 것이 합주게.

103061 @ 쉼쉴 춤췄도 잊지 안 허파? 쉼쉴 춤췄.

103061 #1 이디션 뭐 헐디.

103061 @ 가파도가 그 저 옛날, 옛날 양 가파도가 상당히 거 저,

103061 #1 예, 워 하영 해낫수다.

103061 @ 그 해낫젠 험니다. 가파도 춤췄, 그 때 그,

103061 #1 수랑수랑헐 게,

103061 @ 쉼쉴ㄴ췌 생긴 거.

103061 #1 어, 이디,

103061 @ 춤췄.

103061 #1 이딘 그런 건 어섯고.

103061 @ 어.

103061 #1 주로 헐 건 이디션 저 팔모 웨허고,

103061 @ 팔모웨.

103061 #1 또 굴개비 웨허고, 또 뭐 그외로 나중엔 해 가난 이제,

103061 @ 푼릿푼릿헐 거 양?

103061 #1 예, 거 푼릿푼릿허멍 거 맛도 좋아, 구싱헐 게.

103061 @ 요즘 허민 메론 담은 거.

103061 #1 푼 메론ㄴ췌 동골락허멍 넵작헐 거 싯곡 으라 가지 종류가 성.

103062 @ 예, 예. 거허고 이제 고치 농사는 어떻 험니까?

103062 #1 고치도 이제, 옛날은 헐디 요사이는 메종허고 전이허고 틀려.

103062 #2 하영 아이헐.

103062 #1 메종 게도 고치 메도 노른 아무 디도 밧을 잘 갈아야지만, 막 구텡이
 청 갈른 고치 메도 크른 이 저 시 가달 거린 ㄴ디가 이서. 그 아레 낀 다 홀터불어
 야지, 걸 요즘부터보른 어떤 사름덜은 걸 홀트지 아니허영 요렇게 푼,

103062 @ 내불영 양.

103062 #1 내불른 양 이게 싹 해노른 고치 얼마 크지도 아니허곡, 데락데락 올라
 밧자 쥔쥔헐 게 크질 아니허여. 갱 크게 허고 메종 좋게 허젠 허믄, 시 커리 아랫
 건 문딱 홀터불곡 갱 행 우이 것만 행 허믄,

103062 @ 도마토도 갱 헐 거 닙아, 양?

103062 #1 예, 도마토도 마찬가지로.

103062 @ 밑에 꺼 타 불어야 헐 거난.

103062 #1 이 젓순 잘 맞곡, 도마돈. 고치도 또 좀 순은 막아줘사.

103062 @ 농약도 하영 허지 양, 고치?

103062 #1 고치도 농약 쳐야 험니다, 게난.

103062 #2 고치도 게 이제 담지 아니허연 옛날엔 고치씨도 막 이상헐 것덜.

103062 @ 베랭이 하영 들어가지,

103062 #1 베랭이덕 하영 들언, 옛날.

103062 #1 약 안 치른 반작 베랭이라.

103062 #2 옛날은 어떻 옛날은.

103062 #1 고망 터지믄 이견 까치가 어시 풀,

103062 @ 우리 생각으론 매우나네 베랭이덜 안 들어가카부덴허는디.

103062 #2 아이고 막 한,

103062 #1 베랭이가 더 맛 좋게 먹어.

103062 #2 계난 집이 고치 농사 힘든덴 허멍 아니 잘 아니허여, 춤웨보단도 더 힘든덴. 우리 생각엔 거 메종 행 양 씨 낱 허주기, 똑똑 것도 허는디, 뽕직 현 디, 고치 농사, 예, 예, 고치 할망덜, 고치, 고치, 막 그거 문딱 먹어볼곡. 경 허멍 경 골 아낫수다. 헤 보질 아니허연.

103062 #1 고친 저 옛 근간에다 고치허멍 저기, 게고 물리우기 똑 장마철에 이눔 으 것이 헤노믄 타 놔도 문.

103063 @ 그 다음에 배추 농사 어떻 헛습니까?

103063 #1 배추는 양 우리도 배추를 하영 헤 낫수다. 전문 원래 배추 전문해난디 배추도 봄 배추가 잇고, 가을 배추가 잇고, 으름 배추 뒹, 절기마다 틀린 디, 봄 배추부터 말 허믄 요것이 이제 거 봄에도 속음 배추가 잇고, 또 절구 배추 양, 김치 배추가 셔. 계난 봄에 저 속음 배추 반작허젠 허믄, 절구 배추허젠, 메종을 놔서 싱 그는디 이제 이것도 온상 행으네 흑도 보그락허게 행 온도 맞창 싱거사. 이것이 양 온도가 온상에서 추워불믄 이것이 보통 십이도 영 거 온도계로, 십이도 알로 떨어 정 메종이 크믄 이것이 뒹 저 캐기 전이 추대 나불어. 저 뒹 헤불믄, 동지 대 상 올 라와불주. 계난 온도가 켈 중요헌 거, 온돌 맞아사, 배추는. 으름 낱 덜허지만 봄에 꺼 허고 겨울에 거는 온도 안 맞추믄 이것이 커가당 그냥 대 와불믄 다마도 안 앓 곡 뒹 헐 거 아니우파? 계난 이제 우리도 온도 딱 잘 맞창 헌덴 허영 첨.

103063 @ 하우스에서 경 허는 거 아니파예?

103063 #1 예, 하우스에도 허고,

103063 #1 하우스에도 경 허고 체암 메종 놀 때도, 나룩째허곡 저 쉼똥 좇어당으 네 허곡.

103063 @ 아니, 노지에, 노지에 그냥.

103063 #1 노지에 싱그는 거.

103063 #2 노지에 허는 것도, 노지에 허는 것도 저, 씨 줍아놔 허고, 그런 건 범 위가 족게 허고, 메종 논 건 하영 헤낫수다, 메종덜 낱. 배추가 동지 사지 아이허영, 헌덴 동지사믄 먹을 거 엇넌 허멍, 하영 행 누게 사례 와도 동지산 늑멸은 아이 사 커라, 아이 사커라, 그추룩 헤그네 갈아낫수다게. 메종을 자꾸 놔.

103063 @ 동지를 서지 말게 해야겠네, 예?

103063 #2 동지사지, 동지사는 거는 유채ㄱ든 거나 씨 받는 거 허주, 동질 사질 말아사.

103063 #1 첫째는 양 동지 안 사게 멩글젠 허믄,

103063 #2 멩글젠 허믄 온도를,
 103063 #1 온도를 잘 맞춰사.
 103063 #2 집을 딱시게 헤사. 무시거.
 103063 #1 전인 거 뭇뚱 좇어오곡. 무신 거 저 온상 멩글젠 허믄 나룩짹허곡.
 103063 #2 게난 나룩짹 하영 쳐 난.
 103063 #1 온상 거 틀 짜 낱, 낱으로.
 103063 #2 니기반득허게 딱 허영,
 103063 #1 나룩짹 낱, 그레 막 불르멍 행으네, 혼 칭 정도 일메다 정도 블라노믄,
 그거 썩어가믄 열 날 거 아이우파? 게믄 흑을 상톨 잘 멩심행 멩글앗당, 그레 헤
 낱 이제, 온도계 영 찢러보멍 뜨뜻허믄 이제, 그땀 메중씨를 뿌렁, 배추씨 뿌렁으네,
 103063 #2 배추씨 작작 뿌려 낱,
 103063 #1 덕영 잘 행 놔두믄 혼 사흘 똬가믄 납주게. 스십팔시간 원래 나느디
 혼 사흘 잡앙, 보통 이제 춤웨ㄴ튼 건 사흘, 나을 전이 나고, 쥔 재게 나는 게 배추
 우다. 영 뿌렁 ㅎㄲ만 온도 맞으믄 혼 이틀부턴 나기 시작허여. 이렇게 들렁 보믄.
 103063 #2 그냥 그거, 그냥, 그냥 사름덜은 뽕앙 밧디강 싱그믄 밭 어신 거난 죽
 어불영마씨. 밭이 게난 또 뽕앙 우리 저 무시거영 차롱착에 영,
 103063 #1 포포, 포토 내렁,
 103063 #2 싱것당으네 들렁강 싱그지 아이허믄 그냥 사름덜은 뽕아당 인력 엇곡
 뽕아당 밧디 싱그믄 죽어불어.
 103063 #1 그걸 상토를 잘 멩글앙 헛당 이디서 수에ㄴ찌 막 담아,
 103063 #2 김치 ㄴ멸 잎 나오게, 김치 ㄴ멸.
 103063 #1 툃툃 짤랑 이제 거 허곡 또 봄에 거는 거 짤라노믄 흑이 움직이지 곳
 이난 빠저불어. 게난 그걸 좇불에 양, 영 불 싸낱 졸앙 낱당,
 103063 #2 비니루 이만이 헛 거.
 103063 #1 막 거 감아진 것덜이 십니다. 폴아당 허믄, 그 훌근 거, 죽은 거 허믄
 어느 정도 헛 거, 혼 십센치가 가장 맞아, 그거 헤당으네 이 저 좇불에 다 십센치
 요만큼씩 짤랑 갱 이제 좇불에 다 녹영 놔 똬당,
 103063 #2 혼 만 본 헤사,
 103063 #1 이제 또 저 그걸 막,
 103063 #2 만 본도 하지 아니허여 마씨.
 103063 #1 우리도 담기 바쁘난 아이덜 빌영 하나에 얼마씩 돈 주믄,
 103063 #2 일원씩, 십원씩 주곡 헤나시난.
 103063 #1 막 담앙 콘테나에 혼 콘테나에 얼마 허믄 돈 주멍,
 103063 #2 콘테나 네 개 영 찰리에도 농곡 허멍 헛 마씨. 헤 낫수다.
 103063 #1 경 헤 낱 담앙 허믄 메,
 103063 #2 혼 멧칠,
 103063 #1 메중을 낱 툃 쪽에서 허믄, 흑을 또 그디도 멩글랑사허여.

103063 #2 따뜻하게 땡글아사.

103063 #1 온상에, 갹 그레 앓정으네 싱급주게. 가식이라고,

103063 @ 쉬운 농사가 어서.

103063 #2 게난 그 땡 머리뺏덜을 못 썬부난 경 헛주기게.

103063 @ 아니우다게.

103063 #2 그 때는,

103063 #1 그 땡 뒹 저,

103063 #2 머리뺏을 못 썬부난.

103063 @ 우리 동네는 그런 거 포토 만드는 것도 몰르고.

103063 #1 몰라실거우다, 그 때는.

103063 @ 우린 퍼데기, 퍼데기 느덜,

103063 #2 배추는 질 일등, 제주도에서 땡 번 아이가 낫수다.

103063 #1 스방이서 우리도 배추 허른 저 김이완이 배추엔 허른 동문시장이 강,

103063 #2 동문시장에 가른 이디 다 알아.

103063 #1 이제 침 옛날은 경 헤 낫수다게. 봄 배추 잘 헌텐 허영. 그건 뉘냐 허른 온도를 잘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마써, 제일 문제는.

103063 #2 게난 그거 배추 풀안 이제 밧도 사고 이제 아기덜 공부도 시기고, 막 헛수다.

103063 #1 우리는 다른 거 보단도 배추,

103063 #2 질 쉬와마써.

103063 #1 풀른 아 그것을, 우리가 살앗수다. 게난 또 더러 못 폰 거는 장에 오일장 저,

103063 #2 오일장, 제주차보 장에,

103063 #1 제주 차보에도 가곡, 하귀장 여기선 양, 애월장, 외도장, 다 뵈수다게. 그 때는 뉘 저 질도 나쁜곡 허난, 무신 니아까가 처음엔 섯수가? 니아까도 어디 물건 장시 꺼 빌어당 장에,

103063 #2 흔 번 빌어당, 빌어당.

103063 #1 안 갈 때 흔 번 식어당으네, 허켁 허영, 흔 동네 하나 둘 니아까가 셔 낫수다.

103063 @ 거 꺾어갓구나.

103063 #1 꺾어갓주기. 어떻 배추 캣당 정, 처음엔 정 간디 맥에, 정 가른 얼마 정 가집니까? 풀양 그거 애월장까지 정 가봅서.

103063 #2 애월장 정 가난 흔 번은 못 풀아네 이제 풀아사 무시거 백원 쥬 상 먹고, 시장허나네 헌디, 못 폰나네 우리 그냥도 와 낫수다게.

103063 #1 게난 오일 장 간 디 시에 장이 주로 이제 건,

103063 #2 제주차보 셔 낫수다.

103063 #1 차 빌영 이 저 제주차보엔 허영 서문로타리허른 우트레 올라간 디 영,

그 땐 집이 얼마 어선 양, 질레에 장을 서서. 게니까 그기 해당 미리 아시날 가사
장 찻지허난, 이 차 추럭 빌영,

103063 #2 추럭이라 경운기 산디,

103063 #1 아, 경운기도 해 나고, 처음엔 경운기로 허난,

103063 #2 경운기로 허연.

103063 #1 이제 거 눅 빌연 경운기 식언 거 간 밤이 간 편 딱 허게 헨 뒷날 장
에 허젠, 거 날이 좋아야허는디 뒷날 아침 장이 보젠 허니까 비가 닥닥 와 간다 말
이여. 아 거 뭐 덕을 것도 엇고, 거 비와 노른 어디 내볼 거 아이우파? 이 해 볼 내
기 어시, 막 거 시에 사름덜토, 이제도 기억나져, 하나에 혼 포기에 오완, 오완 허난
양,

103063 #2 곧 돌아집디다.

103063 #1 누게 사간 처리 모르게,

103063 #2 열메사 받아져신지. 막 오완, 오완 허난 확 풀안.

103063 #1 막 그레 들영 사 가는 거라. 게난 이제 혼 어이에 풀고. 우리영 ㄱ찌
식거간 사름은 어떠냐른 십원 풀 켜, 이십원 풀켜 허니까,

103063 #2 못 풀안.

103063 #1 못 풀안, 이제 뒷 날 또 덕엇단 애월장ㄱ지 문 간 운임 들이멍 풀고.

103063 #2 그 사름은 풀앗젠 해도 우리 오완 오완 허난 만 오천원 받안에게. 만
오천원 받안에,

103063 #1 만 오천원 아니라게.

103063 #2 천 오백원.

103063 #1 천 오백원인가 받안 그 때 게난 저 어떠냐허른 경운기 샀 천오백원
줘 불고,

103063 #2 맞아, 경 해부난.

103063 #1 뭐 그저 그 날 간 밥 사먹고 허다보난 돈 천원도 안 남안 해낫수다마
는 그런 추억도 있고.

103063 #2 경 헨 경 해도.

103063 #1 어떠튼 우린 배추따문 하영 살앗수다. 예, 배추.

103063 #2 배추따문에 돈 벌언 흑교도 시기고,

103063 @ 맞수다.

103063 #2 국민학교도 체암 시겨가고, 아무것도 어시 침, 잇날 살아가다네.

103064 @ 그 다음에 늑삐 농사는 어떻 험니까?

103064 #1 늑뵐 주로 먹을 것만 허고, ㄱ을 들영 영 허른, 늑삐는 이제 혼 쪽더
레,

103064 @ 농사 안 지어도 대충 아는 대로.

103064 #2 먹을 걸로 게, 먹을 것덜은 헛수다.

103064 #1 먹을 건 허고 또 이,

103064 #2 백퐁씩, 헤끔씩.
 103064 #1 밧 갈앙허믄, 늣뻘도 고지로, 고지로 툏툏툏 허멍,
 103064 #2 만긴 질 쉬와마씨.
 103064 #1 씨, 씨만 질룽 허믄, 늣뻘는 저 약만 잘 허고, 약은 아무것도 몬 먹어
 불믄, 먹기 전이,
 103064 #2 아니 저 디디티, 디디티 빼엇주.
 103064 #1 이 저 메종 구텡이 툏툏툏 씨 질루믄, 이 막텡이에 두건ㄱ뜬 거 감앙,
 툏툏툏 치멍, ㄱ를이 싹 허믄 이제,
 103064 #2 디디틴 아무것도 아이라도, 그자 건식으로 허긴 헨.
 103064 #1 헤 낫주게.
 103064 #2 겐 두 개 현 거 하나씩 뵙앙 하나씩만 냉겨.
 103064 #1 자꾸 슈으멍 헹
 103064 #2 슈으멍 헹.
 103064 #1 나중예 하나만 냉기고, 거리운 것도 매 불고, 영 거리운 거.
 103064 #2 경 헹 허믄,
 103064 #1 가치가 없어.
 103064 #2 하귀장이 애월장이 그자 두어 메씩 폴아난, 하영 건 아이 헤 나고. 두
 어 메씩 흐끔씩 헹 강 폴믄 게, 십원도 반곡 칠원도 반곡 허멍 헤낫수다게.
 103064 @ 게난 요거 농산 안 지어나도 이 들은 거 헹으네 영 말허믄 웹니다.
 103064 #2 들은 거 아이고, 우리 늣뻘, 우리 하영 안 허연, 두어 번 폴렌 땡여낫
 주게, 서너 번. 맥으로 전으네. 간 폴기도 폴안.
 103064 #1 무사게 경도 허고 지금 늣뻘 농사덜 하영 현 사름덜은,
 103064 #2 그후제덜은 막 하영 허연.
 103064 #1 이제 밧 갈앙 것도 당신도 자꾸 늣뻘 씨,
 103064 #2 나도 늣뻘 농사,
 103064 #1 노래 가 나저 아니헨.
 103064 #2 허레 일허레 가 나저, 저 신업이영, 어음이영, 봉성도 가난.
 103064 #1 그레 허믄 이제 툏 이것도 윗구쟁이ㄱ찌 양 건 매 고지마다 허여, 매
 고지마다, 고지 이렁예 이렁예 곧 갈믄 이렁예 툏툏툏 그 저,
 103064 #2 매 고지마다 굴갱이 즈룩 흔 허영 딱.
 103064 #1 흔 허영 씨 노멍,
 103064 #2 굴갱이 영 노믄 그레 툏 허게 농곡.
 103064 #1 겐 나믄 이것도 슈앙으네, 나중예는 가리웨기 다 매 불고, 겐 이제 하
 나씩만 존 걸로 냉것당 허믄 , 이것이 약만 잘 허경, 얼른 커 마씨.
 103064 #2 게난 무우가 쥔 쉽넌 헵니다. 우리도 강 무우 작업허레도 간, 돈 벌레
 도 가고 헛는디,
 103064 #1 저 그 단무지허는 거는 이런 디 하영,

103064 #2 계난 그것도 종잘 잘 택해사 해산텐. 무우를 양 종자를 잘 택행, 옛날 우리것추록 그자,

103064 #1 종자 조은 거 아이허믄 요것이 양,

103064 #2 종자 잘 해사 단무지 공장에 가곡.

103064 #1 잘 안 크고 그냥 영 거레기 돼멍, 토종거찌 내려앗앙 무지럭캥이 돼믄,

103064 @ 샷기 차 불믄,

103064 #1 예, 샷기 차고, 수랑수랑허게 허게 이게 씨가 좋아사.

103064 #2 계난 옛날은 땅 알려레 늠뻔 들엿주마는 이제는 영 우터레 질뤄사.

103064 #1 땅 우터레 질루아사.

103064 @ 늠뻔도 종류 잊지 아니허팡, 양. 단지 늠뻔여, 무신 늠뻔여.

103064 #1 이제 저 무신, 저 뭐.

103064 #2 늠뻔 종륜 무신 저, 무신 늠뻔게. 청대, 청대 무우허고, 무시거 저 나원 잊어불엇저, 건. 무시거 거 단무지허는 늠뻔, 뭇이엔 골아라마는, 나도. 청대 늠뻔 알아지고.

103064 #1 건 저 대가리가 영 퍼렁케 행, 현 거고.

103064 #2 청대 늠뻔 대가리가 영 허고 ㄴ늘아. 늠뻔가 ㄴ늘아. 이제 ㄴ추록 솔지 질 아니허여. 이제 그 단무지허는 늠뻔는 솔지가 슬정으네.

103065 다음에는 지실 농사, 어떻 험니까?

103065 #1 지실은 별로 아이 해반. 지슬 이제 거 진흥원에서 이디션 양 땅이 질 왓이라노난, 지슬이 옷드리ㄴ찌 북삭북삭 흑이 돼어야 지슬이 잘 돼는디, 이제 춤질 왓 돼어노난 잘 안뵈주게.

103065 #2 잘 아이돼어.

103065 #1 우리도 요 쪼금 한질 우터레 올라간 작쟁이엔 현디.

103065 #2 그까짓거 현 이백평 해나시난.

103065 #1 간 이제, 무시거 이백평이라? 거 칠백평짜리 무사 메종허영 하영 들어사 가멍, 게 그거 지슬 농사 질 조은 거엔 허연, 진흥, 지도소에서 일본씨엔 이제 알썬헨 우리 구해단 지슬도 이제 감제 허듯이 보통건 현 두 고지 합청, 고지가 좀 넘게, 쉼로 같아도 둥긋허게 같아야 이게, 이제 구텡이 짓는 것도 좋아마씨. 계난 어느 정도 영 구텡이 짓으멍 그것이 이제 큰 거는 두 개에 끈곡, 어떤 건 이제 너 무 크믄 시 개에 벌르멍, 또 그것도 헤 지믄 불치ㄴ쁜 거 구텡이에 놔 지믄 좋고, 못 헤도 구텡이 영 동끄락 올리멍 해야 감제거찌 들겅주게.

103065 #2 겐디 것도 씨를, 씨가 잘 택해사.

103065 #1 씨 잘못허믄 요건 양,

103065 #2 밧도 잘 뜯곡, 지슬 노는 밧은 밧을 잘 선택허영 험니다. 아무 밧이나 아니 허영.

103065 @ 자갈밧은 안 돼고, 이.

103065 #1 자갈 너무 하믄 또 이게,
 103065 #2 지슬맞은,
 103065 @ 명쿠쟁이 정.
 103065 #1 지슬이 곱질 아네. 자갈 하믄 크지 아니허여.
 103065 #2 아이 계난, 어.
 103065 @ 명쿠쟁이 달망.
 103065 #2 복닥허영 민들락허질 아니허영. 자갈 현 건, 계난 지슬 놓는 맞은 우리 오레 전이도 지슬 하영 험니다마는, 이저 밧 골렐 아무나 못 험니다. 경 골아.
 103065 #1 지슬은 좋아사, 흑이 좋아사.
 103065 #2 메칠 시믄 지슬 노래, 지슬씨 봐 줍센허영, 이게 강, 갈 거.
 103066 @ 피 농사 저 뽕디강?
 103066 #1 여기서 피 안 헤. 어디여서 안 허냐 허믄 피 헤나믄 그 밧, 논에, 뭐 다음 농사를 안 돼어. 피가 이거 혼 번 씨 헤노믄 끈질 못 허여. 계난 이 스방에선 나가 알기론 피 현 딴 베려보질 못 헤서.
 103066 @ 응.
 103066 #1 피농산.
 103066 #2 피농산 안 허연, 몰라.
 103067 @ 그 다음에 믱덜 농사는 어떻 험니까? 믱덜.
 103067 #1 믱덜도 주로 이디, 이디선 믱덜 허진 아이헛는디 저 장전 우터레 가믄 믱덜 농사 이제 그 쪽도 거의가 목장에, 목장 익인 디강 믱덜을 허는디.
 103067 @ 언제 씨 뿌려? 그건.
 103067 #2 뭐 언제사 뿌리는지, 믱덜, 시월 낭 허는거라?
 103067 @ 저 가을에 꽃 피주게.
 103067 #1 예, 가을에 꽃 피는 디 것도 상강, 상강 압뵈, 것이 크기 시작허믄 혼 들만이 꽃을 피난, 상강 톱 기준헤 가지고 혼 들 전에 씨를 뿌려야헤. 겐 농사엔 현 건 이제 상강 뭐 무슨 이런 소서, 유월절, 아 이런 절기체로 허지 안험수강?
 103067 #2 잇날은 그런, 그거.
 103067 #1 계난 상강 전이 혼 들 전이 허지 아니허믄 그 시기가 재게 얼어붙믄 안 돼고, 또 너무 늦어도 안 돼고 허난 절기를 잘 맞추앙 그 때 행, 믱덜을 주로, 이디선 믱덜 농사는 별로 현 사름도 엇곡 허질 못 허여마씨. 땅이 맞지 아니허영.
 103067 #2 이 우터레 믱덜 허는 디, 장전더레 믱덜 허는 디 십니다.
 103067 #1 우터레 올라가믄 믱덜덜 허여.
 103067 @ 웃드르에,
 103067 #2 문딱 새 먹어,
 103067 @ 보통 웃드르에 허는 겁주.
 103067 #2 웃드리도 문딱 새 먹어불곡.
 103067 @ 웃드르 허민 저 산디나 늑덜.

103067 #1 산디나 늑빠나,
 103067 #2 아이 늑빠 이레도 하영, 이젠 늑빠덜토 허영.
 103067 @ 늑빠 저 어디,
 103067 #1 웃드르에 많이 허여.
 103067 @ 표선리 쪽더레 하영 허는 딴디다. 그 웃드르레.
 103067 #1 예, 몬 늑빠.
 103067 @ 예, 거 저 시흥리, 그 우에.
 103067 #2 밧덜이 그렌 널르곡 게.
 103067 #1 널르곡 흑이 조읍주게.
 103067 #2 고산더레 그 저 어디.
 103067 #1 질허지 아니허영.
 103067 @ 아이고 건 디 밧은 애월이 최고 좋은 밧이우다.
 103067 #1 예, 흑은 뭐 헌디, 너무 질흑전.
 103067 #2 혼나라도 애월허고 이디 뜯나고, 밧이 막 뜯나. 고내도 밧 좋텐허여.
 저 경 헌디 땅이 크지 아니허영 헤도.
 103067 @ 게난 믱덜 농산 안 저 보고 양?
 103067 #2 안 헤 밧수다게.
 103068 @ 담배 농사 저 밧디강?
 103068 #1 예, 담뵤 좀 헛는디, 담배도,
 103068 #2 아바지, 아바지 살 때.
 103068 #1 이제 거 메종 낫당 담배 씨허든 거, 담배 씨허든 거 회사가 싹수다게.
 게든 거기서 메종을, 이제 종자를 메종이 아니고, 종자를 줘 마씨. 막 담배 싹 오직
 줍질지 아이허파? 담배씨ㄴ찌 줍질텐허여. 줍쓸보단도 더 줍질아. 게든 그걸 이제
 것도 이 저 춘분 전에, 아, 그건 좀 추워도 돼난 이월 경칩만 나든, 이월들 나든 경
 칩아니우팡? 이월, 이월달 춘분 전에 경칩허곡 춘분 사이에 그 사이에 늑주게. 메
 종, 언제 영 노든. 요것도 이제 흑 행 메종 헤노든 요것이 담배도 헤난 밧은 안 웨
 어, 요거. 똑 인삼ㄴ찌 헤 가지고 담배도 아이 헤난 밧은 허고, 메종도 헤난 밧은
 허든 굴라앗으멍 돼질 아니허여.
 103068 #2 우리 아바님 헐 때 봐 나난.
 103068 #1 경 행 허든 담배도 요거 두 고지 합청 메종 어느 정도 혼 다섯 잎 정
 도, 너이 다섯 잎 정도 돼든 혼 이제,
 103068 #2 막 좇게 싱거낫수다, 아버지 헐 때.
 103068 #1 삼십센치에 혼나씩인가 싱거. 게 너무 좇으든 이파리가 이제 그 줄곡
 허난 마주 영 허멍 그 두 줄로 허멍, 마주 여기 허든 혼 두 고량, 니 고량 행 허든
 이디 접청 싱급주게.
 103068 #2 집 즈갯디 아버지 헤난.
 103068 #1 경 행 허곡 또 쓰러점직허든 영 줄 매영 대로 이렇게 양 쪽 박앙으네,

이 셋기줄로 이렇게 행으네 넘어지지 못 허게.

103068 #2 담배 툃다나몬 손 진닥진닥허영.

103068 #1 경 행 이제 어느 정도 커 노몬 담배 툃읍주게, 툃앙 침 그후로 담배 툃으레 가곡 험저 허몬, 요놈으 것이 더 으름에 헤 노난 세백이 툃다야허여, 담배를. 담배 툃앙 헤노몬 이진 맥에 담아당 정 허몬 더우니까 폭낭 알 ㄴ쁜 디 강 담배덜 막 옥아, 거는.

103068 #2 나룩줍 엇다앙. 나룩줍 엇다당 옥아.

103068 #1 ㄴ람지 옥듯이 옥으멍 빈주룽케 허멍, 이 집이영 처마ㄴ쁜 디영 돌아매멍, 그 때도 침 집마다 담배 물리운 게.

103068 @ 그늘에서 물려야지 양?

103068 #1 예, 반 그늘 저.

103068 #2 그 때 게 초가집이영.

103068 #1 반 그늘 지몬 웨어마씨.

103068 #2 초가집 그늘에 게. 거 혼 스무개씩 묵영.

103068 #1 갱 돌아매영.

103068 #2 돌아매난 우린 잘 몰라.

103068 #1 요놈으 것이,

103068 #2 아버지 허는 것만 반, 시아버지 헐 때 환 허는 거.

103068 #1 비 맞으몬 요것도 상품이 아이웨어. 색깔이 나쁜. 담배는 색깔이 좋아야. 첫째 냄새도 허주마는, 담배 앓다 이거 담배 색깔 좋다. 건 어떠냐몬 빌 안 맞치고 또 이 읍지에 반 그늘진 디 행 물리와사. 게몬 나중에 이거 접 짓영, 접 짓는다고 행 영 담배 행 묵영 헤노몬, 무신 영 담배 묵으는 기계가 잇수다. ㄴ짱케 허영 허몬 이제 잘 묵어사, 상품 까치 싯쟁허몬. 게 행 가몬 이것도 전매청에서 받으난 아 이거 좋으몬 시세 낭 이것도 돈 받곡, 나쁘몬 에이 하등벧기 안 웨어, 상등, 중등, 상등이엔 헉디다게. 상등 갑 반앙 좋아. 돈 하영 받아서 허고.

103068 #2 아바지 부름씨만 헤 나난.

103068 #1 게몬 삼백평에 얼마냐허몬 이제 거 나머지덜은 준 거 툃아당 담배 피우고 그 때. 게몬 낭엿 것덜도 담배낭 헤 나몬 동네사름덜 왕 담배 거 툃앙 이파리는 썰영 이제 엽초 물리왕 피우곡 허멍. 그런 면은 이섯수다게. 담배는 잘 헤야 아무 농사도 저 담배 거.

103068 #2 아버지 허는 것만 우리 ㄴ찌 헐. ㄴ찌 헤 낫수다게.

103068 #1 ㄴ찌 심부름은 늘 그거 헤 나난.

103068 #2 이녁낭으로 직접 우린 아니 헤보고.

103069 @ 그 다음에 멘네, 멘네 농사.

103069 #2 에이, 멘네 농산 이렌 뭐.

103069 #1 자 멘네도 우리 저 아버니네 헐 땐,

103069 @ 혼 번 곱아봅서.

103069 #1 멘네는 허믈 이제 거 멘네 어떻헌츄록은 몰르고, 어린 때 그 때 허난 멘네 타렌 갓수다. 타레 간 허믈 ㄱ을 들어 강 춘 바람이 나기 시작허믈 요놈으 것이 이제 막 동짓덜 나도록 멘네는 쫓니다게. 피영 헤 노믈 이거 이제 영 무신 앞치 마 담은 거 허영 툇앙 멘네 툇툇 담으믈 짹짹 벌어져마씨. 메중 벌어지지 아이허영 뉘 헛 거는 탕 먹기도 허곡 헤 가믈. 멘네 딱레기. 멘네 딱레기엔 허영 먹곡. 맛 좋아.

103069 #2 게만 막 무신 거 먹어불어.

103069 @ 멘네 딱레기 맛 좋아마씨.

103069 #1 맛 좋곡 헛 디 걸 멘넬 허믈 이제 영 탕 헤 노믈, 이디서 물레가 잇수 다, 물레. 물레 영 들르믈 이렇게 딱 무신 그 보리낭 담은 걸로 ㄴ실 게 헤노믈, 그 거 영영 발라가믈 씨는 털어지고, 요것이 이제 씨만 발르는 겹주게.

103069 #2 것도 물리와사, 멘네 툇아당.

103069 #1 잘 물리왕.

103069 @ 거난 멘네 타당으네 거기서 멘네 숨 뽑앗수가? 아이 게, 타당으네 집 이 왕?

103069 #1 집이 왕 물리와. 잘 물리우지 아이허믈 씨 잘 안 털어져마씨.

103069 #2 무사 집, 밧디서 뽑앗주기.

103069 #1 어디서 밧디 무사 멘네 저당?

103069 @ 아이 거 한걸헛 사름덜은 밧디서 뽑앗고.

103069 #1 아이.

103069 #2 ㄴ 불려부럼젠 허믈.

103069 @ 바쁜 사름덜은 집이 왕으네 밤이, 밤이 뽑앗어.

103069 #1 예, 맥에 정 왕.

103069 #2 방앗간 할망도 경 집이서, 집이서 허긴 헤 낫수다.

103069 @ 한걸헛 사름덜은, 한걸허게 밧디서 영 뽑앗수다게.

103069 #1 물레로, 물레엔 허영 영 저 마주 돌아강 영 허믈 그거 이제 씨는 털어 지곡, 그거는 영 들르믈 이레 헛 ㄴ 뒤당 또 이,

103069 #2 정지에서, 정지에서 무시거,

103069 #1 소게, 소게 텡는디강,

103069 #2 ㄱ렛방석 ㄱ아낭 허믈,

103069 #1 그거 태와당 이제 허곡, 거 정 옥은다 허영 그걸 허믈 이제 거 소게 태우는 디 강 헤 노믈 영 정 ㄱ는 것이 그 영 발로 들르믈 허믈 실 뽑는 거. 것도 기술이라 잘 아이 허믈 그냥,

103069 #2 것도 선생님도 잘 알주기, 정 뽑아 난 거. 잇날 영영 들와가믈. 들와감 시믈.

103069 #1 물레 들르는 거,

103069 @ 거 뽑을 때는 안 ㄴ 보고 양,

103069 #2 계난 영영 해 가든 멘네가 북삭북삭 다 풀어져.

103069 @ 우리 누님 시집 보내젠 허나네 그 때는 이불 멧 채 허머는 막 알아췌주게.

103069 #2 멘네 이불이 알아췌주.

103069 @ 계난 우리 누님이 단 뜰이나네, 거 그 당시 지금 혼 사십년 거의 웹신디, 저 이불 여섯 채 행 갓수다. 으섯 채 허젠 허난,

103069 #2 막 부제여, 침.

103069 @ 으섯 채 허젠 허나네, 그 멘네를 매날 가는 거라.

103069 #2 아이고, 멘네 거 하영, 하영 들어불어.

103069 @ 계난 멘네 탕으네 이제 건 거만 탕 오민, 저녁 웨민 양,

103069 #1 피는 거 잘 편 거만.

103069 @ 각짓불로 허영 그거 뽑앙,

103069 #2 게 뽑앙 각지불 싸멍.

103069 @ 경 허멍 우리 누님 시집 보냈수게.

103069 #2 하영도 침, 살림이 뭐 헤난 어른이여, 그추룩 하영 허영 그 때 보낼 적에, 아이고.

103069 #1 으섯 채씩 헤시든 큰 부젯집이라 난.

103069 #2 큰 부제우다, 큰 부제.

103069 @ 아이 거난.

103069 #1 혼 채, 여기서사 잘 헛자 두 채.

103069 #2 두 채도 못 허연.

103069 #1 게 아니든 혼 채.

103069 #2 경 해 낫수다.

103069 @ 거난 우리 누님은 이 저 단 뜰이난게.

103069 #2 단 뜰 아니 옷 뜰이라도 집이 사난 헛주.

103069 #1 게도 잘 사난.

103069 #2 건 못 허여.

103069 @ 거난 우리 어머니가 그냥 잘 해주젠 막 허난.

103069 #2 단 뜰이라도. 집이 아멩이도 뭇이 허락이 웨나네.

103069 @ 거나네 멘네 거 아이고 거, 타당 까는 것이 양,

103069 #2 아이고, 멘네 이불이엔 허든 부젯칩 아이허든 못 헤낫수게.

103069 @ 베레이덜은 어떻사 거 한 디, 그 멘넛베랭이.

103069 #2 경 헤도 정지에서 허곡,

103069 #1 멘네 무사 멘네씨 지름도 뺑 뭇 허곡.

103069 #2 거세기 막 삼방이서도 허곡 헤낫주.

103069 @ 아이 그건 안 해 보고.

103069 #2 멘네씨,

103069 #1 멘네씨 지름은 경 천징에도 먹곡 경 헌텐.

103069 @ 멘네씨 까네 먹어낫수다, 옛날 돛레기 먹엇단 막 두드레기 나나네. 두드레기나나네 멘네씨 깡 먹으민 존 텐 허여네 그거 깡 먹어나신디.

103069 #2 멘네 지름 경 종텐 허영 그 때,

103069 @ 나이 들어 가니까 두드레기가 어서지는 걸.

103069 #2 아이고, 어떻 허당,

103069 #1 그 땐 약이 어섯수게게.

103069 @ 아이 그 땐 저 어린 때 양, 돼지고기 쪼금 먹으니까 막 부선 막 가렵고.

103069 #2 사춘기에.

103069 #1 불거리 냥.

103069 #2 경 험니다, 다 혼 때 경 험 거.

103069 @ 안 먹단 먹어노난게. 겁난거주, 겁난.

103069 #2 겁 난, 혼 때 경 험니다게 다. 아이고, 게메.

103069 @ 몸이 겁난 두드레기 나곡 허연.

103069 #2 예.

103069 @ 거난 멘네 농사까지 다 끝낫수다. 오늘은 이걸로 행 마치쿠다.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오늘은 저 췌 어떻 질롭니까?

104001 #1 췌 보통 이제 집이, 이디 옛날은 우리가 췌는 이제 식구에 따라랑, 식구나 다음 엇수다게. 혼 집이 췌가 어스민 일을 못 허여. 밧 갈곡, 걸름 허곡, 출 해당 맥이고, 이거 췌 어시민 우린 살 질 못허기 때문에 매 집이 매는디, 제일 매는 게 뭇냐민 췌출마씨. 출을 어떻 해 오느냐, 게민 이젠 처음에 우리도 췌 엇다가 이제 살림을 살안, 췌를 어디간 저 이 송애기 하나, 송애기 하나 조그맣게 이디 하나 사단,

104001 #2 사 당,

104001 #1 이제 췌를 사단 허난, 것이 암송애긴디 집이 옛날은 췌도 무시거 가난 해노난 췌를 살 수가 없는디, 그걸 누게 이제 싸구리 어느 사켄, 사불켄 허난.

104001 #2 싸구리 저, 애월 친정어머니가 우리 사랑에 큰 사위나네 두루막을 해주켄. 큰 사우난 할망 돛 장시허멍 도새기 풀앙 왕 백오십원 벌곡 이백원 벌곡 허멍. 게난 큰 사우난 도새기 풀앙 허멍 두루막을 하나 해 주켄. 게난 애월 두루막허레 간 보난, 두루막 허는 집잇 할망이 췌 잡앙, 췌 잡앙 먹젠, 췌 잡앙, 췌 잡앙 먹젠 허난, 췌, 췌도 어떻 잡앙 먹어 허난. 저디 강 봐. 저 췌양에 강 봐, 췌 이제 즈

낙인 잡을 거라. 저 누게 할으방이영 잡을 거라. 우리 어머니 그 말 들은 완, 우리 신디 굴으레 와네, 야, 쉼 잡은젠 현 거,

104001 #1 추렴행, 저.

104001 #2 쉼 잡앙 먹켄 험젠 허는거라, 게난 이제,

104001 #1 다 간썸 켜 거, 송애기.

104001 #2 게난 우리 씨아바님굴아 들으난, 예, 우리 쉼 잡는 것 강 사오게, 사오게. 쉼 사례 이젠 씨아바님이영 아방이영 걸언으네 난 아기 업어부난, 걸언 가네, 그 때 얼마 줘신고? 삼만, 삼천 얼마 줘신가. 쉼 험 그거 산 오란, 그디 잡앙 먹젠 허단 쉼, 산 오라네 그디 사름덜은 아이 쉼 어디불었나? 어디불었나? 그 두루막 할 망신디 허난, 나 누게 줘 부런, 엄쟁이 사름신디, 엄쟁이 사름신디 쉼 줘부런, 줘부런. 쉼 그거 몰안 오란에 우리 집이 거 암쉼, 암쉼 달든 거라양?

104001 #1 암쉼주기.

104001 #2 암쉼엔 허나네 막 저 키와네,

104001 #1 그것이 키우는 과정.

104001 #2 그것이 쉼 매기 시작을 해 가는디, 출 매날 해당 주곡.

104001 #1 요새 양, 그거 다 몰람저. 거 흥끔 곤쟁허믄, 요게 이제 거 쉼도 오양을 해야 허기 때문에 양, 으름엔 이디서 금승 다간이엔 현 송애긴디, 이디서 구완허기가 어려와마썸. 거 송애기 하나 워로 허는 건. 아, 율이 할으방덜이영 쉼 질르는 디가 신디, 우리 쉼 양 붓정 저 산에 올려, 상 산에 올리믄 쉼 잘 돼영 온다, 으름에. 아 그 말 들은 그썸 뉘헝주험, 이제 거 순열이 아방이라고 잇수다게. 거 늘 산에 옛날부터,

104001 #2 막 무식헌 할으방이주, 쉼 뱃기 몰르는 할으방이 이서나서.

104001 #1 산에서만 살고 허난, 그썸 이제 그 쉼을 산에 몰아단, 전인, 한라산에 목장이 잇주마는 전인 양, 목장 서도 한라산 거의 백록담 스방에 그 저 어디, 거기 쉼을 올령 놔둬주게. 게믄 갈 때는 그 물, 거 야생이라, 야생웁니다, 거 올령 놔두믄. 우리도 올린 놔뒀는디, 거 처음 올릴 때 어떠허냐 허믄, 강 이제 거 내창 거기 가믄 물을 우선 굴으쳐마썸. 물 잇는 디만 강 영 해냥, 석 클렁 내부는 거라. 올릴 때 뉘냐믄 혹시 잘못돼카부텐, 거 등, 뒷 잠지에 낙인을 찍영, 낙인이엔 현 건 쉼로 글자 새경으네 구웁당 걸 별경게 허영 그냥 이 뒷 잠지에 강 쿡 찍으믄, 쉼은 얼 먹주마는 그렇게 행 그것이 얼른 지와지질 아니허여. 일지엔 가난 낙인을 허믄 일러불지 아이헌다. 일러불지 아이헌다. 게믄 게 허쿠텐 허영 낙인 찍영으네 올려서. 올영으네 쉼을 또 으름내냥 허믄 가끔 강 봐사 험 거 아이우파? 한라산에, 이디선 가젠 허믄 옛날은 거 질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사름, 이젠 차로 영 가도, 전인 사름으로 걸영 올라가난 양, 여기서 밤 혼 두어 시썸 뉘민 이제,

104001 #2 사능룡헌 때에 가고, 가고 해사.

104001 #1 여기서 옛날 저 뉘 이 거 저 수로가 잇수다. 저 무신 수로엔 현다. 저 옛날 배창이렌 해난, 논 해난 수로, 그 수로따라 구썸 그것이 어떻허냐 허믄 저 어

스승 오름, 거의 그깟지 가네, 지금 ㄴ뜨른 물땡크, 그 수로를 만들어서. 겐 배창이란
현 분이 일제시대 만들었는디 그 수로따랑 구짝 가든 거의 저 한라산 입구, 그깟지
올라갑주. 강 그 날 재수가 조든 그 쉼을 강 보고, 첨 재수 어스든 쉼을 못 보는디,
아침이 게난 밥 동고량에 지곡 헤 앓앙으네, 그 할으방이영 서너이 ㄴ들ㄴ들 밤이
걸영 가명. 거의 강 큰 오름 넘영 이제 거 어스성 오름 그 깟지 가든 이제 너븐 캐
라고 잇수다. 그디 가든 꼭 강 산에 이제 밥 행 간 것도 지곡 행, 거 강 산신님 앞
이 기도도 드리고.

104001 #2 동고량에 밥 쌍 간 거 낱. 절 허영.

104001 #1 예 경 행으네 거기서 밥 먹곡 행.

104001 #2 절 허영.

104001 #1 아침 조반은 먹기 실프난 그냥 동고량창에 지곡 행 올라가. 밥 행 먹
영. 그 날 이제 재수가 좋으든 거의 사제비 오름이라고 한라산 거의 올라가든, 거
백록담 이렇게 허든 거 너븐, 거 사제비 동산이엔 험디다. 그딜 가져마씨. 가든 거
의 이제 혼 열흔 시나 열두 시 뛴든, 거제 올라가든. 사제비에 가든 쉼덜이 양, 으
름에 첨 스방에서 그 때는 거 목장 셔도 그레 올립디다게. 가든 남군 쉼덜도 오고,
아 이 북군 쉼덜도 강, 뭐 어느 쉼이 어느 철인지 알아야지, 이젠, 게 쉼약헨 강, 우
리 가는 건 쉼 켓갈허고 내림만 보는 거라마씨. 아 이거 이추록 커샤, 대샤. 강 허
든 이녁쉼이 잘 헤지든 보곡, 못 허는 그날 못 보는디, 봐지든 내려오곡 허는디, 강
보든 물이 양, 그 때도 한라산 물이 거의 귀험디다게. 백록담에 물덜을 먹어마씨.
쉼덜이 어떻게 늘카로운지. 백록담 우리도 그깟지 올라가든, 쉼 보젠 허든 강, 물
먹는 거 보는디 자꾸 갈 때마다 백록담은 자꾸 올라갑주게. 요게 장마 때는 물이
어느 정도 하영 골르는디, 장마난 안 정 돌르곡 허든 양 물이 밋창에 뱃기 어서마
씨. 게도 쉼덜은 그깟지 강 먹곡 허는디, 이 장마가 뛴든 게, 경 행 내려오곡 또 ㄴ
을들든 쉼 내여와야 헐 거 아이우파? 내려오젠 허든 또,

104001 #2 쉼 보레 간 못 좇안.

104001 #1 못 찾을 때도 뛴 번 이섯수다.

104001 #2 못 좇안 굴 소굽에 간 뛴 보난 귀신 나와네.

104001 #1 거 밤이 양,

104001 #2 밤이, 아이고.

104001 #1 거 쉼은 못 좇고,

104001 #2 못 좇은 날이라.

104001 #1 거 비는 착착착 오지, 아 이젠 할으방 둘허고 나하고 서이 이제 어느
저 무신 쉼,

104001 #2 쉼 소굽에 간,

104001 #1 저 이 ㄴ만 셔.

104001 #2 무슨 쉼 소굽에,

104001 #1 사제비 쉼엔 헤냐?

104001 #2 무신 거 퀘.

104001 #1 큰 퀘, 거 퀘에 강 눕는다, 밤이 누니까 양 비는 착착 오는다,

104001 #2 막.

104001 #1 거 이렇게 나도 거 저 젊을 때 양, 군인 가기 전이난 혼 스물 하나 둘
렘 땀주게.

104001 #2 스물 하나 둘 넘을 때주게.

104001 #1 아이라.

104001 #2 스물 씻에산다.

104001 #1 내가 경 해난, 가난 밤이 이렇게 누른 양, 뭐가 눈썰메에 아 그냥,

104001 #2 막 총덜 봐려지곡.

104001 #1 아 그냥, 뭐 허곡 무시 것이 이 저,

104001 #2 탁 탁탁탁탁 허멍.

104001 #1 야개기레 착 내려오는 것ㄴ찌 영 눈 텅 보른 어서마씨. 아, 허단 버치
난 할으방 일 낫수다. 재게 내려그릅서. 무사 영 험시니? 아이고, 큰 일 낫수다. 막
설득시건 겨우 내려오는다, 밤이 이제 내려오난 빈 칙칙 오고 날은, 들은 엇고 어두
우난 고지 소꿉은 왁왁헉주. 낭 셔노난 뭐 질을 알아지카. 게난 거 할으방덜이 경험
이 많으난, 비크릇헌디 알려레만 감시른 헤벤더레 내려가진다. 게난 복도록 글라 허
난,

104001 #2 복도록 걸언.

104001 #1 흐끔 가당 뒷에 탁 푸더지곡 허멍도 침, 허단 보난 거의 날이 기미웅
붉아가난 저 저 큰 오름 뒷에 어디 저 켓물동산이엔 허연 그깟지 내려오멍 헨. 집
이 뒷 날 오멍 헷는다 양, 이런 추억이 많고,

104001 #2 딱시, 딱시.

104001 #1 이 게도 그새 헤 가지고 나도 폴아네 어디 허단 보난,

104001 #2 아이 게난

104001 #1 셋기가, 셋기가 난, 뒷 헨 간 보나네, 아 쉼도 크고 엄청난 디,

104001 #2 쉼,

104001 #1 셋기 나서마씨, 노란 부렁이 나네, 이제 영 뭐 허난. 그 헨 이제 뒷 헤
는 군인 영장 나완 곧 가게 똤난, 요걸 거넘, 우리 집 사름은 아기 들곡 거넘을 못
헉주게. 아이고 아멩에도 이거 쉼 아버지네영 게민 거 쉼 폴앙 어디 들갱이라도 하
나 사 불곡, 경 행 이제 군인 가는 것이 좋암직허다. 영장은 나오고 허난. 아 경 헨
쉼 이 셋기 풀고 헤네, 또 침 어디 들갱이, 뭐 금지 혼 그 때는 금지가 밧 금지는
삿수다게.

104001 #2 팔만원이여, 칠만원이여.

104001 #1 팔만 얼마짜리 이제 혼 스백평 사 두고, 경 헨 헷는다.

104001 #2 게난 쉼 좇으레도 잘도 으라 번 가 왓주기.

104001 #1 쉼 그자 허른,

104001 #2 못 좇고, 못 좇고.

104001 #1 참 나도 고지 하영 땡엇수다. 집사름허고.

104001 #2 게난 췌가 우리 도와줘네.

104001 #1 게난 거 죽는 췌 살런 놔두난,

104001 #2 췌가 도와줘네, 우리 신디.

104001 #1 영 셋기도 나고, 우리 앞이 영 도와주곡 헤낫수다.

104001 #2 군인도 못 가고. 그 때 경 군인도 가지 말렌 허고. 게고 집이 허단 보난 밧도 스백헝짜리 밧도 사지고, 그 췌 풀안. 경 허멍 그 췌가 그추룩 해도 그자, 그 생각을 굴 소곱에 뉘난 생각을, 어디 무신 전화가 시카? 게난 할으방덜, 이디선 할으방덜 싯 다 죽어시카부덴 오죽 헤 낫수가. 싯 죽어시카부덴, 췌물 소곱에 가나네.

104001 #1 뒷 날 못 좇으믄 어디 사름 좇으레, 동원허젠 허연 보난 뒷날은 게도 살안 돌아오난.

104001 #2 동네 구장, 구장신디 간 들어보곡 막 헛수게, 사름 아이 완. 게난 췌 소곱에 간 보난 무신 대소각을 썬 사름덜이 나와서라. 야개기에 무시것도 해서라. 경 허멍 췌 소곱에 잔 뒷날도 헤영 걸언 오난 사름, 동고량착도 어디 땃겨불고, 밥도 굶고 헤연 헤노난 췌따문에. 게도 또 메칠 시난 또 췌 보레 간. 췌 보레 간, 간 보난 췌가 막 떠나불어서렌. 빈직빈직허고 거멍허여네. 셋기도 나고.

104001 #1 이저 고지 속에는 양, 여기 담지 아니허영 목장이, 그딘 목장허믄 저 한라산 앞이 요 저 그 췌덜 허는디 거는 고지는 양 여름에도 간 보니까 낭 그늘에 시원헌 디 그냥 낭 이파리 틀어먹곡 그늘진 디 폰리가 시카? 폰리 어서마씨. 게 헤노믄 췌가 으름에 첨 사름이 에어콘허영 살듯이 서늘서늘헌 게 뭇 췌,

104001 #2 게난 췌 좇지 못 허영.

104001 #1 완전이 두뒷어불영.

104001 #2 췌가 막 뜨나부난 양, 췌가 막 커불고, 막 뜨나부난, 또 이제 느리완. 에 췌 우리 췌 일러먹엇져. 췌 대정 몰아간 생이여. 정이 몰이간 생이여. 막 허단 이제 즈깃땃 할으방이 에 저 엉둥이에, 엉둥이에 무신 거 헛 나두난 알아진다, 알아진다.

104001 #1 낙인 찍언 나 두난.

104001 #2 게난 또 혼 번 또 그 할으방 빌언 가난, 동그량에 밥 싸고 헨 간, 간 후젠 저 그디가 어디 백록담 물 먹엄시난, 이 췌가 똑 니네 췌 담다. 셋기도 아이 배 낫수다. 아이 배 낫수다. 셋기도 나고. 겐 허난 심질 못허연 양, 췌가 막 느실아. 막 느실안 걸리, 걸리지 못 허영.

104001 #1 아이고 막 저, 곳췌 뒷어네.

104001 #2 겐 이제 저 어디 웨방사름 빌언, 조천인가 어디 뜯 사름도 췌 보레 간 사람 빌어네 걸리멍 헨. 그 땐 첨 아방 풀 다치멍 허멍 해도 양, 췌 그 순열이 아방 이엔 헌 할으방이 으식허곡 대정 할으방인디 췌만 보는 할으방 이서낫수다게. 소리

도 잘 허곡. 그 할으방 빌언 쉼 걸런 심언. 게 아녀시믄 그 쉼 못 걸런 막 쉼가 목
썰안마씨. 목장에 간 막 목썰안. 침 제우 나 걸러네 완 게도 거 텡경 가젠허나네,
그 쉼 이레 오란 허난 요디 저 누게 아방, 누게신디 폴아신디, 저 누게 아방고? 신
디 폴아네.

104001 #1 현, 현 침이,

104001 #2 현, 저, 현 이장네 할으방, 맞아 맞아.

104001 #1 현광훈 할으방,

104001 #2 현광훈신디 폴앗구나. 폴아네 그 돈 헨 빛이 츠츠츠 허여네 밧 사고,
게도 뺑쟁 아이 가난 또 쉼 사와 낫수다, 우리. 쉼 산 보난 막 호실이 할으방신디,

104001 #1 속쉼, 게난.

104001 #2 쉼 아이사서?

104001 #1 속쉼디 속쉼엔 현 건,

104001 #2 얼룩달룩현 속쉼.

104001 #1 그 얼룩얼룩허멍 영 그냥 저 점백여지믄 영 굵어지는, 속쉼씨, 송게씨
라 헛어.

104001 #2 막 목썰안. 목썰안.

104001 #1 이 속쉼씨는 양 구눔이 성 목썰아마씨.

104001 #2 경 현 줄 알앗수강? 우린 몰르난 뭘 쉼 그냥.

104001 #1 속쉼에 우린,

104001 #2 몰르난.

104001 #1 뭘 몰라노난 아 쉼가, 다음 사젠 헤도 사 비난, 그 쉼 샷는디, 속쉼씨
산 허난 늣덜토 나중예, 예, 속쉼 잘못 샷저.

104001 @ 구눔이, 구눔이 셔, 구눔이 좀 잇수다게.

104001 #1 구눔이 셔. 요눔으 거 밧 ㄹ르치젠 허믄 양,

104001 #2 아이고, 침.

104001 #1 허믄 영 허믄 사름신디 들러들영 썰르곡, 경 헨 이제 우리 이 사름 아
기 업곡 행으네 어떻헉니까, 경 누게 늣 빌진 못 허곡 행 일젠허믄.

104001 #2 막 사름 우티 강.

104001 #1 사름신디 썰르쟁 들러들곡,

104001 #2 쉼 장시 할으방,

104001 #1 게도 일젠 허믄, 허다 버치믄 누게 장남 빌어네 스믈 ㄹ리치멍 또,

104001 #2 잇어불지도 아니허여.

104001 #1 요 쉼 ㄹ르치젠 허믄 이디서 쉼 서랭이영 허영

104001 #2 고냥 톨랑게.

104001 #1 돌로 고냥 톨라네 이저,

104001 #2 톨고냥에 꺾영.

104001 #1 예, 꺾영 막 질레도 텡이곡, 요걸 얼 맥영 흐끔 질 들리와사. 속쉼는

거 우린 분시 몰란 사 낫지, 속쇄은 구눔이 셔.

104001 #2 그 때 저, 잊어불지 아니합니다.. 올레서 집줄 영영 헐 때 쉼 장시 할 으방 몰양 완, 요거 좋은 쉼라, 좋은 쉼라 허멍 우린 속안 사나네, 얼마사 쉼 사신 지, 집 일젠 초가집 일젠 줄 남시나네, 잊어불지 아니허여. 쉼 완 산.

104001 @ 그 구엄리 목장은 엇수장?

104001 #1 목장은 엇수다. 목장은 저 이 신엄 목장, 또 중엄 목장 헌디 구엄은 언제나 중엄 목장신디 강, 저 쉼 몰아갑주게. 이 유월절 스시 돼 가든 농사가 거의 막쳐마썸. 쉼 막 덩기도 허곡 이 때 돼든 스서 유월절이라고 해 가지고 쉼 이제 그 때 돼 가든 쉼덜 다 목장에 올리곡, 쉼디 그디 가든 썬, 아, 보리로, 보리로 그 쉼 뉘 헐 말이어, 헐끔 오레 가는 건, 말 가웃, 두 말 영 행 받으든, 거 강 보든 쉼 중 엄 목장이,

104001 #2 신엄 목장이 커 낫주게.

104001 #1 신엄 목장은 저 어스썸 이엄에 거 쉼물 신디, 물이 또 좋수다, 거긴. 신엄 목장더레 헐끔 뉘 헐 사름덜은 몰아 가곡, 중엄 목장은 헐끔 가까와마썸. 큰 오름,

104001 @ 구엄리는 목장이 어섯구나.

104001 #1 구엄은 목장이,

104001 #2 목장 어서노난, 그레만 몰아당, 보리, 보리 헐끔 쉼, 샅으로 값 줘사.

104001 #1 헐끔 뉘 헐 사름덜은 신엄 목장더레 가고, 건 걸기 좋고 그디 강 보든 또 쉼물 오름이라고 행 쉼곡. 이 저 해가지고 물이 좋아마썸. 게고 낭 그늘 좋곡 허 난. 신엄더레 해 뉘 헐 사름덜은 하영 갓수다.

104001 #2 우린 신엄 아이 가고, 중엄 뱃기 아이 가 봤수다, 중엄 목장. 뱃디난 게, 뱃디난.

104001 @ 말뚝 박아네 쉼 안 질뉘 뱃디가?

104001 #1 무사 쉼, 어디 가썸 허든 거 쉼,

104001 #2 딱.

104001 #1 말뚝 박양 이제, 말뚝 박양 매영 어디 멀리 못 가게 해영. 쉼 강 곁썸 매고. 곁썸 뉘 출 비레 강 해도, 그건 사름만 일일이 거렁헤지는 거라, 출도 비어사 허난. 영 뉘 헐끔 쉼 먹엄직헌 디 시든 말뚝 다 빠강으네,

104001 #2 먹는 동안에.

104001 #1 쉼 앞더레 행 뉘이곡, 먹는 동안에 이제 거 출도 비고.

104001 @ 쉼 뉘이레도 뉘겨 뉘지양?

104001 #2 아이구, 잘 간.

104001 #1 늘 쉼 뉘이레 뉘기고. 쉼 쉼 번 행도 뉘 사름도 장전 스방 강, 그 뉘 뉘덜이 하우다, 소낭뉘덜이영. 그레 강 허든 쉼 번 행으네, 쉼 뉘행 허든, 헐 열 사 름 이제, 열 뉘 집이 하든, 게 안허든 으나든 집이 좋아마썸. 쉼 번 허든 열이 돌아 가명 헐 헐 집썸 해도 열홀에 헐 번 볼 거 아니우짜. 게든 거넘이 쉽고.

104001 #2 쉼 친목것추룩. 이제 사름 친목것추룩, 경 행 돌아가멍 혼 집이 혼 번
씩 봐 낫수다.

104001 #1 출은 늘 침 청출 해당으네 으름에 집이 땀 동안은 출도 행 땀이고.

104002 @ 예, 쉼 종류는?

104002 #1 쉼 종류는 양,

104002 @ 어떤 것들이 잇수강?

104002 #1 뭐 이 여기선 보든 속쉼, 뭐 이 저,

104002 #2 암쉼.

104002 #1 암쉼, 저 뿔 오그라진 암쉼여, 무신 검은 쉼, 이제 황쉼 잇고, 속쉼,
이제 저 검은 흑, 검은 흑쉼, 검은 것도 두 가지라. 하난 완전 검은 것이 잇고, 다
음에 이제 검은 뿔 오그라진 암쉼.

104002 #2 건 막 목썰아.

104002 @ 완전 검은 건 무슨 쉼에 허여?

104002 #1 거는 이저 진흑쉼엔 허고. 진흑쉼 그거 아이,.

104002 #2 막 목썰양, 쉼가.

104002 #1 이 저 진흑쉼도 목썰아. 게난 질 순헌 건 요 황쉼, 노랑쉼가 아메도
어질곡, 뿔도 이제 뿔도 너무 성긋헌 거는 그냥 이 싸움쉼주게, 그건. 뿔 뿔도 사곡,
사져.

104002 #2 게난 목썰양 폴아사.

104002 @ 게난 쉼 종류는 두 가지로 뿔 허네 양, 이 털허고 뿔.

104002 #1 예, 뿔허고, 주로 이제 뿔 허든 자썩 뿔이여.

104002 #2 아이 영 입도 봐사. 쉼도 영 입 친, 입 진 쉼가 셔.

104002 #1 눈 알이 진 쉼영 허영,

104002 #2 그 쉼는,

104002 #1 눈 알이 질영, 영 톱이 진 쉼는 잘 안 먹어.

104002 #2 먹지도 아이 허곡 목심만 허영 양. 페라왕 마썰.

104002 #1 예, 거, 눈 알 질언 잘 먹켜.

104002 #2 영 입 나온 쉼가 이서마썰.

104002 #1 쉼 사쟁 허든 눈 알을 보라, 눈 알이 지나 브뜨냐 허영, 주땡이가 물
착허곡 허든 쉼가 똥터라도 밋밋 먹고,

104002 #2 잘 먹지도 아이 허고.

104002 #1 게 아니고 요거 잘 안 먹으믄 양,

104002 #2 우리도 그런 쉼 질완.

104002 #1 이런 거 큰 어디 영 이경 가도 냄새역 쿡쿡 흐끔만 헤 노믄 안 먹어
마썰.

104002 #2 안 먹고.

104002 #1 요눔으 거는 양 성가시고.

104002 #2 막, 막 착혀지도 아이허고.

104002 #1 또 이 비육쉐엔 내치는 디도 그걸 이제 쉼 허믄 푼는 딴 어떠냐 허믄, 미국쉐엔 허영 술지왕 푼주게, 꿔기쉐로. 경 행 푼는 디, 집이서 이제 허믄 으름에 콩허고 보통 헛당 콩 술망 맥이곡, 조 행도 이디 허믄 술므명 늘 것 술므명 이제 출은 누까에 출 썰어 놔. 누까에 행 맥이곡, 항상 집이서. 갱 허믄 이제 쉼 키우는 과정은 양, 그것이 혼 다섯 설 내지 으섯 설 대로 키와야, 이 저 꿔기쉐로 나가.

104002 #2 아이 쉼도 페라왕, 페라왕.

104003 @ 그 다음에 쉼 가정으네 뭘로 활용했수가?

104003 #1 이디선 첫째는 밧 같고.

104003 #2 구르마 허고.

104003 #1 밧 같고 구르마 행, 허곡 짐,

104003 #2 구르마도 허여.

104003 #1 식어 오곡. 쉼질메허영. 경 행 이 저, 쉼왓베엔 허영 쉼왓베도 빵 문 해난디, 요거 신사라영 허영 양, 짹 담지 아니 허영 질긴 것이 싣수다, 영, 저 이제 ㄱ뜨믄 난 담은 건디.

104003 @ 그거 신사라.

104003 #1 예, 신사라 그걸로 문 두드리명 배 꼬믄,

104003 @ 예, 신사라로.

104003 #1 질집주게. 쉼 석도 다 걸로 허고. 또 고지 가믄 그 소리낭이라고 허여, 그걸로 문 두드리명 소리낭 해당 그 댐 이제 ㄱ짜 산에 강 덜 이제 뭐 해가지고 허난, 그레 소리낭 좀 해온 건 말 아이헛수다게. 그디도 단속헌 사름도 이거 뭐 아 저기 소리낭 행 쉼왓베 ㅎ끔 꼬젠 험젠 허믄 말 아이 해도 거 저 소리낭 거죽 붓정 벵 경, 경 험 문 저 왕 이제 베 들이곡, 으름엔 흘 거 잇수강? 거나 행 집이 베 들이곡 행, 쉼왓베도 꼬고.

104005 @ 그 다음에 쉼 나이, 아까 혼 술이 뭐 마씨?

104005 #1 쉼 나이는 금승, 다간, 사름, 나름 다음에 이제 거.

104005 @ 나름 다음은?

104005 #1 다습이엔,

104005 @ 다습.

104005 #1 다습, 다습.

104005 @2 다습이엔 허믄 다섯 설이이라.

104005 #1 거 다습쫘 난 거 담수다. 니빨 영 들러뵐 걸, 잘 몰르는 니빨 영 들러 뵐 니가 이제 영 우리도 잘 배우라, 영 보믄, 어금니가 영 나곡 허믄 이것 혼 다습 은 넘은 거로고. 어금니 난 벌써,

104005 @ 여섯 살은 뭘엔 해서?

104005 #1 하여튼 다습ㄱ진 아는 디 으섯 살은 잘 몰라. 다습 뵐가믄 이 저,

104005 #2 풀아불어 잡아불고, 게 안허믄.

104005 #1 폴아불고 게 아니른 육쇄로 맥영 폴아불어마씨.

104005 @ 여섯 살.

104005 #1 예, 으섯살,

104005 @ 엇고?

104005 #2 다숫 술 해가믄 막,

104005 #1 다습 뉘 가믄 니가 영 들렁, 코 행, 니 영 벌경 보믄, 이 어금니가 소
곱에 나곡 해가믄 요거 다습은 넘은 거여. 코 꿰곡.

104005 @ 어금니 나 가믄 쉼도 다 뉘 거구나.

104005 #1 예, 그러믄 몬 나이 찬 거.

104005 #2 게난 어디 잡아 먹는 디 보내고.

104005 @ 쉼 이거도,

104005 #2 잡앙 먹는 디도 보내고.

104005 @ 열 다섯 술 산텐 허는디.

104005 #1 예, 오래 사는 디, 이디선 경 질루지 아이혜마씨. 쉼 질거가믄 노망헌
덴,

104005 #2 저기 목장에 강, 검은 데기 목장에 가믄 경, 검은 데깃 할으방 쉼 늙
은 쉼들 셔. 늙은 쉼들 셔. 그 할으방도 아이고 쉼들 내불어뉘 죽어부런.

104006 @ 쟁기 명칭 혼 번 곱아봅서.

104006 #1 쟁긴 양, 구작헌 것이 성에고, 성에. 이거 성에험직허다. 또 하난 무클
이엔 헌 거, 오그라져, 쟁기 무클 담은 거, 쉼 오그라져, 요것도 잘 헤야지 무클이
너무 구작 번으믄 흑엘 잘 안 들어. 겐 요것이 보기 좋게 쏙 저 뵈이엔 곱나, 질메
가진 너무 오르라지고, 그 보단 덜 오그라지고, 헛 오그라져 허믄, 요것이 무클이고,
성에, 그 다음엔 이 뵈바들이엔, 뵈바들허믄 영 오그랭이 콧 찢렁 받는 것이 잇수
다. 그 다음엔 양깃머리, 영 손 쉼영 뵈 갈 때 허는 거, 양깃머리가 쑥수다.

104006 @ 가운데 세운 건?

104006 #2 뭇?

104006 #1 아 그건,

104006 #2 가운데 세와져서.

104006 #1 아, 것이 뭇더라? 데칼은 아니고.

104006 @ 데칼은?

104006 #1 데칼은 뻥 썬거고. 무클, 쟁기 무클, 성에, 이거,

104006 #2 건 모르커라, 잇어부런.

104006 @ 나중에 물어볼 거난 양, 생각험 놔둬서.

104006 #1 예.

104006 #2 이제 우리 착, 폴아서 헛 건디, 누게 쥐 불어사 헛 건디.

104006 @ 그 다음에 쉼 두드리는 거?

104006 #1 아 저 가린석호라고 행, 양, 배 두드릴 때,

104006 @ 가린석,

104006 #1 가린석, 저 밧갈 때, 이레 가곡 저레 가곡, 요것도 똑 저 거 무신 불레
낭이나, 불레낭이 아이고 윤노리낭, 그런 낭으로 오그령 헤사 이제 거 가린석호 험
직허다. 윤노리엔 허영 질깁니다게. 그것이 잘 꺾어지지도 아이허곡 허는, 이디선
윤노리허든 대게 췌 이제 가린석호 요거 허켜 허영. 윤노리로 행 딱 허게 허고, 또
이 췌 밧갈 때는 아까 곱앗듯이 소리낭 가린석 허든 요것이 든든허곡 양, 췌 혼
번 탁 허든, 췌가,

104006 #2 말이 잘 안 들으든. 탁 두들경 허든. 말 아이 들으든.

104006 #1 이 저 신사라고 꼬은 건 약허여. 걸 두드리든. 경 허영 그르치곡 헤
낫수다.

104007 @ 다음에 질메, 질메 명칭 혼 번 영 곱아봅서.

104007 #1 질메는 앞 곱은 가지허고, 뒤, 뒷 곱은 가지, 등태, 이건 뭐.

104007 #2 나룩집으로 멘들아사.

104007 #1 이거 영 현 거, 명에, 명엘거라. 성에, 아 이게 성에고, 쟁기 이게 성
에라. 영 세운 거.

104007 #2 성에엔 게, 그거.

104007 #1 그게 성에.

104007 @ 거난 영 질메 영,

104007 #1 예, 질메허든 질멧가지가 뒤에 싣고, 쪼금 앞 질멧가진 더 짝 오그라
진 거고, 뒷 질멧가진 흐끔 영 나룩헤사. 게 안 행 딱 헤불든, 앞 뒤에 허든 췌나
돌 질좌도 딱 좁아붙어. 게난 췌가 못전디곡 허난, 요건 앞 질멧가지 헤 점직허다
허고 또 뒷 질멧가지 헤점직허다 허든 그 저, 그 외로 영 현 거 그찌 그거는 뭐,

104007 #2 등태 만들젠 허든,

104007 #1 등태 허젠 허든 그거, 이제,

104007 #2 나룩집 두드령으네.

104007 #1 아니, 낭을 헤살 거 아니라. 그 성에가 아니고 뭇이엔 허더라. 건 줌
다음 생각해 보고.

104007 # @ 성엔 아까 좇앗주기에.

104008 @ 예, 그 다음에 명에, 명에 잊지아니허파양? 명에 명칭? 이거 영 현 거
영.

104008 #1 명에는 이 저 전이는 구짜행 달루앙 양쪽에 이제 고냥 뿔루앙 좇게엔
허영 영, 그것도 이제 뭐냐 허든 산에 강 윤노리 행 쪽 불에 오그령 헤야 요게 췌
가 똑 허지, 너무 잘 아이허든 야개기 딱 췌지명 안 돼고. 허고 나중엔 요렇게 오그
라진 거 똑, 췌질메 뒷 가지 담은 거, 너무 오그라정 안 돼어. 그런 걸로 허든 췌가
좀 한걸하고 이제 거 명에 멩글앙으네 허곡. 고냥을 잘 뜯라서 것도. 고냥을 영 췌
오름허게 잘 안 뜯르든 췌가 딱 야개기 딱 좁져 노든, 얼마 갈지도 못 허여. 으름
갈앙, 으름 밧 갈젠 허든, 췌 더워노든 양, 췌가 수에넙니다.

104008 #2 멍에 잘 못 허믈. 수에 죽곡.

104008 #1 더 너무 뭐 헤 노믈, 아이고 이거 쉼 잡아 먹젠 헌 거여 이추록. 멍에, 고냥 잘 풀르라.

104008 #2 것도 잇날,

104008 #1 이것이 쪼끔만 바레기로 잘 맞추지 아이허믈 안 웨어.

104008 @ 이디 잇거난 쉼도 아플거주게.

104008 #1 예, 스믈 쉼 쉼와지곡 허믈, 게믈 불 그스령 잘 그거 영 고냥 맞추라.

104008 #2 ㄱ시락 살랑으네, 자꾸 영 멍에 허젠 허믈, 그디 고냥 풀라와도 막 쏘 곱에, 무시 걸로 막 풀라노믈 쏘곱에 들어가지 아니험전 허영, ㄱ시락 불로 멘딱 그 거 캐와그네 문질문허게 맨들지 아이허믈, 멍에가, 쉼 야개기 벗어질 때가 천지.

104008 #1 거 잘못 허믈 양,

104008 #2 야개기 털 문짝 뽑아정.

104008 #1 이 저 야개 벗어져노믈 얼른 좋지도 아이힙니다. 그 헤에는 약 불른 체 헛자 무슨 약이 싣수가. 전이 연고나 영.

104008 #2 연곤 서서.

104008 #1 거 헤노믈 그 헤에는 쉼 곱으치당 야개 벗어져노믈 곱으치지도 못 허고 요것이, 그거 멍심헿 양, 그 멍에에 무신 저,

104008 #2 제일 멍심헿 건 멍에.

104008 #1 멍에 트멍에 거기 쉼가죽으로 영 헿 호끔 보드랍게 헿 그레 담양, 겹 허믈 이것이 슬러레 덜 강, 덜 벗어지주. 쉼 야개.

104008 @ 게난 이 힘으로 밧가는거주게.

104008 #1 예, 야개 벗어져노믈, 요거 쉼 곱으치당 벗어져노믈,

104008 #2 쉼 막 아팜, 못허난.

104008 #1 쉼 곱으치지도 못 허고, 쉼은 그냥 막 들락귀멍 허주, 아파노믈. 게난 멍심허영 침, 쉼 멍에 야개 벗어진다 멍심허라.

104008 #2 쉼 멍에가 잘 헤사, 잘 헤사, 경 헤낫수다.

104008 #1 이 으름에,

104008 #2 쉼 멍에 잘 못허믈 데껴똥 또 허고. 고지 올라강 그거 헿 오쟁 허믈.

104009 @ 그 다음에 목장 양, 여기 구엄린 목장 엇어낫주마는, 목장은 어떻 관리 헿니까?

104009 #1 목장덜은 우리가 허믈 쉼 으름내냥 이디서 유월절 스시에 올리믈 이 게 혼 칠월 팔월 똥믈 내려옴주게. 쉼을 내리와오는디,

104009 #2 출 헿 때나네.

104009 #1 거기서도 출 허게 똥믈 내려오는디 그디서도 콧 똥으네 혼 집이 보통,

104009 @ 쉼테우리?

104009 #1 예, 쉼테우리 앞이 멧겨. 게믈 그 사름이 으름 내냥 그디 살멍 보리 받앙, 그 때는 보리쌀 아이고 보리로. 혼 집이 허영 보리 멧 섬 헛저. 쉼 봐 나믈

보리, 보리 그집이 보리 하서. 쉼 콤 받을 거.

104009 #2 아이 것, 쉼도 아무나 못 뺏으네.

104009 #1 계난 쉼도 양, 그거 쉼 눈에 쑥 행 잘 헤사. 너무 그 돌아나불른 늑으 쉼, 강 쉼 잘 선별행, 아 이거 우리 쉼 왓쟁 행 양, 지네들끼리도 허른 씹곡.

104009 #2 막.

104009 #1 나중에 허른 저,

104009 #2 쉼피쟁이, 쉼피쟁이 허명.

104009 #1 진독, 진독이엔 허영, 진독약 허레도,

104009 @ 부그리?

104009 #1 부그리 게메, 부그리 진독약 허레 보통 혼 십오일에 혼 들에 혼 번 갑 주게, 강 그 약 허명 ㄱ를 행으네 무신 진독약 읍에서 테와주곡 험디다.

104009 @ 디디티 아니?

104009 #2 디디티라, 디디티 달른 거. 디디타라게.

104009 #1 그걸로 행 강, 이녁 쉼 강 허른 저 개역행 강 흥끔 맥이고, 으름에 행 강, 덜 지치맹, 웬장에 행 양 물에 개역 강 허른 잘 먹어마씨.

104009 #2 막 더워낫쟁허명.

104009 @ 웬장은 잘 먹어.

104009 #1 예, 웬장 행, 경 헤야 쉼가 물 잘 먹곡 행으네 쉼 입맛 돌아난텐 허영, 경 행 헤낫수다.

104009 #2 거 부그리따문 질 곳어. 쉼 헐 땀 거 때문에 자꾸 목장에.

104009 #1 쉼 보레 자꾸 가사.

104009 @ 부그리약, 부그리약은 주인이 허는 거난.

104009 #1 계난 건 이제 또 그사이 어떻 쉼신가 자꾸 돌아봐사. 경 행 늑으 거, 쉼양, 아니 목장덜이 영 담 하나 메왕 목장덜 험주게. 장전 목장, 구엄, 중엄 목장, 구엄은 어서난.

104009 @ 노꼬메 근방에 이서난.

104009 #1 그거는 장전 목장. 그레 허른 이제 쉼, 늑우 쉼 튀어나른 또 목장끼리 덜 싸우멍 허른 이녁 쉼여 늑우 쉼여, 나중에 통지 왕으네, 문 강 이녁 쉼인 거 확 인허고 허명.

104009 #2 그디서 기별 읍니다. 저 쉼 일러먹으난 기별 와.

104009 @ 낙인은 누가 찍어?

104009 #1 낙인은 집이서도 허고, 보통 허른 동네마다 낙인 하나 놔 뒀당, 거 가 른 빌어당 이녁대로 웬만허른 찍엇수다, 우린. 게도 그거 낙인 찍을 때도 벌경케 컷 당으네 영 메다 영치레 그냥 재게 콧 찍으지 아이허른 쉼발 맞아.

104009 @ 거 사름, 마을 이름 적엄신가? 낙인에.

104009 #1 아니 게 낙인에 이녁 개인으로 현 건 예를 들영 허른 뭐 이 허고, 구 엄은 날 일, 아 혼 일 읍이 날 일헤영 옛 구자라고 써서. 구. 게른 거,

104009 @ 구엄리 쉼터란 것 알기 위해서.

104009 #1 예, 구자 행 그거 낙인 콕 찍꼭 했수다. 그것도 강 낙인 현 디 강 헤와사, 땃 사름 이제,

104009 @ 일름표나 다름 어신게.

104009 #1 예, 그거 예 혼 번 잘 헤 노른 생전 침 쉼 일생동안 낙인 지와지질 아이허주.

104009 @ 쉼터는 비슷비슷허주게. 사름은 얼굴 틀리주마는. 쉼터는 비슷비슷허난.

104009 #1 아이고, 쉼터는 낙인 아이허른 잘 모르고, 이녀쉼터 늠우쉼터.

104009 @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104009 #1 싸우멍.

104009 #2 게난 기별 읍니다. 쉼 일러떡영, 쉼 어디 달아나부러시킨 쉼 영, 기별 오쟁 헤도 전날, 그날 못 왕, 누게 쉼 보레 간 사름신디 메칠후제사 곁으른.

104009 @ 쉼터는 주인을 알아.

104009 #1 예, 알고 말고.

104009 @ 나도,

104009 #2 메칠 후제사 곁아. 강 뺑.

104009 @ 조팻 블릴 때 그 때, 초등학교 때주. 목장이 강으네 쉼 몰앙 오렌. 아이고 그 때 안개 팡팡 끼고, 올라가니까 양, 쉼터가 딱 나를 보는 거라.

104009 #2 아.

104009 @ 거 나가 몰앙 와 낫수다. 몰앙, 그 때, 이제 초등학교덜 강 목장에 올라강,

104009 #2 아이고, 침.

104009 @ 몰랑 오렌 허른 몰앙 와질건가?

104009 #2 이제 고등학교도 못 몰아와.

104009 #1 고등학교도 못 가.

104009 #2 못 헤, 못 헤마씨.

104009 @ 난 혼자 가네 그냥.

104009 #2 아이고, 거 참 대단허우다.

104009 @ 몰아넌 왓주마씨.

104009 #2 대단허우다.

104009 #1 게난 쉼 올릴 때 우리도 저 어린 때도 가난 기억이 셔. 겐 늠우쉼터영 그췌 가난. 몰앙 가른 늠우쉼터 트멍이 이녀쉼터 그디 강 잘 인계만 해주른 쉼터난. 요건 누구네 쉼터. 게난 그 목감도 눈여기지 아이허른 낙인 어신 건 그디 셔도 낙인 찍 읍디다게. 낙인 어신 쉼터가 이서, 게른 낙인은 잘 쉼 받으멍 문딱 적고, 어슨 거는 이제 어느 착에 신겨, 무슨 자 신겨, 요거 잘 알아야, 이제 췌 쉼터영 석어지지 아이허게.

104009 #2 경 험, 옛날도 그런 거 허멍.

104009 #1 계난 저 구별허는 거는 저 자작뿔이여, 쉼 오강뿔, 이디선 모냥으로 보멍, 요건 자작뿔이, 뭘 오강뿔 쉼여.

104010 @ 그 다음에 쉼 질루멍 느꼈던 추억, 쉼 질루멍, 곱아줍서.

104010 #1 쉼는 구녕 쉼 신 거는 여간 잘못허당 사 노른 밧 ㄱ르칠 때, 게고 양 양종덜은 옥아, 쉼가 영 행 양종 ㄱ리키는 쉼 밧 갈당도 양 혼 번 착 허믄, 영 돌아 상 뒤터레 어떻 영 확 행 멍엘 벗어붙어.

104010 #2 멍에채 돌아난 저 어디레.

104010 #1 돌아나고, 밧 갈당 그냥 돌아남저, 저 신작로로 행 어디에 막 돌아서 제우 강 심곡 양,

104010 #2 막 행실머리 나쁜 쉼덜은,

104010 #1 계난 이 아멩헤도 쉼는 이 토종쉼라사. 계난 이, 게고 저 양종덜을 재 게 슬지고 크긴 허우다. 뿔이영 거달거달거달헌텐 허영, 재게. 토종은 덜 커도 이제 순 허곡. 우리도 방에 허단도 방엿특더레 올라산 문 사름 캐우리멍, 아 이거 영 올라샷당 쉼 그냥 사름 그냥 뿔로 받아.

104010 #2 막 거 속쉼게, 속쉼.

104010 #1 속쉼, 것도 구녕이 싹곡.

104010 #2 막 얼룩얼룩헌 쉼, 막 행실 나쁜 거 사완.

104010 #1 구녕쉼, 속쉼 이제도 에 속쉼 또 이 사름도 영 곱으믄 뭘 헐나, 송씨 라고 행 흐끔 저 페라운 점이 핫수다게, 게 이 성씨 거느리믄 안 뻘저. 에 송개신디 속쉼씨, 경 행 나쁜 말도 서나고 헌디.

104010 #2 나쁜 말도.

104010 #1 어떠튼 이 속쉼씨는 알아주질 아니허여. 게고 이 저 양종,

104010 #2 우린 저 쉼 어떻헌 처리 알앗수가. 쉼만 질루믄,

104010 #1 이 저 밧 ㄱ르칠 때도 멍심행 양, 이 속쉼씨난 양종덜은 막 다른 쉼 담지 아니허영 다른 쉼 열을 ㄱ르침시믄 곱 스무날은 영 ㄱ르쳐사 흐끔 수분수분허 주. 게 아니믄 말을 듣질 아니허여.

104010 @ 쉬엇당 허쿠다.

104010 #1 경 험서. 허허허.

말 기르기

104011 @ 거민 저 물에 대해서 양, 물은 어떻 질릅니까?

104011 #1 물도 쉼나 ㄱ뜨는디. 보통 여기서 물덜은 저 이 밧도 안 갈고 물이 쓰는 건 여기서 단지 머냐 흐믄, 밧이나 불리곡 머 이 저 뭘허주, 별로 여기서 물은 사름 탕 텅이곡 머 흐는 거 웨에는 물이 쓰는 용도가 별로 엇어마썸. 계난 물은 하 영 질루질 안 흐여마썸. 주로 쉼도 질루곡, 물 질루는 거는.

104011 @ 계난 물은 어디서 질뤄?

104011 #1 몰도 집의서 똑 쉼왕에 메곡 쉼나 마찬가지로 똑 ㄴ찌 관리하여.

104011 #2 겐디 해변더렌 잘 안 질와.

104011 #1 몰덜 해도 이 저 몰장시덜 여기서 하여 스몓 하여 받아당 저 육지에 나가든 쉼, 몰 구루마용으로 만이 나갑주게. 게든 여기서 몰 새끼 낭은에 좀 며 행 하여 질루당 몰장시 신디 푸는 거.

104011 #2 그것이 하여 흡니다. 몰장신디 폴아.

104011 #1 이제 몰 용도가 밧 가는 건 쉼로 같고, 구루마나 좀 몰 구루마 하는 사름 건 전문으로 하는 사름덜. 몰 구루마는 늘 이 쉼 답지 안 하여 집의 자가용으로.

104011 #2 옛날 농사 지은 거 몰 구루마 하여 감제도 폴레 가곡.

104011 #1 그런 거 구루마용으로.

104011 @ 목장에는 몰 안 올리지양?

104011 #1 몰 목장은 엇수다, 엇어.

104011 #2 잘 들어보지 안 하니, 육지레 폴레 가 몰덜. 육지레.

104011 #1 아니 그건 몰 장시덜 반양, 몰 장시덜 키왕, 건 구루마용으로. 육지레 가든 더러 몰구루마 하지 안 흡니까. 옛날 차덜 별로 엇인 때 몰구루마. 여기서도 몰구루마용으로 영업용으로 하는 사름덜 셔낫수다.

104011 #2 게난 거 돈 받으며.

104011 #1 한 번 어디까지 시켜 가든 얼마 받곡. 쉼 춤 차 엇어놓니까, 그때는.

104011 #2 쉼 엇어근에 쉼에 짐 시끄지 못 하는 할망덜은 몰구루마 빌어근에, 무사 이디 동석이아방네영 안 해서.

104011 #1 몰구루마 해낫주.

104011 #2 이제 우리보단, 다 죽어볼엇수다만은 그 하르방덜 몰구루마 하여근에 보리 강 시꺼오곡, 이제 조 하여 조 시꺼오곡, 이제 할망덜만, 쉼 엇곡 쉼에, 저 벅에 담양 못 하는 할망덜이 시든 그 사름덜 돈 받으며 하여마썸. 경 하여 저 도새기 폴레 몰구루마 빌렐 가곡. 게든 도새길 주나 쓸을 보릴 주나 콤을 저 무시거 콤을 쥐사.

104011 #1 장에 시켜 가곡. 몰구루마용으로 요즘 저 차, 요즘은 차가 시난 해도 옛날사 차가 별로 섯수강. 한 며 이 한 부락에 차에가 엇어나십주게. 게든 주로 몰구루마 하여곡, 그자.

104011 #2 쉼 하여 메여낫수다만은.

104011 #1 쉼 하여 이녁도.

104011 #2 몰은 얼마 안 메여.

104011 #1 이녁 일 하는 거는 쉼구루마로 영 하여곡. 뒤에 구루마 메왕은에.

104011 #2 몰은 양 ㄴ르치기가 더 구져.

104011 #1 몰이 폐랍곡, 몰은 아주 폐라왕 하여꿈 하여 사름도 뒤돌아사명 차불든, 몰 메엇당은에 이.

104011 #2 사름도 다친 사름이 막 하낫수다.

104011 #1 물은 이 돌아사름.

104011 #2 게난 집집마다 쉼 메명.

104011 #1 싸울 때도 흐주만 사름도 차불어.

104011 #2 게난에.

104011 #1 뒷발로.

104011 #2 물장시가 둘 셔낫수다, 이디. 우리 씨집 오기 전의도 경 물장시 신디. 또 우리 하르바님네도 물 질왕 관옥이 하르방이영 둘이 셔낫수다만은 폴앙 흐른. 물은 이제 부두레, 부두에도 물 몰아가른 돈 얼마 주곡, 흑생 때. 그 하르방덜 어디 배로사 시겜신디 경 흐연. 이 아방도 해낫주게.

104011 #1 물 저 서부두까지 몰아가른 멧 므리 흐른 돈이 그때 천 원짜린 막 비싸고 흐난 오백이여 이제 두 므리 흐른.

104011 #2 오백원 헛저 줌. 천 원 받아.

104011 #1 천원 받았 오른 큰 돈입주게, 그뎐 헛고. 그때는 고무신 하나에 머 칠 팔십 원 영 같 뎐디.

104011 @ 쉼장시나 물장시가 돈은 현금은 하영 가정 다넛주게.

104011 #1 아이고 사장이우다, 사장. 이디서 흐른, 장시는.

104011 @ 우리 쪽은하르버지가 옛날 쉼장실 해나신디. 나도 그 저 우리 중문서.

104011 #1 예.

104011 @ 그때 저 대정 초등학교 아피까지 쉼 몰아가렌.

104011 #2 몰아가른 돈 받지.

104011 @ 쉼 흐 므리 몰아가니까, 두 명이 흐 사름이 천오백 원씩 받았수다, 그 때. 그때 천오백 원 흐민.

104011 #1 커서.

104011 #2 천오백 원. 우린 천 원.

104011 @ 초등학생 때 천오백 원 흐민 엄청 큰 거우다게. 그 주냉이 강 흐루 강 백 므리 잡으면은 그때 이 원 오십 전이난에 이백오십 원뻘이 안 뉘여.

104011 #1 백 므리 잡앗자.

104011 @ 난 흐루에 비온 뒷날은 가근에 흐 백 므리 잡읍니다.

104011 #1 것도 소낭뵈 강 담 일르명.

104011 @ 게난 막 그냥 일러불곡.

104012 @ 경 흐곡 양, 그 물 종류, 물 종류에 대흐영 흐 번 곁아줍서.

104012 #1 물 종류는 잘 몰랑. 가래물 머 이 저 무신 빈직빈직흐 그 저 색깔흐 물이 그.

104012 #2 무신 물이엔 해라, 우린 녹디물? 저 무신 물.

104012 @ 가래물 거명흐 거.

104012 #2 가래물 흐곡 이제.

104012 @ 그다음에 머 저 불경헌 건?
 104012 #1 것이 이제.
 104012 #2 청, 어.
 104012 #1 청대물은 이제.
 104012 @ 청대물, 청대물도 있어.
 104012 #1 가래물, 청대물 이 노랑헌 물이 무시거 나원.
 104012 #2 물덜은 양, 몬몬 안 햏연 못 질화난. 쉼보단도 더 페라왕 햏지 구정 양. 경 햏곡.
 104012 #1 물은 경 햏곡 이.
 104012 #2 용도가 엇어, 이제. 밧도 못 갈곡.
 104012 #1 밧 불리곡 그자.
 104013 @ 물은 어떻 이용힙니까?
 104013 #1 물 이디션 그자 주로 햏는 건 물구루마 이 전문으로 햏영 햏곡, 또 밧 불릴 때도 물 목장에 올렛당.
 104013 #2 조팻.
 104013 #1 조팻 불릴 때 이제 물덜 몰아당 햏를 햏몬 어느, 오늘은 누구네 밧 누구네 밧 햏몬 막 조 팻 것도 양, 불리는 건, 햏를에 멧 밧 불립주게. 막 물 대엿서 믱리 해 놓몬, 물멍. 주로 머 경 햏곡 이디서 물 햏 건 어디 제주시 ㄱ몬 딘 보몬 물로 밧 간덴 햏여도 여기선 쉼 이시난.
 104013 #2 물구루마 햏영 시에도 사름덜 가낫수다.
 104013 #1 물구루마사.
 104013 #2 경 장에 가명 차 엇이난 물구루마 탕 강 장에 머 폴레 강 밤의 불가 가몬.
 104013 @ 우리도 믱로는 밧 안 갈아.
 104013 #1 시에선 연병자에 갈앗젠 우리 웨삼춘네 햏여도 건 소문만.
 104013 @ 이 내창에 물덜이 햏영 내려와낫어. 경 햏민 양 동네 아이덜.
 104013 #2 모스왕.
 104013 @ 돌멩이 들렁 물 마칠락.
 104013 #1 물은 막 물 먹는 디 가몬 둥굴어 놓몬 물이 그냥 막 햏탕. 똑 물 신디 가몬 물은 이 쉼 담지 안 햏영 그냥 막 둥굴영 몸 금으멍 해놓몬 저 햏탕물 막 그자 이 구진 물 몬 지곡 해가지고. 물은 게난 이제. 게난 여기 물 장시가 햏 멧 사름 셔 놓난 그 사름덜은 받아냥은에, 스방엿 거 막 반양 물을 멕주게, 번 햏영.
 104013 #2 창꼴.
 104013 #1 창꼬 햏영 막 메 놓몬.
 104013 #2 창꼬가 아니고 저 ㄴ람지 집 햏영.
 104013 #1 요 사름덜이 양 그 번 햏영 해놓몬 쉼 먹을 풀도 물은 굽으로 끈어먹 지 안 힙니까. 쉼 우의로 속속. 물 먹어난 딘 먹을 것이 없어. 게난 이디서도 아이

고 저 물 뺨 흐른 영 흐명 춤 자꾸 욱해지곡.

104013 #2 물 장신 막 인심이 엇어낫수다, 잇날.

104013 #1 물 장시엔 흐른 춤, 이 좋게 생각을 안 흐여져.

104013 #2 물이 그추룩 멘들아놓난 양, 사름도 경 인심 엇어부난. 물이 그추룩 인심 엇어가난 사름 아올라 경.

104013 #1 물장시네 집 흐른 벌써 이 인정부떠가 박흐여.

104013 #2 물이 박흐여마썸, 쉼 답지 안 흐영. 게난 집집마다 메지도 안 흐곡. 물 구루마 혼 덴 댓 사름 셔근에 장의 무시거 폴레 갈 때 빌영 가곡.

104013 #1 이디도 흐른 쉼도 메곡, 저 물장시 흐른 그 이제 제주시 그 부두레 물 아갑주. 물 흐른 뗏 므리.

104013 #2 산지레, 잇날 산지.

104013 #1 두 므리 시 므리 흐영 영 야개기 연 메영은에. 춤 물 물은 혼 므리 잘 못 흐른 땀 더레 막 가부니까 이거 우두머리 물을 잘 헤여사. 게난 그 이끄곡 흐영 가당 차 와놓른 물은 쉼 답지 안 흐영 잘 놀라마썸. 차 확 넘어갓당 차 와들랑 흐른 그땐 멍심흐영 물도 몰아사.

104014 @ 그 다음에 물 나이 쉼영 틀리지 안 흐우파.

104014 #1 물은 틀린디 그 물도 아가리로 뵙디다. 니빨.

104014 @ 혼 술은 머옴 흐여?

104014 #2 이빨 흐나 흐른 혼 술게.

104014 @ 혼 술 두 술 흐지 안 흐영.

104014 #1 뭇생이 니는, 뭇생인 잘 안 해놓난, 그거는 나이는 좀 그건 몰르겠네.

104014 #2 그 이빨 들렁 하나 낫져, 두 개 낫져 흐여.

104014 #1 물 흐른 또 이 물이 보른 거옴 낫젠 흐여마썸. 거옴이 머냐 흐른 이 니옴 잘 붓어. 게른 여기서 보른 그 쉼 파스 흐는 사름 데려당 흐른, 검치흔텐 해가지고 양, 니옴 붓영 봉그랑흔 거 그거 문 침 저 녀작흔 무신 저 그 침으로 문 질렁은에 피 빵 소곰 그레 데경 밀곡 흐른. 게른 뒗날부떠 풀도 먹곡. 풀 안 먹어가른 ‘저거 물 거옴낫져.’ 영 거옴 낫져 흐여 니빨에.

104014 @ 치감이나 마찬네.

104014 #1 치감, 치감.

104014 @ 사름은 치감 흐면은 이 세우리로 흐영 막 밀엇주게.

104014 #1 물은 겨난 닛굽 저 침으로 쥐나른 막 피나른 소곰 행 양 그자 이 박박 그냥 소곰 막 혼 줌 쉼여오라 흐영 밀영 해놓른. 아 그것이

104014 #2 딱 물덜 아가리 들르젠 흐른

104014 #1 경 흐곡 너무 심흔 거는 물, 물 자려.

104014 #2 무꺼근에 눅져놔 흐지 안 흐른.

104014 #1 물 자려근에 둘이 서이 딱 무더놔 아가리 벌려근에 검주언에. 경 안 흐른 막 밭질흐명 사름 차, 블라불어.

104015 @ 그 다음에 물 질루우멍 느꼈던 추억 곱아줍서.

104015 #1 물은 우리도 이제 하영은 안 질로나도 그 어영 흐른 어린 때부터 흐른 물은 영 타는 거 몽골식은 아니라도 물 뺨을 해놔수다게. 여기서 별로 이제 밧가는 건 아무것도 이제 못 갈아도, 물 질루왕 풀젠 하영 물 뺨을 흡주. 여기서 저 막 물 어더레 가든 저 버는 밧덜 하든 소낭밧이영, 이제 밥 쌍 강 그 저 다섯 집이여, 열 집이여 흐른 ‘아 오닐은 누게네 번.’ 영 흐른 문딱 이제 가멍 저.

먹이

104016 @ 그 쉼 흐고 물 먹이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

104016 #1 쉼은 보통 저 출 하영, 청초렌 하영 그 풀 무슨 비여당 먹곡. 경 안 하영 흐른 가을에 이제 팔월 추석 넘으믄 이 저저 나왔디 강 그 출 비영은에 물리왔당은에 하여다냥 집드레 놀엇당. 가을 돼믄 그걸 이제 집의서도 청초 하여당 비육쉼 이제 술진 쉼덜 흐젠 흐른 요거 썰멍, 썰멍 누까에, 이제 쉼ㄱ를 보리 해난 가까난 ㄱ를 누까 ㄱ를 하영 뿌리멍, 여기서 보통은 이제 육지 ㄱ찌 습진 안 흡니다게. 이디션 누까 ㄱ를 영 물 적정 쉼왕에 하영 맥이곡. 또 이 콩 습양, 비육쉼은 습양 이제 맥이곡. 나중 막 돼여가든 여기선 경 흡니다. 재게 술지지 안 하영 그게 잘 못인디, 돛지를 막 하여당 이제 그걸 잘 안 먹으믄 코에 영 들렁 아가리엔 막 대, 대롱 담은 거, 대롱입주. 것에 질멍 이제 코에 영 들렁 강제로 맥여놔수다. 물은 보통 저 이 생.

104016 #2 물은 생 걸로 먹어마썸. 습지 아니 하영 생 거. 콩도 그냥 비왕 내불믄 딱딱딱딱 씹영.

104016 #1 쉼 담지 안 하영 물은.

104016 #2 니가 틀린고라.

104016 #1 니가 쉼은 이 어금니가 어신디 물은 어금니가 성 꼭꼭 씹영 먹으믄.

104016 #2 저 잘 물 흐는 된 물이 아프나 어떻 새끼 나나 흐른 흐끔 슬망 것 멘 들양 주지, 경 안 흐 때 쉼 담지 안읍디다.

104016 #1 물은,

104016 #2 우리도 오래 아니 질루와도, 어머님네 흐끔 흐멍 저 친정에 살멍 하영 보믄 그냥 갓당 비와마썸, 할머니네. 저 쉼은 슬망 자꾸 하영도. 그 점이 물은 종긴 좋아, 자꾸 습지 안 하영.

104016 #1 아프나 흐믄.

104016 #2 아프나 새끼 나나 흐 뎌 무신 죽 썬 줍니다.

104017 @ 그 출은 어떻 마련흡니까.

104017 #1 출은 게난 이제 나왔디, 이 저 나왔 신 사름은 흐곡. 어슨 사름도 나왔 어슨 뎌 저 지금 쉼질 우터레 이제 출덜 풀믄.

104017 #2 누게 거 사사.

104017 #1 상, 그거 비여당 양, 그 팔월 추석 좀 전후 하영 이제 거믄 출이 굳어

집주게. 그걸 강 비영, 하니브름도 불곡 출이 이제 새른 그걸 혼 땃세만 비영 물리
우른 그거 비여당 이제 집에 문 쉼로 시꺼 오곡. 사름으로 지곡 흥명. 이디서 출왔
디도 양 이디서 한 참.

104017 #2 잘도 멀어.

104017 #1 어떤 된 두어 참 올라가 농난 새백의 가얏주게. 출왔도 이거 강행군이
우다게. 야튼 아침의 붉기 전의 가야 사누롱혼 때 출 비지, 늦엉 가든 벌써 땀 나불
곡. 붉기 전의 강 출을 시작을 해사 그 출 비여. 게난 막 사름 땀 사름 빌엉 가곡
흥영 요걸 흥여 농든.

104017 #2 경 흥곡 출도 저 비 맞아나든 쉼 안 먹어마썸.

104017 #1 겨난 빌 안 맞춰 성흥게 흥여야.

104017 #2 비 안 맞춰 퍼렁 곱닥흥게 흥영 흥젠 흥든 밋디 놀어근에.

104017 #1 이제 그 날씨 좋아사.

104017 #2 새 비여당 우의 더경, 느람지 못 흥든 비여당 더경 나땡. 날씨 경 해
가든 우의 건 젓어도 건 내불어근에 물 짓이나 쥐불곡 해도 저 퍼렁혼 때 흥영 땀
이지 안 흥든 잘 안 먹어마썸, 쉼는.

104017 #1 우리도 저 아의덜은 오망오망 흥곡. 이제 출왔된 가야지 누게 빌 사
름, 눅 빌어도 잘 안 흥여 줍니다게 사름덜이. 게든 이제 혼 땀 사름, 우리도 저 겹
은덕오름이엔 혼 디 강 그 서의 강 합청은에 ‘우리 ㄱ찌 살명 흥자.’ 아주 목장에
강 그디 밥행 먹으멍.

104017 #2 나멘 체음 나올 때난에.

104017 #1 으에. 그거 흥영 나면죽 썴 먹으멍.

104017 #2 나멘 숨으난 막 그거 좋덴.

104017 #1 아의 오망오망 흥난 집사름은 출 비레 못 가난 이제 서의 그냥 홀아
방식으로 살명도 출 해단 나중엔 막 혼 놀썸 흥난.

104017 #2 굴 쏘굽에 강 살앙 그 때.

104017 #1 이제 그 거 느 내췌당은에 차로 시꺼 오멍 흥여에 혼 집의 혼 차썸.

104017 #2 경 흥연 시꺼올 땀 도랑꼬로, 저 화물차, 화물차도 막 으까사. 어는 제
해 주켄 흥든.

104017 #1 옛날은 도라꾸엔 흥는디 도라꾸 흥든 메 번 엇어가지고 양 빌어사 여
간 흥영 맞추지 안 흥든 못흥여. 하도 차덜 엇어농난.

104017 #2 겨난 하이고 쉼로 시꺼오당 그 작산 거 쉼로 못 시꺼오곡.

104017 #1 겨난 보통은 양, 그 눅 씨곡 짐 지든 다 지곡 쉼에 시끄곡. 쉼에 저
출 시끄는 건 해낫주양?

104017 #2 질메 흥영 그자.

104017 #1 질메 흥영 그영 혼 사름이 쉼 들썸 몰곡 흥영 올 땀 스뭇 쉼덜 질레
잘못흥든 질레 부뜨곡 흥든

104017 #2 혼 바린 시경 읍니다. 혼 바린 시끄곡 지곡 흥든 육십 뭇은 와. 쉼 양

착 시끄곡 사름 지곡 흐믓.

104017 #1 흐 바리엔 흐믓.

104017 @ 예. 흐 바리 셰로는 욱십 못.

104017 #1 욱십 못.

104017 #2 영 게 존존하게 무끄믓 욱십 못. 욱십 못 시꺼. 출게 쫄르곡 흐난.

104017 @ 게난 조는 멧 못 흐여?

104017 #2 조는 그냥 이만씩 흐영 무끄난.

104017 #1 마은 못고라 흐 바리엔.

104017 @ 조?

104017 #2 쓰무 못도 흐곡게.

104017 @ 아이고 조는 마은 못 못 시킵니다게.

104017 #1 게나제나 셰는 춤 출은 욱십 못 보통, 사름은 이 마은나믓 못 지곡.

104017 @ 이 바리가 질메에 실을 수 있는 양이 바립주게. 양쪽에 해서. 출은 양쪽에 쓰무 못씩, 보통 보민 어떤 디는 마은 못 흐는 디도 잇고. 여긴 욱십 못 헛다면은 출.

104017 #1 출 못이 좋아.

104017 @ 못이 즐앗다는 겁주.

104017 #2 즐고 지러기 쫄르난에 시끌 때도 마주 부짱. 마주 부짱 영 시꺼.

104017 #1 잘 아니 흐믓 요것이.

104017 #2 오당 빠지곡 흐여.

104017 #1 오당 빠지곡.

104017 @ 거난 베를 잘 무껴야주게.

104017 #2 경 오젠 흐믓 양, 쉼 자게 가곡 사름은 지믓 돌팡에 멧 번 쉬영 정 오곡. 경 안 흐믓 저 오질 못 흐여. 옷어 오질 못 흐는 때문에 짐도 지곡 셰도 시끄곡.

104017 #1 게난 흐 바리.

104017 #2 흐 바리 헛자.

104017 #1 출 흐젠 흐믓 보통은 이 열흘, 눅 못 빌곡 흐믓 보름도 흐곡 흐는디. 이거 쥔 얼먹는 건 출 흘 때백이 사름 얼먹어 해번 사름. 머 막 강 흐를 흐영 비여야지. 뒷날은 또 어제 빈 건 이제 더러 성흔 걸로 무껴가명 또 비곡 해가믓 양, 경 흐곡 졸바로 밥도 못 먹곡 아침 새백이.

104017 #2 나멘 질 চে얌 날 때우다게.

104017 #1 출만 해지믓 좋아.

104017 #2 나멘 흐믓 맛죇텐 먹어낫수다만은.

104018 @ 거민 양, 출 비는 거에 대흐영 아까도 곶앗주만은 흐 번 더 곶아봅서.

104018 #1 출은 팔월절 들영, 입추. 팔월절 들믓 이제 머이나 그 저 자골출 말고.

104018 #2 새출?

104018 #1 아니 그건.

104018 #2 새로 혼 것도 새출 해놔주게.

104018 #1 하여튼 출왓디 출보다 전의 혼는 출이 잇수다. 그건 머냐 혼먼 이제 새왓 가부레기. 새왓이 몬 비당 나중예 쫓나가몬 이건 출로 비여얹주. 게몬 요건 너 무 세여불먼 안 먹어, 믱쉬가. 게난 건 입추 전에 비여사 혼곡. 그 다음예 출왓디 출은 이제 비먼 입추 념영, 여기선 보통 저 혼다 보먼 똑 팔월 추석 멍질이 그쵸 드는 수가 만해마씨. 게 우리도 멍질 해 먹으면 그냥 뒷날은 출왓디 가야 혼여. 그건 어쩔 수엇어. 경 혼당 날씨 이제 그쵸 예보가 엇이 해 놓몬 비라도 와 놓몬 요건 혼를이라도 성케 해야 혼는 때문에. 이건 양식이난 췌 양식.

104018 #2 할망덜 둘 빌어당 출 비멍.

104018 @ 거 출 어느 정도 해 봅디강?

104018 #1 우리도.

104018 #2 출 아영 해놔수다.

104018 #1 출 한 두 늘씩, 이제 놀이엔 혼먼 어느 크긴 혼우다만은 게도 이제 서른 바리 출이여 머 마은 바리 출이여.

104018 #2 그추룩 해놔수다.

104018 #1 영 혼 놀에 혼먼. 양쪽에 그득하게 놀영 혼먼. 그 출을 경 해지몬 마음이 미두혼여마씨. 우선은 양식이.

104018 #2 췌 양식이 해졌다 혼여근에.

104018 #1 그렇게 해 놓니까.

104019 @ 거난 출 운반할 때는?

104019 #1 출을 운반할 때엔 주루 저 췌에 시끄곡, 지곡.

104019 #2 정 느리와사주 무경 알러레.

104019 @ 출 비먼 메칠이몬 몰라?

104019 #1 아 그때 하늬 불곡 혼먼 양, 하늬브름 안 불먼 재게 안 몰르는데, 추석 념영 이제 입추 지날 그 하늬 불어놓몬 혼 이틀이몬 몰라마씨.

104019 #2 동산 우곡게 출왓덜은.

104019 #1 그냥 아래 머 날씨 몰르곡 혼먼 성흔게 거는 무꺼 놓몬 파랑게 고왕은에 그냥 구싱흔게 췌덜토 먹읍주.

104019 @ 경 혼여근에 이제 께로 무꺼야 텔 거 아니라.

104019 #1 께는

104019 @ 께는 새로 헛수과?

104019 #1 출 혼명 진 걸로.

104019 #2 출, 출.

104019 @ 게. 새네이.

104019 #1 진 걸로 영 뵙 혼꿈 진 걸로 따으멍. 게난 저 하영 혼젠 혼먼.

104019 #2 크젠 못 무꺼. 똑 요만씩.

104019 #1 새를 신 디, 새 신 디, 햅뎡 구석 ㄱ뎡 디 해당, 무생이 뉘왓젠 햅여. 무생이 뉘왕 햅여 무경 나뉘당 출 무끝 뎡 그거 햅햅 햅아내뎡 무끝주게. 게난 출 무끄기 전의 무생이 햅여 뉘왕 나뉘 게뎡 거기 무생이가 세햅뎡 뎡 개 햅뎡.

104019 @ 데뎡 나뉘?

104019 #1 무경 나뉘당 날씨가 햅으뎡 햅곡 게 아니뎡 저 더러.

104019 @ 운반햅여야 햅 거 아니우짜.

104019 #1 놀곡.

104019 @ 어디? 햅디 놀여?

104019 #1 햅디. 경 일어부는 수도 햅곡.

104019 @ 집의 가져와야 햅 거 아니우짜.

104019 #1 집의 가져옴도.

104019 #2 알러레 저 내려 와사주기.

104019 #1 어디 구루마도 엇인 집덜은 구루마 못 빌뎡 쉼로 빌엡은에 두세 ㄱ리 썩 쉼 햅여, 몰곡 지곡 햅여 식구덜 집더레 운반햅 오곡. 게뎡 구루마 못 빈 집은 햅를 다 비엡은 두 번 시 번. 보통 시 번 햅뎡 밤중.

104019 #2 시 번썩은 멀어.

104019 #1 두 번. 아침 뉘엡 낮이엡 정심 때도 강은에 출 무끄뎡 강 시꺼오곡 경 햅여. 놀엡당 햅 오뎡 줌 톡장은에 햅뎡 시끄기도 햅아 낱조룩햅여, 곧 무꾼 것보 단.

104019 #2 구루마 빌려진 뎡 질 이엡더레 막 저내젠 햅뎡, 저내뎡 빠지뎡 햅뎡.

104020 @ 그 다음에 그 여물, 여물은 어뎡 마련햅니까?

104020 #1 쉼에?

104020 @ 응.

104020 #1 쉼 여물은 저 보통 쿡햅지 햅곡.

104020 @ 쿡햅지.

104020 #1 또 쿡 불려나뎡 이 햅햅이, 그런 거 햅여당.

104020 @ 쿡햅지 햅곡.

104020 #1 조, 조햅메기 햅곡.

104020 @ 조햅메기.

104020 #2 보리 저나뎡게 보리 븡햅이엡.

104020 #1 보리 햅물 햅여도 쉼 이 ㄱ시락 서 놓뎡 덜 먹어마썩. 쉼 잘 먹는 건 조햅메기 햅곡 쿡햅햅이 햅곡. 쿡햅햅이 엡 불려난 거. 또 햅햅줄. 요거 햅햅게 햅뎡 구햅햅게 쉼 곤햅이 햅햅줄.

104020 #2 출 햅여 놓곡 햅뎡.

104020 #1 쉼 곤햅이라 쉼 곤햅.

104020 #2 경 햅 햅햅만 오뎡 햅햅 엇인 잘 먹엡주.

104020 #1 게난 조햅이엡 놀 뎡 햅햅줄이엡. 요건 햅햅줄만 햅여 놓뎡 이 물기

하놓믄 뽑아지질 안 흥난 조집이영 서경 놀어마씨, 보통 흥믄. 조지 트멍에 감젓줄
눌엇당 빠 줄 때도 좋곡. 서꺼놓믄 이제 잘 물르곡. 경 흥영 보통 눌엇수다게.

104021 @ 그 다음에 저 출 빌 때 얹힌 추억이나 경험을 흥 번 말해봅서.

104021 #1 출 빌 땐 양 우리도 출왓디 해 놓믄. 이디서 주로 췌질, 췌질 드르에
가난디, 아 이 사름덜은 이제 그 췌질 사름덜은 막 늦어사 흥니다. 바로 아피 출왓
덜이난. 게믄 이제 해변 사름덜은 이제 그 사름덜 빌영 해얹주게. 그거 빌영 이제
수눌지 못 흥고 흥믄 흥난디. 출을 비영 흥믄 해변서덜 양, 이제 해변 사름덜은 출
흥젠 흥믄 단도릴 흥영 양 이 팔월 나기 전의 출 흥젠 흥믄 자리젓 ㄱ믄 거 보통
담난디 웃드리 사름덜토 자리젓을 잘 먹읍주게.

104021 #2 자리젓 막 맛 좋덴덜 흥명.

104021 #1 어디 흥영 ‘자리젓 셔? 엇어?’ 영 ‘아 그디 자리젓, 해변 사름덜 자리
젓.’ 영 흥믄 그거 먹젠 이제 쿨도 받지만은 자리젓.

104021 #2 땀 디 가당도.

104021 #1 아 그 집의 자리젓 맛좋아 흥믄 막 사름덜 으라이 둘이 빌 거 다섯씩
영 빌어집주게, 열씩게. 경 흥디 그런 추억 잇고 양 또 흥 가지는 자리를 해 놓믄
그땐 웃드리 강 자리젓을 먹어 놓믄 물이 막 기렵지 안 흥니까. 또 더웁이엔 와삭
와삭 덥긴 흥곡. 게믄 이제 우린 눅 빌영 흥는 따문, 물을 멧 췌 못 질어읍주게.

104021 #2 췌이 셔게 그땐.

104021 #1 경 흥영 흥믄. 췌 무신 거 영 동골락흥 물췌 흥여 질영 가믄. 췌 가놓
난 어디 머 요즘 ㄱ췌 차로나 니아까 시믄 ㄱ성 갈 건디. 경 흥영 으퓷서 흥믄. 할
망 하르방이 온 디라 영 흥믄. 옛 물이, 여름에 그 왈락왈락 여름 아니라도 덥곡,
또 자리젓 짜게 먹어 놓믄 물이 오죽 기려울 거 아니우짜.

104021 #2 게난, 옛.

104021 #1 물 서시믄 할망. 옛 그 사름 머. 해변 사름 웃으메. 자리제 잘 먹어놔
물만 기려왕. 영 흥명 흥 그런 면도 잇곡. 또 출 머 흥당 보믄 우리도 눅 빌영 출을
비난디. 어떤 할망 꺾나난 이 해변 사름덜 흥 서너 사름 대여섯 사름 빌영 가난. 먼
저 감십서, 우리 출 줌 무경 가쿠다.

104021 #2 저 할락산ㄱ지.

104021 #1 아 이 밋터레 느려알 건디 할망덜은 모르난.

104021 #2 질 물르난 막 우터레 가불언.

104021 #1 막 우터레 올라간. 게난 우린 집의 와시카부덴 왕 보니 와? 아 이제
할망 일러부럿젠 야단흥니까.

104021 #2 저 신엄 사는 하르방.

104021 #1 막 헤메단 양 어디 저 우터서.

104021 #2 막 와와한 후제.

104021 #1 내려올 때사 흥연 이거 이거 어디 할망덜 할라산더레 올라감젠.

104021 #2 췌 판 오단 하르방이 만난.

104021 #1 경 흐연 춤 추억도 잊고.

104021 #2 ‘할망덜 어더레 감서?’ ‘집더레 감서.’ 흐난 집의가 아니고 저 우터레 올라가불언. 경 막 우리 스몏 멧 해낫수다게, 그때.

104021 #1 경 흐고 이 웃드리 사름덜은 양 저 흐믈 출 앓젠 흐믈 동산더레 흐영 출 비는 소리덜이 양 흥에기덜 질르멍. 해변 사름덜은 경 출 소리 안 흐곡. 웃드리 사름덜은 출 비는 흥에기.

104021 #2 이 밧디서.

104021 #1 이 밧디서 나오믈 저어 동산에서 나오곡 흐멍.

104021 #2 출 비는 소릴 경 잘 흡니다.

104021 @ 누게마씨?

104021 #2 그 웃드리 사름덜이 밧영 흐믈. 우린 그디 사름덜 동네 강 보믈게. 그 동네 사름덜 저 동네 사름덜 흐믈. 저 밧디서 출 비는 소리, 요 밧디서 출 비는 소리. 경 이 이 이 동네 사름덜은 그추룩 소리를 못 흐여마썸.

104021 @ 게 불리지쿠과?

104021 #2 에에 못 불러.

104021 @ 흐 번.

104021 #2 경 흐난 이제. 그것이 특기라. 이 하르방은 소리 못 행. 우리 동네 사름덜은 이진 흐난에 ‘에에 소리 흐는 디 강 머 흐여. 출 못 비메, 그 대신.’ 흐멍. 경 흐멍 경 그런 저런 멧도 셔낫수다게.

멜감

104022 @ 거민 양 그 멜감 종류 잊지 안 흐우짜, 옛날 낭불로도 습곡 다 해시난 에. 멜감 종류 흐번 말해 봅서.

104022 #1 멜감 종류는 머 주로 검벌엔 행 검질 비여당 좀 습곡, 보리낭 이제 주로 보리낭 해당 습곡. 그 다음 이제 겨울 들어강 술입 글그레.

104022 #2 술입 글그곡.

104022 #1 술입 이제 하늬브름 올려나믈양 술입이 털어집니다게. 털어지믈 막 새 벅이 갓도 저 늣 흐기 전의 가젠 흐믈.

104022 #2 늣 흐기 전의 강 글거사.

104022 #1 글경 막 들어 모두왕 이 밧 저 밧 흐여야 츠지흠으로. 갱 해야지 갱 아니영 늣 흐믈 뜬 사름 해불믈 머 흐난. 막 해당 이제 햇당 술입 보따리도 영 흐영 흐믈 글경양 새끼로 다 무끄곡.

104022 #2 경 새끼 나록찍 흐영 문딱 꼬양 나뒤사.

104022 #1 술입 흐영 멧 짐 흐영당 흐곡. 놀 우리도 술입 흐연 막 놀언.

104022 #2 막 놀언 스몏, 집의 저당.

104022 #1 집의서 흐믈 그것이 겨울에도 불 습곡, 아이덜이영 흐믈. 그 웨로 옛 날은양 삭다리엔 흐영 이 저 큰오름 뒤트멍에 쉼 몰곡 행 간 해와난 적 잊수다게.

그때는 하도 여기 지들께가 귀찮은 거 강 해당 흐른 우린 그거 강 낭 해당 풀멍 했는디. 쉼 몰양 강 거 시끄곡. 그 큰오름 뒤트레 가난 누게 사름 안 텅기난 하십데다. 와상흐영 짐 버쳐 못 저오주 지들께 어선 못 흐지 아녀.

104022 #2 게난 그디 감도 어려와.

104022 #1 거 가젠 흐른 여기서 흐 두 참 시참은 가사 홀 거. 저 한라산 큰오름 죽은오름 두 트멍더레 보통 올라가든 거 가든 이제 거 영 사름덜 하영 텅겨나곡 질이 좀 나 있는 디 잇수다.

104022 #2 낭, 죽어분 낭덜 삭다리 뒸든 그거 저와.

104022 #1 솔비낭 그런 걸랑 빼곡, 불도 잘 안 부떠. 겐디 쉼 좋은 건 게벌곡 흐 건 죽낭. 죽낭이엔 흐른 불도 잘 부뜨곡 가벌곡. 죽낭덜만 다 흐젠 흐영 죽낭 행 저오곡. 해 와나곡. 이디서 또 요 거 가까운 디 수산봉에 아까시낭이 잇수다, 이제도 잇는디. 그걸 흐른 상치레 거의가 저 아까시낭 밭이 셔났수다. 우리도 그거 해당은에 춤 이 사름 배가 이만이 해도 수산봉까지 올라강 걸 지영 내려오곡 춤. 이제 ㄱ뜨든 당채 못 해. 아이 임신뒸영 흐디 큰일 날 걸 몰르곡. 겨니까 헐 했는디. 요걸 해당 또 솟을 귀서마썸. 아까시낭 솟은 소낭 담지 안 흐영 묻히곡 좋아 솟만 멩글아 놓든. 솟은 어떻 굽느냐 흐른.

104022 @ 그건 나중에 물어보쿠다.

104022 #1 경 흐고 이제 지들께 흐 건 거 솔입 글그는 거.

104022 #2 솔입 글경 오단 일러불언에. 저 중창흐젠, 중창흐 말은 흐 번 이펜 팡더레 저다뒸 또 강 저디 거 이펜 팡더레 저다 놓곡. 겨해사 집의 가까운 가젠. 게든 솔입은 석 짐 글건 나두난에 스뭇 애씨게 흐연 글거나두난에. 글건 오단, 석 짐 글그난 시 번은 요디 이 팡에 저펜 팡드레 저오곡. 집의 츠츠츠 가, 뻐디여 가게. 게 흐 번은 해뒸 두웨기 흐레 간 보난 흐 짐이 나 꺾이 엇어붙어서. 어디 저운 사름은 비슷흐연 알아저도 내불라 아방 내불라 내불라 우리랑 두 짐만 먹게 흐연 이젠 아방이영 흐 짐씩 전. 아방은 아기 채와뒸 마중 가선게. 이제 베 으전 마중 가선게 거 흐 짐씩만 전 완 먹어났수다게. 경 그르후젠 저 식구덜 싯곡 하근디 멋 흐난에 길가의 어욱도 비여당 습곡 수산봉에 가까운 디 시난 강 까시낭 해당 습곡.

104022 #1 경 흐곡 저 이 팡낭, 저 요 빌레에 이 못쓸 불모지에 가든 팡낭이라고 영 흐 거.

104022 #2 섬피 멘들곡 흐는 거.

104022 #1 섬피 멘들곡 흐는 낭이 잇수다. 팡낭 이제도 이제. 그거 비여, 저 나대로 흐영 착착 비영 나뒸당 몰르든 그거 무꺼당 이제 저 자귀나 멋으로 탁탁탁 그걸 즈르게 썰어서.

104022 #2 못 습양, 왕상해놓난.

104022 #1 게난 그것에 행 물리왓당 또 저 솔입에 서끄믄양 불이 들강 잘 부뜨곡 화력이 켜여.

104022 #2 보리낭만 습으든 재게 부떠 와불어.

104022 #1 보리낭 금방 솜으믄 이견 불도 약하고 밥도 재영 흐믄 하영 들어가곡
흐난. 경 흐영도 솜앙 쓰곡 해낫주, 지들께.

104022 #2 거행 흐꿈 솔입 강 글거와가난, 흐꿈 그뻔 수월흐연 보리낭만 솜단에.
흐꿈 저 흐 짐 흐믄 막 흐 메칠 흐 일주일, 열흘 솜아난.

104022 #1 그뻔 보통 보리압 행 먹읍주게, 여름에 흐믄. 그냥 보리 흐젠 흐믄 보
리밥 흐영 쓸 해 놓믄 팔락 께엇당 재게 솜앙 께엇당 초불 께엇당 ㄱ만이 틈 자게
나뉘엿당 또 다음 영 솜으믄 밥이 재게 되곡, 경 안 흐영 계속 솜으믄 멍심흐영 잘
안 흐믄 ㄴ 카불곡. 또 물이 족으믄 뽕뽕흐영 설앙양 밥맛도, 밥 먹기도 어렵곡 흐
영. 지들께도 하영 들어가곡.

104022 #2 경 흐여도 그런 밥 먹으멍 살앗주. 맛 좋안 그 밥이.

104022 @ 그 다음에 쉼똥, 똥똥 좇어낫지양. 요거에 대해여근에 흐번 곱아줍서.

104022 #1 쉼똥, 우리도 저 온상 흐젠 해도, 주로 이디션 걸름흐곡, 저 이 열 열
랑 찍하고 ㄱ찌 서경 골랑 발열시경 머 메종도 똥똥흐게 흐영 흐는 따문에. 경 흐
젠 흐난 저 웃드리에 올라가믄 똥 쉼가 합니다게. 드르에 낱 내분 거. 경 강은에 똥
가정 강.

104022 #2 막 베긴 놀 거난 베여.

104022 #1 놀 건양, 무신 니아까가 시카.

104022 @ 거 똥리왕 와야주게.

104022 #2 아이 아이 똥리왕 오젠 흐믄, 똥에 해영 정와.

104022 #1 ㄴ 가져가불어. 똥똥 ㄱ똥 거 줍기 좋아도 베여마썸.

104022 #2 똥리우당 보믄 ㄴ 사름 좇어가불곡게.

104022 #1 ㄴ 좇어가니까 베여도 그냥.

104022 #2 흐꿈씩 쳐와낫수다 우런게.

104022 @ 집의 왕 똥리왔구나.

104022 #2 예. 집의 왕 질레레역 영 널영 놔두믄.

104022 #1 똥하고 걸름착, 걸름착 똥에 행은에 지영은에 왕 똥리왕. 경 아니믄
어느 사이에, 저번의도 똥리왕 나두난 누게 지여가불언, ㄴ똥게 아이고 잘 똥져게,
ㄴ똥.

104022 #2 경 흐연 또 쉼똥은 저 흐꿈 똥르믄 ㅎ저오믄 굴목 짊어. ㄱ시락에, ㄱ
시락만 흐믄 똥똥똥 흐믄 돌 굴목에 흐여근에 쉼똥흐영 짊으믄 흐꿈 오래 강, 밤중
똥도록은 똥앙 아기덜 그레 굴목 어귀레 눅지곡. 저 ㄱ시락만 흐믄 자게 부똥불어
마썸.

104022 #1 호르르르 부똥불고 쉼똥에 서경 흐믄 이거 초지낱 흐여도 똥도록 부
똥. 또 부똥나도 드똥흐메.

104022 #2 게도 쉼똥 시믄 막 ‘아고 올 겨울엔 쉼똥 시난에 ㄱ시락 살아나곡, 굴
목 저 구들 흐꿈 ㄴ똥흐 직 흐다.’ 경 흐영 아기덜은 그레 눅지곡.

104022 @ 그 냥토막은 안 행 읊디가?

104022 #2 낭토막 해도 밥헛젠 헛른 굴묵더레 덜 강.

104022 #1 목쟁이라고 해영 이 저 곡쟁이에 불미왕에 강은에 양쪽 늘을 돌지와.
거 끈어뒀은에 이제 베려, 하난 요렇게 가고 하난 영 도치색으로 헛영. 요건 낭빨리
용이라. 낭빨리 우리도 잘했수다. 이 낭빨리 헛레 강 헛른 소낭덜 비여난 거 굽덩치
헛른 불리도 파곡 이거 이제 헛는다, 이건 완전 저 곡쟁이로, 목쟁이로 해가지고.
경 헛여도 그건 낭으로 헛난 종곡.

104022 #2 정왕 집의 문딱 깨영 널영.

104022 #1 깨영 딱헛게 늘영 나뒗당, 건 양념으로 헛폼씩 숨곡 무신.

104022 #2 아고 밥헛는 거 일등으로 그건 헛곡.

104022 #1 제사 때나 그거 쓰곡.

104022 #2 어떤 때 굴묵, 솔각 빠지른 굴묵더레 헛폼 진어사, ㄴ시락 드리 그레
헛영 헛른 막 겨울엔 지꺼져.

104022 #1 솔각 신 저 소낭 빨리는 요것이 이제 그 불이 켜여가지고 부떠놓른
불이 문형양, 헛폼만 숨아도 밥이 금방 돼메. 거난 건 아경 쓰곡. 주로 솔입 헛 거
헛곡 서끄멍 스몏.

104022 @ 경 헛른 솔입 걷는 거에 대헛영 헛번 곱아줍서.

104022 #2 대글쟁이, 대글쟁이.

104022 #1 대글쟁이로 막 헛영 이제 보달치멍, 거 이제 새끼 꼬앗당 강 영 낭 보
달청 탁탁 헛른 것도 기술이 서사. 잘못헛른 헤싸져부니까.

104022 @ 꺾으로 무꺼야 흘 거 아니라.

104022 #1 칩이나 새끼.

104022 @ 여긴 칩이엔 흡니까?

104022 #1 예. 칩.

104022 #2 여긴 칩이엔 헛여도. 나락 짝 헛엿당 새끼 꼬양. 새끼 꼬는 집이 천지.

104022 #1 새끼 팻당 영 낭 그 처음에는 글쟁이로 잘 탁탁 헛멍 양 컷탱이 헛여
낭 짝 물양 둘이 헛영은에 덕각. 이것도 혼자 보달치기는 잘 떡각을 못 헛여. 둘이
헛영 마주, 보통 둘이 마주헛영 딱 헛영 양펜이 코짱케 때려 놓른 보달 딱 쳐.

104022 #2 게난 것도 बात 좋은 बात 아다루 헛른 하영 글그고 बात 동산이영
까시 트멍 헛른.

104022 @ 솔입도 बात 좋고 나쁘고가 잇수과?

104022 #2 아고 춤 선선흔 소리.

104022 #1 소낭 잘 터야.

104022 #2 소낭 아래 칩이영 검질이영 신 딴 대글쟁이가 솔입을 가밧자 굽질 못
흡주게.

104022 @ 풀 신 딴 안 돼주기.

104022 #2 예. 경 헛난에 영 뽕은에 소낭 아래 사름덜이 다 그런 것만 보젠 헛
여. 거난 영 보른 글거난 딴 알아져마썸. 저 솔입 글거난 디. 게른 그런 디 가근에

굵곡 무시거 저 양말이나 대비나 신영 갓당 영 걸청 늪 혀여가지 못헿게, 츠지흙으로. 경 해근에 행 츠지흙으로 혀영.

104022 #1 하니브름 불어났다 혀른 이거 난리라. 새벽의 밤의 강 막 이 밧 저 밧 양 혀꼼씩 츠지흙으로 메와놔.

104022 #2 대막텅이 질르나 델 질르나, 누게 으져가지 못 헿게 혀명 혀지 안 혀른 술입도 문딱 글거가불곡. 거 술입은 하도 매 밧디 못 글거, 칫빨리영 검질 신 딴 굵지 못 혀여.

104022 @ 술똥이영 ㄱ찌 글그는 거 아니파양.

104022 #2 예게. 술똥. 술똥은 저 벅에도 담곡, 무시거 해낫수다. 뜰로 담양 와근에 그 술똥은. 게난 술똥은 하영 못 혀주기게. 저 술입만이 못 혀여. 술입영 혀른 문딱 털어져불곡.

104022 #1 뜰로 혀여사.

104022 #2 술똥은 줍젠 혀른, 것도 술입 굵젠 혀른 욕심으로 그거 자게 못 혀여. 맥으로 혀날 혀나, 경 아니른 저 무신 갈중이라도 영 혀영.

104022 #1 아니. 땡텅이영 가정 갓당 것에 좇영와.

104022 #2 땡텅이 우터레 갈중이 담은 거 영 낱 혀영 지곡, 소랑헿게 낱 지곡, 기 아니영 술입은 혼 못 혀영 나두른 무시거 어드레 아방 왕 헿렌 헿질 못혿여. 어디 밧도 몰르곡 무시거옴 곤지도 못 헿곡 혀른 나냥으로 그거 정 누리당 어땡혿영 질레에 어땡 혀여근에 어디 술입 글경 완신고 혀영 스망 인 때옴 아방이 걸령 정 오곡 경 아닌 땡 나만 술똥이영 무시거영 정왔다근에.

104022 #1 대통 여자덜이 굵는디양, 술입 굵는 건 게 헿곡, 마주 가는 건 남자가 강 지여 오곡 경.

104022 @ 저 오는 거?

104022 #2 뒷날 가근에, 뒷날 어땡 헿당은에 아기 채와근에 어땡 어머니나 혀꼼 봐줍젠 혀른 아방고라 ‘양 술입 글경 놔 둔 거 일러먹엄수다. 가게 가게.’ 경 혀른 저 믱를 막 먼먼혼 디 가른 어떤 땡 셔 ㄱ만이. 무꾼냥 시른 이제 아방 저 오곡 난 뜰시 채게 오젠 혀른 술똥 좇어근에 맥이라도 지곡 경햐수게.

104022 @ 이젠 영 땡겨보난 술똥이영 술입이영 하십디다.

104022 #2 이젠 썩엇수다. 수산동에 가도.

104022 #1 썩영 즈꺄디도 핫수다. 춤 간세혿영 못 혀주, 그거 춤 헿쟁만 혀른 전의 답지 안 혀영 천지주.

104022 @ 낱 헿레 고지 갓당왔지양? 그거 혼번 곶아줍서.

104022 #1 낱 헿렌 저 여기서 혼 세 참은 넘어 세 참 반썸, 저 큰오름 뒤에 삭다리 헿젠 혀른 그레 가사 이제, 가도 그디 가도 무신 사오기 ㄱ뜬 거, 거는 베영 못 저오곡, 보통 강 이제 족냥 ㄱ땡 거 행 오는디. 우린 처음옴 무신건 철이 알앗수강 어린 때 가난. 사오긴지 먼지 이제 와상해시난, 다른 건 게베운 건 늣사름 하영 헿고 가부리른 열말 아녀도 늣만이 헿니까 베여서양 그건 다른 사름 곱은 지여도 한

결히 오는디 늬 내분 거 게난 그런 걸 잘 알아야지. 사오기 해단. 또 이디 오난 그 거 잘 불 안 부뜨는 거난 누겔 머옌 흡니까. 이거 잘못 해왔져. 게난 것도 낭도 잘 알앙 해야지.

104022 #2 게난 다음부턴 쉼 몰앙 간 흥명.

104022 #1 쉼 몰고 흥연 줌 쉼 두 바리 흥영 간 삭다리 신건에 오멍 해낫는다.

104022 @ 등짐으로도 하영 젓지양?

104022 #1 아이고 등짐으로 지꼭 쉼 몰꼭 흥영 집의 와놓믄 등뎡이가 다 벗어져.

104022 @ 여기는 다 연료를 쓴 거지양?

104022 #1 예, 이디선 다 지들께.

104022 #2 게난에 그때도 낭 흥레 강도 우리 도깨 흥는 낭은 하영 해단에 누게 주멍. 도깨, 그거 흥레 강 보믄 도깨 흥는 낭, 일름 멋이우파 도깨 흥는 낭.

104022 #1 윤누리.

104022 #2 지레기 질어놓난 시꺼오젠 흥난에 베 흥난 막 걸련에 문 질메 벗어놓난에 벗으멍 흥난 아이고 잊어불어지지 아녀.

104022 #1 질레레 내려오믄양 줌은 디앙 박박 홀트멍 쉼 몰아놓믄 으피 막 걸리 꼭.

104022 #2 윤누리낭은 따신 흥지 아녀.

104022 #1 도깨낭은 집주게. 질어놓믄 쉼 흥영 문 저 쉼 질메 벗어지멍 문 걸리 문.

104022 @ 서런 보통 저 멀로 했지양? 소낭으로.

104022 #1 여긴 소낭마씨.

104022 @ 서리.

104022 #1 서리 흥곡, 대 으깁 저 집 머 흘 때, 새끼로 흥영 대 으깁 튀기엔 해가지고 튀기 으끈다. 경 대로 다 흥영 영알영알 해냥 흑질 흥영은에 안내 불르꼭.

104022 #2 우리 그런 집의 오래 살앗수게.

104026 @ 그 다음에 저 솟 굽는 거, 흥번 곁아봄서.

104026 #1 솟은 양 거 묻힌 거라사. 이 소낭 ㄱ튼 건 재게 부떠불꼭. 송진이 서 놓난.

104026 @ 소낭은 안 돼지양?

104026 #1 야튼 돼여도 이거 얼마 나오지도 아녀꼭 잘 끼우질 안 흥믄 재게 카 불영 나중엔 재뻬이 어서 소낭은. 게난 보통 우린 아까시낭으로 가까운 디 싯고 흥난 많이 이제 해 맞는데 요거 흥믄 흑 팡 영 구뎡이 널르게 감저 구뎡이 ㄱ찌 파놔. 요거 아래 펜안흥게 으피 흑 줌 영 반 자썸 올렁은에 직각 세와마썸, 낭을. 트멍 시믄 안 돼여. 직각 세와냥 이제 바꿨딜로 또 줌진 낭 머 이 츠낭 ㄱ튼 거 이파리 신 걸 해당 걸 싯 더껴. 구짜 세왕 이제 동골락흥게 해놔. 요걸 잘못 세우믄 그 거 불 하영 부떠부렁 안 돼고, 직각 세와놔. 그 우의 이제 츠낭 ㄱ튼 거 비여당 우의 딱 냇. 그때 이제 흑을 막 지들뤘. 흑 지들왕 니 구석은 불도옌 흥영 곁냥 나오

는 디 싯곡, 불 질르는 디 서. 게른 한 쪽으로 이제 두 군데는 불 습아가곡 니 군데는 둘로 연기 날 거 아니파. 흑은 영 늘 늘었은에 흐듯이 둥그렇게 땅 우트레 가게 흐여. 흑 막 스방에 지쳐놓은 딱 흐게 토굴이 돼는 겁주, 안네. 경 한쪽으론 이제 그 불고수웨엔 흐영 낭으로 것도 혼참 습아사. 경 해영 안네 그 불, 늘 거라도 주로 믋른 건 카불영 안 돼곡 늘 걸로 흐여 슷은. 불이 부뜨기 시작해놓은 요거 저 흑해놓곡 흐른 얼른 꺼지질 안흐여마썸. 게난 혼 일주일 이상 이제 하영 혼 건 일주일 게 안흐른 사흘 불 때사. 자꾸 강 흐른 불 꺼져시카부덴 밤의도 강 보곡. 꺼져시른 또 그레 고수웨 놓멍 부짱. 그걸 쏘곶으로 어떤 땐 다 부떠사 늘 거 때양. 우원 또 영 그 멩게낭이영 무신거 검불 하영 낭 해놓은.

104026 #2 퍼렁혼 폴 해당 지쳐낭.

104026 #1 흑 지쳐도 다 부떠마썸, 그레. 게른 영 뵙 사을 보통 잘 부뻗다. 사나을 영 뵙 쏘곶이 다 부뻗다 흐른 또 고냥을 딱 막아마썸. 게영 혼 사흘 딱 흐게 습 못 쉬게 흐여놓은 나중에 이것이 제라흐게 잘 부뜨른 기회에 잘 끼와지른 슷이 오곤흐고 췌소리가 나멍 지릉지릉 흐게 춤 흐곡. 갱 안 흐른 잘 안 막앗다른 너무 카불어. 또 덜 부뻗다 흐른 생바리 나, 생바리엔 흐주 잘 안 부뻗 거. 경 흐영 생바리엇이 흐젠 흐른 불을 잘 피와사 혼다 흐여. 경 흐영 슷덜을 곱니다. 보통 여기서.

104026 @ 슷 멩글양 슷 폴레 갓지양?

104026 #1 슷 폴레 간디 우리도. 그때 흐는 슷을 흐난 폴아사 흘 거 아니파, 이거. 쓸도 엇곡 우리 춤 이발홀 돈도 엇곡. 농촌에 무신 돈이 어시른 그걸 이제 어디 하귀ㄱ지 애월ㄱ지 문 전 간. 그땐 맥에, 무신 니아까가 싯수광 차가 싯수광 구루마가 싯수광.

104026 #2 이발소에도 폴곡.

104026 #1 이발소에 주로 흐른 불 흐른 고데라고 흐영 슷에 귀, 이제 영 고데질 흐곡 경 흐명 흐는 이발소엔 삼주게 슷을. 미리 맞추왔당 얼마 지여오쿠다 흐른, 그땐 이제 혼 맥에 얼마 해서. 혼 멩텅이른 얼마. 우린 혼 멩텅이 사쿠다, 혼 맥 사쿠다 흐주.

104026 #2 이제 그거 폴아다근에 쓸도 받아당 먹곡.

104026 #1 갱 흐연 폴안 저 우리 생활했수다게.

104027 @ 그 다음에 뿔감 준비흐멍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 혼번 곱아봅서.

104027 #1 주로 흐른 이 낭뿔리 우리도 하영 했수다게. 낭뿔리 흐는디. 어디 들린 딴 가른 탕 쳐 방 이제 흐른 탕 울리른 쉽게 나왕 그걸 흐곡, 경 안 혼 건 생낭뿔리 가른 요거 막 심들어마썸, 생낭뿔리는. 갱 해도 불 때는 딴 생낭뿔리가 오래가곡. 경 흐연 사름이 얼먹는디. 잇영 낭뿔리 흐레 가자 흐른 벌써 이제 여기서도 멧 사름덜, 것도 어느 구역 흐른 이제 이녁 츠지홀 걸 문 해사 미릇도. 난 요 밧디서, 난 요밧디서 흐른. 거 춤 소리 흐명덜 생낭뿔리도 흐곡.

104027 #2 낭 파명도 소리 흐여. 옛날 어른덜 낭뿔리 파명도 소리 흐곡.

104027 #1 낭뿔리도 폴아 여기서는. 그때는 소낭밧디 허가가 잘 안 줍디다, 전매

청에서는. 거 걸렸다 흐른 벌금도 내곡 흐난. 낭빨리 흐른 흐 집에 얼마 흐른. 낭빨리 풀아났수다게 흐 집에 얼마 흐른. 짐도 집에 거주만은 장남집이여 아잇집이여 흐명. 이제 거 이제 ㄴ뜨른 무게로 흐주만은 거 장남집 흐 집에 얼마, 아잇집 흐 집에 얼마. 영 헨 풀곡 사곡 해났수다.

104027 #2 경흐는 그건 어디 강 폰줄 알아? 저 둠비흐는 집의 강, 둠비흐는 집의 도 풀아났수다. 낭빨리 정 강.

104027 #1 게난 미룻 맞추왕 ‘언제 낭빨리 멧집 해오쿠다’ 흐른 ‘거 장남집으로 멧 짐양’, 등짐 아잇집 멧 짐 영 흐명. ‘아 장남집 멧 짐이우다’ 영 흐명. 경 흐연 그 때는 까격이 차이가 낫주기, 장남집은 얼마, 등짐은 얼마, 아잇집은 얼마 흐명.

사냥

104028 @ 그다음에 사냥에 대흐영 물어보쿠다양. 옛날 어떤 것덜 사냥했수과?

104028 #1 아, 이디선 수산봉 가까우난 주로 꿩.

104028 @ 꿩.

104028 #1 꿩코 낭 흐곡. 이디 노리는 우리 머난 한라산에서 내려. 이딘 주로 꿩코 낫당 꿩 잡고. 또 저 나도 족제비 다시 낭 족제비 하났수다, 제주도예. 경 또 족제비가 이거 해놓른 거 거죽양 영 목도리로 행 흐곡 비싸마썸. 족제비 하나에 가격 그땸돈 에 비썸디다. 경흐연 족제비 흐나 흐른 쓸이 멧 말에치 받아져. 게난 또 족제비 장시가.

104028 #2 엇장시덜.

104028 #1 엇장시덜 사곡, 또 족제비덜 전문으로 흐는 디가 서.

104028 #2 막 받으레 땡겨났수다.

104028 #1 장에 얼마 가른.

104028 @ 네 개? 꿩, 노리, 족제비, 지다린 안 해봣디가?

104028 #1 지다린 안 해봣. 이딘 지다린 별로 엇고 또 어디 수덕 ㄴ뜨른 디나.

104028 #2 아니, 멀리서 보긴 해도 그런 거 잡지 못 흐여. 지다리 넘어감져 흐영 쉼 맥이명 봐도 이런 건 사냥도 재게 못흐여.

104028 #1 족제빈 족댓이엔 흐영, 그 영 낭으로 대로나 으깬 요렇게 받쳐당 것이 이제 무신.

104029 @ 거 나중에 물어볼 거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꿩 사냥, 꿩 사냥에 대행 흐번 글아줍서.

104029 #1 꿩은 꿩코, 이 저 전깃줄 흐영 뱃갓당 그 저 강철로 이렇게 흐영 꿩코를 멩글야. 경 흐영 꿩 텡이는 질, 이렇게 보른 꿩 텡여난 질은 알아집니다. 경 흐른 그레 농곡. 또 콩 해당 도록도록 들이쳐. 요거 꿩이엔 흐 것도 하나 먹기 시작흐른 그레 따랑 툇 가마썸. 게난 콩을 멧 방울 도록도록 털어치명 낭.

104029 #@ 싸이나?

104029 #1 아니, 싸이난 안 흐고, 처음엔. 나중에 싸이나를 잡았는다. 처음엔양

핑크뉘 잡단 ‘에 그거 핑코 행 잘 안 들메. 약행 해여.’ 거, 사름이 멍청흔 것이 그 싸이나로 혼 것도 풀곡 먹어서마씨. 거 창지만 빼불민 어땡 아니메. 거 온 독에 농 약 독이 다 묻혔는디 창지만 저 무신.

104029 #@ 먹었수게.

104029 #1 대코쟁이로 디물양 창지만 빵 데껴튀 폴아십주, 우리. 폴양 반곡. 이제 핑도 집의서도 먹곡덜.

104029 #@ 핑코는 어디 골총 ㄴ쁜 디 잘 낫지양?

104029 #1 아니 이제 수산봉에 가몬 소낭 그 크지 아니흔연 요만씩 혼 때난 그 핑 뎡이는 질을 보통 영 강 보몬, 막 똥도 싸곡, 핑똥 싸곡. 영 움막흔게 그 낭 트 멍 저 죽은 낭 트멍 까시 드는 뎡이는 디가 알아져마씨. 게몬 그런 디 영 혼영은에 쿵 주세기 해당 쿵 핑은 잘 먹어 쿵. 영 두망두망 이제 모드락모드락 낭 나두몬 그 거 먹젠 해당 핑 걸리는 거. 핑코에 걸령 경 게, 메날 아침 저녁 돌아바사 핑은.

104029 #2 들엄신가 안 들엄신가.

104029 #1 누게 혼 몬 누게 또 가져가불어. 멍심흔영 핑코 돌아바사 아침 저녁 혼 멍. 이제 장에 강 풀곡.

104029 #@ 핑은 후진을 못해.

104029 #1 그뎡양 핑이 관에서도 단속을 안 흡디다게. 웬만흔 몬 핑은.

104029 #2 관이 무신 서서. 옛날사 다.

104029 #1 이제는 못 잡게 다 금수 내려도. 전윈 웬만흔 거 혼영 다 장에 강 풀 곡 했주. 핑은 혼 짐 정 강, 거 식당 ㄴ쁜 디 핑 전문흔 디.

104029 #@ 혼 짐까지 해봅디강.

104029 #2 아니 혼 짐은 아니고게.

104029 #1 멍 ㄴ리 맞추아.

104030 @ 그 다음에 노리 사냥에 대흔영 혼번 곁아줍서.

104030 #1 노루는 별로 여기서 아니곡, 웃드리사 들어보몬 노리 사냥도 코 놔당, 노리 코 낫당은에 이 저 것도 이.

104030 #2 노리콘 두터레 영 혼텐 흡디다.

104030 #1 아 게난 노리코도 핑 담지 안 혼영 걸렷다 혼 몬 이거 들라경 해 놓몬 그 스방에 노리가 여러 ㄴ리 떼지영 뎡이당 하나 걸리몬 노리도 옥양양. 그냥 그 스방에 다신 뎡이질 안 혼여, 노린 혼 번 해나몬. 게난 노리코 들영, 우린 안 해뵈 는디, 노리콘 혼 번 해나몬 들지 안 혼메. 어땡 노리가 옥은 줄 알아. 혼 번 걸령 해나몬 그 뎡새영 멋으로 그 스방엔 안 들어.

104030 #2 흥서방 친구 노리 잡앙 우리 집의 으져오켄, 으져오지 말라. 저 우의 사는 사름인딘, 쓰레기 혼는 사름인디.

104030 #@ 나도 혼 번 먹어바신디 별로데.

104030 #1 풀내 나곡양, 이 저 여름에 잡은 건 풀내 나마씨. 차라리 췌고기나 물 코기가 낫주. 노리 피 이제 옛날도 사냥흔 몬 노리 피부떠 먹는다 혼는디, 노리 핀

우리 먹어보지 아니 호고, 저 사슴 피 그쁜 건 먹어봣주만은 노리 편.

104030 #@ 물 편 호 번 먹어바신디.

104030 #1 물도 물 추렴홀 땀 건. 경흔디 물 간이 좋고.

104031 @ 그 다음에 지다리 사냥.

104031 #1 지다리는 별로 안 해봣수다만은 들 때는, 지다리로 걸, 지다리는 코도 낱 심곡, 개.

104031 @ 개로 호여근에.

104031 #1 개로 호는디 것이 구녕 잘 아니믄, 똑 지다린 날 구녕 싹곡 들 구녕 두 곤텔 행 나뉘. 어떻게 지다리가 육은디. 게난 이거 꼭 날 굶 들 굶 이시난 그걸 잘못 호믄 그냥 뜯 구멍으로 도망쳐불어. 걸 잡젠 호믄.

104031 @ 연기 피왕도 호텐 호멍.

104031 #2 쉼벙이레 간 때 보믄 지다리 성은에.

104031 #1 어떤 땀 이 날 굶에 잘 해야지, 들 굶에 해 놓믄 육양양. 지다리 그찌 육다 영. 어떻게 육은지 지다리는 웬만호영 잡기 어려워.

104031 @ 지다리엿 먹어낫수다.

104031 #1 지다리엿?

104031 @ 예. 지다리엿 호연에 호 번 먹어나신디.

104031 #1 복이 좋덴. 우리 먹어보지 안 호연.

104031 @ 좋덴 흠디다게, 지다리엿.

104031 #1 거 막 비싸게. 지다리 호 므리 호믄 물 호 므리 준덴 해낫수다. 갹 비싸곡 좋덴 호곡.

104032 @ 그 다음에 족제비에 호호영 곶아줍서.

104032 #1 족제비 잘 잡아낫수다게. 족제빈 비싸니까.

104032 @ 거 어떻 잡읍니까?

104032 #1 족제빈 영 몇 처음엔양 요것이 다른 건 먹지 아니호곡 쥐만 먹읍주게?

104032 @ 쥐?

104032 #1 쥐.

104032 @ 중이?

104032 #1 예. 중이만 먹으믄 요걸 영 무신 케기예나 바룻케기 호영 족댓 똑 요식으로 호영 받치곡 호영 요렇게 톱 햇당. 대 요렇게 호영 요디 햇당 톱 호믄 요것이 탁 압더레 떨어지믄 우원 무거운 돌덜 지둘랴당 압사호영 죽는 거. 게믄 처음엔 케기 호영 강 보믄 집 이엿이난 저 이 중이가 듭주게, 보통 호믄. 이제 요 중이 들 아메영은에 직시 이제 다시 중이 들양은에 족댓 영 낱 나두믄 족댓 가멍 영 곶냥으로 강 탁 털어졌다 호믄 ‘좀 돈 벌었다’이. 강 보믄 이 낱작호게 그자 이건 무거운 돌 호영 호 뵈에 중이 영 산 것 그찌 해놓믄 대번에 물멍 뒤레 둥이믄 이건 머 백프로 잡읍주게. 겨믄 또 요건 어떻게 호느냐 호믄 주둥이로 영 호영 쿵글 거 느신

칼로 베껴. 베껴 이제 대가리만 나오기 시작 흐른 둥이멍 짹짹 흐른 이제 발은 나 중에 요런디 끈곡, 탁 베껴져마썸. 게문 거 그냥 나두른 썬어불곡 변흐니까 그 조짹 을 담아마썸, 그레. 이젠 똬싸놓멍 조짹 삼앙 이제 빈주룽케 걸영 나두른 물릅주게.

104032 #2 초집, 초집 등뎡이에 영.

104032 #1 초집 ㄱ뎡 디 어디 걸영 나두른 잘 아니흐른 누게 들러가불곡, 봐지 른. 걸영 나두른 바썸 돌르른 족제비 장시덜이 텡이당 흥성을 흐여. 이 건 머 흐 족 짜리여. 흐 족짜리는 저, 두 족짜리 똬여, 족반, 무신 족산디 몰라도 흐 족짜리여 두 족짜리여, 이거 족반짜리난 얼마 돈 아이 주크라 이거. 아이고 두 족짜린게, 좀 긴 거. 큰 거 영 보른 이 두 뽀인 썤이라. 두 족이엔, 족장이, 족제비 장시덜이. 두 뽀 똬 거는 비싸마썸. 머냐른 이 목도리로 이렇게 흐른 비쌘니다. 그뎡 장에 막 족제비 장시가 셔낫수다. 것만 두러메영 텡여.

104032 @ 풀렝인 붓 멩글앗지양.

104032 #1 붓 멩글곡. 건디 우리 풀렝이 엇이른.

104032 #2 못 풀아마썸.

104032 #1 족제비 풀지 못흐여. 경 족제비 장시도 풀렝이 보곡 이 족 보느디, 풀 렝이도 이디션 흐른 붓 멩그느디, 건 아주 최상 붓입주.

104032 #2 받아가는 사름도 풀렝이 엇이른 아이 받아가.

104032 @ 붓이 영 늘르면은, 먹물 흐영 딱 늘르면은 이거 꺾꺾꺾 사.

104032 #1 꺾꺾꺾. 윈 물터럭 붓이여 머여 해도 족제비 풀렝이 붓은 엇고.

104032 @ 그게 최고우다.

104032 #1 응.

104033 @ 그 다음에 사냥에 대한 추억이나 경험 흐번 곱아줍서.

104033 #1 사냥은 머 이 저 나가 아까 얘기해시난 죄 받음 죄 받아게. 이 웃디 문딱 족제비엔 흐 건 춤 하영 잡아낫수다게. 그 흐른 아 돈이 꺾 똬니까. 머 썤 쉽 곡 흐 건 어디 늬의 일 강 흐는 것보다 족제비 흐 므리 잡으른 이제 흐 메칠 일흐 돈이 나오난 그렇게 헛곡. 또 이 저.

104033 @ 여기선 어디 강 잡아마썸?

104033 #1 여기선 그 때는양 쥐덜 하니까.

104033 @ 성담 ㄱ뎡 디가 하느디.

104033 #1 예. 담 무신 수덕 ㄱ뎡디 영 텡이당 어디 저 수덕에도 그.

104033 @ 작박?

104033 #1 예. 저 머 흐 디가 잇수다게. 수덕 ㄱ뎡 잣 흐른. 그런 디 낫다 흐른 어떤 썤 고녕이도 들곡 흐느디. 주로 이제 족제비 흐른. 집 이염에도 영 소랑흐게 흐는 저 이 머 이 집 귀야지 으퍽 담.

104033 #2 그뎡 초집이난에게. 초집이난 무신 거 먹썤덜 들어왕.

104033 #1 초집이난 그런 트멍 쥐 잘 텡이는 디가 십주게.

104033 #2 그런 디 왔다근예.

104033 #1 그런 디 놓은 뚝 족제비 들어. 경 흐른 우리도 저 알 동네 살 땐 흐른
'아 요딘 놓은 족제비 잘 돼는 골목이다.' 경 흐연 족제비 잡아나곡.

104033 #2 지붕 쏘곶의도 족제비 막 터정 들어가.

104033 #1 에이고 스몫 돌아댕이는 것이 밤의도 족제비, 흰해 소리가 짹짹 흐멍.

5. 바다일

105001 @ 오늘은 그 저 바당일에 대흐영 물어보쿠다양. 바당에서 흐는 일은 어떤 것덜이 잇수과?

105001 #1 바당이엔 혼 건 바르칠이엔 흐영 전의는 배 행 테우로 흐영 자리 거리레 가곡 또 여 가까이 흐른 덩장이엔 해가지고 그냥 영 구물 낚당 하루 지나면 이제 걷어내면 거기 그 장소 노는 고기덜이 거기 걸려들주게, 경 흐른. 한치라든가 머 오징어, 요런 거 이제 잡쟁 흐곡 또 저 옛날은 테우엔 흐영 지금도 그건 머 영 그자 흔적만 남앗수다만은. 테우엔 흐영 그 자리사들이라고 잇수다게, 자리 뜨는 거. 게난 여예 영 가른 이제 그 이렇게 수경이라고 해가지고 영 그 유리로 뚫 그 말 차가지고 이제 ㄴ뜨른 그 망원경 다른 거. 그걸로 해영 배에 우리도 강 영 흘 때 보른 이렇게 업더정 자리가 어디, 그 자리도 보통 밑에가 양 이 이어도 ㄴ찌 여가 신 디 그런 디가 만이 살아마썸. 경 흐니까 이렇게 뺑 아 무슨 여 무슨 여 흐른 그 온여 머 당녀.

105001 #2 돈여.

105001 #2 돈여, 이런 여덜이 십주게 바당에도. 건 우리덜이 그 저 지와놓은 이름이우다만은 아 온여 근방 흐른 아 어느 쪽에 강 있다. 이걸 벌써 알아가지고. 경 흐영 이제 그 자리사들이라고 흐영 그 이렇게 저 망 같이 크게 행 거 저 얼맹이 달른 그런 나이롱 구물 짠 거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쭈욱 행 그 수경이엔 흡니다게, 그 저 망원경 담은 거. 유리로 영 스각진 건디 싹 업더정 보른 자리가 어느 쪽에 신 걸 알아져마썸. 게른 싹 행 몇당 막 자리가 그 스방에 들어온 줄 알른 싹 흐게 들뜰주게. 들르른 이제 그 구물에 해 가지고 자리 거리곡. 갱 해영 또 자리 해지른 흐곡. 주낚이라고 흐영양 또 거 생선은 보통 여기서 저 옥돔, 그거 생선이라고 흐는 디 제주도에선 생선 생선. 그 건양 주낚으로백이 안 잡아마썸. 이렇게 그 생선 밧디 여기서 흐른 그 갈치왓이 싹고, 생선밧디 싹고 자리왓이 싹고 머 이 저 이 그냥 어랭이왓 싹고. 그 가각 바당의 깊이가 틀려가지고 고기 사는 디가 이제 깊은 바당일 수록 큰 꿩이가 사는다. 가까이 살른 어랭이 꿩이 나끄는 그런 디가 잇곡. 흐뽀 더가른 이제 생선흐곡 갈치 나끄는 디가 잇수다게. 어장이 각각 틀려. 게른 갈치 나끄는 디 가른 갈치는 이제 머 구물로 뜨는 것도 아니고 거 갈치 이꺽으로 해가지고 꿩엇당 거 던정 갈칠, 낚시를 혼 줄에 으라 개 맵니다. 일 메다나 팔십 전쯤. 경 안 흐영 쪼쪼 머 흐른 막 좇아야 육십 췌찌. 경 안 흐른 팔십 췌찌. 이렇게 으라 개 이

제 그 니깍을 꿰영 데껴둬서로 이 뉼 홀텅 젓어마썸. 배를 젓영 저레 가가믄 이렇게 줄이 흘리와질 거 아니우파. 게믄 갈치덜이 그 확 들러들영 그 무는 거라. 경 흐영 흐 번에 그 둥이곡 흐믄 흐.

105001 #2 스망 일믄 흐끔 하영 나오곡.

105001 #1 으라 개 흐 번에 올라오기도 흐는다. 잘 못 아니 흐믄 흐나 둘도 나끄곡. 겐디 사름이 믁음이 이상해가지고양, 우리 영 갈치왔디 그 가보면 으퓌서 고기 나끄면서로 그믄 배 동서라도 곱아주질 안 합니다.

105001 #2 기술이 딱냥, 갈치 나끌 때.

105001 #1 아니 멧 발 디물양 멧 발 디물양 갈치 무는 걸 으퓌가. 아 영 보믄 이물 고물이라고 흐는다, 이물은 뒤예고 고물은 아편디, 그것이 쥔 선장이나 이제 고물 탓 이물 탓 이렇게. 또 잘 못 나끄는 사름 중간에 놓는 사름 부떠가든지 흐믄 앓집주게. 앞뒤는 이제 잘 흐는 사름덜. 게믄 뒤 그믄 딴 멀리 흘릴 거 아니우파? 멀리 데껴, 갈치술을. 경 아퓌도 멀리 데끼곡 영 흐는다. 으퓌는 그 읍더레 데껴도 얼마 못 흐곡 또 줄이 서로 걸려부난. 경 흐디 갈친 으퓌서 보믄 홀터 나끄는디도 아 이녁은 못 나까. 건 머냐. 멧 멧 발 나근 갈치가 노는 디가 잇는다. 걸 어떻 운이 좋으믄, 예를 들영 쓰무 발이던지, ‘거 서른 발 내려서 잘 물어’ 영 흐믄 홀터 나끄는디 아 읍 사름은 걸 잘 못 나까마썸. 이렇게 보믄 그 깊이가 멧 발 흐 걸 몰라. 경 흐영 곱아주질 안 합니다. 서로 그믄 배 타도.

105001 #2 게난 잘 흐는 사름만 배에 시경 가. 생성 나끄는 사름덜은 일류, 일류 선장, 저 잘 나끄는 사름덜. 게 아니믄 드라가질 아니혀.

105001 #1 경 저 어렝이왓도 이 각각 틀립주게. 바당 이 깊이가. 꿰기 또 사는 꿰기덜토 각각 딱나곡.

105002 @ 그 다음에 양 그 듬북흐고 감태 잇지 안 흐우파?

105002 #2 감태.

105002 @ 감태흐고 듬북. 거 어떻 채취릅니까?

105002 #2 예. 감텐 게 그 감태 즈무는 시기가 서근에 ‘감태 즈물레 가게’ 흐믄 이디서 저 문막 알 동네 사름덜 곱아. ‘닐 감태 즈물 거라. 밥도 잘 먹영 놔두곡, 힘도 켜라.’ 흐멍 감텐 경 미역 담지 안 흐여근에 즈물양 올령 게영 즈물레 가믄 ‘에에 감태 저 밥 두루 먹엇저, 힘 엇다.’ 감텐양 그 막 힘이 셔사. 다른 거 담지 안 흐영. 미역은 가벼운디 감태는양 그 망사리로 흐나 해도 베영 나오질 못 흐여. 게난 우리 그믄 사름은 베영 못 나옴, 막 춤. 감태 즈무는 할망덜은 ‘에에 할망덜, 저 보통 할망덜 아니라. 독흔 할망덜이라.’ 믁음이 그추룩 가는 사름은 감태를 못 즈물아 낫젠 홉디다게. 경흐영 우리 씨이모님, 우리 씨어머니 아시는 위낙 알 동네 살멍 그런 감태만 즈물곡 그 빈네만 흐곡 해나난 믁음이 막 굳어져근에 바당물에 가도 막 일등으로 잘 흐여. 겐디 상동 흐고 하동도 딱나 감태 즈무는 것이. 경흐영 즈물아다 놔근에 그것도 저 그뻔 공출흐렌 흐믄 감태도 더러 공출흐고. 저 그 후젠 공출흐단에 이 시대가 바빠져 가난 이 밧디 저 도새기 걸름 엇어가난 밧디 곱안. 밧디 곱젠

흐른 막 맥에 담양덜, 서로 서로 저 가곡. 두루 족게 즘은 집원 해다 주지 아니호곡. 그것도 잇날은 바당 인심이 경 어성양. 막 바당이엔 흐른 할망덜토 막 지네 지레 ‘에에 그 집원 무신 그것도 못 호여? 늣광 ㄱ찌 감태도 그 멧 짐, 난 석 짐 정온디 혼 짐도 못호여?’ 호명양, 그처럼 바당 인심이 하도 해놓난 호단 이 상동 사름덜은 하영 떨어져불언. 하도 알 동네 할망덜 그처럼 호연. 이 심이 쉼사 혼텐 호명밥 잘 먹영 오라, 멧 호라 호명 곶을 말 어스난 그처럼 호명. 미역은 가볍게 해지는디 이 감텐양 아무나 잘 못 흡디다게. 우리도 간 양 좁아텡겨보난.

105002 @ 혼자 흡니까, 공동으로 흡니까?

105002 #2 공동으로 চে얌원 호단, 공출홀 뎌 공동으로 호단 말젠, 저 감태 즈물야 와도 지르지썩 호명 밧디 끌아. 밧디 오좁 경 강 서끄곡 호여근에.

105002 @ 거난 처음엔 공동으로?

105002 #2 예. 처음엔 공동으로 호여근에, 감태도 잇날 공출산디 무시거산디 경저 하영 혼 사름은 하영 주곡 그레, 시꺼 가낫수다 잇날 무신 차로 호여근에. 시꺼갈 뎌 바당에 가도 감태도 널엇당도 가져가곡, 널영 웰싸놔.

105002 #1 물리왔당.

105002 #2 맥에 담으라 호명 그처럼 호명 해도 양, 이 알 동네 옷 동넨 딱나근에 옷 동네 사름은 호단에 말젠 하영 떨어전. 즘녀덜 하여 떨어지곡, 이제 하도 호는 사름덜찌리도 잘못 험저, 잘 험저 하도 해 놓난. 경 해낫수다게. 경 호연 구 후젠 말젠 멧 사름만 감태 호연에 바당에 저 걸름 호젠. 걸름 호곡 오좁 저 가곡 춘물저 가곡 해낫수다게.

105002 #1 몯, 몯덜토 이 저 드룻몯이엔 호영 사름 먹지 안 호영 무신 몯덜. 그런 몯덜은 이제 그 즈물양 몯 즈물양 막 해놓른. 또 저 하도 막 저 이 놀 씨여나른 몯이 막 그 올릅주게. 경 그거 막 몯 동영 놔뒀당 이제 밧디 끌곡, 걸름으로. 이처럼 그건 걸름용이난. 몯걸름 이제 요거 썩영 흐른 두세 해 두어 해 갈수록 밧이 좋아집주게. 염분은 좀 셔도.

105003 @ 그 다음에 그 보말 양, 보말 호고 쟁이.

105003 #1 그양이?

105003 @ 건 어떻 잡읍니까?

105003 #1 보말은 이제 그 보말왔디 물이 그 저 호끔 쌍에 툇왔, 보말왔 이 바당도 각각 그 물 싸는 지퓌가 딱납주게. 보말왔이엔 흐른 이제 구쟁이 나기 전에 그거 이제 혼 두어 숨이엔 호느냐 두 숨이나 물 싸른 그 지퓌가 두 숨 빠지곡 흐른 ‘에 보말 막 낫저 이.’ 보말이 먹보말이 썩고 무신.

105003 #2 지름보말.

105003 #1 지름보말 또 무신 머구리보말.

105003 #2 시 가지 신디.

105003 @ 계난 잡는 것만 곱아봔서.

105003 #1 보말 계른.

105003 #2 담 웨쓰믄.

105003 #1 이렇게 큰 담 시믄, 알로 영 치와가멍 보믄 보말이 아래 돌아집니다.
게믄 손으로 영 햏영 하곡. 또 이.

105003 #2 손백이 무신.

105003 #1 보말 ㄱ뜬 거 햏영 저 잡을라믄 여기서 ‘쨌기 아싯날 글어.’ 영 햏여.
쨌기 알이옴 햏 건 물때 맞추앙 밤의 이제 초저녁에 물이 딱 싯 때 강 물이 벤직벤
직 햏 때 햏믄 영 햏불 들렁 햏델 들렁 이 불 덴이믄 그 보말이영 머영 그 햏당 전
부 벳, 벳 맞젠 나 앓읍니다. 게믄 발에 영 덴여가믄 발에 꼭꼭 찢러 보말 한 던.
경 햏영 막 싯멍 이제 구덕 영 두트레 찻당 튀트레 영 쨌기 아싯날 존둥이 졸라메
영.

105003 #2 존둥이에 구덕 졸라메영.

105003 #1 햏불 영 햏 쪽 들르곡 햏 사름은 햏불 들르곡 경 햏영, 쨌기 알 싯렌
행은에.

105003 #2 막 보말 하난에.

105003 #1 경 햏영 보말 햏영 잡곡.

105003 #2 막 햏영 잡앗주, 그때.

105003 #1 또 그앵이도, 그앵이 잡을 땐 그 몹크앵이라고 햏여. 존 그앵이덜이
이제 신디. 그걸 영 보말왓 전의라도 물이 싸기 시작햏믄 스방에 자같이 영 무룩햏
거 아니우짜. 경 햏영 문딱 다 치와 가운딘 영 나제. 치우믄 궁이가 문딱 그레 들어
잡니다, 가운디레. 경 햏영 막 치왕 영 햏영 츠츠 치와가믄 하나씩 들을 거 아니우
짜, 궁이. 게믄 문딱 깡통더레 햏당 심어놔. 경 햏영 그거 햏당 나중에 죽도 뽕앙
썰 먹곡 머. 반찬도 햏 먹곡 경 햏엿수다.

105003 #2 방엿훅에 ㄱ상.

105003 #1 방엿훅에 콕콕.

105003 @ 보말 해당은 뭘 햏 먹엿수광?

105003 #2 보말도게 죽도 썰 먹곡, 거세기 국도 끌렁 먹곡. 그추록 해냏주기. 아
기덜 기운 출리렌 햏멍 죽 썰 맥이믄 막 배 아파근에 물똥 싸곡 햏멍. 경 어신 사
름은 경 햏영 햏영 맥이곡.

105003 @ 배가 좀 아프는 모양이라.

105003 #1 그게 양 지름끼가 너무 한 생이라.

105003 #2 지름끼 하신디 멋사 신디게. 먹을 거 엿이난에.

105003 #1 그걸 먹으믄 배 아프는 사름이 잇어.

105003 #2 아기덜은. 그거 베지근햏 거옴 죽 쪼근에 어멍 먹어보믄 베지근햏난
아기덜 먹을 거 엿이난 그거라도 주믄. 햏폼 햏영 먹으믄 물똥 싸곡. 경 햏멍 해냏
수다게. 경 햏난 잡아다근에.

105003 #1 보말 깡 영 반찬도, 장물에, 장물에 컷당 그거 밥 먹으멍 이제 하나씩
영 먹곡 줍아 먹곡.

105004 @ 그 다음에 그 보말 종류 어떤 것덜 잇수과?

105004 #1 보말 종류는 먹보말 싯곡, 건 이만씩 흘근 건디, 또 수드리보말이라고
헝꼼 지픈 디 강.

105004 #2 헝꼼 커.

105004 #1 납작하게 구쟁이 종류 비슷헝여도. 거 수드리보말 먹보말 또 지름보
말, 또 이 준 거 멧고.

105004 @ 지름보말은 어떤 거라?

105004 #1 지름보말은 저 먹보말 아랫 거 준 건디, 그게 이제 빈주룽게 저.

105004 #2 아니 등뽕이가 뜯나.

105004 #1 종류가 틀리고.

105004 #2 등뽕이가 빈직빈직 헝여, 빈직빈직 헝곡. 지름보말은 흘지도 안 헝곡
줄도 안 헝영 지름보말은 보말 중에 쉼 알아주지 안 헝여. 알아주지 안 헝여도 잘
못 잡으믄 거라도 잡아 와사 다른 사름덜은 막 재게 잡아도게.

105004 @ 게난 먹보말.

105004 #2 먹보말, 수드리보말, 지름보말.

105004 @ 그 다음?

105004 #1 그 다음은 무신 저 거드레기.

105004 #2 거드레기보말.

105004 #1 거드레기보말이엔 헝영 양 그것이 꼭 영 쏘곱에 집 짓영 쏘곱에.

105004 @ 킹이 신 거?

105004 #1 킹이 신 것이 거드레기보말.

105004 @ 거 먹지 못헝는 가 아니우짜.

105004 #1 경 헝여도 그것도 영 슬므믄 나오곡.

105004 #2 경 해도 그것도 잡아오곡게. 흘 거 엇이난.

105004 @ 거드레기 그 다음?

105004 #1 먹보말 싯고, 또 수드리보말, 지름보말 또 이.

105004 #2 니 가지.

105004 #1 아니 막 등상헝 거 멧고, 것이 지름보말인가?

105004 #2 지름보말 헤양헝 거 빈직빈직 등뽕이 헝 거. 그건 쟈쟈헝영 늑광 ㄱ찌
헝지 못 헝 사름은 그거라도 해사.

105004 @ 그 정도?

105004 #2 예 그 정도뽕이 우린 잡아나지 안 헝엿수다. 막 쟈쟈헝영 요멘씩 부뜬
건.

105004 #1 바룻 잡으레 가자 헝믄.

105004 #2 바룻 잡으레 가게 헝믄 어두와사.

105004 @ 바룻이엔 햄구나 오분재기.

105004 #2 예. 바룻이엔.

105004 #1 머 오분재기 ㄹ쁜 것도 해도.
 105004 @ 바릇.
 105004 #1 바릇 잡으레 가자.
 105004 #2 바릇 잡으레 ㅎ는 건 오분재기가 아니고, 이것 저것 보말.
 105004 @ 오분재기 아니?
 105004 #2 어. 이것이.
 105004 @ 바르옌 ㅎ주 바르.
 105004 #2 바르.
 105004 #1 이것이 바릇잡으레 가져 ㅎ믄 강 ㄹ이도 잡곡 보말도 잡곡
 105004 #2 으라 가지.
 105004 #1 으라 가지. 바당의 머 신 거 그 툃밧부떠 나기 시작ㅎ믄 츄츄 ‘바릇
 잡으레 가게.’ ㅎ믄.
 105004 @ 오분재기가 바르카부덴.
 105004 #2 아니. 건 아니우다.
 105004 @ 저 바르옌 ㅎ는 디가 있어, 오분재기를.
 105004 #1 겨난 밋 ㅎ믄 저 췌낭 가정 강 이 저 돌 일르멍 경 큰돌서 일르믄 그
 디.
 105004 #2 ㄹ이도 나오곡, 보말도 낭곡.
 105004 #1 무신 보말이영 그디 오분재기영 양 점북이영 재수 좋으믄 경 ㅎ곡 또
 이 물그럭도 심어지곡, 경 ㅎ니다. 겨난 이 저.
 105004 @ 저 무신 거. 저 오분재기ㅎ곡 전북 구별해지쿠과?
 105004 #1 전북은 납주룩ㅎ멍 저 그 저 으퓌 이렇게.
 105004 #2 아니 꺽데기 뜯나.
 105004 #1 오분재기는 톱골락ㅎ면서 이 술이 많고.
 105004 #2 꺽데기가 민지락ㅎ여.
 105004 @ 견디 양 정확ㅎ게 ㄹ리쳐주쿠다양.
 105004 #2 예. 경.
 105004 @ 오분재기는 족아도 그 고망 터진 거 꺽데기 고망터진 숫자가 일곱 개
 에서 여덟 개고 고망 터진 거 터져야 돼.
 105004 #2 두께, 두께이가?
 105004 @ 전북은 커도.
 105004 #2 예.
 105004 @ 세 개에서 네 개 ㅼ이 안 터져.
 105004 #1 아. 고망 터진 게?
 105004 @ 예.
 105004 #1 우리 그건 몰랏네. 꺽데기로 영 ㅼ?
 105004 #2 등뎡이, 등뎡이? 등뎡이, 응. 게난 전북은 시 개?

105004 @ 세 개에서 네 개.

105004 #2 세 개에서 네 개. 큰 건 네 개. 계문 오분재긴.

105004 @ 아니, 크던 죽던 세 개에서 네 개. 오분재기는 일곱 개에서 여덟 개 터져.

105004 #2 족아도 그쭈록 햄수다 양.

105004 @ 족아도.

105004 #2 경 햏여도 여물은 햏, 것이.

105004 #1 여물은 오분재기가 햏주게.

105004 #2 겹죽은 족아도.

105005 @ 그 다음에 양 강이 종류 말해봣서, 강이 종류.

105005 #1 강이 종류는 저 지름강이가 잇곡, 그거는 죽은 거, 또 몸캥이라고 몸팃디, 저 톳밧디 살멍 그 저 불고롱 햏게 영 밧이 빨경햏곡 데가리 빨경햏곡. 그게 영 보른 잡앙 보른 빨긏빨긏 햏 거. 이 거 이제 몸캥이, 지름강이, 또 이 바당에 햏른 거 무신 이름이라? 이 나오른 털 복삭 도르는 그.

105005 #2 건 필강이게, 필강이.

105005 #1 바당에는 그런 것이, 아니 땅에 잇는 건 내에 잇는 거 햏고 딱납주게. 내캥이는 이제 털강이가 있고.

105005 #2 몸캥인 몸실아근에.

105005 #1 몸캥이는 빨강햏면서도 몸이나 톳밧 나른 이제 톳 우리 전의 강 바당에 강 햏른 영 물이 싸가른 요것이 물가로 톳 텡이멍 무시거 먹젠만 텡이당 햏른 사름도 심곡 햏는다. 물 지픈 딴 안 살곡, 물이 브따도 이제 햏곡.

105005 @ 게난 한번 더 곶아봣서. 강이 종류가 몸캥이.

105005 #1 몸캥이 잇곡, 이제 죽은 지름강이, 지름강이엔 햏 건 납작 요만씩 햏면서도 그 저 그거 이 심어당.

105005 @ 바당에 강 쫓끌락햏 거, 건 뭐라?

105005 #1 게메 그거 심방강이가 셔.

105005 @ 심방강이?

105005 #1 심방강이엔 햏영 밧이 녁작녀작햏면서도 영 저 무신 그 땅에 그 저 내에 사는 강이 비슷한 거, 심방강이. 그거는 영 저 밧도 녁작햏고 건 햏끔 지픈 디도 살곡. 그 무신 우리가 바룣 잡아바도 구쟁이 나곡 햏는 디 심방강이가 살아.

105005 #2 막 췌영 건.

105005 #1 몸캥이는 보통 물이 곤 쌍 곤 물 돌앗젠 햏주게. 바당 물 곤 싸가른 ‘에 물 돌앗져.’ 영 햏멍 이제 물이 싸기 시작햏른 요런 지름강이 ㄱ쁜 건 나와.

105006 @ 그 다음에 아까 햏툵 양, 햏툵 이용햏근에 어떤 햏산물덜 잡읍니까?

105006 #1 그거는 이제 밤의 어둡곡 햏른 햏기알 썰레 가자 햏른.

105006 @ 햏기알?

105006 #1 햏기알. 햏기알 썰레 가자 햏른 밤의 영 햏영 그 지름 통에 경 아니

흐른 머 대의나 지름 질렁 딱 하게 머 끌렁이로 막양은에 왁왁헝영 이 둑둑 혼들렁
 불 착흐른 그 지름 카멍 영 해당 흐른 재게 부떠부니까 영 가끔 흔들곡 영 흐른 지
 름이 올라올 거 아니우파. 착착흐른 또 불 그 췌불 혼 사름은 들르곡 둘인 양쪽더
 레 그 불 보멍 이제 따라강 물 썬 딜로 영 침병침병 가가른 췌기알이엔 헝영 이런
 보말도 나오곡 양. 밤에 그 벧 맞쟁 밤의 나와. 게른 물 흐끔 지픈 디 강 구쟁이도
 잡아지곡. 또 재수 좋으른 물꾸럭도 심어. 경 물꾸럭도 잡곡. 경흐른 췌기알 흐른
 영 구덕에 딱 하게 베 메영은에 허리레 차.

105006 #2 승키 구덕 차.

105006 #1 창은에 승키 구덕 헝영 딱 흐른 영 굽어도 얼른 안 손아질 거 아니우
 파. 경 흐른 영영 썰멍 이 뒤터레 잡으멍.

105006 #2 두 사름은 잡곡, 혼 사름은 불 들르곡.

105006 #1 혼 사름은 불 들렁.

105006 #2 술각 들르른 오래 아니 가는 때문에, 저 술각은 자꾸 꺼근에.

105006 #1 전의 술각 불 해난디 그놈으 건 지름 불.

105006 @ 각지 불?

105006 #2 아니 술각 불. 소냥에 강 술각 불 해당 그거 해근에.

105006 #1 아니 전원 경 해난디 중간에 이제 석유 지름 불. 석유 지름 대막탱이
 에 그 믈디에 영 질렁 우의로 끌레기 막 짹짹 멋으로 담양은에.

105006 #2 경 지름 적정.

105006 #1 혼들렁 불 탁 부쩌른 불그곡, 지름 카는, 그런 것도 다 카불른 대게
 대 카부난에 그 들른 사름이 멩심헝영 자꾸 영 혼들러 주곡 해사.

105006 #2 지름 골로로 가게.

105006 #1 게른 ‘어이 췌기알 오래 썰어점저.’

105006 #2 하영 잡아점저. 경

105006 @ 게른 뭐 뭐 잡는 거라?

105006 #2 아이고 여러 가지 잡아잡니다.

105006 #1 머 나오는 냥 발 흐른 보통.

105006 #2 물꾸럭도 잡아지곡, 켜이도 잡곡.

105006 #1 물꾸럭도 잡곡 이 득신 디 흐른 양 이 온갓 것이 다 나와.

105006 @ 낙지.

105006 #1 낙지나 전복, 경 안 흐른 재수 좋은른.

105006 #2 조쟁이게 조쟁이, 전복이 아니고.

105006 @ 전복도 나와?

105006 #1 응 전복도 나와. 조쟁이, 보말.

105006 @ 조쟁이?

105006 #2 전복이 조쟁이, 이디션 조쟁이.

105006 #1 조쟁이, 오분자기.

105006 #2 조갱이 잡곡, 꿩이도 어떤 땀 나오곡.

105006 #1 밤의 뭉켤이영 이 꿩이덜토 좀 나옴주게. 겨문 탁치는 양 썰어놔 이저 구덕더레. 경 흥고 어떤 켜 꿩인 문 돌아나불곡.

105006 #2 나룩 짝이나 으정 강 지둘와사.

105006 #1 췌기알 썰영 오른 흥 구덕 흥여 놓른 갓당 춤 술마놓른 푸지게 먹음주게.

105006 #2 먹곡 게.

105006 #1 반찬도 흥곡.

105006 #2 동네 사름덜이영 누게 주곡, 폭낭 아래 강.

105006 #1 췌기알 썰어 왓자 그거 술망 먹지 안 흥여.

105006 #2 췌기알 썰어 왓젠 흥른 탁베기 먹으레 감주 먹으레. 폭낭 아래덜 오른 ㄱ췌 습앙덜 먹곡.

105006 #1 막걸리 먹으멍 안주도 흥곡 흥영게.

105006 #2 막걸리가 아니고 탁베기, 집의서 흥영 술 흥여근에 줍췌 흥영 술 흥여근에 그거 먹젠. 췌기알 썰어 왓젠 흥른 ‘에 그 집의 저 탁베기 먹곡 그것 강 먹게.’ 흥른 하르방덜 막, 우리도 씨아바님네 친구덜 폭낭 알 이염에서 흥난 문딱 완에 춤 먹으멍 해낫수다.

105006 #1 췌기알 잘 흥른 푸집주게 그거. 먹는 게 하.

105006 #2 것도 옛날이주, 이젠 하나토 엇어.

105006 #1 이젠 머 하도 물가 바당.

105006 #2 바당의 오염웨곡 추접흥영. 그땐 무신 바당 깨끗흥난 아멍 잡앙 그디서도 튼어 먹으멍.

105007 @ 구엄리에 원 잇수과? 원담.

105007 #1 원땀. 이제는.

105007 @ 원담 또는 갯담이옴 흥는디 그 안네 들어온 꿩기는 어멍 잡읍니까?

105007 #1 아 그건 원땀 이 계로 흥영 수리흥는 사름이 잇수다게, 땀 사름 흥른. 그 지금 삼밭 아래 원땀이 셔낫는디, 이젠 흔적만 잇고 양 거기 어촌계에서 하도 저 못흥게 흥곡, 단속해 놓난 원땀은 내불업수다, 안 흥연. 전원 원땀 흥른 땀 들어왓져 머 거기 흥른 이렇게 원땀 자꾸 저 이 파도 씨고 절 일어가른 헤싸집주게. 게른 원땀 수리흥레 가자 해서.

105007 #2 수리해서? 다우레, 담 다우레.

105007 #1 원땀 다우레 가자 행 강 모다들영 거 ㄱ췌 땀라진거 답곡, 존 고냥덜은 내불곡 큰 고냥덜은 다 꿩기 나가분텐 막아마씨. 경 이제 물 쌍 우리도 거 강 보른 아 거 고기덜이 저레 직흥엿당 물때 땀은 원땀 흥 사름덜이 왕 꿩기도 더러, 하여튼 드러 그레 들어온 거는 거의 심어마씨, 이 꿩기도 물때에 맞추왕.

105007 @ 손으로 심읍니까?

105007 #1 소살로.

105007 #2 아니 무시걸로 거려, 거리는 거 햏영.

105007 #1 족바지로도 거리곡. 저거 소살로 쏘양은에 잡곡.

105007 #2 푸대로도 잡곡.

105007 #1 그 안네 영 물 햏여도 다 물 빠지진 안 햏니다. 물 가운데서 소살로 탁탁 쏘곡.

105007 #2 지네덜 햏여근에 어디 장에도 폴레 가곡 하도 햏가난. 그추룩 햏가난 어촌계에서 못햏게.

105007 #1 이제 지네 머 햏영 바당 거는 못 햏게 햏여. 설러부런.

105007 #2 이제도 담은 잇수다. 담은 이서도 그것이 햏제뒤부럿주게 이제.

105007 #1 거기 하간 거 잡지 못햏게 햏여부난.

105008 @ 원땀 보수는 어떻햏니까?

105008 #1 원땀은 원땀 동네에서 멧 사름이 원땀 계를 햏영은에 저 우리 원땀 저 수리햏영 머 햏자 햏른 장남덜 신 집의 그걸 햏영 멧이 영 짜가지고 계 ㄱ찌 양.

105008 #2 지게에 지곡, 돌.

105008 #1 그거 햏영 그 돌, 춤 잘 돈햏게 두 줄로 딱 다웁니다.

105008 #2 먹돌로 먹돌.

105008 #1 웨줄로 다우면은 절 일영 찰락찰락 햏가른 다 땀라져. 게난 두 줄로 아주 기운 썬 장남덜 이신 집이라사 다웁주게. 다우멍 또 이제 머 햏 건 고양이 햏 건 문딱 막곡 햏멍. 경 햏영 보수햏주게. 원땀 죽 햏게 햏루.

105008 #2 막 썬 바당 썰여놓으른 그디 담 땀라정.

105008 #1 오십 메다 보통. 영 햏햏게 햏담. 바당은 영 가운데레 동골락 햏게 다 왕.

105008 #2 이제도 잇수다. 담 고양이가 햏는디.

105008 #1 이제도 그 저 흔적은 잇수다.

105008 #2 이젠 어촌계가 생겨불곡, 딱 막아불곡 햏부난 햏지 못햏곡, 이젠 궤기도 들어오지 안 햏곡 햏난.

105008 #1 이젠 궤기덜이 양.

105008 @ 이호옌 크게 만들앗수다.

105008 #2 여기도 담고양이가 영 막아난 디 문딱 썬수다만은 보술 안 햏곡, 보수 안 햏곡.

105008 #1 어촌계에서 관리햏고 햏난 예 원땀은 그자 시지부지.

105008 #2 흔적은 다 잇수다. 영 나가곡 들어오곡 햏는 디.

105008 #1 게난 이제 그 일반 사름덜이 영 바릇 잡는 디 햏고, 또 어촌계에서 원땀 햏는 되는 구쟁이도 하곡 햏른 또 구쟁이 씨라고 햏영 문딱 저 수산협동조합에서 씨를 구쟁이 종주, 햏끔씩 햏 거, 걸 다 뿌립주게. 부렁 요것이 햏른 멧 햏, 두 햏 세 햏 햏른 즈물멍 잡는디 일반 사름덜은 잡질 못 햏게 햏여마씨. 즈본 햏영은

에 씨 놔 놓난. 계난 그 전윈 보든 그추록 안 혼 뎌 원땀에 강 문딱 돌 일르멍 바
룻도 잡아난디 아젠 못 혼여.

105009 @ 뎌, 원땀 안네 뎌 들어오지 안 혼니까 양?

105009 #2 뎌 들어.

105009 @ 뎌는 어떻 잡읍니까?

105009 #1 전윈 ‘뎌 들엇저’ 혼든 막 동네가 난리우다. ‘뎌 들엇저’ 혼든 뎌땀, 겐
디 뎌땀 인심이라고 뎌 든덴 으퓌 머 해도 양 족바지 혼영 뎌 들든 그냥 무신 전의
ㄴ찌 영 혼영 큰 배로 혼영 머 햄시든 혼지만은 이런 디 저 원땀에 뎌 들어 온 거
족바지나 멋으로 혼영 이제 먼제 자기가 거려갈라고 확확 혼명 춤 구덕이영 머 갈
체영 닥치는 양 뎌 그냥 폭 혼게 들어와 놓든 이젠 먼제 거리는 것이 자기가 임재
라.

105009 #2 혼꼬만혼 테우 들어오긴 혼여. 혼꼬만혼 배 쏘곶에 들어와도 그디 주
인이엔 해근에 다른 사름덜 해가든 혼곶 멋엔도 혼곶. 그 배로 혼영 시경 나강 어
디 폴레사 감신디 윈 어디 하꿇장에 가켜 애월장에 가켜 혼명 장은 모르고 어디 가
켄 혼명 그 테우에 다 거려 논 것덜 그레 드랭 혼여. 드랭 혼곶 우리 먹을 사름덜
은 것에 혼여근에 혼곶 으정 강 막 바당에서 무시거 보리냥 술랑 구어먹으멍 그디
서덜 경 혼명 해낫수다. 경혼디 그 후젠 뎌 들엇젠 혼여도 그추록 하영 나오지 안
혼여. 츠츠 뎌이 족앙 양, 뎌이 츠츠 족아.

105009 #1 뎌 수록이 잘 돼사.

105009 #2 그때 뎌 번은 잘 들엇젠 소문 나낫수다.

105009 #1 꼬뎌 혼영 혼든 바당이 해영혼영.

105009 #2 바당이 해영혼영혼영 혼여.

105009 #1 ㄴ이 해영케 그냥 뎌 지쳐불든 막 뎌 좇어도 혼 구덕씩.

105009 #2 좇어도 막 혼곶 좇기 실프든 그디 강 거리젠 혼든 그 테우 들어와근
에 해꼬만 혼, 그냥 이제도 잇수다만은 들어왕 혼든 그 테우 임제덜이 막 혼여근에.

105009 #1 족바지로 거리곶.

105009 #2 구덕더레 행 냐.

105009 #1 거 혼 구덕 혼든 금방이라.

105009 #2 경 어디 폴레 감젠 혼여도 우리대로 해나난 그디서 주문게 ㄴ찌 혼여
근에 주문 보리냥 살랑 불 꿩덜 하르방덜 바당의서 막 먹곶 집의도 왕 먹곶.

105010 @ 그 다음에 퀘기는 어떻 나깝니까?

105010 #1 바당의 혼 건 주로 혼고 이 ㄴ되서도 나깝주게. 이제 저 축항 두이 나
꼭곶 혼든디. 이제는 무신 저 개랑 춤대로 혼영 나까도.

105010 @ 옛날, 옛날.

105010 #1 옛날엔 양 고냥 춤대로 혼여.

105010 #2 수산봉에 강 춤대 강 비여와사.

105010 #1 고냥 춤대엔 혼영 이 저 고냥더레 혼든 그 전윈 뎌 들엇다 혼든, 그

우럭이 황우럭 예 우럭덜이 그 따라 들어오는지 우리도 나까 보든 멜에 꿩영 흐른
양 들어치기가 바쁘게 팍팍 춤 우럭 또 감팍이엔 흐영 우럭 감팍이 주로 흐곡. 이
조금 지픈더레 주든.

105010 @ 감팍이가 뭐라?

105010 #1 감팍.

105010 @ 감성돔인가?

105010 #1 아니 우럭 흐고 감팍은 똑 우럭 다른디 색깔이 꺼멍흐여 마썸. 그거이
감팍이고 우럭 흐든 이제 우럭 흐든 황우럭.

105010 @ 우럭 종류구나?

105010 #1 우럭 종류, 감팍. 겹든 요건 꼭 고양이만 살아. 게난 요 곳디서 나까도
지픈 디 영 물 쌍 흐든 고양이 요렇게 시든 그레 뽕기 영 멧 쥬 그레 모아지든, 요
것이 고양이만 살아놓난 양 우럭 고양이 감팍 고양이 흐멍 혼 고양이 흐든 멧 개 올라
옵니다게. 나끄곡 또 경 흐영 나끄곡 우리 주로 혼 건 여름에 팔월 이때로구나 메
역체 나끄레 가자 흐든 것도 고양이만 살아.

105010 @ 메역, 메역쉬에 흐지 안 흐영?

105010 #1 메역체. 미역체 영 흐영. 미역체 흐든 미역체 고양이 어디라 우리 적시
영 흐든. 것도 굴아주질 안 흐여, 잘 나끄는 사름덜은. 아 으퍽서 흐든 드러 나깝주
게, 나끄는 디는. 요건 양 어떻 나끄냐 흐든 저 뽕돌 영 흐영 그 고양이 흐영 우리 나
까보든 요렇게 흐영 이렇게 그 밥께라고 잇수다. 니겹은 밥께라. 경 흐든 그거 꿩영
양 무거운 뽕돌 흐영 고양이더레 들어쳐. 잘못 흐든 요것이 고양이 들어가든 뽕돌은
물든 거 끈어져사 나와. 게난 이제 봉돌 흐영 건 기술이 필요흐고 고양이만 잘, 그
거는 고양이 양 이렇게 강 도록도록도록 흙대 곳에서 흐든 하나만 나끄기 시작 흐
든 이거 얼만이 디물든 미역체 나까질 것이다 흐영. 진짜 고양이만 잘 좇으든 계속
물영 올라오는 게 미역체라. 이거 고양이만 살아. 경 흐영 흐 흐게 올라오곡 흐든
구덕 바우레 영, 거 잘 못 흐든 손 쉼와불어. 손 춤 찢렁 미역체 까시가 똑 소치 ㄱ
찌 양. 거 잘못 쉼우든 손이 이만큼 부습니다게, 미역체는. 그거 까시 독이 있어. 확
나끄든 요렇게 올라오든 구덕 바우레, 요렇게 구덕이 시든 툇 흐든 입을 아 벌립니
다게. 게든 콧 잡양은에 낚시 툇 꿩영 또 들어치곡. 경 흐영 나끄는다. 또 이 또 배
탕 나가는 건 다르고, 고기 나끄는 게. 뽕 흐든 그 낮에도 나끄는다 이디서 흐든 저
어랭이 나끄는 바다가 잇수다. 건 머냐 흐든 똑 이 저 자리왓 정도에서 어랭이가
나깝주게. 자리왓 정도 가든, 우럭도 물곡 어랭이 춤 어랭이가 뽕경케 거 나끄는다.
또 흐끔 더 가든 갈치왓 머, 이제 거 생성왓, 생성왓 가가든 좀 먼디, 갈치 흐곡 생
성. 그거는 강은에 이제 흐든 갈치는 사름으로 나క్క곡, 그거 이제 혼 발이나 혼 팔
십 쉼치 정도 낚시를 영 흐든 여라 개를 뽕주룽케 묶어가지고, 이건 이상케 갈치뽕
이 안 먹어. 갈치 나끄쟁 흐든 처음에 엇이든 어디 시장에 강 갈치 사당 배칸 다음
혜 흐듯 둘로 흐든 꿩의 내불곡 그거 흐영 짝 오령은에 이제 얼마니 썰영 니깝을
홉주게. 경 여라 개 꿩영 데끼문 이제 어떤 쟈 두세 개도 물곡. 경 흐연 이제 막 메

영 둥이곡 흐른, 장갑 잘 찌꼭 해사 이것도 손 다 붕물영.

105010 #2 장갑이 무신 서서?

105010 #1 아니 이게 지퍼 사는 거난 양 갈치는. 일은 발 여든 발 영 흡주게. 그 디 깎지 어떤젠 백 발도 디물아 술을, 갈치 술. 갈치 술은 이 정술로 해도 좀 술진 정술을 해사. 게 안 흐른 두 개 시 개 물든 갈치 니빨이 오죽 느십니까, 탁탁 끈어져.

105010 #2 우리 씨아바님이 그찌 텅겨놓난. 낚시 흐레 경 잘 텅겨마썸. 이 양반 흐고 씨아바님이 경 갈치 나끄레 가고, 어랭이 나끄레 가곡.

105010 #1 또 생성은 주낫 놔. 주낫 낱 나뒹당, 아싯날 나뒹당 뒹날 새벽 아침의 강 ‘주낫 걸으레 가’ 하든 강은에 네 젓으멍 그 이렇게 줄 쪽 흘렁 생성뻐디 흐른 그 저 주낫 낚시라고 이렇게 오그라진 낚시가 잇수다. 건 흐 번 탁 물든 빠질 못흐여. 주낫 낚시라고 오그랭이 낚시가 주낫 낚신디. 그것 다 니껍 흐멍 주욱 네 젓으멍 낱 놔뒹당. 것도 흐른 흐 쪽 콕이엔 흐영 띄우는 게 잇수다. 경 띄왕 뻐 발 널비, 뻐 발 널비 흐영 이제 쉼 발 낱. 백 발 긴 건 흐곡. 그렇게 행 낱당 뒹날 새벽의 네 젓어 가멍 거 걸음주게. 걸으든 밤의 문 것덜은 이제 그냥 물영 잇어붙어. 경 생성, 보통 경 흐영 생성 잡곡. 요즘은 잘 안 물어 전의 그찌 생성.

105010 #2 우리 씨아바님은 경 폴레 강.

105010 #1 생성 폴당 어디 저.

105010 #2 바룻레기 나까 오든 늘양 폴앗수다.

105010 #1 웃드리레 정 강은에 강 쏘이영도 바빠 오곡.

105010 #2 우리 씨어머님은 믱음씨 좋아부난양 웃드리 사름덜 고기 든 쥐동 와. 게 아바님은 막 욱흐여. 어디 강 나 해온거 췌젠 해도. 씨어머님은 경 존존흐 레기, 미역채 그든 건 문딱 다 쥐동 와. 숭키 구덕에 정 가든 돈 받아온 거 보든 문딱 쥐동 와. 우리 씨어머님은 무시 거 폴레 가든 막 장전 사름이영 어디 신엄 사름이영 지꺼정 해낱텐 흡디다.

105010 #1 막 싸게 주난게.

105010 #2 씨어머님 경 막 쥐동 와, 레기영.

105010 #1 것도 고웬 일이우다게. 그거 낚시 걸어낱 이제 문딱 주낫 낚시 사린다 흐영 이제 차례대로 낚실 푹푹 영 그 이렇게 흐 바우에 거는 되가 잇수다게. 낚시 등여가멍 걸엇당 주낫 놓게 뒹든 또 그걸 다 니껍을 꿰여. 경 흐영 네 젓어가멍 쪽 쪽 놓곡. 그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우다게. 경흐영 뒹날 아침 걸곡 해가든 재수가 좋으든 하영 물곡 경 아니 흐른 빈 낚시 뒹 거소 하곡게.

105011 @ 그다음에 낚싯대 잇지 안 흐우파양. 낚싯대 흐곡 낚싯줄, 낚시, 뽕돌 이건 어떻 구했수가?

105011 #1 아 건 낚시점에 강 전원, 낚실 전원 장에 폴레 텅여낱수다게. 낚시 장시 흐른 거 이제는 낚시점 셔도 전원 낚시점 엇으난 오일장 ‘에 어디 가든 낚시 싸게 폴아.’ 푹 그든 거라도 어떤 된 가든 흐끔 싸곡, 것도 주낫 낚시 그든 것도 숫자

가 하곡 양 생정 이 저 무신 갈치 낚시도 요거 낚시 그 혼 번 나끄믄 그것이 이제 그 톱 끈어붙은 다음 새 낚시로 해야지 썩난 썩난 낚시를 못 씹주게. 게난 낚실 하영 사사 햏여. 게믄 오일장에 강.

105011 #2 오일장이라? 제주 차부 장이주.

105011 #1 게메 거기도 가곡, 오일장에도 폴레 텅여난 처음에.

105011 #2 걸언 가명.

105011 #1 문 박스에 정 텅이명.

105011 #2 나 조케 그 으퍽 살명 사다 주켈 햏여도.

105011 #1 대도 저 이 곳 레기 나끄는 건 춤대를 영 저 이 햏곡, 경 안 햏영 바당에 간 건 주로 이제 술로 햏영은에 손으로 이렇게 이제 갈치 부끈다, 머 오징에 푸끈다, 이 각각 틀려마썸 나끄는 게. 게난 갈치왔은 막 지폰디 아은 발이여 머 여든 발이여, 머 그 발 수로 흠디다게, 전의 나끌 때. 에이 여든 발 햏믄 어디 가믄 아은 발 지력시여. 그 깊일 말햏는 겹주게, 아은 발 발앙은에 여기서부터 혼 백 메 다썸 될 겨우라.

105011 #2 게난 춤대도 막 시 개씩 무경 우리 씨아버님네 시 개씩 무꿍디다게. 갈치 나끌 때, 춤덜 하나만 우린 가져감직흔디 시 개 낵 무경, 경 안 햏믄 레기 버침이간 먼가 혼덴 햏명.

105011 #1 레기 햏영 나끄켈 햏믄 배에 저 갈치, 이녁 배 햏믄 영 돌아메영 저레 네 젓어가믄 저레 기쟁잇배 아니난 목선으로 햏지 안 햏수과, 옛날은. 게믄 네 젓어가믄 그 혼 사름은 네 젓곡, 둘이 강 해도 이제 줄을 이렇게 메영은에 양쪽에 그 바릿줄 메영 그 저레 젓어가는 양 이제 햏믄 갈치 문 건 벌써 춤대가 오그라질 거 아니우파. 쑥쑥쑥쑥 오그라져가믄 아이고 물엇구나 햏영 그 짝의 나까가명 한 사름은. 동영 또 햏곡 이짝으로 햏곡 바빠마썸, 그 사름. 갈치 구덕 햏영 다 나끄는 냥.

105011 #2 막대기 햏는 사름음 녑곡 햏영 강. 경 안 햏믄 기운 엇영 못 햏여.

105011 @ 춤댄 어디 간에 해웁디가?

105011 #1 춤댄 보통 이젠 푼는 거 셔도, 전원 엇으믄 듯드리 대왓 좋은 디 강 좋은 걸 사와사.

105011 #2 우리 어디 대 햏레 가낏수게.

105011 #1 저 마형기네 집이엔 햏영 여기서도 한 세 참썸 올라가믄 저.

105011 #2 고지, 고지.

105011 #1 하갓도 으퍽 큰오름 바로 아퍽 이렇게 움막햏 혼 만 평 녑은 이제 그 냥이 울창흔디, 이제도 그 터는 신디.

105011 #2 대도 싯곡.

105011 #1 거기 강 보믄 왕대가 좋아마썸. 스정햏영 사오곡.

105011 #2 더러 사오곡, 고기 나끄는 대 햏믄.

105011 #1 거기 가믄 그 하르방은 양 아은 여섯ㄱ지 살아서. ‘갈치라도 혼 짐 정 오지 안 햏영.’ 영 햏믄.

105011 #2 막 이상케 생긴 하르방.

105011 #1 어떤 댜 우리 나까지든 더러 꺾기 정 가든 싸게 해주곡 흥영.

105011 #2 혼자만 굴 쏘굽에 살명 양, 굴 쏘굽에 우리 들어강 보든 게도 문 댜들 안에 영 흥연 들어강, 이디 왕 뵙서, 이디 왕 뵙서, 바싹 므스와근에. 중엄 사름 흥고 이 아방네 꺾기 간 보난 굴 쏘굽에 살암십디다게, 그 하르방. 대왓 지키명, 대왓 지네 거난 누게 비여가분댜 흥명양. 게난 왕댜 꺾기 나끄는 댜 문딱 그디 강근에 흥난. 문 도둑맞아불엄젠 하르방이 얼굴이영 양 이상케 어디 귀신 꺾기 생긴 하르방이우다. 막 등치도 크곡.

105011 @ 뽕뿔은 어떻 댜들앗수광?

105011 #1 뽕뿔도 우리 사당 흥곡 그 연철이라고 흥영 이디서도 더러 집의서 뽕굽주게. 연철 사당은에 막 불에 구우명 두드려, 거 무신 댜 고망 뿔르는 것이 잇수다게. 고냥 뿔르명 무게를 어느 정도 영 들러 보명 이거 갈치 술 꺾기 뽕뿔이 이만이 커마씨. 갈치 나끄는 뽕뿔은 막 이만이 흥곡, 지든 바당에 흥난. 또 그 웨로 어랭이 나끄나 이런 거는 흥뽕 야픈 바당에 들어가난 뽕뿔이 죽곡. 도 머 고생이 뽕뿔이 잇곡 우럭 뽕돌이 잇곡. 고기마다 종류마다 뽕뿔이 틀려. 지금은 만든 거 다 사당 흥는디 전원 집의서 댜들아낫수다게. 댜 고냥 뿔르곡 흥영 무게 제명.

105012 @ 그 다음에 작살로 어떤 꺾기 잡앗수가?

105012 #1 작살 그 소살. 이디선 소살이엔 흥는디. 소살 흥든 보통 저 이 저 댜 뽕리알이엔 해 가지고 글로 들영 요 저 온여 꺾기 오젠 흥든 거의 흥 멧 백 메다 댜우다게. 그디를 히여오명 흥는디 보통 이제 이 허리에 차곡 거디 그디 쏙 들어가든 보통 북바리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해 보든 영장 쏘굽에 작살 쏙 처음에 들어강 보든 그놈에 북바리는 뜨면서도 맛도 잇곡 쏙 들영 북바리 멧 개 쏘앗져 흥든 벌써 돈도 하영 쥐. 또 따치가 잇곡, 댜작흥 게 늘내 나곡.

105012 @ 따치는 잡아낫수가, 따치도?

105012 #1 따치 잡앗수다.

105012 @ 걸름이나 흥지 안 흥여.

105012 #1 예. 잘 안 먹어낫수다. 늘내 냥. 따치 흥곡 우럭 이제 머 넕뽕, 닥치는 냥 소살 흥든 하영 흥 때는 막 그 꺾기 흥영 나오든 둘이 보통 꺾기 듭니다. 둘이 흥든 그거 꺾기 버쳐가든 이제 이 허리에 창은에 작살 주맹이영 차놓든 저꺾기 줄 흘리명도 하나씩은 아게미에 흥영 딱딱 무끄명 경 나오든 춤 저 어디 온여로 흥영 그 어딜로 들영 나오든 그거 저 꺾기 좇은여 꺾기 히영 나오젠 흥든 진짜 버쳐. 흥 집 흥여, 술직어니. 그렇게 흥영 더러 풀기도 흥곡 집의 먹기도 흥곡. 막 여 집의 무신거 여름에 먹을 사름덜은 그디 톨아샷당 또 사곡.

105013 @ 꺾기배는 어떤 종류가 잇수강?

105013 #1 꺾기배 여기 낫배가 싹고.

105013 @ 낙배?

105013 #1 낙배는 흥, 이제 말흥든 일 톨 미만. 또 넕마가 싹곡, 건 제일 작은

거. 혼자나 둘이, 막 해야 세 사름. 두 사름 내지 보통 혼 사름 이제도 뗏마 신디.
혼 사름용이 뗏마고 낙배엔 혼영은에 이제 ㄴ뜨른 혼 이제 조금 큰 거는 일고으담
까지 탑니다. 보통은 다서여섯 적겐 혼 세 사름 탕. 거기 사공이 잇곡 이.

105013 @ 낙배.

105013 #1 낙배예. 낙배 혼른 기젯배가 또, 이제는 발동기 전의, 이제 기젯배에
발동기 혼른 혼 칠팔 명 탑주게. 거는 이제 선장도 잇고 거기는 먼 디 강 고기 나
까 오고.

105013 #2 생성 나끄곡 건.

105013 #1 생성 주로 나끄곡.

105013 #2 큰 배난.

105013 #1 갈치왓이나 생성왓이나.

105013 @ 뗏마가 뗏가? 테우

105013 #1 아니 테우혼고 뜨나우다. 뽕작혼게 혼영 영 저 그 지금은 숙대낭으로
혼는디 전윈 양 구상낭이라고 해서 저 한라산 아피 가른 저 물에도 잘 안 썩곡 잘
뜨곡 또 썩곡. 구상낭으로 혼영 테우 혼젠 혼른 막 두세 사름씩 지멍 내려오멍 혼
영.

105013 @ 계난 쥔 작은 것이 뗏마.

105013 #1 뗏마.

105013 @ 그다음?

105013 #1 그다음 낙배. 기젯배가 싯곡. 또 테우가 싯곡. 테우는 자리 뜨곡 이 저
곳 췌기 나끄레, 이제 어랭이나 이런 거 나끄레 땡이줍게, 테우로.

105013 #2 미역치 나끄곡.

105013 #1 미역친 ㄴ뜨서 나끄곡.

105014 @ 줌너덜이 채취혼는 해산물, 줌너 양.

105014 #1 줌너덜?

105014 #2 줌너덜은 무시거 전목 혼곡 구쟁이 혼곡게. 문어도 잡곡.

105014 @ 물꾸럭?

105014 #2 예. 물꾸럭도 잡아. 잡곡 또 해삼도 혼곡.

105014 #1 해너도 다 작살에.

105014 #2 해너덜토 양 각종 다 잡아.

105014 @ 해산물 혼른 해초.

105014 #2 해초도 잡주기.

105014 #1 미역, 정각.

105014 #2 정각, 미역 툇게. 그런 거.

105014 @ 가시리.

105014 #2 가시, 아니 툇은 툇만 혼는, 툇이 해경혼른 툇만 혼는 날이 서마썸. 툇
이 해경해사 것도. 해경혼른 툇은 받아가는 따문 일본더레 양. 그때 일본더레 받아

간.

105014 #1 수출호는.

105014 #2 툷 해경햄젠 호른 툷만 호여. 미역도 셔도 아니 호곡. 정각도 셔도 아니 호곡. 툷만.

105014 @ 이디선 미역이엔 흡니까, 메역이엔 흡니까?

105014 #2 미역, 여기선 미역. 또 정각, 툷. 이제 저 거시기 경 시 가지, 너 가지라. 미역이역 툷이역 정각이영 저 거세기 가시리. 가시리는.

105014 @ 저 뵈고 구쟁기도 호곡.

105014 #2 예. 구쟁기, 전복. 거세기.

105014 @ 성게.

105014 #2 성게. 성게도 호곡.

105014 #1 성게도 구살.

105014 #2 구살도 호곡. 이것저것 각종 흡니다게.

105014 @ 구살 호고 성겐 틀리지 양.

105014 #2 예. 딱나.

105014 @ 구살이 숨.

105014 #2 구살이 성게주게.

105014 #1 숨이 성게고, 구살 또 딱나.

105014 @ 숨이 말뚱성게가 숨인데. 까시 어신 거.

105014 #1 예. 가시가 줌진 거. 그것이 숨이엔 호곡. 호꿈 굶은 건 구살.

105014 #2 게난 한동안은 잘 햇주만은. 구살은 구살만 호는 해가 싯젠 말이 셔.

105014 @ 게난 구살이 성게고.

105014 #1 아. 표준어로? 숨은 뭇엔 호여?

105014 @ 숨은 말뚱성게.

105014 #2 말뚱성게.

105014 #1 저 이 성게국 끌렁 먹는 건 구살이로구나.

105014 @ 구살.

105014 #1 예 구살국이엔.

105014 @ 숨으로도 호긴 흡니다. 구살이 좀 낮아, 숨 보다는.

105014 #2 낮아도 이젠 비슷하게 폴아부난 몰르주게.

105014 #1 빨경호곡 구살이 이제 맛이 셔.

105014 #2 이제도 저 구살 호는 사름은 해년 멧 개 잇수다만은 막 비싸. 비쌍 이디서 못 사마썸. 게난 구살 호젠 호난 멧 사름, 멧 엇수다 싯닛산디.

105014 @ 저거 잡아왕 깨는 것도 힘들어.

105014 #2 경 호곡 바당에서 다 작업은 호영덜, 하르방덜 강 그찌, 할망은 물 들영.

105014 #1 멍심호영 그 술만 호젠 호른 그것이 공들어.

105015 @ 그 다음에 좀녀덜이 물질할 때 필요한 도구덜 잊지 안 헝우파예. 어떤 것덜 잊수광?

105015 #1 비창.

105015 #2 비창, 테왁게, 이제 눈 헝곡, 이제 무시거 옛날사 소중기 헝곡게, 소중기 헝곡 적삼 헝곡.

105015 @ 소중기 적삼.

105015 #2 소중기, 적삼, 눈게.

105015 #1 테왁.

105015 #2 테왁, 딱시 망사리게.

105015 @ 망사리

105015 #2 망사리 헝곡 거세기 비창 헝곡.

105015 @ 소살.

105015 #2 소살은 잘 아니 옷영 다넛주.

105015 #1 소살도 갓영 텅여.

105015 @ 상군덜 정도 흘 텅주.

105015 #2 상군, 상군덜은.

105015 #1 상군덜은 소살 가정 텅여.

105015 #2 우리도 헝꿈 물에 들어봤수다만은 그추룩은 상군 아니난에 소살 ㄱ튼 건 몰르고, 저 그자 비창 그런 그 도구덜게. 아니 눈.

105015 @ 비창으론 멀 헝여?

105015 #2 비창으르게 전복 떼곡게. 거세기도 떼여져 구살도. 구살 모스왕. 구살도 영 헝영 잘 떼곡. 뜬 사름덜은 골쟁이 헝영 이 상군덜은 골쟁이영 무시거 소살 이영 여라 개 옷영 텅입니다만은 이 경 못헝여. 서투난 그거 옷어 텅이멍 하간 거 물 쏘급의서 헝지 못 헝난 그자 비창으로만 영영영 헝영 구살도 문딱 그추룩 헝여.

105016 @ 좀녀덜이 물질 헝지 안 헝니까 양. 옛날 헝고 오늘 헝고 어떤 차이점이 잇수가?

105016 #2 아이고, 차이사 흘 말이 어십주.

105016 @ 옛날이영 비교 해근에 혼번 곱아봄서.

105016 #2 옛날 헝곡 이제사. 이제사 물질 헝는 건.

105016 #1 고무옷도 입곡.

105016 #2 고무옷도 입곡, 숨쉬는 것도 들곡게. 눈도 틀리곡. 다 틀려마썸게, 이젠.

105016 #1 물 갈구리라고 발에 헝영 잘 해엄 해지게.

105016 #2 고무옷 입곡게, 영 반도도 차곡. 눈도 틀리곡, 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틀려마썸. 입는 거 아올라 다 틀려 이젠.

105016 #1 전원 소중기 입곡, 저.

105016 #2 전원 아무것도 안 입영 그자.

105016 @ 소중기 호고 적삼?

105016 #1 이젠 고무옷으로 변호연.

105016 #2 이젠 큰 거 눈도 호곡 머리에 쓰는 것도 고무엔 딱 쓰곡. 이제 저 호
꿈 머 호 사름덜은 숨쉬는 것도 호영. 들앙 이런 디.

105017 @ 이거 아가덜 골앗수다만은 줌녀덜 물옷 변천에 대호여근에 호 번 더
굴아줍서. 옛날은.

105017 #2 소중기 호곡게.

105017 @ 아래는 소중기 호곡.

105017 #2 아랜 소중기, 우원 물적삼. 게 물적삼 호곡 눈도 호꼬만 호 거 쓰곡,
이디도 광목으로 수건 호영 쓰곡.

105017 @ 그거 입으민 아멩호여도 춥지 양?

105017 #2 아이고. 추웁 바당의 들어가믄 처음원 경 호여도 츄츄 해가믄게. 경
호곡 눈 씨곡, 비창 ㄴ지곡 호믄. 상군덜은 소살이영 골갱이영 다 옷영 가. 골갱이
옷영 가사 그 까시 돌은 거 호젠 호믄 장이덜은 그걸로 호믄 그자 먹기 확 호고.

105017 @ 올라오믄 불턱에 가지 안 흡니까 양, 불턱.

105017 #2 나오믄게 불 추우레 가사주게. 지들커영 정 갓다근에.

105017 @ 불턱 양. 돌로 영 해근에.

105017 #2 그제는 돌 신 때도.

105017 @ 이제는 탈의장덜 마을마다 멩글아십디다.

105017 #2 이젠 집덜 다 시난 집 쏘급의 강.

105017 #1 전원 담 다왕 불 살랑 추곡.

105017 #2 거세기 구덕에 낱 정 가사. 지들커 아정가지 안 호믄 누게 늙의 거 해
줍니까? 엇이난에 지들커 호영 보리낭이영 조집이나 무신 나록직이라도 옷영 가믄
질레에 낭귀야지라도 붕그곡 호영. 대구덕에 바근에 지곡 테와 놓곡 호영 가지 안
호믄 열영 추지 못호여마씨.

105017 @ 경호난 이제 옷도 변호 거 아니우파양?

105017 #2 예. 무시거 모든 것이 변호 것이 머 합주기.

105017 @ 고무옷은 입버롭디가?

105017 #2 고무옷 우리 아이 입어봤수다. 아 입으난 그땀에, 입어봐 입어봐 호연
우리 그땀 사진 찍젠 경 호여도 사진 찍으레 바당의서 흘 때 호 번 입어보난 양,
아이고 답답호고양.

105017 @ 뽏뽏홀 건가?

105017 #2 아이 뽏뽏호디양, 몸에 어떻.

105017 #1 공기가.

105017 #2 공기가 어떻 툽툽호고 이거 난 쥐도 못 입으켜 영. 게난 옛날 옷이 좋
아마썸.

105018 @ 툯은 어떻 채취흡니까?

105018 #2 토웃?

105018 @ 툇은 공동으로 흐지양?

105018 #2 예. 툇은 물 싸든 강 그자.

105018 @ 채취 과정 흐 번 곁아봔서.

105018 #1 호미로.

105018 #2 호미를 흐나 손으로 흐나.

105018 #1 보통 호미로 비명.

105018 #2 늘근 툇은 호미로 안 비영 못 흐여.

105018 @ 오래지 안 흐 건 손으로도 흐여져?

105018 #2 예. 오래지 안 흐 건 절든 툇은 손으로 더러 메여지곡.

105018 #1 그건 머 좀 부드러우난. 툇 이만씩 질어가든 질깁주게. 게든 호미로 비여사.

105018 #2 호미로 그런 건, 그런 건 비여근에 게도 적 붙게 말아사. 적 부뜨든.

105018 #1 그걸 이제 알아주지 안 흐난, 멍심 흐영 잘 즐라얏주.

105018 #2 경 흐영 바당의 널영 툇 웰쓰레 가곡 메칠 시든 또 툇 담으레 가곡. 그추룩 해낫수다.

105018 #1 비 맞치지 말아사 비 맞치든 까치가 어서.

105018 #2 저 무시거 흐영 더끄곡, 느람지도 흐영 더끄곡 흐명. 옛날엔 그추룩 했수게. 경 흐난 이제덜은 툇 흐든 창고가 셔근에 탁탁탁 툇만 흐든 똬싸 놓곡 어 퍼 놓곡 머.

105018 @ 이제 툇은 공동으로뻘이 안 햄구나?

105018 #2 예게. 공동으로만.

105018 #1 어촌계에서 공동 관리 해가지고.

105018 #2 어촌젠 돈 나올 디 어시킨 그런 거 흐영 게 흐끔씩.

105018 #1 어촌젠 그거 흐곡 해녀덜 줌수흐는 거.

105018 @ 개인이 강은 못흐고?

105018 #2 어떤 땀 툇 문딱 비여분 후젠 흐끔씩 문드린 거 시든, 흐나씩 문드린 거 시든, 툇 흐레 가든 누게 관리 안 흐여근에 내불어마썸, 해 와. 경 흐여도 그건 잠깐게 흐끔게, 무시거.

105018 #1 먹을 거나 흐끔 비여놓곡.

105018 #2 흐 구덕이나 흐 골체나 흙뻘이. 경 흐든 비여난 뒷 거 흐든.

105018 @ 바당 직흐레 다니지양.

105018 #2 예. 바당 직흐는, 관리흐는 사름덜 잇어마씨.

105018 #1 물 썬 때 그든 땀 바룇 잡아가불카부덴. 경 흐영 거기 어디 들엇다 흐든 막 불르명 야단흐영 빨리 나오렐 흐여. 심지어는 양 구쟁이 그든 것도 멧 개 흐든 그걸 막 털어가 못 흐게.

105018 #2 경 흐여도 이 글란엔 덜 턴덴 흐여. 옛날엔 우린 윈 못 잡아낫수다게.

강 무시거 흐른 막 직히는 남자덜 탕겨마씨.

105018 @ 다운려.

105018 #2 예 다운려. 가불어, 그만 행 와 그거, 그거 흐는 거 아니라. 흐명 막 욱 들어.

105018 #1 경 흐머 이 어떻 흐냐 흐른 중산간에서 왕 그 옷드리 사름덜 왕 보말 이라도 하나 잡아가믄.

105018 #2 막 욱 흐영.

105018 #1 아니 게 욱 막 해나난 양, 이디서 이제 산더레 출 비레 가난 새 비레 가믄 이 막 야단혀. 해변 사름덜 너 사름 새끼 아니라고.

105018 #2 해변 것덜

105018 #1 거 머 저 보말 하나 툇 해 간 걸 못하게 흐른 불브재기엔 흐명 욱도 우리 해변 사름이엔 흐른 벌써 욱부떠 드리.

105018 #2 옛날 어른덜 문딱 돌아갓수게. 욱해난 사름도 돌아가고.

105018 #1 너무 지나청 양, 하나 둘 혼 걸 막 저 구덕 비와앗으멍 경 해가믄 좋 읍니깁게 그 사름이.

105018 #2 툇이라도 해난 디 거 흐꿈 해가믄 막 못 하게 해난. 게난 해변더렌 경 흐명 욱들어놋수다.

105019 @ 그 다음에 가시리 잇지 안 흐우파? 가시리는 어떻 채취릅니까? 가시리는 종류도 많지 안 흐우파 양.

105019 #2 우뭇가사리여 무신 풀가사리여 흐명 해도.

105019 @ 가시리? 가사리?

105019 #2 가시리. 경 흐여도 우린 저.

105019 @ 가사리가.

105019 #2 가시리. 예. 가시리.

105019 @ 거 어떻 채취릅니까?

105019 #2 어떻 그거 해다놔게, 저 가시리 옛날은 가시리 메여당 공동으로 흐영 풀 거 풀 거 흐명 해나신디, 우린 아이 때고 흐난 저 흐는 것만 구경하고 저 어머 님덜 흐는 것 간 영 ㄱ찌 도우긴 했는디. 알 동네 굴칩의 할망쫘은 가시리 해다 놓 른 ‘요년덜’ 흐명 욱 흐명 ‘거 불람져, 잘못 널엄져.’ 것도 경 흐는 할망이 관리하는 할망이 시난 욱은 해도 좋긴 좋아난디양 경 해놋수다. 경 흐당 이제 가시리 해당.

105019 #1 가시린 하영 안 흐잔아.

105019 #2 하영 안 흐연 경 흐여도 흐꿈씩 흐여도.

105019 #1 집의 풀 흘 거나 하고.

105019 #2 예. 풀 흐거나 하고 가시린.

105019 @ 우미 멩그는 디.

105019 #2 우미 멩그는 건 해당 흐꿈식 갈라주곡.

105019 #1 여름의 햇당 흐꿈.

105019 #2 춤 흥끔씩 주른 바당의 강 일 잘 흥곡 것도 ㄴ찌 잘 흥 사름 갈라주
른 가정왕 술망게, 집의서 술망 우미 멘들앙 먹곡. 우미 어떤님네영 우리도 술마낫
수다.

105019 @ 풀을 하영 멩글앗주, 옛날. 방 브를 때.

105019 #1 가시리풀.

105019 #2 예게. 가시리 풀도 숨아낫수다. 굴목에서 숨앙.

105019 #1 그것이 밀ㄴ루 풀보다 좀 안 일곡 잘 부떠.

105019 #2 가시리풀도 해나곡 우뭇가사리도 숨아낫수다.

105019 @ 가시린 개인이 흥여, 공동?

105019 #2 가시린 풀흥는 건 그 땐 ㄴ찌 흥연 무시 것덜 해난디 말제라가난 저
질로지썩 ㄴ정왕 무신 도비흥켜 무신 집 흥켜 흥멍.

105019 #1 대대적으로.

105019 #2 대대적으론 안 흥여난. 툇 ㄴ추록은 안 흥여낫수다, 이디.

105020 @ 그 다음에 전복흥고 구쟁기 언 떠 잡아낫수가, 이딘?

105020 #2 전복 구쟁기 물에 들른게 비창으로 잡곡. 구쟁기도 물에 들영 영 보른
구쟁기 썩는 디, 전복 썩는 디가 알아진텐. 알아진텐 흥여근에.

105020 @ 옛날에 하나서.

105020 #2 옛날엔 상군덜 보른.

105020 @ 나도 그디 간에, 바당에 간에 전복 흥 번 때 봐신디, 옛날을 잇어서 ㄴ
되도.

105020 #2 옛날은 ㄴ되 들영 우린 상군 아니난 먼 바당에 못 들어낫수다게. 우리
찌레만 멘딱 ㄴ찌 흥른 ㄴ찌 들영 흥른게 전복도 큰 거 못 흥곡게. 우린 베겏디 드
난에 이만썩 흥 거 드러 흥여근에 물에 들영 보른 양 그 땐 영 흥영 손 디물영 보
른 시른 비창 이디 했다근에 비창으로 행 떼영 나오곡. 경흥영 또 여 흥영 텅이당
보른 담 곶냥에 보른 구쟁이도, 그땐 구쟁이도 썩곡 전복도 썩곡 해낫수다게.

105020 @ 곶냥만 잘 좇으른.

105020 #2 예 곶냥만 잘 좇으른. 하영 못 해낫수다게.

105020 #1 바당의 들어가른 냅조록흥 돌 일르른 전복이 툇 사는 디가 이서.

105020 #2 상군덜 해 온 전복 ㄴ되 흥 전복이 금지가 딱나. 툇는 되도.상군덜은
막 이만흥 전복 늘근 적복양 것이 비싸곡. ㄴ되 흥 사름꾼 금지가 딱나 마썸. 경 해
낫젠, 경 해낫수다게.

105020 @ 이거 전복 흥고 구쟁기는 공동으로 흥니까, 개인으로 흥니까?

105020 #2 저 공출 흥영 받는 사름이 셔낫수다.

105020 #1 공동으로.

105020 @ 공동으로?

105020 #2 예. 공동으로 해낫수다.

105020 #1 개인이 얼마썩 흥른 떼당 문딱 적영은에 이제 돈은 그거 산출흥영 받

곡. 일키로에 얼마 흐른.

105020 @ 지금도 다 공동으로 햄지양?

105020 #1 예. 지금도 다 받아가.

105020 @ 어촌계에서.

105020 #1 어촌계에서 받아가. 요즘은 물질 안 흐난 이 사름도 모르는다.

105020 #2 이젠 상군도 멧 사름 엇곡.

105020 #1 이젠 구엄에 지금 물질흐는 사름이 멧 사름 엇수다. 옛날 분덜은 다 늘경 돌아가불곡. 또 새로운 사름덜은 물질을 뺏질 안 흐여놓난. 그걸 이제 박흐곡 며 흐난 흐젠을 안 흐여.

105020 #2 박흐 직업입주기.

105021 @ 전복 흐고 구쟁기 종류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 한 예를 든다면은 암컷 수컷 구별웹니까, 전복?

105021 #2 그 암컷 수컷, 우린 어떻게 헤신디 그거.

105021 #1 암천복 수천복.

105021 #2 술이 압더레 밀락이 나온덴 암천복은.

105021 #1 아니 경 흐곡.

105021 #2 계난 상군덜 해온 건 하. 그것이 근이 하영 가곡. 우리 베갯디서 흐 사름은 우의 터럭이 엇어마썸, 베갯디서 흐 사름은. 상군덜은 전복을 행 왕 보른 전복 우의 보른 털이 북삭흐여.

105021 #1 아니 늦 동안게.

105021 #2 늦 것이 북삭흐여. 겐디.

105021 #1 늘도 거 막 오랜 거난 흐고.

105021 #2 이 곳디 흐 사름덜은 양 그런 것도 엇곡. 멘딱 수천복만 해여. 상군덜은 다 그 지픈 디 가른 암천복이 한덴 흐영.

105021 @ 지픈 된 암천복이 하곡.

105021 #2 예. 경 흐텐 흐영 돈이 더.

105021 @ 야픈 된 수천복이 하고.

105021 #1 수천복.

105021 #2 예. 우린 안 해밧수다만은 이 머 흐.

105021 @ 이게 두터운가, 암천복은?

105021 #2 예. 암천복은 두꺼왕 술이 베갯디레 나와마썸. 술이 나오곡.

105021 @ 수천복은 안 나오고?

105021 #2 예. 안 나온덴마썸.

105021 @ 비작 몰르구나.

105021 #1 픈는 디도 아멩해도 틀려. 암천복만 사젠 이.

105021 #2 아멩해도 틀려마썸. 이 두껍이도 틀리곡 경 흐텐 홉디다.

105021 @ 계난 구별해야 살 거 아니.

105021 #1 눈으로 보든 착 하여. 요거 암천복, 요거 수천복.
 105021 #2 흰 하여마쌈.
 105021 @ 좀 술지구나.
 105021 #1 스치고 물착흔 게.
 105021 #2 예 두쟁이도 딱나.
 105021 @ 두쟁이가 좀 산봉우리 모양으로 붕오롯 하구나.
 105021 #1 붕오롯흔 게.
 105021 #2 붕오롯하고 이런디도 콧징 하고. 수천복은 영 스랑해불어.
 105021 #1 납조룩하고.
 105021 #2 납조룩하고 진진하여. 스랑하여.
 105021 #1 그디가 문착하지 못하여.
 105021 @ 전복 껍데기 영 큼니까?
 105021 #1 아이고 전복 껍데기 커, 상군덜 행 온 건 지퍼마쌈.
 105021 @ 아니 게난 술이 클수록 껍데기도 커가?
 105021 #2 예. 술이 클수록 껍데기도 틀려.
 105021 #1 지금 거 껍데기덜 흐른 그 저 단추, 지금은 머 혼디 단추 멩글아났어.
 이디 단추공장 성. 받아오든 이제 구쟁이 딱물로 멩글곡, 또 전복 껍데기는 좀 뚜껍
 곡 머 혼 걸로 이제 좋은 단추를 멩글아.
 105021 @ 옛날은 옛날이라 양. 이젠 플라스틱으로 다 해부난.
 105021 #1 전의 여기서양 그거 흐젠 흐른 스르륵스르륵 사례 가멍 단추 고냥애.
 105021 @ 그 다음에 장롱에 헛주게 장롱에 껍데기덜.
 105021 #2 구쟁이 공장 성 그 때도.
 105021 @ 구쟁기도 암컷 수컷 잇수강?
 105021 #2 구쟁인 난 모르쿠다.
 105021 @ 구쟁이 종류 어떤 것덜이 잇수과?
 105021 #2 주쟁이 종류 무신 거라.
 105021 #1 조쿠쟁이가 싯곡. 또 이.
 105021 #2 조쿠쟁이, 뭉구쟁이.
 105021 #1 무슨 이 조쿠쟁이엔 혼 건 이 께끔씩 흐멍 저 크질 안 하여.
 105021 @ 조쿠쟁인 죽은 거.
 105021 #1 조쿠쟁인 크질 안 하여, 죽은 거 하여튼. 구쟁이가 흐끔 큰 거는 뭉구
 쟁이엔 흐영 흐끔 크고. 그거 이제 흐영 머 혼디. 이제 이디션 그자 또 늙은 구쟁인
 멧고.
 105021 #2 민둥구쟁이.
 105021 #1 민둥구쟁이엔 흐영 크곡.
 105021 #2 민둥구쟁이 뭉구쟁이 흐멍. 민둥구쟁인 거 것도 비슷한 거게. 무신 거
 추룩 우에 늣 돌아.

105021 #1 민둥구쟁이 거 막 늙은 거. 늙은 구쟁이고 건 또 술도 하.

105021 #2 경 햏여도 건 막 지픈 바당에. 상군덜 햏.

105022 @ 그 다음에 떼 햏, 태우에 대해근에 아는 바 햏 번 곁아줍서.

105022 #1 태우는 여기서 주로 저.

105022 @ 태우엔 햏니까?

105022 #1 태우.

105022 @ 떼, 떼엔 안 햏영?

105022 #1 태우엔 햏는다. 이 저 치레햏 사름덜은 상산에강 이 저 구상냥, 구상냥도 그거 저, 전원 그 냥을 상감덜 햏영 저 머 이 못 비게 관틸 덜햏낫수다. 게난 ‘태우 햏젠 햏른 구상냥 강 햏와사 질이라.’ 구상냥 강, 둘셋씩 짝지우멍 강 그거 막 지픈 산에 강 영 햏여 놓른 이거 정옴도 걸리곡 못 저, 등뎡이 박박 햏멍. 영 저 목도질 햏영 어깨에 메여오곡 햏는다. 그 후제는 이제 여기서 경 햏단 못 햏난 나중 에 숙대냥, 숙대냥이라고 이제 이 숙대냥으로 멏급주게. 멏글햏 햏른 보통 이제 으덱 개 태우, 열 개 태우, 것도 태우. 으덱 개는 햏끔 지픈 덜, 가까이만 텡이곡. 열 개짜리는 좀 너른 바당에 텡입주게. 이제 햏끔 녀으니까, 또 사름도 으덱 개 짜리는 잘 햏야 둘 타는디 열 개짜리는 둘도 타곡 싯도 타곡 경 햏영 네 젓으멍. 주로 햏는 건 머냐 햏른 자리 뜨는 거. 또 어렏이왓디 강 어렏이나 이제 고생이 나끄는 거. 이런 걸 주로 햏주게. 경 햏른 주로 햏는 건 자리사들 햏영 자리 뜨는 거, 태우는. ‘에 경 태우 들어왓서.’ 햏른 ‘자리 햏영 떠샤?’ 경 햏영 강 보곡. 또 햏엄청 자리왓디, 우린 햏엄청 자리왓 깝지 가집주게. 그디 가른 자리도 빌영 먹곡 햏낫는다.

105023 @ 그 다음에 돛배 알아지지햏. 풍선, 그 돛배에 대햏영 아는 바 햏 번 곁아줍서.

105023 #1 그것이 낙햏주게. 낙배라고도 햏는다.

105023 @ 낙배?

105023 #1 낙배에는 풍선을 둘 드느냐 싯 드느냐 하나 드느냐 따랑 틀려마씨. 그 방햏이. 햏끔 큰 거는 싯깝지 들곡 경 안 햏 건 보통 둘. 둘 햏영 저 브름, 이건 브름 영 햏영 곁 거 아니우파. 게른 둘 햏른 요쪽에 요렏게 치는 거. 것이 영 그 사들 멘다고 햏는데 브름이 절로 삭 불어오른 재게 영 가젠 햏른 이짱으로 딱 그걸 모다 들영 탁 메야 브름 받을 거 아니우파. 이건 브름 받햏 가야 햏여. 게난 요거 잘 못 햏당햏 거 위험햏마씨. 거 브름 둘 때 참 탁 잘못햏른 배 뒤집혀집니다게. 여기서도 게 엿날부터 바당에 경 햏영 배 잘못햏당 죽는 사름이 햏수다. 그거 머 순간적으로 햏 도렏이 들른, 도렏이엔 햏주게, 햏햏게 브름 드는 거.

105023 @ 햏오리브름햏?

105023 #1 햏오리. 도렏이 들른 거 잘못 햏영 거 춤 배 이 잘못햏게 곁 올렏당 햏 번에 그냥 어퍼져불어. 경 햏난 영 햏곡 이 저 이런 햏햏마 ㄱ뜬 건 하나 햏영은 에 그 저 간단히 건 네 젓어가멍 요레 줄이 성 요레 톱 동이곡 저레 톱 동이곡 햏멍 간단히.

105023 @ 그 아까 낙배, 돛배양, 그 부분 명칭 알아지쿠광? 명칭덜 대충.

105023 #1 게메. 앞의는.

105023 @ 뭘엿 햏여?

105023 #1 이물이엿 햏곡. 뒤에 고물.

105023 @ 뒤에 고물.

105023 #1 으희는 머 정물이엿 햏던가, 영 으픽 햏 건.

105023 @ 저물?

105023 #1 응.

105023 @ 그다음에?

6. 의생활

옷감

106001 @ 이 시간에는 의생활예.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쿠다. 옷감 종류에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

106001 #1 옷감 여기서 젤 머 햏 게, 멩지, 무명, 베, 또 이 저 멏고, 무신 광목,

106001 #2 광목.

106001 #1 또 오광목.

106001 #2 오광목. 광목도 멏 찢이라.

106001 #1 게 으라 질이나 아난 곴아.

명주

106002 @ 그 정도민 뵈수다. 경햏민 그 멩지에 대햏영 물어보쿠다양. 멩지 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햏 번 곴아봍서.

106002 #1 멩지는 이 근방이서 잘 아니햏여부니까 햏디. 나가 쯤 곴 저 양잠단지 다녀서 쯤 들어본 거는, 그 멩지 우선 햏믄, 누에 번데길 햏야햏 거 아니우파. 요걸 키와가는 과정은 사십구잠이여 햏가지고 뵈면 이거 이제 그 어느 정도 번데기가 어느 만이 커서 햏믄 요 때는 이제 그 멕이는 과정도 뜨나고 그건 우선 우리 들은 거 양 교육 받으멍 햏 거 햏기햏멍. 그게 이슬 찌거나 이 누에도 멕일 때는 멩심 안 햏영 요것이 설사나믄 전멸햏마썸. 그러니까 이슬 안 진 때 잘 멕여사 햏곡, 사십구잠이라고 햏서 마은아웁 날짜에 요거 마추왕 이제 관리를 햏는 과정인데. 그 웨 우리 실무는 못 햏봐서, 실지는.

106002 @ 누에는 머 멕입니까?

106002 #1 누에는 뵈냥.

106003 @ 멩지 종류 알아지쿠과?

106003 #2 멩진 무신, 무신 멩지 햏아져? 수단멩지 햏고 양.....

106003 #1 양단?

106003 #2 양단 아니 양치멧지. 양단으로 헨에 골아난디.

106003 @ 양치멧지?

106003 #2 예. 경 헝연 우리 양단이엔 헝연 양치멧지엔 헝연 우리 전의 들어밧수 다만은.

106003 #1 가짜멧지 그건 멋이라?

106003 #2 가짜멧지.

106003 #1 가짜 쪽앙 그 멧지엔 행 헝는 그런 멧지 가짜 멧지 한동안 나와나지 아니헝여서. 거 무신 멧지여 헝민 아이고 거 쪽앗구나.

106003 @ 생멧주, 수와주 들어봍디가?

106003 #2 수와주 아니고 생멧진 들어봍고게.

106003 @ 생멧준 머꽈?

106003 # 생멧지, 진짜 멧지가 생멧지엔 헝여. 진짜 저 집의서 할망덜 그 들레에 짤 거.

106004 @ 그 다음에 멧지로는 어떤 옷을 맨듭니까?

106004 #2 멧지 바지 저고리 헝곡게.

106004 #1 보통 저승옷덜 흘 때, 멧지 거 춤멧지엔 헝영 그걸로 다 우알 그 옷 맨글곡, 저승옷 맨글곡.

106004 #2 멧지 이불, 옛날엔 멧지 이불 헝여.

106004 #1 또 이불도 헝여.

106004 #2 멧지 이불 헝영 시집갈 때나 헝곡, 저 헝 채 헝영은에. 옛날 하르방덜 멧지 이불 행 가민 아이고 그 집이 부재여.

106004 #1 춤멧지라.

106004 #2 멧지 짜는 집이난에 저 부재여 헝명 경, 우리 할으버지네 옛날 부재라 나난 경 헝옛젠 말 홉디다.

106004 #1 가난헝 딘 멧지로.

106004 #2 멧지랑말앙.

106004 #1 옷이영 이불이영 흘 생각도 못 헝고.

106006 @ 누에치기에 대헝영 헝번 골아줍서.

106006 #1 누에치긴 세 번 머 헝는다. 보통 우리 교육받은 거뵈이 몰르고, 헝여 나지 안 헝여부난.

106006 #2 무사 누에 숨는 건 알아낫주.

106006 #1 슬망 나중에 헝른 또 누에고치라고 헝영 다 빼어나른 그 쪽에 것도 먹곡 헝는다. 누에는 그 우선은 아무것도 헝주만 먹이가 쥔 중요헝 건 머냐 헝른, 우리 그 처음 교육받을 때 그 뽕낭 입만, 입이 제일, 입에 따랑 그 뽕낭 입이 좋아 야 누에도 좋은 썰이 나오고, 춤멧지 나오고, 그것이 이제 뽕낭 입이 어떻 잘못 헝영 이슬 쥔 때 맥이거나 멋 헝른 그 누에가 건강헝질 못 헝른 양 좋은 썰을 빼질

못 햏여게. 저 거미줄 ㄴ찌 영 빼영 누에 먹으멍 쏘급으로 똑 거미줄 치듯 마찬가지로 우다, 누에썰이.

106006 #2 누에가 좋아사 춤멩지 난덴 해낫수다.

106006 #1 누에 이파리가 좋아사, 먹이가 좋아사. 잘못돼영은에 설살 나거나 머 햏은 그 누에 봉오리가 설사 나게 돼은 좋은 썰을 못 뽑아마썸. 게난 약햏곡 나중에도 춤멩지가 못 돼여마썸. 첫째 머 햏 건 이슬 찢 때 주지 말고, 다른 건 원 열 번 강조해도 이슬 찢 때 아침의 이 누에 뽕을 뽕 이파리를 이슬 ㅁ를 때 똑 줘야. 물기 많으은 사름 ㄴ뜨은 배 아팜 설사 나듯이 햏은 누에가 좋은 썰을 뽑지 못 햏니다.

무명

106007 @ 그 다음에 무명에 대해서 물어보쿠다 양. 그 무명썰을 만드는 과정에 햏햏영 햏번 곁아줍서.

106007 #2 멘네 햏은게.

106007 #1 그거 밧디 멘네 갈앙, 게문 거 이제 ㄴ을 들영 봄에 보통 햏 것도 이제 콩 갈기 전에 이 멘넨 일 년 농사우다. 게난 일찍 갈앙 갈은 이제 수확도 햏영 나눈디, 밧디 갈앙 요것이 이젠 햏은 멘네 드래기가 ㄴ을 들어강 이제 춘브름 맞아가은 이것이 햏떡햏떡 멘네가 피어납니다. 피어나은 요거 이제 멘네 타당, 핀 거부떠 이제 멘네 타당 집의 물리왕 이제 요 물레라고 잇수다게. 밀레 요렇게 햏 거. 물레로 다 멕이멍 씨를 빼불어. 썰 뽕 보그라기 햏 쪽더레 나뒗당은에 이제. 멘네 뽑넹 햏여. 멘네 뽑아, 멕이멍 이제 그 영 무신 물레 영 햏는 저 또닥또닥 햏게 요렇게 햏영은에 돌아가게 멩글앙 요렇게 햏멍 멕이은 씨는 빠지곡 그 저 소게 될 거는 영 안쪽드레 햏은 무룩햏게 햏영 자꾸 물리우멍 햏당은에 요거 이제 그 소게 틀 침의 가. 경 안 햏은 집의서도 날 관 날은 이제 막 마당에 널엇당 막댕이로 두드려 북작햏게 소게 틀 못햏 사름은 하찮은 디 햏 사름은, 한 딴 소게틀 집의 강 햏곡, 죽은 사름덜은 마당에 널엇당 막댕이로 착착 두드려 노은 부그락이 경 이 뱃 맞곡 햏 때는 올라오은 이제 그 곁 이 조그만씩 꼬리 햏듯이 영 소랑소랑 뽑지 안이햏 막 두드려 낡. 경햏영 정을 주는 거라.

106007 #2 썰을 빠.

106007 #1 정 주는 거. 이 물레 햏은, 거 기술이라 양. 이렇게 햏은 한 쪽으로 둘러가멍 이 짹으은 정 영 하나 햏 만씩 막댕이 두드려 논 부그락햏 거.

106007 #2 부그락햏 거 멘넨 영 햏 번씩 돌아.

106007 #1 몰앙 이제 하나 햏 만씩 몰앙 정 영 들르는 물레 기계에 처음 썰 나와가은 거 잘 주는 사름은 기술이라. 둘러가멍 짹짹 썰, 똑 저 집줄 놓듯이 뽑아잡 주기 이제. 둘러가멍 햏은 그 기계로 멩글아오멍 잘 안 돼은 자꾸 그 들르는 디도 돗지름이나 불량 문질문질 햏은, 그때 무신 구리스가 섯수과 멋이, 돗지름 주로 섯지름이나 불량 문질문질 영 들르은 정 준넨 햏니다게.

106007 #2 정 좇아서 저 집의.

106007 #1 영 흥영 하영 해 놓은 가래기엔 흥영 썰 또 막 감아져. 하영 감아지믄 이제 또 이 썰로 흥영 이렇게 흥 거, 우리도 가래기엔 해 가지고 그것에 감앙 이 돌르는 것이 잇수다게. 썰 하영 흥여 놓은 그것에영 가래기 흥영 막 이제 으라 개 어느 만큼 감아지믄 또 농곡 농곡 흥영. 그걸 이제 미녕을 짜는 전에 가래기 다 행 해 놓은. 또 그것도 이제 풀 맥영, 풀 맥이논디 저 이 무싱 거엔 혼다. 무싱 거 논 라?

106007 #2 것도 알아집니께.

106007 #1 미녕 논라, 미녕썰 논텐 흥영, 쪽쪽 브름 잔 날 것도 브름 잔 날 흥은.

106007 #2 니 구석 낭 세와 농곡. 걸장 만들앙.

106007 #1 낭 세우곡 흥영 똑 집줄 놓듯이 짝 흥영 해놓은 아랜 이제 ㄴ시락불 살좌. 여기 으라 가달 흥여 놓은 이제 무신 술입으로 영 흡디다. 제제 풀 적지멍 다 맥여. 아래 ㄴ시락 불 해 놓은 뜻뜻이 몰라갈 거 아니우파. 너무 불 쪼든 카불곡. 경흥영 술입불로 풀 들렁 댕기멍 짹짹짹 술입 영.

106007 #2 저디 낭 박곡 이디 낭 박곡 흥민. 저레 강 걸영 이레 오곡 이레 강 걸 영 이레 오곡 해가믄 풀 맥이믄, 술입으로 양 늘 술입 해당 영 풀 썩 풀 맥이믄 영 흥은 풀 맥이믄 몰르질 안 흥난 여기영 저기영 ㄴ시락 불 살좌마썸. 살황 흥은 저 디 낭 공쟁이 맨들아 농곡, 이 팬의 낭 공쟁이 맨들아 놓은, 쪼 마당 만이 이디 만 이 흥은 사름덜이 저 낭 공쟁이 강 하나 걸영 왕 이레 낭 공쟁이에 하나 걸영 흥은 막 널어질 거 아니우파양. 널어져가믄 풀 맥영 흥은 풀이 몰르질 안 흥여마썸, 미녕 차젠 흥은. 경 아래 ㄴ시락 불 느랑 살롭디다, 할망덜. ㄴ시락 불 살좌근에 나신디 ‘야, 불 살루라 불 살루라’ 경 흥명, 경 불 살루믄 저 할망덜 둘인 저레 해가곡 이레 해가곡 해도, 그 ㄴ시락불 끼왕 밤중 뒤흔들, 뒤흔들 그 걸 건어.

106007 #1 몰좌냥.

106007 #2 예. 몰좌. 뒤흔들 걷는디도 이제 걷어가멍 도레기 맨들아 가멍 저레 감 맨들앙 해곡, 이레 강 영 와 가믄 도레기 맨들아부러. 땃 도레기 맨들아냥 미녕을 차기 시작흥여마썸. 그 것도 다 몰좌냥 흥젠 흥은 인력이 하영 걸리는 거 다릅디다 게. 경 흥연 그 것이 막 큰일로 흥여근에 할망덜은 뒤흔들은 미녕 차는 것도 발 불랑 양. 미녕 차는 거 그것도 구들에 것도 구들도 다믄디 챗방이라. 큰큰흥 디 막 널른 디, 창고 달믄디 가근에, 깨끗흥 디양. 이제 생각은 깨끗흥 디라. 그디 가근에 춤 그 틀도 발로 불르믄 짝 가곡 짝 오곡, 것도 지름 신거 맥여사. 맥이지 안 흥은 들각들 각 흥영 미녕은 해가당 부끌레기 뒤흔들, 미녕을 코쫓흥게 곱닥흥게 짜지질 안 흥영양. 영 미녕 짜는 거 멧고 거.

106007 #1 열레기?

106007 #2 열레기 흥영 영영 흥곡 영영 흥곡 해가믄.

106007 #1 이레 디물앙 착 흥영 흥은 또 머시엔 이거 어럭지 달믄 걸로 탁 땡기 곡. 또 이레 열기기 디물앙 탁 흥곡. 경흥영 흥 올 흥 올 짹주게. 경 흥영 또 흥

마?

106007 #2 혼 마, 혼 필, 혼 필이주기 혼 필.

106007 #1 혼 필, 경 혼영 미녕 혼 필이여 혼든.

106007 #2 어디서 맞추앙.

106007 #1 갈중이 멧 개 나온다. 혼 필 멧 개.

106007 #2 갈중이 혼곡, 이제 무시 거 혼곡 막 맞추앙. 우리도 할머니 흘 때 혼
디 영 즈끗디서 봐낫수다 그추록 혼명 혼라 혼라 혼명 ㄱ찌 심부름 혼곡.

106007 @ 다음에 무명 종류에는 어떤 것덜이 있어낫수과?

106007 #2 무명 종류가 머시 저.

106007 @ 토목, 생목, 광목, 닛세미녕, 엇세미녕, 여덜세미녕 잇수과?

106007 #1 그건 놀이 줌 멧 개영, 너븐 거 줌은 거.

106007 @ 곁아봔서, 미녕 종류.

106007 #2 미녕 종류 무신, 선생님 곤는 거 거 비슷한게 게.

106007 @ 거난 거 혼번 곁아봔서.

106007 #2 곁아봔서, 아방이. 하나 영 줌은 미녕이 셔. 줌은 미녕은 거 무시거옴.

106007 #1 여, 여섯미녕?

106007 @ 엇세미녕?

106007 #2 응 엇세미녕.

106007 #1 엇세미녕, 여덜세미녕 혼꿈 녀은 거. 그거는 놀이 하영 들어간 거고. 줌은
거는, 엇세 미녕은 그런대로 무신 옷 맵글 때도 그 읍의 저 제단홀 때 들어가곡. 그 쓰
임이 각각 틀린 모양이라마썸.

106007 #2 엇세미녕은 속곳 만들곡 그추록 혼명.

106007 #1 이불 흘 때도 이제 너븐 걸로 혼곡.

106007 @ 거난 숫자가 할수록 좋은 거 아니우파?

106007 #1 아이 그거는 쓰기에 따랑. 보통은 이제 숫자가 하든 널버집주게. 이것이
널버지든 이제.

106007 #2 아이 줌질게 짜곡, 훌게 짜곡게. 썰을 줌질게 놓곡, 썰을 혼꿈 영 두망두
망 낱 짜진 건 저 나쁜 미녕, 이제 ㄱ뜨든 양.

106007 @ 이거 여덜세라?

106007 #2 응 여덜세.

106007 #1 영 보든 미녕 구별혼는 거, 딱 손으로 영 엉알엉알 짜샤, 경 아니영 혼꿈
죇게 이걸 어러질 탁탁 잘 혼곡 거.

106007 #2 보뜨게, 보뜨게 썰 낱.

106007 #1 줌 가짜 옐 들영 미녕 혼꿈 흘 거난. 이제 자게 드물게 혼명 하영 빨리
짜질 거 아니우파.

106007 #2 훌은 미녕은 짜아, 짜. 짜곡 갈중이나 혼곡, 갈적삼이나 혼곡. 존 미녕은.

106007 #1 옷 맨들곡.

106007 #2 정웃 맨들곡, 이불이영 저.

106008 @ 그러면은 저 미녕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8 #2 미녕으로 저 갈중이 적삼도 만들곡 그냥 저 도폭도 만들앙 입어. 옛날은 해양하게 미녕 햅영.

106008 #1 바지 저고리.

106008 #2 바지 저고리 저 하르방덜 맨들앙 옛날 우리 하르바지도 입어났수다. 해양 하게 햅영 도폭, 도폭이엔 흡니다. 옛날은 경행 입곡, 경 아니영 감들영 입곡. 그 미녕 그 옷이엔 혼 거 무시것파 저 미녕 치마도 행 입곡. 경 해났수다게. 미녕 적삼, 미녕 적삼도 행 입곡 옛날은 미녕 적삼 행 입영 저 시집도 가났젠 흡니다. 촌에 할머니네 우리 할머니네. 게난 미녕도 좋은 거. 나쁜 건.

106008 #1 주루 저 거 혼 건 갈중이나 적삼 맹글곡, 미녕 늦은 건.

106008 #2 거난 썰이 좀질믄 좋곡.

106008 #1 좀질곡 좇게 짜진 거. 거난 것도 좀 가짜로 짱 이제 영알영알 짜믄 빨리 짜집주게. 거난 까격이 싸곡, 들러바도 멧 근짜리 멧 근짜리 무게가 안 나와. 경 이건 가짜 미녕이여 영 햅여나곡. 영 또 손으로 바도 영알영알 혼 거 햅곡, 직각 짜진 건 틀 립주게.

106008 #2 직각 짜정 고운 것덜은 저 하르방덜 옷 햅영 입어, 우알.

106009 @ 토목에 대햅영 알아지쿠과, 토목? 미녕 종륜디 토목. 토목으론 멀 멩급 니까?

106009 #1 토목, 그 뚜꺼운 걸 말 햅는 거게. 기지가 뚜꺼운 거. 토목 옷으로 게 머 멩글곡, 주로 거는 광목이나 뚜꺼운 거. 토목은 뚜꺼운 거 좋은 거. 그냥 얇은 거 있고 두 가진디. 토목으론 집의서 이불, 이불 우알채 보통 그런 걸로. 토목 무사 토목 옷 햅영은에 저 이불 햅믄 아이고.

106009 #2 막 뜻안 좋다 햅명 해긴 해나서 견디. 이불이 햅영 맨들앗수다. 토목, 뚜껍곡.

106009 #1 토목 햅영 겨울에도 뜻이켜, 경.

106009 #2 토목은 뚜꺼왕 옷은 잘 아녀. 옛날 토목 햅믄 게, 바당에 강 켈 드리는 하르방덜 토목으로 햅연 무시거 헨 입어났주기. 두루막 햅영, 두루막이 아니고 무시거우파, 아방 싯지 아니 햅여. 바당에 강 제 드릴 때 토목으로 햅여근에 옷 맨 들앙.

106009 #1 건 저 심방덜 바사 알아.

106009 #2 아니 심방덜 말앙 게 무사 제 흘 때에 바당에 경 흘 때에 입어났젠 흡니다, 토목. 게난 에 토목 옷은 바당에 그런.

106009 #1 토목은 베곡양 까격도 햅폼 비싸. 저 일반 광목 답지 아니햅영. 경 보통 경흔 건 주로 이불 우알채 햅믄 토목 아이 그. 또 너무 뚜꺼왕 무껍곡 밤의 영 더경 눕는 것도 우알 저 이불은. 겨믄 보통 토목이엔 햅믄 그추룩 좀 잘 사는 집의 이제 겨울에 머 햅젠 햅믄 ‘토목 옷이나 입어서?’ 영 햅영. 건 뚜꺼운 옷이여 얇은

걸 구별하는 거주.

106010 @ 광목으로는 멀 만듭니까?

106010 #2 광목도 그자 그 그런 것도 광목도 하는 집원 셔. 흠뾔 머 혼 집원 싸곡게, 광목은 흠뾔 싸곡 혼난 토목보단.

106010 @ 광목으로도 이불 혼지 안릅니까?

106010 #2 예. 광목으로도 이불 혼곡. 이불도 으라 쥘, 집집마다 뜨나주기. 뜨나곡 광목으론 게 거세기, 그 무시것덜, 옛날은 광목 치매 행 입어났수게. 광목 치매 혼연 어머니덜토 다 입어나곡, 광목 적삼 혼곡.

106010 @ 바진 안 멩글앗수과?

106010 #2 예. 무사 바지 아이 맨들앗수과, 광목 중의게. 하르방덜 광목 중의 행 입영.

106010 #1 중의 적삼.

106010 #2 광목 중의 적삼 혼곡. 그것이 옛날덜은 하르방덜 그걸 행 입젠 혼든 그것도 어디 강 중의적삼 혼는 디 강, 쥘 애월도 가곡 어디 강 걸영 강 행 와사.

106011 @ 홍세미녕 알아지쿠가?

106011 #2 홍세미녕이엔 말은 들어난디 잘 낀 알지 못혼여. 말은 들어났수다.

106010 #1 홍세미녕은 물깁.

106010 #2 아니. 미녕 종류 아니?

106010 @ 홍세미녕이 저 흠뾔 불그룽혼 거.

106010 #1 물들인 걸 님은디 홍세엔.

106010 #2 물들인 미녕이 맞아, 우린 관리 안 혼여나난 잘 모르쿠다만은. 홍세미녕이 물들이 미녕 맞아. 홍세미녕이엔 혼영 저 심방덜 무시거 흘 때, 홍세미녕 무시거 혼명 말은 들어났수다.

106010 #1 주로 저 이 무당덜 심방덜 거 알록달록 혼게 혼영 홍세미녕 물 문 짱은에 저 가달 든진 거 혼영 입곡. 뒤에 영 놀개 든정. 경 혼연 홍세미녕이 주로 심방덜 흘 때 해났주, 일반 사름은 잘 아니. 그 알록달록혼 걸 입읍니까게 일반 사름 덜이.

106010 #2 계난에 홍세미녕은 심방덜 혼는 거.

106012 @ 멘네 농사에 대혼영 혼번 곶아줍서.

106012 #1 멘네는 이제 이디서 이제 그 보통 보릿그르 전에 밧을 번혼영 싱급니다게. 보릿그르에 혼든 늦어. 계난 이건 속성이 아니고 멘네는 흠뾔 장기 요것이 가는 저 그 작물이난 밧디 보릿그르 전에 밧 번햇당 요게 너무 얼른 안 나고 씨로 좇게 이제 밧 번햇당은에 그을 이제 그을 농스엔 흡주게, 이제 조 그든 거. 계난 그 전에 갈아, 멘네는. 경 혼영 다른 영 나기 전에 벌써 나쁜 소끄곡, 요것이 드물어야지 좇으른 낭만 막 우터레 나불곡 으물이 었어. 계난 혼곡 아 멘네 농스 혼젠 혼든 밧 줍 밧을 미리 갈앗당 그거 이제 그 장마 전에 밧 갈앙 이제 흠뾔 비 맞곡 혼든 밧이 이제 브드러울 거 아니우파. 브드러우른 그 때 멘네 농스 갈아사캐 갈아 놓든,

요것도양 좇으믄 못써 드물어사. 갱 흥 서너 번 소꾸멍 또 검질 췌우믄 안 돼여마
썸. 검질을 미리 잘 메여줘사, 스꾸멍 스꿀 때마다, 옛날사 제초제가 셔낫수광, 어서
가지고 다 손으로 멧주, 검질. 게 메영 검질 흥영 두무룽이 해 놓으믄 이제 좀 낭이
어느 정도 흥 두어 자 흥 자 돼여가믄 요거 너무 또 두 자 이상 돼여붙어도 잘 안
올아.

106012 #2 게난 메즐추흥 밧디 갈아사게.

106012 #1 메즐추흥게 요거 갈앙.

106012 #2 막 나쁜 밧디.

106012 #1 멘네 흥믄 도례기 나기 시작 흥믄 요거 이제 걸름을 주지 말아사. 옛
날은 걸름도 엇엇는다. 그때 나온 건 유한 흥끔씩 화학비료 셔나고. 그 웨에는 이제
그 ‘에 너무 메즐추흥다’ 흥멍 ‘오죤이나 흥끔 지쳐’ 이제. 주로 오죤 햇수다게, 흥
끔 덜 크믄. 오죤 지치곡 흥믄 가모룽흥게 이게 이제 너무 하영 꺾도 안 돼곡. 거
흥영 올매 올기 시작흥믄 이제 요거 춘브름이 나사. 춘브름 불곡 흥믄 막 저 상강
돼가믄 요것이 이 이제 이파리도 좀 덜 흥곡 그거 해가믄, 이파리도 너무 한 건 우
리 막 이파리 타레 가나서. 탕 그걸 자게 타붙어사 이제 멘네가 자게 온텐 흥영, 이
파린 멀릿 거는 흥나씩 타붙어서. 게믄 요것이 율더레 멘넛도례기 이만씩 흥믄 착
착 벌어집주게. 벌어지젠 흥믄 드물어사 흥곡양, 좇으믄 다마가 줄곡 잘 안 올아.
게난 두물게 흥영에 싱경 내불믄 춘브름 넘어가믄 이것이 피영 영 흥나씩 멘넛도레
기 피영 강 타오라 흥믄 강.

106012 #2 멘네 탕 먹으멍.

106012 #1 이제 거 흥곡. 또 도례기 선 거는 이제 탕 먹곡. 맛좋아 것도.

106012 #2 멘넨 갈젠 흥믄 씨 흥기가 막 꺾어낫수다게. 그 무신 거 문딱 소게 달
믄 거 다듬앙, 다듬지 안 흥믄 그 씨 즈꿋디 그거 흥믄 안 난텐 흥연. 난텐사 흥여
신지 안 난텐사 흥여신지.

106012 #1 안 나. 안 나. ㄱ쿨.

106012 #2 씨어머님네 흥는 거 우리 다듬아낫수다, 다듬으렌.

106012 #1 씨 흥는 거 ㄱ쿨 소게 흥나 든 거 엇이 다듬아사.

106012 #2 씨가 ㄱ쿨. 꺾입디다.

106012 #1 다듬앙 씨만 영 도로록흥게 해사 물컷당 빼여.

106012 #2 게난 우리 생각엔 그자 물경 영 싹어불민, 싹어도 아이 웬텐 흥곡.

106012 #1 ㄱ쿨흥게 다듬앙.

106012 #2 문딱 영 흥난 그것이 막 꺾입디다, 멘네 흥 때. 씨어머님은 이거 담듬
아사, 다듬아사 흥난에.

106012 #1 멘네 그거 어느 정도 커근에 멘네 탕 밧디도 널곡 이제 그 집의도 지
여당 멩텅이 흥영 지여당 마당에 널엇당 이제 어느 정도 흥끔 물랑 흥 메칠 이제
벧 췌우믄 요거 멘네 그 물레 불르는 것이 잇어마씨. 이거 맥여가멍 불랑은에 씨는
안쪽더레 빠져가곡 요건 이제 멘네 불라가멍 이쪽더레 또 널영 걸 이제 물리와 놓

른 이제 더러 멘네 소게 태우는 디 가곡, 한 거는. 적은 거는 집의서 이제 쓰는 거는 집의서 이 이불 ㄴ쁜 거 좀 눕는 디 ㅎ젠 ㅎ른 마당의 널엇당 ㅎ 이틀 바싹 물리우는 막대기로 막 두드려도 돼곡.

106012 #2 씨집 갈 때 그거 이불 해근에, 나도 그처럼 ㅎ연 이불 두 개 요 두개 ㅎ연 소게 아이구, 그 이불 ㅎ영 몇 ㅎ니까 아무것도 아녕. 그런 이불 이제. 스몏 애씨게 마당의 어머니는 두드령, 명석 폐와냥 두드려근에 그것 소게 쌍, 쌍 이제 이불 ㅎ영.

106012 #1 정 좇곡 그거. 저 미녕 ㅎ 사름덜은 거 이제 거 북삭ㅎ영, 머옴 ㅎ나 이제 정 몰아. 영 정 몰앙 ㅎ나씩 이제 ㅎ얹 영 나뒹당 정 좇으멍 이 물레로 ㅎ으멍 썰 감앙 이제 얼레기에 감으른 이제 하나 해지른 이제 그만 ㅎ영 또 다른 거 또 ㅎ곡 ㅎ멍. 경 ㅎ영 썰을 빠싹주, 멩글앙. 거 잘 ㅎ는 사름은 춤 거 기술적으로.

106012 #2 기엳당 그걸로 씨 ㅎ곡.

106012 #1 둘리가멍 삭삭 썰 잘 ㅎ얹아. 우리 영 해보른 썰을 ㅎ얹질 못 ㅎ여. 이거 잘못햇당은 막 그냥 ㅎ치 감아져불어. 게른 이거 ㅎ얹질 못 ㅎ곡 ㅎ는다. 요것도 ㅎ젠 ㅎ른 ㅎ루 종일 해 놓른 풀이앙 어깨 아파사.

106012 #2 풀 아프곡, 멘네가 온몸으로 하나 다 부뜨곡.

106012 #1 몬지가 스몏 안네.

104012 #2 해양케 다닥다닥 부멍. 무신 다듬으카 모옥을 ㅎ카 이제. 그옴 기영, 경 ㅎ 거 수건, 광목 수건 췌당 털어뒤근에 털어뒹 췌 멕이곡 ㅎ 자곡. 보리췌 밭 폐와가멍.

모시

104013 @ 오늘 거 저 모시실을 멩그는 과정에 대허영 곶아줍서.

104013 #1 요즘 모시옴 허른 거 저 모시옴은 먹엄수다마는 모시옴은 아 전인 모실 해 다가 그걸 이제 좀 물리왕 걸 시들왕 이제 질깃질깃허른 걸 저 문딱 덩드령 마께로 독독독독 찢어마씨. 걸 아래 영 허른 너무 허른 이제 ㅎ 거난 허고 이제 시들왕사. 것이 질길 거난 시들왕 우리 어린 때 전이 보른 걸 독독 실 빠쟁 험서, 모시옴. 거 해노른 이제 해 ㅎ 거 저 시들왕 마께로 두드려 ㅎ, 솟디냥 ㅎ아. 거 어느 정도 ㅎ앙 영 보른 실이 거 헤영케 나옵니다. 바깳디 거죽 다 빠불른 삼베허듯이 딱 ㄴ쁜 원리우다. 경 ㅎ 그것이 이제 즐게 ㅎ 노른 ㅋ쿨 꺾테길 ㅎ터노른 이제 거 헤영케 실이,

104013 #2 모시실 나.

104013 #1 모시실이 빠, 뒤엳 거 거저 헤영케 돼 마씨. 게른 그걸 해다가 이제 정 좇듯이, 것도 다 손으로 빠네, 공듭주게. 다 췌 해노른 문딱 잇어. 이렇게 허멍, 실, 췌 허멍 영 ㅎ 허른, 그레 춤 불르멍 영 ㅎ 잇곡 잇곡 허멍 걸 폐양케 얼레기에 ㅎ 감아. 감으멍 막 ㅎ 이거 허른 저 미녕췌 빠듯이 딱 ㄴ쁜 원리로 경 ㅎ 이제 실 ㅎ 얼레기에 감앙 헛다가, 요걸 이제 모시 차는 데, 거 미녕 담지 아니허영 거 얼레

기도 보든 줌질고 ㄱ는, 저 아니 미녕썰보단 궤양 멍심아니허든, 이거 짜 노든 질기
는디, 모시, 모시웃이, 짜기 전 영,

104013 #2 풀 블앙, 풀 블랑 영 허멍.

104013 #1 이디서 질기게 허젠 허든 멍심행 실을 빠사마씨. 게 아니허든 실 흥끔
헌 거 떼어 저 불고 허니까. 감앙 어땡어땡 얼리우멍 해 낱 얼레기에 감앙, 게 해노
든 나중에 이거 모시 짤 때는 그렇게 행 짜 노든 질기꼭 허는데 실 허는 과정이 저
공이 들주게.

104013 #2 게난 모시틀, 모시틀 해다 낱 허쟁 허든 중엄리 할멍 혈 때 보든, 이
런 집도 아이라, 새앙 담은 집, 사는 디 강 모시틀 왁왁헌디 해사 헌멍 허멍, 해 낱
그걸 무사 그디서 험수젠 허난 모시틀은 막 왕대 담은 걸로 헨게. 이만이 헌 거 왕
대 담은 걸로 행, 무신 틀 짜. 이만이 헌 거 틀 짜단, 무사 그디서 험수젠 허난 왕
댄 경 왁왁헌 디서 해사, 뭇이 브름 으시킨 나간덴, 경 허멍 우리 할마니, 방앗간
할마니 산 때에 그 왕 댈 해그네 모시틀 만들앙 허든, 구들러레 웬 경 허든, 웬 경
왕대를 몰좌사, 모시틀을 허젠 허든 거 무시거 잇잔아, 이만헌 거, 거. 바당에 강 저
테우에 영 썩는 거. 뭇지? 거 양, 그거 해다낱에 험디다게. 경 허난 바당에 테우 해
다낱 그런 기계라. 그런 끌레기 해다낱에 모시틀을 짜는 건 알아져, 알아지꼭. 저
미녕은 베깃디서 짜꼭, 모신 안네서 짜꼭 험디다게. 경 허멍도 허는 거 봐낱주기,
우리.

104013 #1 게난 그것이 실, 실이,

104013 #2 우리 모신 안 해도,

104013 #1 바인다 해가지고 그렇게 어둔 디서 허는 건디,

104013 #2 어둔 디서 허여. 미녕답지 아니허영.

104013 #1 하여튼 요건 저 이 미녕답지 아니허영 실 빠쟁 허든 양, 공이 들어.
멘네 실 행, 저 미녕은 그 멘네로 허든 블라노든 실 빠기가 쉬운디, 블랑.

104013 #2 붉은 디서 허는디, 모신 어두운디서, 왕대로 멘들앙 해나서.

104013 #1 무신 요거 춤 흥끔 뱃기멍 영 동마리로 행 영 실 다 잇영.

104013 #2 영 부비영 허고.

104013 #1 부비멍 다 잇쟁 허든 거 공이 하영 들어마씨. 그거 행 이제 잘 해노든
모시,

104013 #2 물 들이닌 건 산에 강 무시거,

104013 #1 거 저,

104013 #2 무신 낱 해당으네, 이제거뜨든 무신 거 돛박낭인가? 무신 낱 꽃 해다
낱으네, 물 들여나서, 빨경헌 물 허영으네.

104013 #1 예, 그런 거 허고, 여러 가지 풀로, 자연적입주게. 지금 생각허든 이젠
뽕 화학 물감이 성 허주, 전이사 그런 것이 셋 수강? 게든,

104013 #2 게난, 산에 강 그 꽃 해다 낱, 물 들이젠 허든 물 솟아, 솟앙 이제 허
는 사름 저 당동산이 할망 빌어다 낱, 허는 건 우리 봐 낱수다게. 꽃 해되 낱 딸리

는 거. 딸령 물들이른 모시가,

104013 #1 곱게,

104013 #2 별경헌 모시 나오곡, 노랑헌 모시 나오곡 그추룩 허여. 당동산 그 누
게 할으방 잇지 아니허여게. 저 기어꼬 할으방, 기어꼬 할망 어, 그 할망이 경 모시
물, 동촌 할망이나네, 그 할망 잘 들인텐 허멍, 우리 빌어단 안가름 할망 허는 집이,
우린 어린 때고 경 그것이 쉽게 허는 거 아닌 생입디다, 이젠 보난. 게도 스몇 푸린
물이며, 노랑물이며 들영으네, 폭낭 아래 막 널영으네, 돈은 얼마사 받아나신지, 무
신 십원이여, 오완이여 허멍, 받아도 그거 풀앙으네 우리 할마닌 경 허멍 허난 우리
할으바진 술 먹영 허지 말렌 막 욱 허곡 해도 할망이 그 대정읍, 동촌 할망 저 당
동산 할망 잇수다게. 붓제 할망. 그 할망이 그런 거 잘 험젠, 구엄, 중엄만 경 헤낫
수다. 이디 우린 자세히 몰라 그런 걸. 허여 가난 받 그자.

104013 #1 받 험도,

104013 #2 그 모시 짜는 거 허고 미녕 짜는 거 허고 뜰려.

104013 #1 게난 아버지네 살 때에

104013 #2 이만헌 왕대 헤그네,

104013 #1 거 이파리는 쉼 맥이고, 모시, 모시 허젠 허믄, 게난 것도 그늘 어디
영, 낭이영 하영 헌 트멍에, 길 거 아니우파, 모시 대가, 모시 이파리 영, 지금도 잇
지마는, 그런 디 거 비영 대는 이제 대는 일부러 이건 모시 쉼 빨거여 행, 따로 막
묵영 이제 따로 그늘에 물리왕, 물리왕 흐끔 이거 물리우지 아니허믄 픽픽 꺾어정
끈어지곡, 약허니까 물리왕 시들시들헌 후제 이거 좀 확히게 물에 데우청 삶아, 경
행 이제 덩드렁마께로 독독독독 두드리멍 이거 헤노믄 소급이 다 거 무릍무릍허멍
바졌데는 거자 홀터내믄 ㄱ궂 거죽도 벗어지고, 게믄 이제 헤양케 뵈이 좋게 나와
마씨. 영 행, 영 행 불랑 동ㄱ리에 낱 갈적삼 입영 동ㄱ리로 잇영으네,

104013 #1 경 허멍 열레기로 감으멍, 거 참 공이 좀 듭니다마는, 좀질게 율이선
이제 거 요만이 허믄 영 손으로 찢이멍, 그거 ㄱ궂헤노믄 삶앙 영 허믄 양 겹데긴
다 벗어지고, 푹푹 벗어지믄 그 중간에 껌질만, 거 질긴 거 잇주마는, 그거,

104013 #2 아이고 공 들게,

104013 #1 그걸로 다 잇으멍 쉼을 멩글앙, 거 모시 짜는,

104013 #2 모시 짜는 건 그거 우리 봐 낫수다.

104013 #1 삼베도 마찬가지로 거 허는 건 마찬가지로.

104013 @ 예.

104013 #1 원리가.

104014 @ 경 허민 양 모시론 어떤 옷 멩금니까?

104014 #2 뭐 모시론 중이 적삼도 만들곡, 이제 옛날ㄱ뜨믄 왕델, 무시거 허난,

104014 #1 아니 모시는 양, 미녕이나 광목 담지 아니허영 이건 흐끔 고급 옷에
들어갑니다게, 모시. 이 저 모시 중이적삼 뭐 이런 보통 또 게곡, 저 이상헌 말 ㄱ
타도 이 저 저승옷이나 이런 옷에 모실 하영 씌주게. 그러니까 귀훈 좀 이 저 거

기지 돼노난, 흥끔 중요헌 일, 기지 돼는 거 이거, 영 입영, 아따 저 모시 중이적삼 입엇져.

104014 #2 그 집이 부젓칩이 잘 사는 생이로고. 모시옷 헨 입언.

104014 #1 겐 이 모시는,

104014 #2 아무나 못 입어낫수다게, 옛날.

104014 #1 예, 게 짜기도 어렵고 멩글앙 헤 놔도, 비싼 기지 돼난, 모시,

104014 #2 예 게 양반칩이 아덜이여, 그 집이 저 모시옷 입은 거 보난 아멩헤도 뵈허다 허영.

104015 @ 그 다음에 모시 갈아봔디강?

104015 #1 모시는,

104015 @ 모시 어떻 재배헉니까?

104015 #1 모시는 것도 빨리가, 빨리로 재배허는디, 우리도 거 아버님네 허는 거, 우리 자꾸 강 모시 비어오라 행, 우영팟디영 거 같든, 그게 이제 즈주 허든 안 돼곡 드물겜 헤도 더러 슈아, 가운데 양, 빨리가 이제도 허주마는 모시 빨린 이제 그냥 크게 허든 막 대 올라옵니다. 게문 그걸 이제 거 빨리로 치지명 갱 침 둠팡둠팡 싱 경, 요거 크기 시작헤노든 양, 흥 헤 으름이든 그디 다 퍼져붙어. 딱 허게. 게곡 대도 흑곡 양, 길게 자라든 그거 이파리 문딱 쉼 맥이곡, 이제 그 굵은 대, 대로 주로 비영으네 멩그는 건디, 게난 그거 대 행으네 아까 곧듯이 그거 문딱 헛당 그늘에 좀 시들와, 이거 시들우지 아이허든 질기질 아이허여마썸. 게난 그늘에 흥 메칠 놔 뵈당으네 시들영 영 뵈, 좀 시들엇져허든 그 땐 이제 솟디 뵈 이 허명, 얼른 데우청 너무 오래 허든 거 놀 거난 아멩 시들봐도 허난, 데우청,

104015 #2 ㅁ시락 불 살아놔, 데우청으네,

104015 #1 아니 건, 독독독독 마께로 다 두드렷다. 덩드렁마께로 거 행, 아래 덩드렁이엔 허영, 거 뵈 썸든, 썸게 두드리든 것이 부서져붙고 끈어지니까, 독독독독 울리명 이레 주든 흥 쪽에선 이제 그거 무신 장갑을 요즘은 켜주, 그냥 손으로 박 박 트드명,

104015 #2 퍼렁 거 홀터불명.

104015 #1 홀트명 허난 거죽이영 쪽이영 다 나와웁주게. 게난 흥그랑허게 대만 남아. 대 저 속만, 중간 껍질광. 게문 그걸 행으네 줄게 다 쪽허든 물에 다 시청, 시치든 그게 저 깨끗허게 하양케 나옵니다게. 아이 헤 본 사름은 몰라도. 그걸 행 다 찌지명 이제 허든 율이서는 다 썸 멩글아가명 경 행 썸 멩글앙 허든, 이제 거, 짜는 거는 배 짱 허는 거나 미녕 짜듯이, 짜도 이건 짬 때도 미녕 ㅁ든 건 질기난 영 꼬리라고 허영 영 탁 허는디 이건 멩심행 술작술작 허영, 공 드난 공든 갑으로 모시는 비싸고, 미녕담지 아니허영. 미녕 두 필 갑도 옛날 헛 때는, 미녕 흥 빌에 모시, 침, 모시 흥 빌에 미녕 두 필, 어떤 겐 시 필 갑을 먹읍주게. 게난 모신 귀헌 거.

104015 #2 게난 허는 것만 우린 봐 낫수다마는. 게 일러게 무신 어두운 디강 허여. 거 할망, 우리 할망.

삼

104016 @ 게민 그 다음엔 삼, 삼에 대허영 물어보쿠다양? 그 삼 썰을 만드는 과정 혼 번 돌아줍서.

104016 #1 것도 똑 ㄱ뜨우다, 모시나, 겐디 모시, 삼은 좀 저 여기선 뭘영 허느냐 허믄 어주이라고 허여.

104016 @ 어주 예?

104016 #1 예, 어주영 허영 거 질긴디, 이 대가 이만씩 험주게. 대가 이 저 굵은 거는 양 우리 엄지손가락거찌 행 좇게 우리도 저 우영팟이영 같안 이렇게 했는디,

104016 #2 맨 대 천지주, 옛날엔.

104016 #1 이 지금도 가끔 보여마씨. 밧디 오늘 저 요번 검질 매난 요거 어주이여 허난, 어주이라고 허영 양, 혼 발씩 험니다 키가. 혼 질씩 더 허영.

104016 #2 어주이, 우리 빈 거?

104016 #1 어, 그거 어주이, 그거 행 이저 꼭 모시나 ㄱ뜨 원리로 행 요건,

104016 #2 막 질겨, 건.

104016 #1 질겨야, 게믄 여기서 삼베허기 전에도 저 신사라 대신, 그거 행 베도 들이곡, 베 꼬양허믄 아 이거, 어주이 베여 허믄, 그거 몰랑몰랑해도 질겨마씨. 침 췌왓들에도 쓰곡 허는디.

104016 #2 그것도 독독독 허곡 허는디,

104016 #1 그것도 두드령,

104016 #2 먹돌로 두드령,

104016 #1 두드령 이제, 똑 ㄱ치, 저 모시ㄱ찌,

104016 #2 우리 할으방 신 삼으멍, 그것도 신 삼아.

104016 #1 그추룩 두드령 이거 헤 노믄,

104016 #2 건 숨지 아이해도 웨여.

104016 #1 무사 것도 숨아. 거죽 물리왕으네.

104016 #2 그냥 두드령게, 우리 아버지, 할으버지네.

104016 #1 두드령 다 쏙 빼 낱, 그 거죽 헤 노믄 양, 헝꿈 숨아가믄 문들문들험니다게, 뱃길 때. 거죽이 문칠문칠 예, 슬진 거난 일도 쉽고, 그건 양 모시 담지 아니허영, 또 질 저 이 잇는 것도 쉽고, 요것이 실이 뽑는 것이 혼 발씩 더 험 거난.

104016 #2 질, 질겨.

104016 #1 경 허영 이거 이제 짜 노믄 삼베 웨는 거주. 게 행 육지덜은 다 갈앙 여기서도 한동안 험 때는 갈앙 해당, 이거 비영 이제, 요거 저 삼베옷 험거여 허믄,

104016 #2 어제도 어우이엔 허멍 이 아방,

104016 #1 어주이에 그것이,

104016 #2 율 집이 살멍.

104017 @ 삼으로 베를 멩글지 안 험니까양? 베 양? 베로는 어떤 옷을 멩글아마

씨?

104017 #2 거 저 뭇이, 저승웃히고,

104017 @ 저승웃?

104017 #1 요즘 저,

104017 #2 저승웃이라 저,

104017 @ 사름 묶을 때 허지, 일곱 마디로.

104017 #2 사름 묶을 때, 사름, 사름 묶을 때.

104017 @ 그 다음에 저 상제웃도 허고.

104017 #1 아 요즘 저, 상제복도 허곡, 두건도 허곡, 또 게메 그런 거 다 쓰곡 지
금 이 웃도 행 입곡, 거 베웃 입으믄 노랑케 거 침 보기종곡 으름에도 시원협주.

104017 @ 베개도 허지 안협니까?

104017 #1 베게영 이불, 또 이불도 영 안네 봐 노믄 저 산도록,

104017 @ 산도록허주게.

104017 #1 산도록헤마씨, 으름에도 씨원허고.

104017 #2 옛날 무신,

104017 #1 이제는 그냥 나이롱이 나와부난 나이롱 저, 지금 영장밧디 어디여 저
두건 멩그는 거, 다 나이롱이우다게.

104017 #2 진짜 베가 아이.

104017 #1 베가 아니라 물만 들어. 옛날 베는 그것이 아닌데, 진짜 베로 거는 이
제 삼이라고 허영 아까 어주이에 비영 문딱 그걸로 장만허영 썰 빠가지고 이제 거
이름 모르켜, 거는 뭐, 물들이는 거.

104017 @ 옛날 사름덜도 보민 켜 행 봐 뒤. 베, 베를.

104017 #1 건 진짜 배우다.

104017 #2 베 이제 제승허젠 문딱 베 행으네 나뉘으네, 베 허믄 관 우터레도 글
썩 덕그곡,

104017 #1 흔 필허믄 얼마씩허멍 옛날은 다.

104017 #2 이젠 문딱 그 저 절간이서 상 허는 따문 그런 거 아니헤도, 옛날 할망
덜은 문딱 베로 허영. 메칠 베, 일곱메여 묶을 거영, 대가리 빌 거영, 즈근즈근 빼마
다 묶으곡, 이젠 옛날은 경헤도 이젠,

104017 #1 나이롱이 아니난 그냥 저 어디,

104017 @ 나이롱은 썩지 안 허주게.

104017 #1 관에 봐도 썩어불고, 요건 허는디 나이롱은 썩지 아이허여마씨.

104017 @ 거난 썩는 걸 담아야주게.

104017 #1 예, 게난 썩는 거.

104017 #2 이제 경 혈 리가 잇수가? 다 그런 나이롱 베 허고. 옛날덜 베 봐 둔
거, 문딱 좀 일어불엇저. 뭇 헛저. 켜에덜 나두난.

104017 #1 게난 저번에도 우리도 저 공동묘지 허멍, 천리허는디 보니까, 그 형님,

큰 형님, 이 축더레 방위가 틀려가지고 새로 이제 모시젠 허난, 걸 천리를 해야 헐 거 아니우파? 간 보니, 그 저,

104017 #2 문딱 썩어불언.

104017 #1 뭇이 썩질 아니헤서마씨, 베가. 그 나이롱 베난.

104017 @ 나이롱 베.

104017 #1 나이롱 베 이거,

104017 @ 나이롱 안 썩어.

104017 #1 아이고 이거, 안웨겟다, 속으로 양, 탁 느껴전. 게 다른 건 다 썩은 디 그 베로 헐 건 안 썩언.

104017 #2 옷만 착 허게.

104017 #1 갱 허니까 이젠 옛날 거 삼으로 진짜 삼으로 행 베 멩근 거는 그냥 이건 인조ㄴ뜨지 아이허난 썩어불영 좋을건디.

104017 #2 사름ㄴ치 썩어불영 좋을 건디, 경 아니헤부난. 아이고, 게메.

104018 @ 그 다음에 삼 재배에 대해서 혼 번 곱아줍서.

104018 #1 삼은 양, 어주에는 씨가 잇수다게. 씨가 거멍허여. 이 저 요만씩 헐 건 디, 요번이도 거 검질 매멍 요거 어주이엔 허난,

104018 #2 율이 할망 어주이에가 뭇고 허멍.

104018 #1 이 저 요만씩 헐 거, 씨가 까망허여. 게문 그걸 이제 재배허젠 허문 씨 두드려, 더러 삼 허멍도 요만씩 곱은 거난 씨가 똑 솔똥 씨ㄴ찌 허는디, 솔씨보 단 흥끔 좋아마씨.

104018 @ 삼이엥 험니깡? 숨이엥 험니깡?

104018 #1 삼.

104018 @ 그냥 삼?

104018 #1 예, 게네 그 숨을 이제 걸 썰 해당 놚뫼당 밋디 갈양으네 뿌령 허문, 이거 이제 좇으문 안 웨어. 이거 좇으문 솟구청 양, 다 이것도 곡식 똑 같듯이 슈와. 이제 조금 드문드문 행, 대가 솔질 거 아이우파?

104018 #2 전각에 썰 거라부난. 흥쉴 슬져사, 썰 하영 나오곡 허는 따문에.

104018 #1 슬정으네 듨망듨망헛당 걸름도 주곡 행으네, 요거 헐 때는 이제 곱으 로 비어사. 곱으로 비영 헤나문 이제 또 요것이,

104018 #2 막 질겨, 거.

104018 #1 비기도 어려와도 요거 행 양 그 어주에는 양 이거 씨로 나는 거난 양, 또 허젠 허문 또 갈아야, 이 저, 모시 담지 아니허영. 모시는 덩어리 정 뿔리로 허는데, 이 숨은 양, 아 저 어주에는 그냥 뭇 헐 거난 뿔리 비어불문 그냥 죽어불어. 게난 이건 또 씨 받앗당 또 갈아야, 까망헌 씨, 요만씩헐 거, 줌진 거, 씨 뿌령 다른 농사 허듯이 갈앗당, 요거 허문 슈와사,슈왕 드므롱이,

104018 #2 대가리가, 텡가리가 슬져사.

104018 #1 텡가리가 곱영 벌착허문, 우리 키 이상 짹 올라갑니다. 이제 혼 허영

씨가 까망케 익어야 흘 현이지. 게 안 허믈 너무 어린 때에 헤도 질기지 아이허고,
씨가 까망케 익으믈 아이고 빌 현 뻬져, 영 돌아뵈. 게믈 그 씨랑 더러 타고 새 헤
에 흘 걸로 또 행.

제2절 어휘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대맹이
201002	대가리	대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구멍
201005	제비초리	꿀랭이
201006	머리털	머리털
201007	머리카락	머리카락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쫄르다
201010	빗[梳]	얼레기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땡다	따우다
201014	비녀	빗네
201015	고수머리	꼬실레기
201016	가마[旋毛]	가메
201017	쌍가마	상가메
201018	가르마	가르레기
201019	이마	임탱이
201020	넓다[廣]	널브다
201021	이마빼기	이마빼기
201022	숨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양지
201024	낯[面]	양지
201025	웃다[笑]	우수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는 거
201027	세숫대야	세숫대양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강아미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볼때기
201032	뺨따귀	귀때기

201033	때리다[打]	후리다, 딱리다
201034	불	불빼
201035	불따구니	불때기
201036	불거리	불거리
201037	광대뼈	광대뼈
201038	보조개	보조개
201039	주름살	주름쌀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공제
201042	검은자위	검은공제
201043	눈꺼풀	눈두께
201044	거적눈	덤게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지트다
201047	속눈썹	안네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눈두세
201049	수침(垂針)	두세
201050	거머리	정세
201051	폐롭다	폐롭다
201052	눈곱	눈콍제기
201053	눈초리	눈깍
201054	사팔눈	사팔때기눈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몽짓다
201058	콧마루	콧대
201059	세다[強]	쎄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코깍지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닦다
201064	콧수염	콧쉬염
201065	인중	인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춤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뉘달하다	답달하다
201072	입술	입바우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입놀림
201075	말하다	글다, 곧다
201076	입방아	입방아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노다시리다
201079	침[唾]	침
201080	삼키다[吞]	숨지다
201081	가래침	개침
201082	뱉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느치름
201084	턱받이	턱받이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활르다
201087	헛바늘	세까시
201088	이[齒]	니빨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니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버드렁니빨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옥니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돋으다
201098	옥물다	니글다
201099	턱	토가리
201100	턱살	토가리살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귓둘레
201105	귓볼	귓볼
201106	귓구멍	귓고냥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귓밥
201109	귀이개	귀쭈시개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귀톡
201112	구레나룻	녹대쉬엄
201113	목	야개기
201114	굶다[飢]	슬지다
201115	모가지	야개기
201116	먹살	맥살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뒷대가리
201119	꼭뒤	상가메
201120	뒷덜미	뒷대가리

상체

201121	어깨	독지
201122	어깨뼈	독지뼈
201123	어깨죽지	어깨독지
201124	겨드랑이	꽃갱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홀목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득쌀
201131	팔꿈치	폴구비
201132	팔목(=손목)	홀목
201133	뼈	팡
201134	뼈다귀	팡대기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왼손
201137	오른손	노단손
201138	왼손잡이	왼등이
201139	손등	손등뎡이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콥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손치다
201144	거스러미	손꺼심
201145	할퀴다	글그다
201146	손가락	손까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안주애기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세네기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손까락트멍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탕탕헛다
201155	젓가슴	젯가슴
201156	명치	오목가슴
201157	명자리	멩자리
201158	젓	젯
201159	젓꼭지	젯꼭지
201160	젓명울	젯명얼
201161	짜다[搾]	달루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똥
201167	옆구리	엽갈리
201168	갈비뼈	갈리뼈
201169	등	등뎡이
201170	밀다[推]	밀리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때기	등뎡이
201173	가렵다[癢]	ㄱ렵다
201174	긁다[抓]	글그다
201175	걸리다	저리다
201176	등목(=목물)	등물
201177	찬물	실려운물, 씨능흔물
201178	등마루	등뎡이

201179 등뼈 등짱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ㄴ는허리
201182	가늘다[細]	ㄴ늘다
201183	엉덩이	엉둥이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볼기슬
201186	엉덩이뼈	엉치짱
201187	궁둥이	엉둥이
201188	궁둥이뼈	엉둥이짱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고냥
201191	더럽다[汚]	추접ㅎ다
201192	가볍다[輕]	개볍다
201193	무겁다[重]	배다
201194	살	즈깁이
201195	가래뿔	멍얼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지
201199	넓적다리	너벅지
201200	무릎	동머리
201201	무릎뼈	동머리짱
201202	뼈다[櫓]	고목가다
201203	정강이	즈곰태기
201204	정강뼈	앞모를짱
201205	종아리	종아리
201206	장판지	취슬
201207	오금	오곰태기
201208	복사뼈	귀마리짱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긋다[凶]	고약ㅎ다
201212	헛발질	헛발질
201213	발목	훼목

201214	겹질리다	고뭇가다
201215	발등	발등뎡이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뿌리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ㄴ렵다
201220	간지럼	ㄴ렵다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어금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상발가락
201221-3	가운뎃발가락	검지발가락
201221-4	넷째발가락	노네기발가락
201221-5	새끼발가락	생이발가락

201222	발살	발거림
201223	까치눈	눈떴다
201224	티눈	멍쿠쟁이
201225	고린내	구렁내
201226	발톱	발콧
201227	발뒤축	발뒤치기
201228	쓸개[膽]	실개
201229	허파	북북이
201230	마음	ㅁ음씨, 오장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배설
201232-1	큰창자	큰배설
201232-2	작은창자	족은배설
201233	목숨	멩
201234	빼앗다[脫]	오래 안 간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꺼지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나다
202006	태(胎)	아깃봇
202007	땃줄	배똥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터울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곧 난 아기
202014	사내아이	소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이
202016	아깁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아기엽개
202018	엽저지	아기엽개
201019	품다	쿰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단지, 요강
202022	오줌버캐	오줌정갱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쌌기, 열가리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나무라다
202026	지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모렵다
202028	꾸지람	욕하는 말
202029	배냇저고리	보떼적삼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배불레기
202032	포대기	아기 지성귀
202033	보자기	포대기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쳐네	뜨대기

202038	띠	걸랭이
202039	개구멍바지	햇바지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죤매죤매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섯따섯따, 선네선네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부라부라
202046	걸음마	흔자국 두자국. 조랑조랑
202047	걸리다	더 글으라
202048	곤두박질	곤두박질
202049	곤두서다	곤작사다
202050	가동가동	가동가동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청에고개
202054	흉내	승내, 본따다
202055	흉내질하다	본따다
202056	엄살	소도리
202057	쌈	쌈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부에나다
202060	참다[忍]	참다
202061	심술	심술
202062	밉다[憎]	긋다
202063	옛말	옛날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
202066	딱지치기	빠찌치기
202067	통차기	깡통차기
202068	숨바꼭질	곱음제기
202069	숨다	곱앗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놀이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뜨기

202073	풍계문이	굽질락
202074	줄넘기	줄레뛰기
202075	줄다리기	배둥이기
202076	수수께끼	예숙제끼기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방칠레기
202081	땅뺏기	땅따먹기
202082	사금파리	사금마치
202083	말놀음질	물탈락
202083-1	생말타기	생물탈락
202083-2	죽은말타기	막댕이탈락
202084	대말[竹馬]	대막댕이
202085	달음박질	들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고른백ㅎ다
202087	제기차기	쫓끼차기
202088	헤엄치다	히다
202089	웃놀이	넉둑베기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토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캐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숫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동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외지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두지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석지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넉지

202092	막동	막지
202093	보리웃	보리웃
202094	줄목	줄목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득투다
202097	싸우다[鬪]	쌈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듬치기
202100	편벽하다	편백하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르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정연
202107	가오리연	강글레비
202108	연달	정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상대
202108-2	콩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속대
202108-3	꺾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옆대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활대

202109	방구멍	방고냥
202110	꼭지	꼭지
202111	갈개발	꼴랭이
202112	벌이줄	연술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벌잇줄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벌잇줄
202112-3	콩숫줄	연의 콩숫구멍에 꿰어서 콩숫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모듬줄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옆벌잇줄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가운뎃줄

202113	얼레	얼레
202114	두모얼레	두얼레
202115	네모얼레	네얼레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사기
202118	퇴김	퇴임
202119	그네[鞦韆]	그네
202120	밑싯개	그네발판
202121	굴렁쇠	구렁쇠
202122	구르다[轉]	굴르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자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키다리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선하우
202129	기지개	질튼다
202130	기지개하다	질튼다
202131	경기하다	정세돈다
202132	놀라다[驚]	겁나다
202133	졸음	즘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졸리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지픈즘
202138	자다[眠]	넝 자다
202139	잠꼬대	즘꼬대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 무충흔 사름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헛다
202144	트림	트림
202145	딸꾹질	툔국지
202146	채채기	채채기
202147	개치네췌	헛쟁이
202148	방귀	똥뀌다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박쟁이
202151	구린내	구렁내

202152	노린내	그시렁내
202153	사레들다	살레들다
202154	감기	감기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홍역
202157	학질	학질
202158	천연두	마누라
202159	곰보	억베기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허멀
202163	두부백선	독짓
202164	웃	칠
202165	버짐	버즘
202166	마른버짐	믄른버즘
202167	진버짐	허멀버즘
202168	주근깨	꼭리찜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사막
202171	여드름	여드름
202172	멍	멍울
202173	퍼렇다	검붉다
202174	굳은살	멍쿠쟁이
202175	부스럼	부시럼
202176	종기	종지
202177	습종	습징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허멀발
202180	다대	허멀 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구진물
202183	낫다[癒]	좋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본치
202186	생인손	생손앓이
202187	앓다[痛]	아프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뚜기
202190	소경	눈봉서
202191	칭맹과니	눈튼봉서
202192	먼산바라기	어지랭이
202193	애꾸눈이	외눈배기
202194	사팔뜨기	사팔떼기
202195	다래끼	눈다래끼
202195-1		개썸
202195-2		개쫓
202196	언청이	얼챙이
202197	외언청이	외얼챙이
202198	쌍언청이	쌍얼챙이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머거리
202201	병어리	말모래기
202202	말더듬이	버버리
202203	혀짤배기	세다드레기
202204	입비뿔이	입토래기
202205	구안괘사	풍징
202206	가납사니	가막사니
202207	곰배팔이	곰배팔이
202208	곰사등이	곰세, 곰추
202209	절뚝발이	절룩발이
202210	얹은뱅이	안즌뱅이
202211	문둥이	문둥병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방, 아부지
203002	어머니	어멍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두갓
203010	싫다[厭]	긋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죽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큰말젯아덜
203012-9	막내아들	죽은아덜

※아들이 여섯-큰아덜, 셋아덜, 말젯아덜, 큰말젯아덜, 죽은말젯아덜, 죽은아덜

아들이 일곱-큰아덜, 셋아덜, 말젯아덜, 큰말젯아덜, 셋말젯아덜, 죽은말젯아덜, 죽은아덜

아들이 여덟-큰아덜, 셋아덜, 말젯아덜, 큰말젯아덜, 셋말젯아덜, 죽은말젯아덜, 죽은죽은말젯아덜, 죽은아덜

203013	친아들	우리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슴아덜
203015	딸	뜰
203016	친딸	뜰
203017	의붓딸	다심뜰
203018	자식	즈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애비뜰
203022	어비아들	애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달므다
203024	어이딸	이뜰
203025	어이아들	이새끼

203026	말이	몬이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님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동생
203031	언니	성님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단아덜, 동궁아덜
203034	외딸	외동딸, 동궁딸
203035	쌍둥이	굴루기
203036	다르다[異]	뜨나다
203037	같다[如]	ㄱ뜨다
203038	양자	양재
203038-1		양아덜
203038-2		양재 들다
203039	처녀	비바리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서
203042	날[日]	한나절
203043	사주보다	스주본다
203044	중신	중매쟁이
203045	권당	켄당
203045-1		켄당
203045-2		켄당
203046	얹은잔치	안즌잔치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방
203050	시아머니	씨어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아멍
203053	외할아버지	외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외할망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주버님

203057	아주머니	아지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어루신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광ㅎ다
203061	살다[生]	맹도 질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롱팔십
203063	병추기	벙주시
203064	거동하다	오몽ㅎ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딸손지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외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외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외펜
203073	종내기	종내기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캐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외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89	홀아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습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203095	웁딸	봉근딸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눔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ㄴ슴, 끌레기
204002	끓다	물르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줄어들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명	닷새미녕
204010	옛새무명	옷새미녕
204011	생목	생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솜	소개
204017	폴솜	소개
204018	솜틀	소개틀
204019	솜틀집	소개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도래기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자목
204024	번데기	누에번데기
204025	고치	누에고치집
204026	뽕잎	뽕썸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들뽕낭

204029	오디	뽕낭으름
204030	다듬잇돌	안반
204031	다듬잇방망이	홍깃대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부글레기
204035	물거품	개끔
204036	빨랫돌	돌팔
204037	빨랫방망이	서답마깨
204038	빨랫바구니	질구덕
204039	헹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서답줄
204041	마르다[乾]	물르다
204042	바지랑대	작데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걷다
204045	바래다[褪]	바래다
204046	형겘	형겘
204047	찢다[裂]	치지다
204048	나부랭이	끌레쫓가리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달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바우
204054	풀치마	깍치메
204055	옷고름	옷고름
204056	옷깃	옷깃
204057	옷섶	앞깃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돌마기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소매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창옷
204066	두루마기	두루마기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이
204069	토시	손도메
204070	누더기	뜨누데기옷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뽀쟁이
204073	잠방이	굴중의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허리끈
204075	주머니	주멩기
204076	호주머니	게아쑥
204077	넣다[入]	질르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보선뒤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보선등덩이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뽀족한 부분	보선코

204079	길목버선	질목보선
204080	버선발	보선발
204081	대님	다림
204082	감발	각반
204083	홀옷	훈옷
204084	겹옷	점옷
204085	솜옷	소개옷
204086	얹다	압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거죽
204090	이불잇	이불안
204091	홀이불	훈이불
204092	겹이불	점이불

204093	사이	트멍
204094	누비이불	누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폴	보폴레기
204097	홀청	이봉쩍테기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안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찌다
204102	담요	요싯끼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앉다[座]	아지다
204105	베개	베게
204106	베갯잇	베갯잇
204107	베갯머리	베갯머리
204108	베갯모	베갯모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권	유권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밀짚모자	밀랑패랭이
204115	미사리	갓
204116	짚신	째신
204117	제충박이	깍신
204118	판충박이	깍신
204119	미투리	삼신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죽신	가죽신
204123	부르뜨다	붕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설피
204126	문수	몽수
204127	부채	선제
204128	미선	선제
204129	부치다[扇]	부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짚고리	바늘쌍지
204131	가위	ㄱ세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골무
204134	실	썰
204135	실꾸리	썰패
204136	실패	썰패
204137	바늘	바늘
204138	찌르다[刺]	찔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늘방석
204140	바늘귀	바늘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깎다	주다
204143	실밥	썰밥
204144	접다	좁다
204145	곱치다	곱치다
204146	휘갑치다	감추다
204147	재봉틀	조봉틀
204148	다리미	다르웨
204149	다리다[熨]	다린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눌르다
204153	씨아	물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물레지둥
204153-2	썰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세역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깔개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물레귀
204153-5	씨아손	손잡이	물레손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가레기

204154 물레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선머리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선머리지둥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물레지둥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물레바탕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물레바퀴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물레손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점줄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가락지둥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가레기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굴뚝
204154-11	물랫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물랫줄

204155 자세

꼬리박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아리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205007	빼다[渴水]	뵈루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팔밥	팟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밥
205013	고두밥	선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녕이
205016	눌은밥	누녕이
205017	더운밥	뜨신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파래밥	파래밥
205020	밥보	밥채시
205021	밥술	밥순가락
205022	밥알	밥방울
205023	끼니	세끼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짜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승냥물
205029	화독내	칸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낙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초친 냉국
205034	냉국	초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물국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더우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팔죽	팟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갱죽, 쓰레기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늑물짐치
205051	무김치	놈뻘짐치
205052	열무김치	열무짐치
205053	물김치	물짐치
205054	나박김치	나박짐치
205055	갯김치	갯짐치
205056	파김치	파짐치
205057	깍두기	놈뻘짐치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똥그다
205060	간장	장물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된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덩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맛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소금간헛다
205069	콩나물	콩지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주름
205071	무나물	놈뻘무침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탕쉬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밥
205075	썰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곳
205077	고비	베염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내기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초
205082	푸성귀	송키
205083	오이	물웨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춤웨
205086	수세미외	수세미웨
205087	말물	초불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간절기
205090	원두막	웨막
205091	깻잎	유잎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고를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썸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던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아가미젓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취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시리떡
205110	부스러기	부스레기
205111	송편	송편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래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문두
205117	가루	ㄱ를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칼국수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조배기
205122	물다[淡]	얹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지
205127	과줄	약과
205128	옛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탁배기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숙이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추니
205138	엮다	어푸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205140	술독	술항아리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찌다
205144	찾다[索]	쫓다
205145	들이켜다	먹는다
205146	갑시다	숨막히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지름떡
205148	누름적	지짐이
205149	산적	적갈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제
205151	부엌문	정진문
205152	불때다	불숨다
205153	불등걸	인경
205154	불뚝	춧뚝
205155	부엌비	정짓비차락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야피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그시렁
205160	검댕	숫검댕이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재	불치
205163	모으다[集]	메우다
205164	부뚜막	숫덕
205165	봇돌	숫덕돌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옹조리
205168	무쇠솔	무쇠숫
205169	끓다[沸]	궂다
205170	솔뚜껑	숫두껍이
205171	솔귀	숫두껍이 조록
205172	솔전	숫천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밋
205175	솔검정	숫구메기
205176	부삽	불삽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헛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깥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정지방석
205182	성냥	괵
205183	성냥개비	괵살
205184	성냥갑	통괵

205185	부시	부세
205186	부싯돌	부셋돌
205187	부싯깃	불쩍
205188	부시쌈지	부세주멧기
205189	부시통	부세통
205190	등잔	각지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룽	호야
205193	남포등	호야등
205194	접싯불	젹싯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가마
205199	뜯숯	게스미
205200	숯검정	숯검텡이
205201	불타다	불나다
205202	탄내	그끄렁내, 탄내
205203	불태우다	물지치다
205204	불티	불꺼렝이
205205	끄다[消火]	끼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구리화리
205209	붕당	붕당화리
205210	화룻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불 본치
205213	부손	불순가락
205214	부젓가락	불젧가락
205215	다리쇠	바툼쇠
205216	석쇠	적쇠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지신물
205217-2		추니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먹다

205220	용고뚜리	담배골초
205221	담뱃대	통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뿌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담뱃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통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놋사발
205233	사발	사기사발
205234	뚜껑	두껍이
205235	젍시	젍시
205236	굽달이	굽신젍시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장물종지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
205243	수저통	제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진물
205246	도시락	동그랑착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마가지	박새기
205250	박	꺅
205251	뒤옹박	뒤옹박
205252	조롱박	조롱박
205253	쪽박	족박
205254	양푼	남박새기
205255	조리	썰어랭이
205256	단지	조막단지

205257	뚝배기	옹조리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리바닥
205260	시룻번	시룻마개
205261	경그레	바트랭이
205262	함지박	낭도고리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소코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숨대
205269	제주조릿대	조릿대
205270	굳은대	매운대
205271	무른대	죽신대
205272	항아리	항망대기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배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정지칼
205278	빼다[拔]	빼내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골다
205281	숫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노실다
205283	행주	상배
205284	번철	빈철
205285	국자	남자
205286	밥주걱	우걱
205287	죽젓광이	베슬기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떡판
205290	밀판	안반
205291	밀개	홍짓대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고소리장테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고소리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고소리 뿔
205292-4	(받이펍)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이수펍

205293	빚다	담다
205294	풍로	간데기
205295	삼발이	삼발이
205296	달이다	딸린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골목길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낡다[古]	헛다
206007	기와집	기와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오막살이
206011	외채	외집, 홀집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바꺼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문간집
206016	곶채	목커리
206017	짓다[作]	지스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항뒤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왕

206023	잃다[失]	잃다
206024	마구간	말왕
206025	변소	통시
206026	부춘돌	디들팡
206026-1	부출	디들낭
206027	기척	지침
206028	맞서다[拮]	마주사다
206029	냄새	냄새
206030	맡다[臭]	마치다
206031	울담	울담
206032	울안	우잣
206033	터알	우영팟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릿눌
206036	짚가리	찍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산태
206040	이영	노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역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풍채
206043-2		풍채
206044	디딤돌	팡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삼방
206047	마루문	삼방문
206047-1	‘호령창’	호령문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방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얇다	얇브다
206053	구들직장	구들지기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어오다
206056	윗목	땃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거찌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정지구들
206062	방문	지계문
206063	비[帚]	비차락
206064	땃자루[柄]	땃대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비우다
206067	바람벽	백브름
206068	걸다[掛]	부치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다락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옷공쟁이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알	도비술
206075	풀비	풀비
206076	찾방	첻방마리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놔두다
206079	광문	괴광문
206080	간수하다	가냥흐다
206081	안뒤곶	마릿뒤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함석
206084	지붕물매	지붕물매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대
206087	쳐마	쳐마
206088	쳐맞기습	쳐마끝

206089	낙숫물	지신물
206090	댓돌	잇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황토
206093	찰흙	촌흑
206094	흙덩이	흑병덩이
206095	새벽	흑수세미
206096	흙질	흑질
206097	이기다[沍]	달루다
206098	산자(撒子)	튀기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상막를지둥
206101	뿔기둥	뿔지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막를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대들포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椶)	튀기
206111	인방	ㄱ른세
206112	문설주	문골
206113	문곶도리	지방
206114	문얼굴	문틀
206115	문틀	문틀
206116	문머리	웃지방
206117	문흙	문흙
206118	문지방	아랫지방
206119	지계문	지계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더끄다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창고냥
206125	구멍	고냥

206126	미단이	미단이
206127	여단이	미단이
206128	살문	살체기문
206129	널문	널작문
206130	덧문	덧문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돌절귀
206133	암톨쩌귀	암돌절귀
206134	수톨쩌귀	숫돌절귀
206135	문고리	문고리
206136	배목	문걸이
206137	궤	궤
206138	열다[開]	올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열쇠
206142	부수다[碎]	부습다
206143	서랍	설랍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놀툽
206146	거도	거두
206147	틀툽	틀툽
206148	툽밥	낭 ㄴ를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옥자귀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마깨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못빼기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마깨
206157	방망이	방멩이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흙대패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뜯르다
206162	굽자	고분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술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흑손
206167	쇠흙손	쇠손
206168	나무흙손	낭손
206169	흙받기	흑받침
206170	돌물레	물레
206171-1	호르레기	호랭이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이염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도르갱이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잠대, 쟁기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짓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무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칫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에
207008-5	좀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설칫세역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쇠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쇠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성에뿔
207008-9	‘뚝’	좀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배트랭이

207009	옥보다	속아수다
207010	겨리	접새
207011	벧밥	병에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멍에
207014	밭두둑	밭두둑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이렁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벧토
207019	씨레	서레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소쟁이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서레지둥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몽둥이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서레발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서레채

207020	번지	가래죽
207021	팽이	팽이
207022	곡팽이	목팽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쉐시랑
207025	삽	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알씨
207031	백씨	백씨
207032	뿌리다[撒]	빼다
207033	망태기	맹탱이
207034	꿈계	섬피
207035	남태	남태
207036	돌번지	멍에돌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 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매기
207040	두벌매기	두불매기
207041	세벌매기	세불매기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문 어놋쨌 집이 가게
207043	호미	골갱이
207044	홍아기	웅애기
207045	눅	눅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삿	일콥, 눅콥
207048	비싸다	하다
207049	결두리	간식
207050	품앗이	수눌다
207051	삼태기	굴체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조록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슴베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다갈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새역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호미등뎡이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날

207053	베다[刈]	빈다
207054	새 패기	속대
207055	새끼	새끼줄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모작
207058	노	노끈
207059	끈	노끈
207060	참바(바[索])	배
207061	짐바	짐패
207062	질빵	짐패
207063	잇다[承]	이스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몰칠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메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둥산 모양의 나무	질메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질메뒷고분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도금막대
207066-5	둥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둥구리막대
207066-6	경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고들개
207066-7	경거리끈	경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고들개줄
207066-8	경거리막대	경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고들배기
207066-9	배땃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고렝이줄

207067 멍에

멍에

207067-1	목대	멍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좁게
207067-2	봇줄	멍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손비줄
207067-3	한태	봇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등태줄
207067-4	(오리목)	봇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오리목
207067-5	비겨미	봇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봇줄에 꿰는 막대기	벌레낭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가달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가지	지게작대기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셋낭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지게등태
207068-5	지게꼬리 (밀뻘)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지겟줄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게받침

207069	바지게	바지게
207070	발채	돌채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고고리 흘친 거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도께
207076	벼훅이	보리클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보리고고리
207077-2	발벼 이삭(넓고 모난 살)	산디고고리

207078	타작하다	태작하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진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207083	겨를	조를
207084	도리깨	도께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께어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께아털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녀	도께틀

207085	여물	출
207086	쭈정이	죽쟁이
207087	꼴	출
207088	꼴발	출왓
207089	꼴꾼	출놉
207090	꼴단	출못
207091	싣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구루마
207093	북두	용돏줄
207094	멍석	멍석
207095	덕석	등태
207096	거적	도금, 거적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ㄱ는체
207099	굵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총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체반침
207103	어래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폰체질
207106	까불다	폰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술박’	죤팍
207109	풍구	풍구
207110	홉	홉
207111	홉되	홉사리
207112	되	되
207113	관되	말되
207114	사삿되	사되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네모말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불당그네
207120	떡등구미	맹텡이
207121	가마니	가맹이
207122	끗다[引]	끄스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그느다
207125	자루[袋]	찰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게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할량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노랑ㅎ다
207133	밟다	볼르다
207134	까끄라기	고시락
207135	보리쌀	보리צל
207136	보릿겨	보리채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솔오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낭
207141	매끼	무생이
207142	감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숙다	소꾸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숙(黍粟)	서숙
207151	비비다	부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재비
207153	좁쌀	좁צל
207154	조짚	조찍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볍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멧자리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왓
207162	밭벼צל	산디צל
207163	밭벼짚	산디찍

207164 맷돌

고래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고래착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짜	고래우착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짜	고래알착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고래혹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중시리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고랫조록

207165	맷방석	고랫방석
207166	매함지	덕석
207167	풀맷돌	쟁고래
207168	풀매	풀고래
207169	썰기	세역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남방에
207171-1		남방에
207171-2		남방에
207171-3		남방에
207172	방아확	방에혹
207173	방앗간	방에왕
207174	븀비다	하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물방에
207178	방앗돌	방엿돌
207179	연자맷간	방엿간
207180	절구	남방에
207181	절긋공이	방엿귀
207182	빻다	굴다
207183	늪	늪
207184	고르다[擇]	주수다, 일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채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썩, 콩잎

207189	기름콩	주름콩
207190	콩깍지	콩깍지
207191	콩짚	콩꼬질
207192	꼬투리	콩겹질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비물
207195	뜨겁다	지접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비제기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강낭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팔	풋
207202	팔알	풋방울
207203	팔밥	풋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꽤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춤지름
207208	깻묵	지름주시
207209	고소하다	코싱ħ다
207210	메밀	모멸
207211	메밀밭	모멸팻
207212	나깨	모멸는쟁이
207213	메밀겹질	모멸채
207214	메밀국수	모멸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모멸초배기
207216	메밀칼국수	모멸칼국수
207217	메밀떡	모멸떡
207218	메밀묵	모멸묵
207219	무르다[軟]	알롭다
207220	고구마	감제
207221	절간고구마	감저빼따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밑	마농빨리
207225-3	마늘중	마농쫑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
207227	파	패마농
207227-1	파밑동	패마농빨리
207228	무	늪빠
207229	무청	초마기
207230	시래기	쓰레기, 시드랭이
207231	장다리무	늪빠동지
207232	열무	열무
207233	배추	늪물
207234	고갱이(배추)	늪물속
207235	나물	늪물
207236	채소	송키
207237	겉대	겉잎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냉이
207240-1	옥수수	강낭대죽부레기
207241	수수	사탕대죽
207242	쌀수수	찰대죽
207243	비목수수	빫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탕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낭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네
207247	물길	물길
207248	물옷	물옷
207249	물안경[水鏡]	물안경
207249-1		물안경
207249-2		물안경
207250	태왁	태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재기
207255	뜯채	사들대
207256	그물	그물
207257	돛단배	풍선
207258	이물	이물
207258-1	이물간	이물칸
207258-2	이물사공	이물사공
207259	고물	고물
207259-1	고물간	고물칸
207259-2	고물사공	고물사공
207260	돛	배초석
207261	마룻대(돛대)	돛대
207262	마룻줄(용충줄)	돛줄
207263	활대	팔대
207264	외대박이	외대박
207264-1	두 대박이	두 대박, 쌍대박
207264-2	세대박이	삼대박
207265	노(櫓)	네
207266	결노	율네
207267	상책(노착)	네두
207268	노잎(노깃)	네칼
207269	노앞	네앞
207270	노뒤	네뒤
207271	노손	네손잡이
207272	넛구멍	네고냥
207273	넛쫓	네쫓
207274	돛	돛
207275	돛가지	돛가지
207276	돛줄	돛줄
207277	돛돌	돛돌
207278	돛걸이	돛
207279	키[舵]	치
207280	킷구멍	킷고냥
207281	키잡이	선장
207282	강다리	돛가지
207283	상앗대	사월대
207284	떼[浮筏]	테우

기타

207285	이웃	이웃
207286	더불다[與]	사이 좋게 살다
207287	마을	동네
207288	고을[村]	고을
207289	누리[世]	세상
207290	윗마을	웃드르
207291	옮다[移]	절염된다
207292	아랫마을	해변마을, 해변동네
207293	마을가다	마을길
207294	밤마을	밤길
207295	가게	점빵
207296	구멍가게	고양가게
207297	다녀오다	땡겨오다
207298	심부름	심부름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잔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주리
207302	있다[有]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주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나머지
207307	흥정	흥성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벨리
207311	늘다[增]	불어나다
207312	대장간	불미왕
207313	풀무	불무
207314	손풀무	손불무
207315	모루	모루
207316	모루채	쇠막개
207317	갓양태(양태)	갓망
207318	망건	망건

207319	망건골	망건틀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결다[編]	욕다
207322	사냥	사냥
207323	사냥개	사냥개
207324	사냥꾼	사냥꾼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뽕잡이	뽕쟁이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쇠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갈르다
207331	갖다[持]	가지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서이
208001-4	(4)	너이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덱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센다
208003	알다[知]	안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으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되	흔 말
208005-2	(2/두)	두 되	두 말
208005-3	(3/서, 석)	석 되	서 말
208005-4	(4/너, 녀)	녀 되	너 말
208005-5	(5/닷)	다섯 되	닷 말
208005-6	(6/엿)	으섯 되	은 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 두개	흔 두되	흔 두말
208006-2	(2-3/두세)	두 세개	두 석되	두 서말
208006-3	(2-3-4/두서너)	두 서너개	두 서녀되	두 서너말
208006-4	(3-4/서너)	서너개	서녀되	서너말
208006-5	(4-5/네댓)	너다섯개	너다섯되	너다섯말
208006-6	(5-6/대여섯)	대으섯개	대으섯되	대으섯말
208006-7	(6-7/예닐곱)	예실곱개	예실곱되	예실곱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덟개	일고으덟되	일고으덟말
208006-9	(8-9/여덟아홉)	으다아홉개	으다아홉되	으다아홉말

208007 여남은 으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뽕 뽕
 208010 집게뽕 흔뽕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흔 밭 두 밭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마흔자
208014-2	명주	마흔다섯자
208014-3	광목	스무마
208014-4	베	마흔자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삼백평
 208016 못 못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동
 208019-1 보달
 208020 조짐 바리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열두못
208021-2	조(이삭 있음)	은 못
208021-3	콩	은 못
208021-4	밭벼	열두못
208021-5	꼰	마흔못
208021-6	띠	은 못
208021-7	각단	열두못
208021-8	어욱	은 못

208022 모금 모금
 208023 섬 섬
 208023-1 열단말

208024	덩이	덩어리
208025	포기	포기
208026	그루	그르
208027	돌이(양태)	돌이
208028	마리	머리
208028-1	두[頭]	머리
208028-2		머리
208029	축	축
208030	웨미	웨미
208031	쌍(돼지)	흔 자리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봉분
208034	컬레(신)	배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못	못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살이
209002	아이서다	아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승할망
209004	깃저고리	벧저고리
209005	배넛머리	배속머리
209006	돌	돌
209007	새 색시	새 각씨
209008	새 신랑	새 시방
209009	가마	가메
209010	시집가다	씨집간다
209011	시집보내다	씨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개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개보내다
209014	함	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고진상
209018	휘다[樣]	휘어지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안사둔
209021-2	바깥사돈	바깥사둔
209022	겹사돈	겹사둔
209023	상갓집	영장칩
209024	수의	저승옷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주상
209028	맡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왕대
209031-2		머귀낭
209032	짚동	찍동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고렘가다
209035	뒹자리	산터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쇠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예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제
209042	상두꾼	상뒤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밭
209045	광중	개광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충	소피
209048	무덤	봉분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봉분 멩글다
209053	마치다[終]	므치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제월제
209056	고충	골충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갯집
209059	편틀	쟁반
209060	퇴물	퇴물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개영
209063	제육	지숙
209064	제편	침떡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젤벤
209067	웃기떡	고달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태우다
209070	몫	적시
209071	면례(緬禮)	철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정월멩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멩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금줄
209077	매다[結]	멘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멜장귀
209080	꽝과리	꽝메기
209081	영등 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살찜
209085	추석	추석멥질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엑막이
210004	당	할망디
210005	무격	신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당
210008	명두	멥두
210009	추다[蹺]	추다
210010	소지(燒紙)	지전
210011	사르다[燒]	태운다
210012	살(煞)	쌀
210013	삼살방(三煞方)	쌀방
210014	도깨비	도깨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깨비
210016	허깨비	허깨비, 도채비
210017	어둑서니	헛개
210018	무섭다	으시시 헛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코서
210021	고수레	코시레
210022	포제	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엿불
211004	붙다[點火]	부찌다

211005	내[川]	내
211006	넋가	넋바우
211007	물가	물바우
211008	따르다[從]	따르다
211009	건너다[渡]	넘다
211010	낭떠러지	기정
211011	다리[橋]	느리
211012	가깝다[近]	보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자왈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벌
211015	돌무더기	жат
211016	갈림길	거림찢
211017	묻다[問]	들어보다
211018	비탈길	언덕질
211019	벼랑길	고랑질
211020	내리막길	내리막질
211021	오르막길	오르막질
211022	길가	질이엄
211023	큰길	한질
211024	분화구	불칸고냥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굴렁지
211028	산바람	산브름
211029	산꼬대	노룻
211030	상고대	서리
211031	구렁	굴렁땅
211032	고랑창	골챙이
211033	건너가다	넘어가다
211034	넘어지다	엎어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물웅텅이
211037	숲	곶
211038	성(城)	성땀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바당곳디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바당븍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복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왓
211048	자갈	작지
211049	갯가	바당꼇
211050	펼	펼왓
211051	먼바다	한바당,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돏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들리다
211055	너울	눌
211056	굼뉘	큰절
211057	물결	절고개
211058	잔물결	즌절
211059	무수기	물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10, 25
211059-2	두무날	두물	11, 26
211059-3	서무날	시물	12, 27
211059-4	너무날	니물	13, 28
211059-5	다섯무날	단물	14, 29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보름, 그믐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16, 1
211059-8	여덟무날	으덟물	17, 2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18, 3
211059-10	열무날	열물	19, 4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20, 5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21, 6
211059-13	(열서무날)	조금	22, 7
211059-14	아끈채기	반채기	23, 8
211059-15	채기	한조금	24, 9
211059-16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써다	물싸다
211065	썰물	물 싹썰

시후

211066	오늘	오닐
211067	내일	닐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닐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글피아시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그저께
211075	새벽[曉]	새백이
211076	꼭두새벽	동새백이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빛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즈낙
211082	저녁거리	즈낙꺼리
211083	초저녁	초저낙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퍼렁흐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베리내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들갓
211095	초승달	초승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그믐들
211098	햇무리	해갓
211099	무지개	상고지
211100	쌍무지개	쌍상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으름
211103	가을	ㄱ을
211104	겨울	저슬
211105	입춘	입춘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흐를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믐

211110-1	하루	초흘
211110-2	이틀	초이틀
211110-3	사흘	초사흘
211110-4	나흘	초나흘
211110-5	닷새	초닷새
211110-6	엿새	초엿새
211110-7	이레	초일뤼
211110-8	여드레	초으드레
211110-9	아흐레	초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닷새	너닷새
211113	대엿새	대엿새
211114	지나다[過]	넘어가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즈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들
211119	선달	선들
211120	올해	올리
211121	내년	새해
211122	내후년	내후년
211123	작년	묵은해
211124	재작년	그르해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쌀
211127	따스하다	뜨시다
211128	땡별	불벧
211129	가을별	ㄱ슬벧
211130	양지받이	벧 발른 디
211131	아지랑이	아지랭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캐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븃름
211137-1	바람위	븃름발라
211137-2	바람아래	븃름알
211138	맞바람	맞븃름
211139	바람받이	븃름 발라
211140	바람살	븃름쌀
211141	회오리바람	돛쟁이주제
211142	동풍	셋븃름
211143	남풍	마팍름
211144	서풍	셋하너
211145	북풍	하너븃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고래장비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이른장마
211149-2	가을장마	ㄱ실장마
211150	곰팡이	곰생이
211151	소나기	췌네기
211152	여우비	주제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헛다
211156	도롱이	도롱이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븃름
211161	안개	으남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험벅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쓰레기눈
211170	도둑눈	도둑눈
211171	내리다[降]	오다
211172	희다	하얗ㅎ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리다
211179	곱다	실럽다
211180	진눈깨비	주제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옆뎡이
211185	옆	이옆
211186	위	우이
211187	아래	아래
211188	밝다[明]	붉다
211189	어둡다[暗]	어둡다
211190	왼쪽	왼짜
211191	오른쪽	노단짜
211192	밀	굽
211193	흐르다[流]	느리다
211194	안[內]	안내
211195	밖	배꼇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
211198	가[邊]	곳
211199	가장자리	이염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구짜ㅎ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담 다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부룅이
212005	췌소	속췌
212006	불까다	불치다
212007	불알	붕알
212008	황소	황부룅이
212009	얼룩소	어럭췌
212010	부리망	그물망
212011	쇠고삐	췌석
212012	끌다	둥이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멤췌, 뽕작췌
212015-1	하릅~열릅	

		소	말
212015-1	하릅(1)	금승	금승뽕쟁이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이수뽕쟁이
212105-3	사릅(3)	사릅	삼수뽕쟁이
212015-4	나릅(4)	나릅	스수뽕쟁이
212015-5	다듭(5)	다듭	오수뽕쟁이
212015-6	여듭(6)	으듭	육수
212015-7	이릅(7)	일곱살	칠수
212015-8	여듭(8)	으답살	팔수
212015-9	아듭/구릅(9)	아홉살	구수
212015-10	열릅/담불(10)	열살	열수

212016	작두	작뒤
212017	쇠죽	췌것
212018	구유	췌도고리
212019	말[馬]	뽕
212020	살지다	슬지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조매
212023	수말	움매
212024	망아지	몽 생이
212025	가라말	가래물
212026	청충마/충이말	청충매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대물
212028	얼룩말	얼룩물
212029	유마	유매
212030	백마	백매물
212031	고라말	고래물
212032	곰배말	곰배물
212033	조랑말	조랑물
212034	달리다[走]	든다
212035	마소	막쉬
212036	글경이	글쟁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물석
212039	당기다	둥이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주꾸다
212043	쓰다[用]	헛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비루
212048	비루먹다	도랭이 일다
212049	고양이	고냉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냉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냉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냉이
212053	살쥬이	식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떨떠구니	떨토쟁이

212058	산떡	산떡
212059	닭의어리	텅에
212060	닭장	득망
212061	달걀	득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랑알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빙아리	빙애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숫도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헛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숨씨	일숨씨
212072	생둥이	일 서툰 사름
212073	새끼 돼지	자릿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돛통시
212075	돼지고기	돛퀘기
212076	적	젓갈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판매집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스렁이
212081-1	둘암소	지스렁이암췌
212081-2	둘암말	지스렁몰
212081-3	둘암돼지	지스렁암도새기
212081-4	둘암캐	지스렁암캐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오리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푼리
212086	취	취

212087	쉬슬다	쉬싸다
212088	가시	장버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국다귀
212096	장구벌레	장글레비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蠹]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훅이	챙빃, 쉬챙빃
212101	지렁이	개우리
212102	회충	회충
212103	거머리	거덜
212104	바구미	물방개
212105	콩바구미	콩방개
212107	땅강아지	땅강생이
212108	그리마	검수애기, 거머리
212109	쥐며느리	중이
212110	노래기	구두애기, 구래기
212111	지네	지냉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쉬 하영 일엇찌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덜뱅이
212117	민달팽이	집어신들뱅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개염지
212120	왕개미	물개염지
212121	불개미	붉은개염지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심방말축

212124	여치	말죽
212125	사마귀[螳螂]	국췌기
212126	귀뚜라미	귀뚜라미
212127	풍뎡이	두메기
212128	장수풍뎡이	하늘췌
212129	무당벌레	심방말죽
212130	쇠똥구리	두메기
212131	딱정벌레	땅벌레
212132	집게벌레	줍제기
212133	하늘소	하늘췌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날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밥주리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밥주리
212141	장수잠자리	왕밥주리
212141-1		줄밥주리
212142	매미	재열
212143	매미허물	본데기, 재열봇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열
212145	쓰르라미	조재열
212145-1		
212146	소금쟁이	소금바치
212147	방개	붕개
212148	반딧불이	불한당, 불난지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꿀벌
212151	꿀	청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사당벌
212154	붓다[腫]	부스다
212155	진드기	부구리
212155-1		진독
212155-2		부구리
212156	송충이	소낭버렁이, 송충이

212157	개구리	골개비
212158	올챙이	멘주기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태비
212161	뱀	배엄
212161-1	뱀띠	배엄헤치
212161-2	뱀허물	배엿허물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헤치
212163	도마뱀	독다구리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패기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췌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갸다	췌물다
212173	쥐구멍	중이고냥
212174	박쥐	박쥐
212175	다람쥐	도람쥐
212176	오소리	지다리, 오로
212176-1		지다리고냥, 오로고냥
212177	지달(이)	지다리
212178	지달피	지다리가죽
212179	멧돼지	산도새기
212180	원숭이	원숭이
212181	원숭이띠	존나비띠, 원숭이헤치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헤치
212184	꼬리	꿀랭이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	------	----

212186	꿩지	꿩랭이
212187	깃[羽]	터럭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생이가슴
212190	참새	참생이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생이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소로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냐귀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빼꾸기	버꼭이
212200	종달새	하늘새
212201	올빼미	오뺨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독새기
212206	꺼병이	꿩빙애기
212207	두루미	두루미
212208	기러기	기러기
212209	갈매기	굴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등	거드레기
212212	명주고등	지름보말
212213	눈알고등	남뎡이보말
212214	밤고등	먹보말
212215	팽이고등	수두리
212216	각시고등	ㄱ메기
212217	두드럭고등	메옹이
212218	대수리	마타살
212219	타래고등	가마귀보말
212220	대롱뿔고등	웬보말

212221	제주개오지	절방귀
212222	애기삿갓조개	춤배말
212223	거북손	배채기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쇠군벗, 무랑군벗
212226	진주담치	가막부리
212227	소라	구쟁이
212227-1		족구쟁이, 쓸구쟁이, 민둥구쟁이
212228	전복	조쟁이
212228-1		암초쟁이
212228-2		숫조쟁이
212229	전복갑	조쟁이껍데기
212230	오분자기	오분작
212231	게	강이
212232	바위게	지름강이
212233	부채게	돌갱이
212234	엽낭게	득룡강이
212235	참게	춤강이
212236	꽃게	몸킹이
212237	소라게	거드레기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아강발
212240	갯강구	밥게
212241	말미잘	물미주얼
212242	성게	구살
212243	말뚝성게	숨
212244	군소	굴멍이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물방석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득발방석
212248	해파리	물이슬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소치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당궤기
212255	맑다[淸]	몹다
212256	흐리다[濁]	어두운 물
212257	잘다[細]	족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배칸다
212261	생선(生鮮)	늘궤기
212262	미끼	니궤
212263	갯지렁이	개수리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춤대
212266	만들다[造]	맹글다
212267	낙싯줄	궤기술
212268	붕돌	뽕돌
212269	참대	춤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풍선
212273	지느러미	옆늘개
212274	아가미	아개미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존멜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풀갈치
212279	베도라치	베들레기
212280	말뚝망둑어	죇벨레기
212281	별망둑	덤불치
212282	매통이	애여리
212283	고생놀래기	코생이
212284	용치놀래기	술맹이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썰어렁이
212287	옥돔	오토미
212288	흑돔	검은돔
212289	돌돔	돛돔
212290	감성돔	감성돔

212291	벵에돔	벵에돔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흰조기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어
212299-1		*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귀치	객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볼락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솔치
212307	독가시치	따치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재방어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우금상의
212312	개상어	즌다니
212313	괭이상어	도랭이
212314	귀상어	뿔상어
212315	돌묵상어	모도리
212316	수염상어	비깨
212317	두툽상어	비근다리
212318	별상어	벨상의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돌고래
212321	귀돔	벳돔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무낭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고랏
213002	갈대	갈대
213003	억새	어욱
213004	새품	어욱고장
213005	화승(火繩)	왓불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질차다
213009	빨기	빨이
213010	사초	상고지
213011	천일사초	자오락
213012	김의털	췌터럭
213013	쇠무릎	돌모작쿨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붉은제완지
213016	조개풀	북덕제완지
213017	방동사니	산뒤제완지
213018	마디풀	모작쿨
213019	솔새	소세
213020	개솔새	물지장
213021	뜯새풀	쑥쿨
213022	팽이밥	생이풀
213023	원추리	ㄱ시락쿨
213024	메꽃	마마
213025	갯메꽃	개꽃낭
213026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췌비눔
213028	개비름	개비눔
213029	참비름	참비눔
213030	땅빈대	고름쿨
213031	애기땅빈대	아진감낭
213032	평의밥	평밥
213033	여우구슬	독쿨
213034	질경이	베채기

213035	쑥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쑥떡	속떡
213038	토끼풀	돛수앵이
213039	개자리	개자리쿨
213040	냉이	난쟁이
213041	방울새풀	개삼동
213042	무릇	물릇
213043	여뀌	옛뀌
213044	오이풀	오나릿불희
213045	영경귀	소아니
213046	췌기풀	췌와기
213047	수크령	글리역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진풀
213050	병풀	함박풀
213051	깨풀	복쿨
213052	박조가리나물	진풀
213053	파리	폰철귀
213054	땅파리	밀폰철귀
213055	피막이풀	빈네
213056	도깨비바늘	가마귀바농
213057	도꼬마리	조부레기
213058	모시풀	모시쿨
213059	왕모시풀	진낭
213060	천남성	천상쿨
213061	맥문동	맥문동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브깨기
213064	차풀	자골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개삼동
213067	하늘타리	하늘웨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하늘웨기
213069	부처손	폰채순이
213070	방가지뚱	돛수웨
213071	닭의장풀	고네할미

213072	배풍등	소나쿨
213073	취	취
213074	취덩굴	취덤벌
213075	취뿌리	취빨리
213076	댕댕이덩굴	정동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생이족박
213079	호자덩굴	실ㄴ작쿨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
213081	함바기	고냉이정동
213082	담쟁이	담쟁이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인동
213085	멀꿀	멍줄
213086	천문동	천문동
213087	계요등	떡정동
213088	사위질빵	사질빵
213089	등대풀	등디쿨
213090	수영(승아)	생케
213091	애기수영	애기쿨
213092	싸리	싸리풀
213093	땀싸리	비차락낭
213094	명아주	제쿨
213095	갯	갯ㄴ물
213096	달래	평마농
213097	썸바귀	*
213098	고들빼기	ㄴ새ㄴ물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물너울
213101	꿀풀	쉐스랑꽃
213102	마삭줄	마삭줄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구리대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익모초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신사라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반추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칠비
213113	개구리밥	물웃
213114	줄	게에기
213115	마름	돌망쉬
213116	싱경이	늦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고장봉오리
213119	채송화	땅꽃
213120	민들레	고름풀
213121	봉선화	봉숭아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마농고장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할망꽃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도체비고장
213127	맨드라미	독고달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들레꽃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쭉부쟁이	드룻국화
213133	수국	사발꽃
213134	산수국	도체비고장
213135	광대나물	베염고장
213136	제비꽃	제비고장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돌마농꽃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개반초

나무

213141	뿌리	뽕리
--------	----	----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줄기
213144	가지	가쟁이
213145	잎	썸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흐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썸
213151	솔가리	솔썸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땨감	지들커
213154	마디다	안부뜨다
213155	갈퀴	글쟁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돛박낭
213160	붉다[赤]	벌경흐다
213161	멀구슬나무	머쿠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웨가시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옴나무	옴낭
213167	삼나무	숙데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벗낭
213170	왕벗나무	왕벗낭
213171	사옥	사옥이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노가리
213174	종려나무	남총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노리낭
213176	비목나무	배염부기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굴거리낭

213179	생달나무	사다기낭
213180	굴나무	굴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유지낭
213184	비자나무	비즈낭
213185	치자나무	치지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롱낭
213189	배롱나무	백일홍
213190	감탕나무	개만낭
213191	거망웃나무	개웃낭
213192	팡팡나무	팡낭
213193	노린재나무	제낭
213194	때죽나무	종낭
213195	마가목	마깨낭
213196	말채나무	말마깨낭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굽낭
213199	향나무	상낭
213200	웃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ㅁ디목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개똥낭
213206	무환자나무	모개낭
213207	귀똥나무	개팡낭
213208	섬귀똥나무	가시릉낭
213209	이팝나무	뽕낭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개가시낭
213212	종가시나무	버레낭
213213	호랑가시나무	호랭이가시낭
213214	돌가시나무	돌캥낭
213215	제주가시나무	주레비낭

213216	꾸지뽕나무	구까시낭
213217	덜꿩나무	얼루레비낭
213218	사스레피나무	피풍낭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좀머귀나무	논독낭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물오줌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물하레비낭
213224	예덕나무	다간죽낭
213225	참식나무	신낭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럼비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썰거리낭
213229	굴피나무	굴낭
213230	후박나무	반두어리
213231	풍개나무	검복낭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박달낭
213234	떡갈나무	츠낭
213235	상수리나무	가시낭
213236	참나무	츄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췌피낭
213239	국수나무	생이독낭
213240	사철나무	스철낭
213241	겨우살이	저슬살이
213242	모람	모람
213243	누리장나무	개똥낭
213244	아왜나무	아왜낭
213245	순비기나무	순부기낭
213246	붉나무	북낭
213247	협죽도	협죽도
213248	담팔수	담팔수

열매

213249	과일	을음
213250	껍질	거죽

213251	깎다	베끼다
213252	벗기다	베끼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베염탈
213255	멍석딸기	보리탈
213256	복분자딸기	거문한탈
213257	줄딸기	게염지탈
213258	산딸기	한탈
213259	가시딸기	가시탈
213260	검은딸기	검은탈
213261	장딸기	감티탈
213262	개암	개즈밤
213263	머루	멀리
213264	개머루	갯멀리
213265	까마귀머루	가메기멀뤼
213266	산머루	산멀위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르미
213270	다래	드래
213271	개다래	개드래
213272	보리수나무	볼래낭
213273	보리수	풋볼래
213274	보리장나무	꼬리볼래낭
213275	앵두나무	애영뒤낭
213276	앵두	애영뒤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실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개탕지
213282	탱자나무	개탕지낭
213283	감	감
213284	떨다[柿]	초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실감
213287	풋감	선감

213288	청미래덩굴	벨레기낭
213289	맹감	벨레기
213290	찔레나무	도꼬리낭
213291	영실	영실
213292	사과나무	능금낭
213293	사과	능금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돌배낭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즈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밤껍데기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개낭
213303	복숭아	복숭개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줄갱이, 유름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믄큰메역
213310	미역쇠	미역쉐
213311	김	짐
213312	파래	파래
213313	툇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충이	지충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감태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몐
213321	청각	청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뭇가시리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서슬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놀음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시리